

제 1 부

연구결과 활용에 관하여

아동에 관한 의사결정을 위하여 점차 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요청되고 있다. 자녀양육에 대한 부모의 책임과 가족 외의 기관의 책임을 구분하는 선은 오랜 세월이 흐르는 동안 점점 달라지고 있다. 종래에는 전적으로 가족 내에서 결정 하던 것이 점점 타인이 하게끔 되어가고 있다. 여기서의 결정이란 아동의 복지, 건강, 교육, 도덕적 훈련, 심지어 (어떤 환경에서) 어디서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누가 돌보아야 하는지에 관한 것들을 말한다. 이미 진부하게 논의된 문제인 ‘아동학대’—이는 가족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되고 과거에서보다 심하지는 않지만 현재에도 여전히 보편화되어 있는 문제이다—에 대하여 생각해보자 (de Mause, 1974). 달라진 것은, 전에는 단순히 가정 문제로만 생각하였던 영역에 대하여 사회가 점점 더 강하게 간섭하고 책임을 느끼게 되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고대 로마에서는 아동들을 아버지의 소유물로 간주하였으며, 그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었고, 아이를 학대하거나 상처를 입히거나 아이에 관한 모든 문제를 아버지에게 전적으로 맡겨두었다. 이제 이런 상황은 더 이상 용납되지 않는다. 아동의 운명이 부모의 손에서만 독점적으로 운용될 수는 없다. 이제 사회는 아동의 복지에 책임을 느끼고 복지에 심각한 위협을 당하고 있다고 판단된다면 가정 문제에까지 기꺼이 개입할 준비가 되어 있다.

부모의 책임이 사회의 책임으로 얼마만큼 이동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지만, 여기서는 다루지 않겠다. 우리의 관심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냐 하는 당위의 문제에 있지 않고 현재의 상황 그 자체에 있다. 따라서 아동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가정에서 아동을 격리시키는 문제, 한 쪽 부모에게만 보호할 권리를 주는 문제, 아동의 입양 혹은 위탁양육의 문제, 개개의 아동 양육 실제 및 환경에 관한 선택 문제 등에 관한 결정—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요청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이들이 내

린 결정은 관련된 아동과 그의 가족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의사결정하는 사람들의 책임은 두려울 정도로 큰 것이다.

의사결정(decision-making)의 근거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는 개개의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각 요인들을 밝혀내고자 할때 우리는 곧 매우 복잡하고 애매하고, 비이성적인 과정이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의사결정은 사려깊고, 합리적이고, 세심한 방법으로 이행되어야 하며 그렇게 해야만이 인간 본성에 대한 우리의 보편적인 지식이 개별적인 사건의 요건과 특성에 맞게 체계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하나하나의 결정을 내리는 과정이 항상 합리적이고 신중한 사고과정을 거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결정과정에는 그 당시 유행되고 있는 도덕적 풍조, 가치, 인습 그리고 학설, 의사결정자의 심리적 특성, 그들 자신의 개인사, 여러가지 정치적 이념적 고려, 행정적·재정적 압력 등이 개입된다. 이러한 요인들이 의사를 결정 하게 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들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어서 취해진 결정에 대한 현실적인 근거를 명백히 밝힐 수는 없게 된다.

하나의 예로서 이혼하는 경우에 자주 거론되는 매우 어려운 문제인 자녀양육에 대하여 생각해 보자. 아주 최근까지도 불륜의 부모는 아동 양육을 책임지기에 부적합하며, 그런 사람은 자신의 부도덕한 행위로 인해 아동에게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쉬우므로 자녀 양육을 금하는 것이 아동의 권익을 최대한으로 보장해 주는 길이라고 여겨 왔다. 이처럼 자녀양육에 관한 결정은 주로 부모의 불륜에 근거하여 이루어 졌다. —이는 아동과 부모와의 사실상의 관계를 무시한채 단지 ‘올바른’ 환경에 대한 도덕적 기준만을

고려한 것이다. 이제 이런 상황은 더 이상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불륜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변화하였으며, 부모의 능력을 결혼 여부에 의해 판단하지도 않는다. 비합리적이고 증거가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사결정과정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또 다른 신념들이 있다. 아버지는 그렇지 않은데 어머니는 ‘타고난’ 부모라는 것과, 보편적으로 어머니가 아동 양육에 더 적합한 사람이라는 등의 신념이 바로 그것이다. 이같은 신념들로 인해 부모역할의 성격에 관한 경험적인 지식은 의사 결정에 거의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대신, 여러가지 선입관이 지침이 되고, 특정한 사례들의 요구조건들을 무시하게 된다.

때때로 결정된 사항은 양식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순응할 것이라는 암시를 하면서 ‘상식의 문제’로 정당화된다. 그러나 상식이 행동의 지침이 되는 것은 경계되어야 한다. 그것은 가끔 애매하고 근거없는 것으로 밝혀지곤 한다. 상식은 단지 개인적인 의견이나 신조 (단순히 ‘자명하다’는 것만으로 정당화되기 때문에 도전하거나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포괄적이고 분석할 수 없는 것)에 불과하다. 특히 아동 양육은 상식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식의 사고로 인해 아동 양육에 대한 완전히 다른 양육 실재와 상호 모순된 철학이 생기게 된다. 아동을 위해서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른지에 대하여 서로 반대되는 신념을 가지게 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며 시대마다 상당히 다른 의견이 존재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Hardymont, 1983 ; Kessen, 1965). 양육 방식에는 분명히 유행하는 방식이 있다. 허용적인 분위기가 강조되는지 혹은 엄격한 분위기가 강조되는지, 어린 아동의 어머니는 집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지 혹은 직장에 나가야 하는지, 부득이한 경우라면 아동을 가정에서 격리시켜야 옳은 것인지, 혹은 어떤 희생을 치루더라도 친 부모와 함께 지내도록 하여야 하는 것인지, 아버지도 어머

니와 같이 아동 양육에 동일한 능력을 갖고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지 등등. 각 입장은 나름대로 이유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이들간의 논란은 무모한 확신에 의해서만 이루어져 왔다. 경험적인 증거에 근거한 설득, 특히 과학적 연구에 의해 입증된 결과들을 토대로 한 논의는 찾아볼 수 없다.

인간발달의 특성과 조건에 관한 지식의 근거라고 말할 수 있는 단순한 의견과 연구를 구별해 보자. 한 가지는 주로 주관적인 요인들(개인적 경험, 신념, 가설, 선입관)에 근거하여 결론에 도달한다. 또 한 가지는 객관적인 절차에 의해 수행되고 체계적인 실험을 거친 연구를 토대로 하여 결론에 도달한다. 특히 이러한 구분은 전문가의 충고를 평가할 때 -Spock박사의 연구처럼 부모와 전문적인 연구자들의 실제에 심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권위있는 충고-같이 명심해 둘 가치가 있다. 물론 우리는 권위적인 연구에 어느 정도는 의존해야 한다. 그리고 그들의 역할은 이미 훌륭하게 확립된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학자들의 생각을 단순히 당연시하는 것보다 그들의 지식의 근거를 면밀히 검토해 보는 것이다. 그러면 그들의 연구결과가 종종 개인적인 의견의 짜집기, 추측, 습관, 임상사례 연구, 그리고 자신의 자녀 양육경험 등과 같은 확실치 않은 근거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음이 밝혀진다. 때로는 빈틈없고 도움이 될 만한 충고가 있다는 것도 의심할 수 없는 사실이다. 또한 동시에 환상에 가까운 면이 있다는 것도 의심할 수 없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부모는 아동학대라고 불릴 정도의 신체적 벌을 자신의 아이들에게 가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정해야 한다고 변론하거나, 전혀 경험적인 증거는 제시하지 않고 학대와 벌 사이의 구분은 명확한 것이라고 확신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로써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이다. 아동에 관한 행위에는 더욱 확고한 근거가 필요하다.

‘아동에게 가장 유익한’ 방향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단순히 말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 말은 모든 종류의 의사결정을 정당화시키기 위해 가장 쓸모없이 남용되는 귀결 중의 하나이다 (Goldstein et al, 1973). 한편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말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실제로 아동들에게 가장 유익한 것은 무엇이나 라는 질문에는 매우 애매할 뿐이다. 부모는 갈등을 감수하면서 까지 자녀와 함께 살아야 하는가 혹은 아동들을 위해 떨어져 사는 것이 더 바람직한가? 어머니는 집에 남아 있어야 하는가 혹은 직장에 나가도 좋은가? 어느 쪽이 더 바람직하다고 하든 간에 각 답은 아동에게 가장 유익한 것이라고 정당화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신념이나 의견에 근거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모든 경우에 필요한 것은 가능한 한 선입관과 편견이 배제된 절차로 수행된 경험적 연구에 기초한 더욱 현명한 분석이다. 이혼, 일하는 어머니, 그리고 체벌 등에 관한 과제들에 대하여 우리의 전문적인 능력을 발휘하여 (각자의 사건이 어떤 것이든 간에) 단순히 사건에 근거한 의사결정을 해서는 안될 것이다. 더욱 신뢰롭고 확실한 행동지침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축적되고 있는 아동과 그의 가족에 관한 연구들에서 얻어진 지식을 토대로 하여야 할 것이다.

연구의 특성

아동발달과 가족생활에 관한 객관적인 연구들이 실무자들에게 합리적인 정보원으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은 아주 최근의 일이다. 그러나 실무자들이 이것들을 잘 활용하려면 어떤 연구결과들이 있으며 이들은 어떻게 얻어진 결과들인지에 대하여 반드시 알아야 한다. 따라서 연구결과의 장점과 제한점을 고려한 연구의 특성에 대

하여 몇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장점부터 생각해 보자. 연구과정이 경험적, 체계적, 통계적, 수량적, 보편적으로 기술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이러한 각 특성을 부연 설명해 보면:

○ 경험적이다

결론은 관련된 현상에 대한 직접적인 관찰에 근거하고 있다. 결론은 예감이나 탁상공론에 의한 이론화 혹은 자명하다는 단순한 가정에서 추론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증명가능한 경험에서 추론된 것이다.

○ 체계적이다

연구 과정의 하나하나가 상세히 설명된 명백한 계획에 따라 자료가 수집된다. 연구에 참여하는 모든 연구자들은 연구계획을 엄격히 고수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자료수집 방법에 개인적인 의견이나 성향이 개입되지 않는다.

○ 통계적이다

연구는 연구결과에 대한 하나의 설명만이 가능하고 그외의 모든 설명은 배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계된다. 피험자와 연구자 측의 기대의 영향을 배제하는 이중맹검(double-blind)절차 등의 여러가지 특수한 방법을 채택한다. 피험자가 특수한 조건(즉 부모의 이혼, 입원 경험, 혹은 탁아)에 노출된 통제집단을 실험조건 외의 모든 측면에서는 최대한 유사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한다.

○ 수량화되어 있다

많은 경우에 기술적인 특성의 자료가 유용하다 할지라도 사회과

학 분야에서 연구결과를 숫자로 나타내는 것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수량화한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집단이나 조건간에 통계적 비교를 가능케 하고 정말로 차이가 있는지 즉 이미 진술된 몇몇의 증거에 비추어 어떤 것이 다른 것보다 더 좋든지 혹은 더 효율적인지에 대하여 결정을 내리는데 신뢰로운 측정자료를 제공하게 할 것이다.

○ 보편성이 있다

연구과제를 구성하는 모든 부분 즉 연구결과나 방법은 다른 사람이 면밀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야 한다. 이런 특성 때문에 연구는 비판적으로 평가될 수 있고 다른 연구자들에 의해 재현될 수 있다. 만약 한 연구에서 사용된 방법을 그대로 사용했는데도 불구하고 동일한 결과가 재현되지 않는다면 기술된 연구과정에서 왜 동일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이유가 밝혀져야 한다.

이상이 ‘객관적’인 연구과정의 특성들의 장점들이다 (더욱 상세한 논의를 위해서는 Grosos and Sardy, 1985; Kerlinger, 1986 을 참고 하시오).

즉 특정한 문제를 동일한 연구절차에 의해 연구하는 모든 연구자들은 동일한 결과를 얻게 될 것이며, 이러한 연구 결과는 각 개인의 가치, 신념 및 가정에 의해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을 것이다. 결론에 도달하는 방법으로서 예감, 추측 및 직관 등의 ‘주관적’ 절차와는 달리 주관적 절차를 배제하도록 면밀하게 설계된 연구계획으로 이루어진 조사방법들이 많이 있다. 부연설명하면, 주관적 방법은 어떤 특정한 결론에 도달하는데 연구자가 사용하였던 방법에 대한 상세하고도 명백한 기술을 밝힐 수 없다. 연구에서 물론 육

감, 추측 그리고 직관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어떤 현상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시도하는 처음 단계에서는 특히 그러하다. 처음 시도에서는 ‘추측에 의한’ ‘~에 대하여 ~라고 ~껴지는’ 주요 문제가 정당화될 수도 있고 정말로 중요한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런 추측에 의한 가정은 단지 하나의 전조에 불과하며, 위에 열거한 특성들을 갖춘 형식화된 연구절차에 의해 발전되어야 한다. 도출된 결론의 근거가 무엇인지 추적해 볼 수 있고 필요하면 그러한 결론에 도전해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쯤에서 이상에서 언급한 내용은 다만 연구의 이상적인 측면만을 제시하고 있음을 밝혀 두는 바이다. 이하에서는 연구과정의 제한점에 대하여 열거할 것이다. 먼저 연구에는 훌륭한 연구가 있고 그렇지 못한 연구가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인쇄되어 발간된 모든 연구가 믿을만한 것들은 아니다. 모든 연구가 지켜야 할 매우 중요한 내용으로는 1)표집의 대표성 2)자료수집절차의 적합성 3)연구 결과를 분석하는데 사용된 절차의 적절성 4)결과와 그에 따른 해석의 적합성이 있다. 완전한 연구란 없으므로 반복적인 연구는 언제나 바람직하다. 다른 연구자들에 의해서도 동일한 결과가 도출되어야만 믿을 수 있는 연구가 된다는 말은 과장일지 모르지만 반복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연구를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상대적으로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조건들이 연구를 더디게 만드는 조건들이다—이는 문제에 신속하게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기를 원하는 실무자들에게 답답함을 더해주는 것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불가피한 것이다. 연구란 본디 서서히 진행되는 과정이다. 최소한 사회과학분야에서는 각각의 연구가 전체 문제의 아주 미세한 부분만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특히 그러하다. 예를 들어, 어머니의 취업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그 자체가 매우 광범위한 연구과제를 다루고 있는 것

이다. 왜냐 하면 매우 광범위한 조건들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 즉 아동의 나이, 어머니가 집을 비우는 시간, 아동의 이전의 타아 경험, 대리 보모의 성격 등이 그것이다. 실제로 특정문제를 연구하는 과정에서는 이전에 예기치 못했던 요인들에 의해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 (어머니의 취업의 경우 어머니의 역할 만족도, 일에 대한 동기, 아동의 성 등의 요인들에 비추어 볼 때 일어나는 것처럼)와 연구설계에 포함되지 않은 영향들이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 때문에 후속 연구가 필요한 것이다. 어떤 연구든 각 연구는 연구 절차로 채택된 방법 그 자체에 의해 제한을 받는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중요한 문제점은 도출된 결과는 실제 현상을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 결과를 도출해 내기 위해 사용된 도구의 성격에 의해 다르게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는 자기 보고 양식의 질문지법을 사용하고 다른 하나는 관찰법을 사용했을 때, 두 연구는 각각의 자료수집방법의 영향을 받아 서로 모순된 결론에 도달하는 경우도 있다. 연구의 역사가 채현할 수 없는 연구결과들로 뒤범벅이 되어 있다는 사실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다.

또 하나의 제한점도 역시 알고 있어야 한다. 연구결과는 특정한 장소 특정한 시대에만 적용된다. 어느 한 시대 혹은 어느 한 지역에 적용되는 연구결과는 다른 시대 혹은 다른 지역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이다. 캘리포니아에서 수행된 연구의 결론이 스코틀랜드에 꼭 알맞게 적용되지는 않는다. 1930년대에 수행되었던 연구가 50년 후의 상황에 적합하지는 않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어떤 연구든 방향이나 시사점을 주겠지만 그 연구결과는 장소나 시대상황에 알맞게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 점이 특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얻어진 결과들이란 연구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정한 이념적, 도덕적, 정치적 상황 하에서 이루어진 연구에서 나온 것임을 명심해야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부모의 이혼이 아동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생각해 보자. 이 연구주제와 관련된 초기 연구들은 이혼을 사회적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시대에 수행되었다. 그러므로 결론에는 그러한 사건의 경험이 아동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일반적인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연구자는 병리현상만을 탐구하게 되기 때문에, 그들의 조사기록이나 질문지가 불안, 공격, 성역할 발달의 저해, 그리고 퇴행적 행동 등의 증후들만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다. 또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가능성은 전적으로 배제되었다. 많은 나라들에서 이혼이 좀 더 흔한 일이 되고 수용될 수 있는 오늘에 이르러서야 연구자들은 어떤 병리적 결과가 있다 할지라도 긍정적인 결과(긴장에 대한 인내심의 증가, 독립심의 증강 등)도 있으며, 이에 따른 연구도 계속되어야 한다고 기꺼이 결론 맺고 있다.

이와 같이 연구는 가치판단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 실제로 연구의 객관성은 상대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연구자가 연구과제를 선택하는 과정을 살펴보자. 인간본성 그 자체를 연구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설계계획에 따라 논리적인 방법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유행되고 있는 특정한 연구주제를 선택함으로써 실제로는 더욱 절박할 수도 있는 기타의 문제들은 무시해버리는 '시류에 편승하는' 경우가 많다. 사회과학연구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이러한 동요는 인간본성을 구성하는 것은 무엇이며, 그 시대에 사회가 관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매우 주관적인 신념에 반영된다(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 프로이드가 이 시대에 살고 있다면 성이 아니라 돈에 대하여 집필하였을 것이다). 자료수집방법의 선택 또한 유행에 따르기 쉽고 항상 합리적인 사고에 의해 판단될 수는 없다. 이처럼 고도로 통제된 실험실 상황에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하느냐, 혹은 질적이

고 비체계적인 자료를 다루는 방법에 의존하느냐 하는 것은 연구접근방법의 본질적인 특성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시대에 유행하는 인간본성에 대한 개념이 인간주의적인가 혹은 유물론적인가 그리고 연구자 개인이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달려있다.

몇 가지 제한점

단순히 연구의 장점만 서술한 채 여기에서 논의를 끝낸다면 실무자들과 그 밖의 연구물 이용자들에게 비현실적인 기대와 환상만 주게 될 것이다. 이미 우리는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것처럼 연구가 절대적으로 객관적이진 못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그 외의 또 다른 보다 세분화된 제한점들이 있다.

한 가지 지적해두어야 할 것은 연구에 의해 해결되지 못하는 몇 가지 질문들이 항상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나쁜 어머니라도 있는 것이 더 좋은가, 아니면 전혀 없는 것이 더 좋은가?’와 같은 질문을 생각해 보자. 설령 우리가 ‘나쁜’ 어머니에 대한 의견의 일치를 보고 또한 양쪽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비교가능한 예를 들 수 있다 하더라도 연구자는 두 가지 상황의 결과에 해당되는 사실들만을 수집할 수 있다. ‘더 좋은’ 것에 대한 판단 즉 주로 사회가 결정해야 하는 가치문제에 대한 판단은 연구자가 할 수 없다. 또 다른 예로서, ‘입양아들은 친부모가 누구지 알아야 하는가’라는 문제를 생각해 보자. 연구는 다만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의 차이에 대해서만 답할 수 있다. 이 문제에 접하여 연구자는 이에 대한 아동, 친부모, 그리고 입양부모의 희망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그러나 입양아가 ‘알 권리’를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는 연구집단보다는 오히려 사회가 해결책을 제시해야 할 도덕적 과제이다.

또 다른 문제점으로는 아무리 합당한 연구과제라 할지라도 아직 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 적당한 방법론적 도구가 없기 때문에 대답할 수 없는 것도 있다. 일반적으로 인간성을 평가할 수 있는 적절하고도 유용한 방법을 찾아내는 일은 사회과학도들에게 있어 가장 어려운 과제로 알려져 있다. 행동의 감정적 측면은 분명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현상적 특성 때문에 수량화되지 못하여 오랫동안 진전이 부진하였다. 지능연구분야에서 이미 수 십년동안 지능 테스트가 널리 사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테스트의 제한점에 대한 불신이 점점 더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러하므로 연구자들은 관심있는 현상에 관하여 조금이라도 기술·분석하기 위하여 혹은 있는 그대로를 기술하기 위하여 비윤리적도나 질문지법을 어쩔 수 없이 사용하곤 한다. 또한 인간행동 중의 어떤 한 부분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이 다양하므로 방법 그 자체에 의한 문제가 야기된다. 즉 이미 우리가 알고 있듯이 서로 다른 연구자들이 서로 다른 방법적 도구를 사용하기 때문에 결국 동일하지 않은 결론에 이르게 된다. 예를 들어 이미 잘 알려진 이야기이지만 아동의 지능에 미치는 남공해의 영향에 대한 상호 대립적인 견해에 대하여 살펴보자. 이 영향이 무엇으로 측정되었느냐 즉 혈액, 머리카락, 혹은 치아 중 어떤 것을 대상으로 분석했느냐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다. 각기 사용한 분석도구가 다르게 때문에 서로 대조적인 결론에 도달한다(Harvey, 1984). 또 다른 예를 들어 보자. ‘탁아소가 아동의 또래관계에서의 사회적 경쟁심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는 직접적인 관찰법, 그들의 교사(혹은 그들의 부모)를 대상으로 한 질문지법, 교사나 부모가 비윤리적으로 된 질문지에 전체적인 판단을 기입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 얻어진 결론에는 각 방법의 독특한 특징이 덧붙여져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여러가지 방법을 통한 연구접근, 즉 동일한 현상에 대하여 다양한 평가방법으로

면밀히 검토한 연구들은 오직 한 가지 방법에 의존한 연구들 보다 분명히 장점이 있다.

그러나 여전히 또 다른 방법론적 문제들이 잔재해 있다(연구실제에 관한 더욱 상세한 논의를 위하여서는 Wald, 1976를 참고하시오). 즉 규모가 크고 대표적인 표집을 얻는데 있어서의 어려움, 장기적인 효과를 알아 보기 위하여 충분히 긴 시간동안 아동을 추적하는데 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 가족이 이사가거나 더 이상 연구에 참여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 생기는 피험자 손실, 현실적으로 사람들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으로 분리할 수 없는 사실 등이 있다. 또 다른 문제점을 생각해 보자. 어머니의 취업과 비취업의 비교에서, 모자관계에 있어 두 집단간에 차이가 나타나면 연구자는 어머니의 취업이 이같은 차이의 원인이라고 결론 지으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차이는 이미 존재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즉 어떤 부류의 부인들이 집 밖에서 직업을 갖게되어 낮에 어머니가 집을 비운 것과는 상관없이 차이가 이미 있었는지도 모른다. 부인들을 무선적으로 취업집단과 비취업집단으로 할당한다면 이러한 문제는 상쇄될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상황은 불가능하므로 이미 존재하고 있는 그러한 영향의 가능성에 유의하고, 이러한 요인을 통제하여 연구결과 해석에 적절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연구의 궁극적 가치는 활용 가능한 지식을 도출해 내는데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사회과학연구는 자연과학에 비하여 완전히 '뒤범벅이 된' 것으로 보여질지 모르나, 우리가 위에서 언급한 제한점들로 인해 그러한 연구의 가치가 비하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반대로 우리의 연구기술을 세련되게 발전시키고 인간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가지 요인들을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우리가 이전에 상세히 설명한 바 있는 장점들이 때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절대적인 것이지만

여전히 적용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주관적·객관적 접근방법이 전적으로 명백하게 구분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리고 어떤 특정한 연구결과를 평가할 때는 그 연구가 수행된 개인적 사회적 실제 상황이 고려되어야 한다.

진행중인 과정상의 연구

물론 절대적으로 완전한 연구 즉 나무랄 데 없이 훌륭한 연구로서 결코 바뀌지 않는 결론을 제시하는 연구는 없다. 연구는 계속적으로 새롭게 수행된다. 여태까지 없었던 새로운 지식을 덧붙이기도 하지만, 기존에 있는 지식을 세련되게 발전시키기도 한다. 예를 들어 ‘아동을 그들의 부모와 격리시키는 것이 아동의 심리적 발달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가’라는 문제에 접하여 우리는 우선적으로 연구결과가 문제에 대한 ‘예’ ‘아니오’라는 분명한 해답을 제시해 주기를 기대할 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는 문제를 전체적으로 과잉 단순화시킨 데서 비롯된다. 하나의 문제는 다양한 종류의 조건에 의해 정의될 수 있으며 각각의 조건은 경우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일 수 있으며 따라서 결과에 영향을 주게 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영향들—아동의 나이, 아동을 가정에서 격리시킬 경우 아동을 보호하는 장소의 조건, 부모—아동 관계의 성격, 격리 기간 동안 경험한 보호의 형태 등—을 정확하게 선별해 낼 수 있기 위하여 후속 연구가 축적되어야 한다. 또한 이런 과정에서 동일한 경험 이 각기 다른 아동에게는 서로 다르게 작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아동은 다른 아동보다 손상되기 쉬운 성격을 띠기도 한다. 또한 나타나는 증후의 성격도 각 개인마다 다르게 나타나기도 한다. 그러므로 그런 다양성의 근원을 추적·분석하는 후속 연구가 반드시 수행되어야 한다. 부연하자면 발견된 병리현상은 다음아닌 심리

적 기능(예를 들어, 지적 행동이 아닌 사회적·감정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될 지 모른다. 그러므로 후속연구는 이러한 차이에 적절히 대응하는 평가도구를 사용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러한 영향이 영원히 지속되리라고 가정할 수는 없다. 경험에 의한 직접적인 영향은 살아가는 동안 이어지는 사건들 속에 흡수되기도 하고 변형되거나 감소하거나 확대되기도 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후기 발달을 상세히 설명해 줄 수 있는 연구가 더 많이 요청된다. 그러므로 어떠한 특정한 과제에 대한 합리적이고 완전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오랜 연구기간이 소요된다는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다.

한 영역에서 확고하게 정립된 연구전통의 기반 위에서 수행된 연구들에 비해 초기의 연구들은 조잡하고 덜 세련될 수 밖에 없다. 한 가지 예로 ‘임상적’ 연구에서 ‘체계적’ 연구로 전환되는 과정을 살펴보자. 우리가 다음에 다루게 될 과제들도 초기에는 임상적 상황에서 시작되었다. 즉 과거에 겪었던 어떤 경험에 의해 손상된 아동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처해 있는 환경에 대해 연구하고 임상학자들은 그러한 아동들을 많이 다루어 봄으로써 과거의 경험과 현재 나타나고 있는 병리현상 간의 인과관계를 도출하게 된 것이다. 어떤 한 경험은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라는 가정을 제안하는 데는 임상연구가 공헌할 수 있다. 그러나 나쁜 영향을 받은 아동들만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단기간 영향을 받은 아동이나 손상되지 않은 아동에 대한 지식은 제공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더욱 체계적인 연구가 되려면 일정한 경험을 겪은 ‘모든’ 아동들을 대상으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나타나는 병리현상에 근거하지 않고 경험 그 자체에 근거하여 아동을 표집하는 것이 인과관계에 대한 신뢰로운 해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인 것이다. 처음에는 회상적 접근방법을 채택하여 좀 더 체계적인 연구를 시도하곤 하였

다. 즉 연구의 초점이 되는 경험을 이전에 겪었던 사람들 중에서 대표적인 표집을 추적하고 표집을 대상으로 이들의 심리상태를 평가하여 경험이 미친 영향을 파악하였다. 그러나 이 방법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결과에는 여전히 차이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어떤 아동들은 다른 아동들보다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어떤 아동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경험의 영향(경험기간, 경험의 심각성, 경험에 대한 아동의 즉각적인 반응 등)에 비추어 이런 차이들을 설명하고자 원한다면 개인적 차원의 자료 재수집이나 낡은 기록보다도 더욱 신뢰로운 자료가 필요하다. 이런 이유 때문에 현재 경험하고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관찰하고 후속연구 하는 미래 지향적인 종단적 연구가 경험에서부터 결과까지 임상적으로 추적하는 회상적 연구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 그러나 불행히도 종단적 연구는 시간이 많이 소비되는 특성 때문에 비교적 드문 편이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는 신뢰로운 자료로서 상당히 가치있는 것이다.

보급 및 실제에의 적용

연구결과가 유용한 것인가와 연구 결과를 실제에 응용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다. 이것은 매우 일반적인 문제인데 예를 들어 사람들은 과학 기술분야의 연구가 산업에 유용한 공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과 실험연구결과들이 실제 산업현장에 즉각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체제에 대하여 많은 생각을 해왔다. 연구와 실제 사이의 간격은 다른 연구분야에서 보다 사회과학분야에서 훨씬 더 큰 것 같다. 왜냐하면 특정한 개인이나 혹은 사회복지 수혜자 집단—장애아, 노인, 범죄자, 아동 등—에 대한 문제를 결정할 때 쉽게 구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정보조차도 무시하기 때

문이다(어쩌면 전혀 아는 정보가 없었는지도 모른다). 이러한 간격은 왜 존재하고 간격을 좁히는 방법은 무엇인지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들이다.

한 가지 문제는 보급의 문제이다. 연구결과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잘 전달할 수 있는 방법 이것이 어렵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실무자들에게 보다는 오히려 동료학자들에게 연구결과를 전달하는데 길들여져 있다. 이런 현상은 연구결과의 보급대상이 동일학문분야에 종사하는 구성원으로만 된 순수·이론 학문연구일 경우에는 별로 문제되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실제에의 응용이 가능한 학문분야에서 ‘인쇄되어 세상에 나오면 모든 사람들이 읽고 활용할 수 있는데 실무자들이 폭넓은 독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연구결과들에 대해 무지하다’는 식으로 처리하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연구자들과 실무자들 사이에 연구결과가 신속하고 의미있게 전달될 수 있는 체제를 확립하는 문제는 유일한 해답이 있을 수 없고 계속적으로 수정·보완되어야 할 복잡한 과제이다.

그러나 보급만이 유일하고도 가장 중요한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면 잘못이다. 연구자들과 실무자들 간의 간격은 각자의 직업세계가 다르고 맡은 일을 처리하는 방식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이런 차이는 작업 양식, 그들이 충족시켜야 하는 요구 사항, 그들이 받는 압력 등의 요인들에 의한 것이다. 이러한 간격을 매우고 상호간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요인들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이제 이 요인들에 대하여 생각해 보기로 하자.

첫째, 두 집단은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연구자들은 지식의 발전에 관심이 있고, 실무자들은 실제로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일상사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관심이 있다. 전자는 일반적인 원칙과 추상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고, 후자는 개개의 경우

나 개인적인 사례를 다루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두 집단이 대부분 서로 다른 상황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집단은 대학이나 다른 연구기관에서 일하고 있고, 다른 한 집단은 다양한 현장에서 일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상황하에서는 상호간의 오해와 무지가 생길 수 있다. 산업현장에서 대기업들은 자체 내의 연구진-사주에게 관심있는 특정한 문제를 연구하면서 전문지식분야의 발달된 정보를 활용하여 회사내의 작업 능력을 높이는 과학자들을 고용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실무자들에게는 거의 의미가 없는 연구를 하기 쉬운 사회과학자들에게는 거의 있을 수 없는 상황이다. 학문적 연구자들은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후원하고 실무자들은 연구자들을 후원하는 교환체제와 실무자들이 연구 이후의 실행과 평가 그리고 연구의 고안 및 계획에 참여토록 하는 연구전략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둘째, 학문적 연구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실무자들이 의사결정시 연구결과에서 나온 정보와 기타 여러가지 현실적인 사항들을 고려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곤 한다. A과정이 B과정보다 어떤 바람직한 결과를 산출해내는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가 나왔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즉시 B과정을 중단하고 A과정을 선택할 것이라고 기대한다면 이는 무모한 것이다. 현실적으로 이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두 가지 과정에서 어떤 과정을 선택하느냐 하는 결정에는 재정적·정치적·이념적·조직적 요인이 상호작용하게 된다. 만약 연구결과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다면 '비용이 적게 드는 것이 좋은 것이다'라는 가정이 일반적으로 적용될 것이다. 이때 이 가정에만 근거하여 행동을 결정해서는 안된다고 아무리 말을 해도 정치가, 행정가, 그리고 일반 대중은 쉽게 설득되지 않을 것이다. 예를 들어 가족의 성격과

역할에 대한 대조적인 생각(위험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부모와 아이는 함께 지내야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공공 보호를 받아들여야 하느냐에 대한 결정을 할 때)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이념의 영향은 훨씬 더 크다. 의사결정을 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기타의 고려사항에 밀려 종종 무시되곤 한다. 이는 이지적인 지식은 여러가지 행동지침 중의 하나에 불과하며 가장 영향력이 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고 방식이 낳은 결과이다. 그러므로 어떤 연구결과를 수용하느냐 하는 문제는 그 시대 유행하는 정치적·이념적 기류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동일한 결과도 어떤 때는 무시되다가 어떤 때는 열광적으로 찬양되기도 한다.

물론 연구자가 자신의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그 시대의 흐름을 바꾸어 놓아서는 안된다는 말은 아니다. 그러나 그런 시도를 할때 연구자는 또 다른 좌절을 경험하게 하는 원인 즉 제도의 완벽한 타성에 부딪히게 된다. 환언하면 변화 그 자체를 꺼리는 분위기가 있다. 한 가지 예로서 1950년대와 1960년대에 소아과 의사와 간호사들 대부분이 격렬하게 반대하였던 제안을 들어보자. 그 제안의 내용은 어머니와 격리된(아무리 짧은 기간이라도) 어린 아동은 정서적 충격을 받게 되므로 소아병원은 아동과 부모와의 접촉을 무한히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연구자들은 이 제안이 너무도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곧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한편 병원 관계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 제안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작업 내용이 현저하게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특히 간호사들의 경우 환자에 대한 그들의 역할에 근본적인 변화가 생긴다는 것을 내포하는 것이었다. 결국 연구자의 조언이 받아들여져 소아병원이 부모들에게 개방되기까지는 매우 오랜 기간이 걸렸다. 병원 관계자들의 지위, 역할, 혹은 업무내용에 위협을 가하는 내용은 틀림없이 반대에 부딪히게 될 것이고 따라서 연구결과는 부

정되거나 회피하려고 들 것이다.

또한 연구자와 실무자 간의 상호 이해 증진에 지해가 되는 또 다른 일련의 요인들은 연구 그 자체의 특성에 있다. 실무자들은 일반적으로 흑백론적인 해답(‘예’나 혹은 ‘아니오’나, 좋은 것이냐 혹은 나쁜 것이냐)을 원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는 그런 결론적인 대답을 제공하지 않는다. 대신 연구결론들은 여러가지 논쟁과 제약들로 둘러싸여 있으며 잘못된 일반화를 막는 조건들로 가득차 있다. 연구결과들이 지닌 이 같은 특징은 옳고 정당한 것이다. 왜냐 하면 어떤 특정연구의 결과들은 시대, 장소, 사용된 특정 접근방법, 그리고 연구대상인 특정표집에 제한되기 때문이다. 부연하면 일반적으로 연구결과들은 특정한 경험(가정으로부터의 격리, 어머니의 취업, 부모의 이혼 등)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은 그 경험을 둘러싼 다양한 변인들에 의존해 있으며, 일반화는 허용치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결국 결론은 일반적으로 ‘좋고’ ‘나쁜’ 차원의 것이 아니고 연구조건에 전적으로 의존해 있는 것이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실무자들(그리고 아마 보통 대중들에게는 더욱 심하게 나타나겠지만)은 연구결과를 수용하는데 격렬한 거부감을 느끼게 되지만 반면에 연구자들에게는 인간생활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건들의 복잡성을 이해하는 밀거름이 된다.

주의해야 할 또 다른 문제점은 두 집단의 구성원이 운용하는 시간의 기준이 다르다는 것이다. 실무자들은 일반적으로 여기 그리고 지금 적용되는 대답을 요구한다. 그들은 해답을 얻기 위하여 10년이 아니라 몇 년 조차도 참으며 기다릴 수 없는 특정사례들에 대해 결정을 내려야만 한다. 그러나 복잡한 성격의 연구라면 지속적인 종단적 연구와 반복적인 연구가 필요하므로 연구수행에는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인간에 관한 연구에는 신속한 결론을 이끌어낼 수 없는 연구들이 대부분이다. 경험에 의해 알고 있듯이 간단하고 신

속하게 도출된 결론은 종종 너무 지나치게 간결하다거나 해석상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밝혀지곤 한다.

또 하나 지적해야 할 것은 연구자들은 일반적으로 집단비교와 확률에 근거하여 해석하는 반면, 실무자들은 개인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한다. 하나의 전형적인 예로서 학대받은 아동과 학대하고 있는 어머니의 애착관계에 관한 연구를 들어보자. 학대받은 집단과 학대받지 않은 통제집단을 비교해 보았더니 양 집단간에는 형성된 애착관계의 형태에 있어 차이가 나타났다. 학대받은 아동들 중의 대부분이(3분의 2정도)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뚜렷한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통제집단 중에서는 소수(대략 4분의 1)만이 불안을 느끼고 있었다. 통계적으로 보면 매우 유의미한 차이였고, 이 결과에 비추어 집단간에 차이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렇다면 분명히 정상적인 애착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학대받은 아동 집단의 약 3분의 1은 무엇인가? 약간의 차이로 인해 소수로 처리된 경우에도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무시해버린다. 실무자들에게 있어 예외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왜냐하면, 학대받은 아동은 결함이 있는 관계를 형성하기 쉽다는 확률적 해석은 그들에게 만족을 줄 수 없기 때문이다. 실무자들은 각 개인의 수준에서 운용해야 하기 때문에 특정한 아동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는 정보를 원한다. 집단적 경향에 대한 진술은 개인의 발달 과정을 예측하는데 충분한 도움을 주지 못한다. 다행히 연구자들은 두 가지 측면 즉 집단차와 개인차를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점점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모든 아동들이 실존나 학대 등에서 오는 긴장감으로 인해 나쁜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고, 어떤 아동들은 매우 심각한 학대를 받는 상황에서 도 살아남아 놀라운 정도로 훌륭하게 성장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최근 연구에서는 그런 회복력의 근원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 만약 이것이 밝혀진다면 어떤 특정 개인의 결과를 예측하기가 더욱 용이해질 것이며 이로인해 실무자들은 연구자료를 더욱 많이 활용하게 될 것이다.

실제에의 공헌

우리는 지금까지 현장 활동 지침의 하나로서의 연구의 장점과 제한점을 지적하였고 연구자와 실무자의 특징을 상호간의 차이점에 비추어 논의하였다. 긍정적인 측면을 지적하는 것도 중요하려니와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것 역시 필요하다. 왜냐하면 연구가 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낙관적인 기대를 갖기 쉽기 때문이다. 즉 자칫하면 행위의 방향을 제안해 줄 수 있는 연구결과를 전혀 무시해 버리거나 혹은 절대시하여 무조건 믿는 파오에 빠지기 쉽기 때문이다. 그러한 신념은 정당화될 수 없으며 환멸로 이끌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잘못된 희망을 갖지 않기 위해서는 적당한 균형을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지금부터는 실제적인 연구에 기대할 수 있는 주요한 공헌에 대하여 요약해 보기로 하겠다.

첫째, 연구는 분명한 사실에 입각한 정보 즉 사실적인 답이 필요한 인간 행동 및 발달의 특정한 측면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부에서 살펴보게 될 첫 번째 과제 ‘아동들이 처음으로 다른 사람과 애착관계를 형성하는 시기는 언제인가?’에서 요구되는 답은 어떤 특정한 나이이다. 필요한 연구들을 계획하여 물음에 대한 해답을 제공하는 것이 연구자들의 할 일이다. 그러나 이 일이 말처럼 간단한 것은 아니며 특히 ‘애착관계’란 복잡한 기능이어서 연구자들은 우선 그것을 정의하는 방법에 의견을 일치시켜 이 관계의 존재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한 조작적인 정의에 의견이 합치되어야만 각각 다른 연구에서 산출

되는 연구결과들에 동의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의견이 일치되어야만이 특정한 나이 범주에 대한 해답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연구에서는 특정행위과정의 결과를 명백히 밝히어 다른 행위과정과의 비교를 가능케 한다. 이혼한 부모의 아이는 보통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에게 보호를 맡기는 관습이 있는데, 이것은 옳은 것인가? 가족내에서가 아니라 집단탁아소에서 양육되는 것이 아주 어린 아동에게 해가 되는가? 일시적인 위탁부모는 아동을 보호하면서 애착관계를 형성하도록 장려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인간적인 애착관계를 형성하지 않는 것이 더 바람직한가? 양자택일 해야 하는 문제는 실무자들이 빈번히 부딪히는 진퇴양난의 과제이며 이런 경우에 각각의 견해에 대한 정보가 적절하게 활용된다. 비교를 통해 정보를 제공하는 연구자들이 격게되는 어려움은 비교 집단이 연구하고자 하는 요인이외의 모든 측면에서 실험집단과 동일해야 한다는 점이다. 현실 상황에서는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결론을 수용하기 전에 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어떤 경우든 간에 연구결과는 단지 각 견해의 결과에 대한 행동적 기술에 불과한 것이며 다음단계로 특정사례의 필요나 요구사항과 관련하여 ‘더욱 바람직한’ 것을 결정하는 것은 실무자에게 달려 있다. 물론 심리적 적응상태 측정에 대하여 평가한 결과, 어떤 상황이 또 다른 상황보다 적응을 쉽게 도와준다는 결과를 연구자가 제시해준다면 어느 것이 ‘더욱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선택의 문제는 없다. 그러나 종종 그것은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다. 탁아소에 보내진 아동들은 어떤 연구결과에 따르면 가정에 남아있는 아동들보다 더욱 독립적이지만 좀 더 공격적이기 쉽다. 그렇다면, ‘더욱 바람직한’ 상황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은 어떤 성격의 아동으로 키우기를 원하느냐와 같은 개인적인 성향의 문제가 된다. 연구는 비교를 위한 자료를 제

공할 수 있지만 개인적 성향에 맞는 과정을 선택·결정하기 위하여 정보활용을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몫이다.

세제, 특정한 연구문제에 관한 세분화된 정보가 점점 축적되다 보면 아동의 발달과 주변 환경의 일반적인 성격에 대하여 확실하고도 전반적인 진술을 할 수 있게 된다.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내용을 언급하게 될 것이다: 가족의 불화는 곧 바로 아동의 심리적 질환의 중요한 원인이 된다는 점, 인간관계의 성격이 중요하다는 것, 특정한 긴장감에 의해 야기되었던 불행한 결과는 회복될 수 있다는 것(소위 감수성이 예민한 초기에 경험했던 것일지라도) 등등. 그러한 결론은 특정연구에 의해 산출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광범위한 연구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다. 이는 세분화된 과제에 대한 언급이 아니라 인간 발달에 관한 일반적인 견해에 대한 언급이다.

이와 같이 연구는 기초자료 이상의 것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개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우리가 매진해야 할 지향점을 밝혀주고 있다. 예를 들어, 인간적이고 지속적인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한 아동들은 심리적인 장애를 보인다는 연구결과는 더욱 광범위한 연구들에 의한 증거들이 축적되어진 후인 몇 십년 전에 아동발달의 최대증진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 의해 그 실현이 새로운 목적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이제는 더이상 쾌적한 신체적 보호, 적절한 교육, 엄격한 도덕적 훈련이 아동들의 성공적인 적응을 보장하리라고는 생각지 않는다. 아동의 정서적 욕구를 크게 강조함에 따라 아동에 관한 공·사적 보호에 큰 변화가 생겼다. 짧은 아동발달연구의 역사 중에서 모성실조에 대한 연구만큼 범위가 확대연구된 예는 드물다. 그러나 물론 여기에도 목적과 실제에 똑같이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상반된 결론들이 있을 것이다.

어린 아동과 그의 가족을 위하여 일하고 있는 실무자들에게 도움

을 줄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많은 세분화된 주제들이 있다. 다음 부에서는 이러한 자료와 그의 활용에 대하여 살펴볼 것이다.

제 2 부

아동과 그의 가족 : 연구와 실제

우리는 이제 어린 아동과 그의 가족을 대상으로 일하고 있는 실무자들에게 중요한 몇 가지 과제들을, 질문형식을 통하여 면밀히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 과제들은 연구의 주제였으며, 이와 관련된 유용한 지식들도 다수 있다. 물론 아동발달의 특성에 대해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된 연구들도 많이 있지만, 이런 연구들은 이론적인 문제들만 다루기 때문에 실무자들에게는 간접적인 관련만이 있을 뿐이다. 아동과 관련된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아동발달에 대한 전체적인 개관을 알고 있다면 당연히 유익하겠지만, 여기서는 다루지 않고 좀 더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특정한 주제만을 선별하여 다루겠다. 어쩌면 전체적인 내용이 모든 사람들이 알고 싶어하는 것에 비해 충분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아동발달 분야에서 실시된 과학적 연구의 역사를 간단하게 살펴 보려고 한다.

연구의 역사를 더듬어 보면 어떤 시대에는 어떤 특정 문제들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특정한 시기에 연구자들의 상상력을 사로잡는 주제가 그 과정에서 연구주제에 대한 해답이 나오게 되고 합치된 결론이 탄생하면, 연구주제는 다른 것으로 바뀌고 새로운 탐구의 흐름이 생성된다. 여기에서 논의될 여러가지 과제들은 각기 다른 역사를 지니고 있다. 어떤 과제들(예를 들어, 아동들이 처음으로 다른 사람과 애착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시기, 부모와의 격리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등)은 수십년 전에 연구된 것이고 어떤 다른 과제들은(남자의 부모역할능력, 이혼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비전통적 양육방식의 효과 등) 좀 더 최근에 시작되어, 현재에도 계속적으로 연구자들의 생생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오래된’ 주제들과 함께 ‘새로운’ 주제들도 살펴볼 것이다. 전자는 확실한 정보와 합치된 결론을 우리에게 제시해 줄 것이다. 후자는 밝혀진 정보들이 불완전하여 세심한 주의

를 기울여 다루어져야 하는 것들이긴 하지만 현 사회에서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고, 실무자들이 최소한의 잠정적인 지식이나 마 가지고 있어야 하는 과제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시켰다.

앞으로 논의될 과제들은 일정한 형식을 따르게 될 것이다. 첫째, 주어진 특정한 과제에 대한 문제제기, 연구자들이 설정한 연구 문제, 그리고 답을 얻기 위한 접근방법들에 대하여 언급할 것이다. 둘째, 몇몇의 관련된 연구결과들을 살펴보고 연구결과의 요약을 소개할 것이다. 이런 방법으로 진행하다 보면, 독자들은 현재의 학문 수준을 전체적으로 개관하였을 때보다 지금까지 축적된 연구결과들에 대한 더욱 직접적인 감각을 터득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요약 부분에서는 연구자가 결과를 도출해 내기 위하여 사용했던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각 연구의 활용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물론 인용할 보고서를 선정하는 데에는 피할 수 없는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있다; 몇몇 과제들은 연구대상으로서 인기가 많아서 그 목록을 완전히 작성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였다. 이런 경우에는 방법적으로 확실하고, 합리적이고 권위있는 결론을 제시하고 있는 연구들을 선택하려고 노력하였다. 세째, 연구에 대한 해석을 붙임으로써 선택한 특정 연구가 좀 더 일반적인 상황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결론에 영향을 미치는 방법상의 문제점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초점을 두고 논의하였다. 네째, 연구결과를 실제 상황에 비추어 보았을 때 어떤 의의를 가질 것인가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다. 그러나 독자들은 자신의 전문적인 활동영역에 따라 나름대로의 결론을 도출해 내고 싶어할 것이다. 끝으로 각 과제에 대하여 더욱 상세히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몇 권의 참고문헌을 제시하고 있다.

아동들이 처음으로 다른 사람과 애착관계를 형성하는 시기는 언제인가

문제제기

아동이 처음으로 형성하는 정서적 유대관계는 (보통은 어머니와의 사이에서 이루어진다) 넓은 의미에서 볼 때 아동기의 가장 중요한 성취 중의 하나이다. 이 관계를 시작으로 어린 아동은 외부세계에 대한 신뢰감을 갖게 된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신체적으로 완전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결과적으로 안정을 주기 때문이다. 그러한 관계에 금이 가는 일은 심한 긴장감을 겪게 하고 심각한 심리적인 충격을 안겨준다. 그러므로 발달과정에 관한 지식 (처음으로 다른 사람과 애착관계를 형성하는 나이는 언제인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을 갖고 있어야 한다.

‘애착관계’란 전통적으로 관계중에 아동의 입장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어 왔다—이는 부모의 입장에서 사용되는 ‘결속관계’라는 용어와는 상반된 것이다. 지난 몇 십년 동안 초기 애착관계의 성격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수행되어 왔다. 비록 대부분의 연구들이, 시간에 의한 변화를 다루기 보다는 어떤 특정한 나이(특히 생후 1년 전후의)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에 관심을 갖는 비발달적 형태를 취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동이 다른 사람과 처음으로 애착관계를 형성하는 시기에 대한 몇 가지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다른 사람과의 경험을 바탕으로 애착관계가 형성된다는 점에서 볼 때 애착관계는 학습되는 것임에 틀림이 없다. 관심의 초점은 얼마만한 경험을 쌓은 후에 어느 시기에 그런 경험의 덕(애착)을 볼 수 있는가에 있다.

초기에는 아동의 보호자가 바뀌어도 상관이 없다. 출생시의 유아

는 아직 자신의 어머니를 ‘알지’ 못한다: 친화되는 과정이 뒤따라야 한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그러한 친화과정은 매우 빠르게 진행되어 생후 2,3개월 된 유아는 이미 친한 사람과 낯선 사람을 구분할 수 있게 된다(출생 직후의 유아조차도 어머니의 목소리와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구별할 수 있다는 흥미로운 연구결과도 있다.—자궁 안에서 익힌 것이라고 설명할 수 밖에 없는 것!).

그러나 예를 들어, 어머니를 보고 좀 더 빨리 웃는다든지 혹은 어머니의 피부접촉을 좀 더 편안해함으로써 어머니를 알아볼 수 있다고 표현하는 것만으로는 어머니와 애착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말할 수 없다. 그러한 변별력은 다만 애착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전제 조건일 뿐이다; 다른 여러가지 측면에서 유아는 아직 애착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런 수준의 유아들은 비록 낯선 사람이라 할지라도 보호와 주의를 기꺼이 받을 것이고, 부모와 격리될 때에도 불안감을 나타내지 않을 것이며 어머니가 없는 동안 어머니를 찾는 행동을 보이지 않을 것이다.

보호자의 상호교환가능성은 격리상황에서 가장 잘 나타난다. 어린 아동(1~4세사이)은 병원이나 집과 같은 낯설은 상황에서 부모와 격리되는 경우 극도로 불안해 하는 경향이 있다. 격리상황에 처했을 때, 오랜시간 동안 심하게 불안해 하는 것은 부모가 나타나 주기를 바라는 아동의 욕구를 표현하는 것이다. 이때 부모가 나타나면, 아동들은 평상시처럼 편안해지고 안정을 되찾게 되어 여기저기 주위를 탐험해 볼 여유를 갖게 된다. 그러나 부모가 나타나지 않으면 안정이 흔들린다; 낯선 사람이 아무리 친절을 베풀어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더욱 불안해 할 뿐이다. 이처럼 격리상황은 유의미하고 정서적으로 의존해 있는 지속적인 관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관계가 잠시 동안이라도 깨어지면 매우 고통스럽고 불쾌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잘 말해주고 있다.

다음으로, 이런 질문이 제기될 수 있다: 유아들이 어머니와 격리 되었을 때 불안을 느끼게 되는 시기는 언제인가? 보호자를 바꿀 수 없고, 다른 사람에게 좀 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반면, 한 두 명의 특정한 사람에게만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나이는 언제인지 단정지어 말할 수 있는가? 이 나이를 알아보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한 일이다. 이런 시도를 통해 유아가 어머니와 격리될 때 손상되기 쉬운 시기는 언제이며,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보호자를 바꿀 수 있는 연령은 언제인지 알 수 있게 된다. 사실 이 문제는 과거 1950년대에 아동의 애착관계에 관한 과학적 연구가 시작되었을 때 연구자들의 관심의 초점이 되었던 중요한 과제들 중의 하나였다.

연구결과

요약

연구1 : 유아기의 입원경험이 미치는 심리적 영향*

초기 연구에서는 격리상황을 조작하여 생후 1년이내의 개월수가 다른 각각의 유아들을 대상으로 이들이 어느 정도로 어머니가 나타나기를 얼마나 원하는지, 그리고 다른 사람의 보호를 얼마나 받아들이지 않는지를 알아보는 것에 연구의 초점을 두었다. 특히 어머니의 부재(不在)가 불안의 원인이 되고 낯선 보호자를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는 나이가 언제인가를 밝혀 보고자 하였다.

가장 빈번히 일어나는 격리상황은 입원이었다. 따라서 소아병원에 입원해 있는 생후 5~51주 사이의 유아 76명을 대상으로 관찰을 실시하였다. 입원기간은 4~49일로 다양하였으나 대부분의 경우 2주 이하였다. 관찰기간은 입원후 처음 3일 동안과 퇴원하기전

* Schaffer, H. R, and Callender, W. M. 1959: Psychologic effects of hospitalisation in infancy. *Pediatrics*, 24, 528-39.

3일 동안이었다. 관찰시간은 각각 2시간이 소요되었고, 식사시간과 방문시간을 이용하였다. 관찰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아동의 반응, 장난감 놀이활동, 식사, 우는 정도에 관하여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면서 유아의 행동을 기록해 보았다. 덧붙여서 퇴원 후 유아의 가정을 방문하였는데 첫번째 방문은 퇴원 후 일주일 이내에 하였고, 그 후론 격리경험에 의한 모든 외현적인 영향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정기적으로 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입원에 의한 유아의 반응은 매우 분명하게 두 행동으로 분리된다. 이 두 행동은 나이와 크게 관련되어 있으며 경계점이 되는 시기는 7세이다. 이 나이 이상의 유아들은 전형적인 격리 불안을 나타냈다. 입원에 따른 심한 초조감, 모든 낯선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인 행동, 어머니가 방문하는 동안 어머니에게 기를 쓰고 달라붙는 행동, 혼란된 식사와 취침 습관, 그리고 퇴원하여 집에 돌아온 후 얼마동안 어머니와 떨어져 혼자 남게 되는 것에 대한 심한 공포감 등이 여기에 속한다. 반면, 생후 7개월 이하의 유아들은 아주 미미한 불안감을 나타내었다. 이들 대부분이 병원에 입원하는 것에 대하여서 외현적인 혼란을 보이지 않았으며, 대신 새로운 환경이나 병원에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즉각적으로 적응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7개월 이하의 유아들은 퇴원하여 집에 돌아왔을 때 격리로 인해 약간의 후유증을 보이긴 했으나 7개월 이상된 유아들에게서 나타나는 어머니에게 달라붙는 반응은 보이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격리 경험은 생후 6개월 이전의 유아들과 생후 6~12개월경의 유아들 간에 매우 다른 의미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후 6~12개월 사이의 유아들은 어머니와 분명한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유대관계가 깨질 경우 불안한 반응을 보였다.

연구2 : 유아기의 사회적 애착관계 발달*

앞에서 언급한 연구는 횡단적 연구였다. 즉 유아들이 병원에 입원한 어떤 특정 나이에만 관찰이 실시되었다. 어머니와의 애착관계와 같은 특정한 기능이 발달과정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추적해 보기 위해서는 동일한 유아들을 대상으로 각각 다른 나이에 관찰하는 종단적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이제 종단적 연구형태를 띤 연구를 살펴보기로 한다.

유아 60명으로 구성된 집단을 대상으로 생후 1년 동안 4주 간격으로 추수연구하였고, 생후 18개월 되었을 때 다시 한번 관찰하였다.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방에 혼자 남아 있는 경우, 부모와 함께 있는 경우, 혹은 밤에 침대에 누인 경우와 같은 수많은 일상적인 격리상황에서 유아가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관해 어머니가 기록하도록 하였다. 어머니들이 작성한 보고서의 정확성에 대한 점검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수행되었다. 7가지의 격리상황에 관하여 연구하기로 정하고, 매 방문시 각 항목에 대하여 유아가 저항했는지 안했는지, 그 저항의 강도와 규칙성, 누구와의 격리에서 반응이 일어났는지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아울러 연구자는 유아가 낯선 사람의 시선을 얼마나 쉽게 받아들이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가정 방문시 자신을 대하는 유아의 반응을 관찰하였다.

이전의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격리에 대한 저항이 언제 처음으로 나타났는지가 특히 관심의 대상이었다. 대부분의 유아들에게서는 생후6~12개월 사이에 처음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즉 이전의 연구에서 지적인 것과 동일한 나이에 나타났다. 격리상황에 대

* Schaffer, H. R. and Emerson, P. E. 1964: *The development of social attachments in infancy*.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29, no. 3(serial no. 94).

한 저항이 이 나이 이전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으나 이것은 그 사람이 친밀한 사람인지 아니면 낯선 사람인지와 상관없이 그의 주의를 끌려고 우는 것이라는 점에서 애착과는 다른 성격의 행동이다. 그 나이 이후에는 어떤 특정한 개인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으며, 유아의 울음을 그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단지 그 사람 뿐이었으며, 다른 사람이 대신 할 수는 없었다. 유아가 처음으로 사람들에게 따라 각각 다른 행동을 나타내기 시작한 나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으나, 대략 생후 22주부터 2년 초기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대략 생후 7 혹은 8개월이 되면 어떤 특정 개인과 분명하고 지속적인 관계를 형성한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연구3 : 유아기의 격리불안과 모자관계에 관한 일 연구*

어떤 연구 결과에 대한 반복적인 연구는 매우 의미있는 작업이다. 이 연구는 확실한 증거를 바탕으로 처음으로 분명한 애착관계가 나타나는 시기는 생후6~9개월 사이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이 연구는 종단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격리에 대한 유아들의 반응을 관찰하였다.

27명의 유아들을 대상으로, 생후 3~23개월 사이에, 매월 혹은 격월 간격으로 추수연구하였다. 각각의 시기마다 유아들을 가정이라는 자연적인 상황과 대학내 관찰실이라는 반구조화된 상황에서 관찰하였다. 여러 명의 관찰자가 모자간의 상호작용에 대하여 상세히 기록하였다. 격리상황에서 낯선 사람에 대한 불안을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를 실시하였다. 즉 처음 도착했을 때 어머니를 방에서 나가도록 한 후, 연구자가 유아에게 접근하였다. 이러

* Tennes, K. H. and Lampl, E. E. 1966: Some aspects of mother-child relationship pertaining to infantile separation anxiety.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s, 143, 426-37.

한 두 개의 상황에서 유아가 보여주는 행동 반응을 6단계의 척도로 평가하였다.

대부분의 경우, 생후 6~9개월 사이에 격리불안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격리불안을 경험하는 평균 시기는 대략 생후 8개월 경이었다. 그러나 여기서도 상당한 개인차를 보였지만 대략 생후 4~18개월 사이에 나타났다.

이와 동일한 연구주제에 관한 이전의 보고에 따르면 낯선 사람에 대한 저항적인 반응은 보통 격리불안보다 몇 주 앞서 나타난다고 한다. 이 연구에 의하면 초기 몇 개월 동안 다른 사람과 희미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던 유아는 그 후 점차 분명한 태도를 취하다가 적절한 시기에 도달하면, 비교적 갑작스런 순간에 그런 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밝혀졌다.

연구4 : 분명한 관계의 발달*

이 연구에서는 입양에 대한 유아들의 반응을 연구함으로써 좀 더 색다른 접근방법을 취하고 있다. 어머니와 헤어진 즉시 새로운 어머니와 만났으므로 의도적인 격리상황이 미치는 영향이 배제된, 격리 그 자체의 영향에 관한 연구가 가능하였다.

전체 표집수는 100명의 유아들이었으며, 일정한 나이에 해당하는 연구대상은 일반적으로 다소 적은 인원이었다. 관찰은 격리 이전과 이후에 이루어졌다. 관찰은 가정에서 수행되었고, 1시간 30분이 소요되었다. 관찰시에 일련의 단순한 상황들(어머니와 관찰자의 얼굴과 목소리 그리고 의도적인 여러가지 사회적 자극)이 한꺼번에 제시되었다. 행동상으로 나타난 여러가지 반응의 잠재기간,

* Yarrow, L. J. 1967: The development of focused relationships. In J. Hellmuth(ed.), *Exceptional Infant: the normal infant*, vol. 1. Seattle, Washington: Special Child Publications.

지속성, 그리고 강도를 기록하였다. 어머니로부터 여러가지 일상적인 사회적 상황에서 나타나는 유아의 행동에 관한 정보도 또한 수집하였다.

생후 8개월된 모든 유아들은 어머니와 오랜 시간 격리되는 것에 대하여 심각한 외적 혼란을 보였다. 생후 3개월된 유아들은 그런 혼란을 나타내지 않았고, 생후 5개월된 유아들중 20%가 그리고 생후 6개월된 유아들중 59%가 혼란을 나타내었다. 논문에서 해석한 바에 의하면, 저자는 몇몇의 유아들이 생후 6개월 이전에 불안을 나타내는 것은 어머니가 바뀐것에 대한 불안이 아니라, 일상생활이나 유아가 받는 자극의 유형이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믿고 있다.

연구5 : 유아기 : 인간발달에서의 그의 위치*

이 연구의 주요한 초점은 무엇보다도 탁아소의 영향(이 주제에 관하여서는 이후에 다루게 될 것이다), 특히 모자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있다. 탁아 경험이 있는 유아들과 없는 유아들이 모자관계에 있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격리 상황을 계획하였다.

평가대상은 모두 87명의 유아들이다. 이들은 탁아 집단과, 이와 동일한 조건이지만 가정에서 양육된 통제집단으로 나누어졌다. 포 집에는 코카서스인과 중국계 유아들이 포함되었다. 생후4~29개월 사이의 유아들을 대상으로 관찰을 실시 하였다. 상황은 유아가 비교적 낮은 환경에서 행복하게 놀고 있는 동안 어머니가 유아를 혼자 두고 떠나는 계획된 격리상황이다. 관찰자는 일방경(one-way mirror)을 통해 울음의 발생과 지속시간을 기록하였다. 생후 5~

* Kagan, J., Kearsley, R. B. and Zelazo, P. R. 1978 : Infancy : its place in human development. Cambridge, Mass. : Harvard University Press, 1978.

20개월 사이의 유아 중에서 계획된 절차에 따라 6가지 상황 모두에 참여한 표집수는 59명이었다.

격리되었을 때 우는 반응은 생후 7개월까지는 별로 나타나지 않다가 그 후에 급격히 비율이 높아졌고, 생후 13개월경에는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후에 낮아졌다. 59명의 모든 유아들은 최소한 한 번은 운 것으로 나타났고, 대부분의 유아들은 여러 번 울었다. 생후 7개월이 지난 유아들이 어머니와 격리되었을 때 훨씬 더 빨리 우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생후 13~20개월 사이의 유아들이 심하게 우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인종 집단 간에 차이는 없었으며, 탁아소 집단인 실험집단과 가정에서 양육된 통제집단간의 차이는 없었다. 저자는 격리불안의 시작과 초기의 과정은 하루 중 어머니와 접촉하는 시간의 양에 영향받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말하고 있다.

해석

유아가 어머니와 격리되었을 때 손상되기 쉬운 최초의 시기는 언제인가에 관하여 연구들간에 매우 혼란한 의견 일치를 보이고 있다. 생후 6~9개월 사이가 격리불안이 일어나기 쉬운 중요한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격리란 심리적으로 중요한 정서적 혼란을 야기시키는 사건이므로 어머니가 더 이상 바뀌어서는 안 되는 시기이다. 연구자들은 이 시기 이전에 나타나는 행동의 동요는 어머니의 부재에 기인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일상생활이나 일반적인 환경의 변화와 관련된다는 데에 동의하고 있다. 이 때의 동요는 매우 간단하게 나타나며, 유아는 전혀 불안감을 보이지 않는다. 이 불안감이 가장 절정에 이르는 시기에 대하여서는 의견의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몇몇의 보고에 따르면 불안의 강도에 있어 생후 7~8개월의 유아들이 모든 측면에서 2~3세의 유아들과 비슷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어떤 다른 연구자들은 생후 1년 말기나 2년 초기에 가장 절정을 이룬다고 보고 있다. 이렇게 결과가 다른 것은 사용된 측정방법과 절차의 종류가 달랐기 때문이다(우는 양이나 우는 장소, 자연스런 혹은 계획에 의한 격리 등등). 그러나 종단적 연구들에 의하면, 불안이 처음 나타날 때에는 천천히, 점증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비교적 갑자기, 불연속적으로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다. 이상에서 볼 때 유아는 생후 6~12개월 중 어느 시기에 사회적 발달의 중요한 이정표에 이르게 된다. 이 시기부터 유아들은 낯익은 몇몇 사람들에게만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그 밖의 다른 낯선 사람들에게는 대부분 저항적이고 경계하는 반응을 보이게 된다. 그러므로 보호자는 더 이상 바뀌어서는 안된다. 그래야만이 ‘적절한’ 사회적 애착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 된다.

비교적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불연속적 변화는 행동발달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이므로, 격리불안이 갑작스럽게 시작한다해도 놀라운 일은 아니다. 많은 연구들은 생후 6~9개월은 상당한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이며 회상기억의 발달과 더불어 많은 새로운 성취를 이루기 시작하는 시기라고 말한다. 이는 매우 주목할 만한 일이다. 유아는 아주 일찍부터 사람이나 사물을 인지할 수 있을 지도 모른다. 이는 사람이나 사물을 눈 앞에 제시했을 때 유아가 보이는 태도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러나 눈 앞에서 사라지면 ‘눈에서 멀면 마음에서도 멀다’라는 원리에 따라 행동한다. 회상기억이란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이나 사물을 기억하는 것을 의미한다. 격리불안은 바로 회상기억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이전의 유아들은 어머니가 나타나면 흥분하더라도 어머니가 안보이면 어머니를 찾지 아니한다. 그러나 특정한 나이에 이르면 어머니를 그리워할 수 있게 된다.

물론 불연속적 변화라고 해서 뜻밖의 어느 시기에 전적으로 발달

이 이루어진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러한 특정한 발달이 이루어질 수 있으려면, 이전에 이미 여러가지 사건이 축적되어 있어야 한다. 낮익은 사람과 낯선 사람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은 분명히 선결되어야 할 조건 중의 하나이다. 무엇보다도 보고 싶어하게 되려면 어머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연구에서는 이러한 발달이 일어나는 시기와 관련되는 변인들에 대해서는 거의 밝히지 못하고 있다. 즉 격리불안이 시작되는 시기의 편차와 어머니의 양육방법에서의 편차를 관련지을 수 있는지에 관하여서는 밝혀지지 않았다. 어머니가 직업을 갖고 있느냐 혹은 그렇지 않느냐에 따르는 차이는 없다. 선천적으로 눈이 보이지 않아 눈으로 어머니를 본 경험이 없는 유아들도 평균적인 나이에 격리불안이 생긴다. 그리고 끝으로 격리불안이 시작되는 시기는 양육방법의 상당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문화 사이에서 매우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특정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는 유아의 선천적인 발달 계획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전에 적절하고도 정상적인 경험을 한 유아라면, 이 시기에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를 위한 시사점

유아가 맺은 기존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은 불안을 야기시키기 쉽다. 이 불안의 성격과 심각성은 나이에 따라 다르다. 특히 유아가 애착관계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옆에 있어 주기를 원하는 시기인 초기 아동기에는 심각성이 가장 클 것이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지만, 사라지게 되면 불안이 계속되는 것 같다. 이러한 설명만이 장기적으로 미치는 영향과는 별도로 방어적인 행동을 설명할 수 있고, 그러한 행동을 보이는 가운데에서도 사회적 유대가 확립되지 않아 유아의 입장에서 아직 분리될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안전한 시기’를 찾아보려는 것이다.

위에서 요약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그러한 시기는 생후 6개월 이전인 것으로 나타났다. 원인이 무엇이든지 간에 한 가정에서 유아를 격리시키는 일은 ‘안전한 시기’ 동안에 수행되어야 한다. 우리가 인용한 연구결과는 이러한 신념을 뒷받침하는 이론적 배경을 제시하고 있고 ‘가능한 한 빠른 시기’가 의미하는 내용을 좀 더 엄밀하게 정의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역시 입원시기—혹은 최소한 유아가 어느 시기에 입원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하여 선택을 할 수 있을 때—는 유아가 정서적으로 손상을 입지 않는 시기를 고려한 후에 결정되어야 한다. 어떤 경우에는 유아가 더 성장할 때까지 입원시기를 늦추어야 할 의학적인 이유들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위에서 상세히 설명한 심리학적 연구에 근거한 조건들과 비교 검토하여야 한다.

그러나 두 가지 제한점이 덧붙여 설명되어야 한다. 첫째, 대부분의 연구보고서에서 강조하고 있듯이, 격리불안이 시작되는 시기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유아들의 대부분은 생후 6~9개월 사이에 이 점에 도달하지만 어떤 유아들은 그보다 몇 달 이전에 불안의 증후들을 보이기도 하고, 또한 어떤 유아들은 훨씬 시간이 지난 후에야 나타내기도 한다. 물론 이러한 차이는 다른 어떤 발달적 전환점에 도 적용되는 것이므로 놀랄만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로 인하여, 어떤 한 유아의 경우, 격리시 손상되기 쉬운 시기가 언제일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할 수 없을 수도 있다. 운동기능 등의 다른 측면에서 발달적으로 앞서 있는 유아가 이런 측면에서도 앞서 가기 쉽다는 증거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관련성은 정확한 예측을 허락할 만큼 충분히 밀착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런 발달이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가장 높은 나이의 범위(즉, 생후 6~9개월사이)를 밝히는 것이다. 이것이 대부분의 유아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타당한 가정일

것이다.

두 번째 지적한 것은, 생후 6개월 이전에도 격리에 의하여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이다. 물리적 환경의 변화에 의하여 당황하게 되는 것과 동시에 식사와 수면에 혼란이 온다는 보고가 있다. 이러한 증후들은 일반적으로 짧은 기간 동안에 일어나는 것이지만, 유아의 새 보호자는 그러한 반응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하고, 가능하다면 일상생활의 습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두고 싶다. 또한 유아의 새로운 환경이 풍부한 자극과 지속적인 보호가 보장되지 않는 불만족스러운 환경이라면, 유아가 아무리 어린 나이로 할지라도 유쾌한 분위기를 제공하려는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안전한 시기’란 단지 유아가 어머니와 격리될 때 입게 되는 손상에 관해서만 언급되는 것이다; 이 나이의 유아들이 모든 것에 의하여 영향받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보호란 유아의 나이가 아무리 어리다 할지라도 그가 처해 있는 환경을 고려하여 취해져야 한다.

참고문헌

- Ainsworth, M. D. S. 1973 : The development of infant—mother attachment. In B. M. C. Caldwell and H. N. Ricciuti(eds), *Review of Child Development Research, Vol. 3*.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Bowlby, J. 1969: *Attachment and Loss: Vol. 1, Attachment*. London: Hogarth Press.
- Schaffer, R. 1977 : *Mothering*. London : Fontana ; Cambridge, Mass. : Harvard University Press.

처음으로 맺는 애착관계는 얼마나 오래 지연될 수 있을까

문제제기

이미 살펴 보았듯이, 유아들은 보통 생후 6~9개월경에 정서적으로 중요한 첫번째 관계를 형성한다. 이런 관계 형성을 위해서는 부모(역할자)—유아에게 정성어린 헌신과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친근하고 변함없이 돌보아 줄 수 있는 사람—이 함께 있어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보살핌을 받은 결과 유아들은 생후 초기의 몇 개월을 통해 그들에게 베풀어진 애정에 보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생후 초기 몇 개월 동안 이러한 애정어린 보살핌을 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 유아가 비인격적인 환경—보살펴주는 어머니(역할자)가 없는 곳, 그리하여 누구와도 애착관계를 형성할 기회를 갖지 못하는 곳, 이러한 발달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리라 기대 하였던 나이를 그냥 지나쳐 버리는 곳—에서 따뜻한 배려를 받지 못한채 양육된다면 어떻게 될까? 만약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너무 늦기 전에, 그리고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이 위축되기 전에, 조금이라도 더 연장할 수 있을까? 특히 이러한 문제들은 유아기동안 보호기관에서 양육된 유아에게 적용된다. 그 곳에서 그들은 여러 간호사들 혹은 관리자들에 의하여, 비인격적이고 일시적인 접촉을 하면서 아무렇게나 돌보아진다. 이 유아들은 정상적인 가정에 입양되어 정상적인 사회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까? 입양절차에 의하여 애착관계형성에 영향을 받지 않는 나이의 상한선이 있는가?

조기 입양에 대한 강조는 대부분 인간 발달에는 ‘결정적인 시기’

가 있다는 신념에 기인한다. 이러한 개념은 원래 병아리와 새끼오리 등과 같은 동물에 관한 관찰연구에서 나왔다. 즉, 그런 동물들은 알에서 깨어난 후 첫 번째 만난 사물—보통은 어미—에게 ‘각인’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현상은 이후 지속적인 애착관계를 형성하는 기초가 될 것이다. 단번에 지각되는 각인은 매우 한정된 기간(조류의 경우에는 몇 시간)내에 이루어진다. 만약 그런 동물이 이 시기동안 혼자 떨어져 있게 된다면, 이후에 같은 종류의 동물들과 만날 기회가 주어진다해도 전혀 애착관계를 형성하지 못한다. 한 때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인간의 애착관계의 발달이 고찰되었었다. 그리하여 이런 애착관계의 형성은 한정된 나이의 범위안에서만 국한된 것이라고 생각되었었다. 특히 유명한 소아 정신병 의사인 John Bowlby가 이런 생각—결정적인 시기—을 지지하였다. 그는 입양되기 전에, 생후 첫 2년 혹은 3년 동안 보호기관에서 양육되어, 후에 사회적 관계 형성에 심각한 장애를 나타내는 아동들에 관한 일련의 연구들을 증거로서 인용하면서 생후 2년 6개월 이후까지 늦어진다면 아무리 훌륭한 어머니(역할자)라 할지라도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하였다(Bowlby, 1951). 이어서 그는 첫 번째 애착관계의 형성은 생후 1년이내에는 정상적인 나이 이상으로 다소 지연될 수 있지만, 만약 그 이전에 애착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좋은’ 경험을 많이 제공해도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매우 뚜렷한 시기가 있다고 말한다. 늦은 입양은 결코 현명치 못하다. Bowlby가 말하는 바에 의하면, 이런 아동은 ‘애정이 없는 성격’이 형성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런 성격은 아들 혹은 딸, 친구, 배우자, 아동·성인에게 만나는 부모나 그 밖의 어떤 다른 사람들과도 감정적으로 깊고, 지속적이고, 유의미한 관계를 영원히 맺지 못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문제는 많은 문제들 중의 일부분이다. 즉 인생의 초기에

경험한 불행한 사건들은 한 개인의 심리적 성장에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남겨놓는 것이다. Freud가 이런 주장을 더욱 착실히 뒷받침하게 됨에 따라 아동은 생후 초기에 가장 예민하다는 견해가 오랜 세월동안 하나의 확고한 진리로서 받아들여졌었다. 즉 아동들은 아동 초기에 겪은 모든 경험에 의하여 영구적인 영향을 받게 되고, 아동 초기의 몇 년이 그들 미래의 인격 발달의 운명을 좌우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요즈음은 이러한 개념에 대하여 커다란 의문을 던지게 되었다. 이러한 견해에 대한 평가를 위해서는, 아동 초기에 모종의 학대경험을 겪었으나 그 이후의 양육과정에 커다란 변화가 있어, 훌륭한 양육을 받은 아동의 운명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여기서 제기하고 있는 과제와 관련하여 소위 '결정적인 시기'동안에 애정적인 애착관계 형성을 방해받았다가 이후에 입양된 아동들을 대상으로 면밀히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러한 과제에 대한 연구물은 거의 없다. 사실은 단지 2개의 연구만이 여기에 인용될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과제는 이러한 빈약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한번쯤 논의를 거쳐야 할 중요한 문제이다. 물론 결론을 이끌어 내는데에는 꼭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연구결과

요약

연구1 : 입양, 두번째 기회*

이 연구는 아동 초기의 몇 년 동안에 보호기관에서 양육된 후 입양된 아동은 너무 많은 손상을 입게 되어 이후에 타인과의 관계를

* Tizard, B. 1977 : Adoption : a second chance. London : Open Books.

형성할 수 없다는 신념을 검증하기 위하여 설계되었다. 표집에 포함된 모든 아동들은 생후 초기 몇 주 이내에 보호기관에 들어와 그곳에서 2~7년이란 기간 동안 생활하였다. 이 기간 동안 그들은 많은 사람들의 손을 거치면서 양육되었는데, 생후 2년까지 남아 있었던 아동은 평균 24명의 다른 사람들에 의해 돌보아졌고, 생후 4년 6개월까지 보호기관에 남아 있던 아동들의 경우는 그 숫자가 50명에까지 이르렀다. 그런 일시적인 상황에서는 어떤 사람과 애착 관계를 형성할 기회가 없다.

아동들은 생후 2년에 보호기관에서 평가되었고, 생후 4년 6개월과 8년에 다시 관찰되었다. 생후 2년과 4년 사이에 몇 명의 아동들은 본래의 어머니에게로 되돌아갔고, 어떤 아동들은 입양되었다. 생후 8년이 되었을 때 실시된 평가에서는 25명의 입양아가 연구대상이었는데, 그 중 20명은 생후 2~4년 사이에 입양되었고, 나머지 5명은 생후 4~7년 사이에 입양되었다(연구보고에서는 각각 ‘이른’ ‘늦은’ 집단으로 언급되었다). 세 단계의 평가 시기에서 지적·사회적 기능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몇 가지 자료는 아동을 상대로 수집하였고(예를 들어 심리 검사에 의한 자료), 나머지 자료는 보호자를 상대로 수집하였다. 평가 시기 중 나중의 두 시기에서, 아동의 사회적 관계에 관한 대부분의 자료는 그들의 입양부모와 교사에 의해 수집되었다.

생후 4년6개월 된 대부분의 입양아들은 새로운 가정에 훌륭하게 정착하였다. 그들은 양순하다는 말을 들었으며, 또한 지적인 능력도 정상이었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아동이 자신과 깊은 애착관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다수의 아동들은 부모나 낯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좀 더 그들의 주의를 끌려는 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떤 경우에는 과잉으로 친해지려고 하거나 낯선 사람에게 더욱 친절하게 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아동들은 결코 무분별하지는 않았으며, 그들의 부모를 눈에 띄게 좋아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었다.

생후 8년 된 좀 더 늦게 입양된 아동들의 경우도 역시 특별나게 애정이 깊은 성향이 있었으나, 무분별하게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하지는 않았다. 어머니들 중 16명은 아동이 그들과 밀접한 애착관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늦게 입양된 5명의 아동들 중 4명은 그들의 부모와 깊은 애착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외의 경우는 한 부부가 단순히 자선 행위로서 입양한 경우였다. 다른 경우의 입양부모들은 매우 높은 동기가 있는 집단이어서 아동에게 많은 시간과 노력을 헌신적으로 아끼지 않았다. 전체적으로 보면 표집이 보여준 부정적인 결과들도 많이 있었다: 통제 집단(비입양아)과 비교해 볼 때 학교에서 입양아의 집중력은 형편없다고 교사들은 보고하고 있다. 또한 여유가 없고, 발끈 화내는 성향이 있으며, 여러가지 신경질적인 습관이 있고, 다른 아동들에게 인기가 없는 경우도 간혹 있다고 보고되었다. 입양부모들의 경우 단지 소수만이 그들의 아이들을 다루기가 힘들다고 보고하고 있는데, 주로 불복종, 발끈 화내기, 과잉행동들을 언급하고 있다.

‘이른’ 입양 집단과 ‘늦은’ 입양 집단 간에 행동의 차이는 없었다. 가장 늦은 시기(각각 생후 7년, 7년6개월)에 입양된 두 명의 아동들은 훨씬 이른 나이에 입양된 아동들과 같이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너무 오랜 기간동안 보호기관에서 양육되어 성격이 고정화된 아동, 즉 지나치게 친절하면서도 애착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는 그런 아동은 없었다. 아동이 8살이 되었을 때, 어머니들 중의 4명이 입양을 부정적으로 보았다. 비록 16%라는 높은 실패율을 나타내고 있지만, 이 비율은 보호기관에서 얼마간 양육되다가 그 이후에 생모에게 돌아간 아동집단의 어머니 중 거의 절반정도가 아동과 어머니 사이에 애착관계를 형성하는데 실패하였다고 보고한

것과 비교해서 해석해야 한다. 그리하여 입양의 성공여부는 입양된 나이나 아동의 전력에 의존한다기 보다는 주로 입양부모가 아동에게 쏟는 감정적 애정에 의존하는 것 같다.

연구2 : 오랫동안 보호기관에서 양육되었던 청년의 사회적 관계 및 가족관계*

청년기는 입양가정의 경우 특히 어려운 시기라고 여겨지곤 한다. 그러므로 초기 경험에서 야기된 문제가 그 시기에 더욱 영속화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 시기까지 정상화 과정이 계속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Hodges와 Tizard는 Tizard의 표집에 포함되었던 아동들을 8년 후인 16살에 추후조사함으로써 이 문제에 대한 답을 구하고자 하였다. 연구 도중에 두 명의 피험자가 탈락되어 16살이 되었을 때 실험이 가능했던 아동은 입양아 중 23명이었다. 청년들과 그들의 부모들을 대상으로 인터뷰와 검사를 실시하였고 질 문지에 답을 쓰도록 하였다. 또한 교사들에게서도 자료를 수집하였다. 아동기 내내 자신의 가족과 함께 지냈던 비교집단과 이전에는 보호기관에서 양육되었다가 자신의 생모에게 되돌아간 몇 명의 청년으로 구성된 비교집단에게도 실험집단과 유사한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8살 때와 마찬가지로 입양아 어머니들 중 대부분이 아이가 자신과 긴밀한 애착관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느꼈다. 4명의 예외가 있었는데 이들 중에 한 어머니는 8년 전과 동일한 부정적인 견해를 취한 반면 나머지 3명은 전에는 그들의 아이들과 감정적으로 밀착되어 있었다고 보았으나 이제는 아이의 감정의 강도에 대하여 의심하

* Hodges, J. and Tizard, B. 1989 : Social and family relationships of ex-institutional adolescents.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30, 77-98.

였다(하나의 사례에서는 아이가 분명히 아버지와 밀착된 것으로 기술되었지만). 그러나 생모에게 되돌아간 비교집단에서는, 16살난 청년 9명 중 5명만이 자신 어머니와 긴밀한 애착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는 것에 비하면, 이 실험집단의 결과는 일반적으로 훨씬 양호한 것이었다. 아버지와의 애착관계 형성도 역시 두 집단 간에 유사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입양 청년 중 한 명만이 관계형성에 실패한 반면 생모에게 되돌아간 청년들은 반 정도가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와의 관계에서 외현적인 애착을 보여주는 비율에 관하여 살펴볼 때, 입양청년이 결코 격리되어 본 적이 없는 비교집단의 청년들보다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신의 부모에게 되돌아간 16살의 청년집단의 경우보다는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입양청년들의 가족관계는 청년자신과 그들의 부모들은 만족스러워하는 것으로 보이며, 보호기관의 경험이 전혀 없는 청년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한편, 보호기관에 오래 위탁되었던 두 집단은 가족 외의 동료나 성인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으로 되돌아간 집단과 입양아 집단은 가정에서 격리되었던 경험이 전혀 없었던 청년 집단에 비하여, 또래 집단내에서 매우 인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들은 싸움을 좀 더 자주하고,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는 경향이 있었으며, 친한 친구를 덜 사귀는 것으로 나타났다. 몇 명의 청년들이 8살 때 성인들에 대하여 무분별한 과잉친절을 보였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다. 반면, 그러나 여전히 비교집단의 경우보다 성인들의 인정과 주목을 더욱 받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유아시기에 밀접한 애착관계를 갖지 못했던 것이 반드시 이후의 입양부모와 애착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도록 영향을 미

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부모가 아이를 원하고, 부모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었을 때, 그들 사이의 관계는 발전되었다. 그러나, 아이가 가정으로 다시 돌아온지 12년이 지난 후에도 사회적 관계에서(특히 동료들과의 관계) 어떤 곤란을 느끼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이 보고서에서 내린 결론은 몇 가지 심리적 기능은 다른 기능보다 장기적인 영향을 더 많이 받기 쉽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론은 동일한 피험자를 대상으로 감정 및 행동상의 곤란에 관하여 연구한 또 다른 동반연구(Hodges and Tizard, 1989)에 의해 지지된 바 있다. 이들에 의하면 감정 및 행동상의 문제들은 보호기관에 있었던 경험이 없는 청년집단에서보다 16살 난 입양청년집단에서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능에 있어서는, 유아초기에 보호기관에 위탁된 경험이 장기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3 : 배치의 어려움 : 입양과 시설보호의 결과*

또 하나의 적절한 자료를 제시해 주는 이 보고서는 늦게 입양된 아동들을 대상으로 성인이 될 때까지 추수연구한 것이다. 물론 이 연구는 입양자가 자신의 과거를 회고한 자료에 의존하고 있긴하지만 매우 가치있는 것이다.

표집대상은 44명이었다. 이들 중 대부분은 생후 2~8년 사이에 입양되었으며, 20대 중반일 때 과거에 대하여 조사되었다. 그들은 아동기의 대부분을 보호기관에서 보낸 40명의 집단과 비교되었다. 공공기관의 보고서에 의하여 확인된 바에 따르면, 대부분의 입양자들은 생후 1년이내에 태어난 가족에게서 격리되어 공공보호기관에

* Triseliotis, J. and Russell, J. 1984 : Hard to Place : the outcome of adoption and residential care. London : Heinemann.

들어왔다. 그들의 대부분은 최하류층의 배경을 갖고 있으며, 입양이 늦어진 이유는 주로 이런 ‘위험성이 높은’ 아동들이 꼭 입양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때문이었다. 보호기관에 있었던 기간동안 모든 아동들이 보호기관과 위탁양육가정 사이에서 수 많은 이동을 경험하였는데, 기관의 기록에 따르면 거의 반정도가 그 시기에 심각한 정서적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려고 절제하는 자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으로서 인터뷰하였을 때 입양자들 중 대부분은 그들의 소년기를 긍정적으로 회고하였다. 80% 이상이 입양경험에 대해 좋다고 반응하거나 상당한 정도로 만족한다고 표현하였다(이는 시설보호 집단의 55%와 비교되는 수치이다). 입양부모와의 관계가 어떠했는가에 대한 질문에, 45%가 ‘매우좋다’, 41%가 ‘좋다’, 9%는 ‘기타’ 그리고 5%가 ‘나쁘다’로 응답하였다. 대부분의 경우에서 그들은 자신들 스스로 부모와 감정적으로 ‘밀접하다’ 혹은 ‘매우 밀접하다’고 생각했으며, 형제 및 친척들과도 온화한 관계를 유지했으며, 입양가족을 ‘우리 가족’으로 받아들였다고 생각했다. 피험자의 80%가 이러한 애착의 감정이 성인기에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하였다. 입양 부모와의 관계에서나 전체 입양경험에 대한 만족도는 입양되는 나이나 그 이전에 수많이 이동했던 경험에 의해 영향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도, 이 보고서의 저자들은 ‘거의 대부분의 입양자들이 훌륭한 적응을 했었다는 사실은, 새롭게 돌보아주는 환경이 주어진다면, 새로운 애착관계를 형성할 수 있으며, 상실되었던 것과 잘못된 것들을 극복해 낼 수 있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고 말한다.

해석

여기에서 논의되고 있는 과제와 관련하여 인용할 수 있는 연구가

드물다는 것은 애석한 일이다. 격리나 보호기관에서의 양육경험 때문에 오랜 기간동안 애착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는 아동들에 관한 다른 보고서들이 있었지만, 이 보고서들은 시기적으로 늦은 애착관계의 형성에 대해서 특별하게 언급하고 있지 않다. 몇 가지 일화적인 내용이나 간접적인 증거가 위의 연구 결과들을 입증해 주는 경향이 있었으나, 여기에 인용할만큼 확실한 내용은 아니다. 그런 점에서 여기에 요약된 연구 속에서 나타난 애착관계 형성에 관한 증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확고한 증거는 아니다: 부모나 입양자 본인들로부터 수집된 보고서(특히 과거에 있었던 사건들에 관한)는 여러가지로 왜곡될 가능성이 많다. 불행하게도, 유아기가 아닌 아동기에서조차도, 애착형성에 대한 ‘확실한’ 검증은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으므로, 우리가 입수할 수 있는 자료에만 근거하여 결론을 내려야 한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훨씬 더 나이가 많은 아동들일지라도 몇 년 동안 보호기관에서 비인격적인 양육을 받은 후에 입양부모에게 입양되었을 때 곧 애착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아동이 정서적인 애착관계를 형성할 수 없는 분명히 한정된 나이의 범위 (생후 2년 6개월)가 있다는 ‘결정적인 시기’ 개념은 이들 연구결과에 의하여 논박되고 있다. 안정되고 만족스런 보호를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채 8살이라는 늦은 나이에 입양된 아동들은 새로운 부모와 친밀하고 남다른 유대관계를 형성했으며, ‘정이 없는 냉혈적 성격’의 증후를 보이지 않았다. 위와 같은 측면에서 2~7살의 연령 범위내에서 ‘이른’ 입양아와 ‘늦은’ 입양아 간의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러한 자료들에 의해 판단해 보건대, 생후 2년 6개월이란 나이에 운명이 결정되어 버리는 것은 아니다. 물론 아동들이 초기 경험에 의하여 전혀 손상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Tizard의 표집에서 보면 특히 여러가지 행동상의 문제들이나 동료들과의 관계에서 종종 곤란

을 겪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증후들의 원인과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들이 성인기의 심리적 기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에 대하여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다. 아동들의 엄청난 적응력을 고려해 볼 때, 이들의 환경을 보호기관에서 가정으로 전환시켜주어야 할 것이다. 아마도 이렇게 하는 것이 이러한 과업(애착관계 형성)을 성공적으로 성취하는데 다른 방법보다 비용이 적게 들 것이다.

증거는 제한되어 있지만, 결론은 초기경험의 영향에 관한 최근의 생각과 일치한다. 그러한 견해는, 인생 초기에 어떤 한 종류의 심한 정신적 손상—실조, 무시, 격리, 학대 등등—을 경험한 후에 구제되어 훨씬 좋은 환경에서 자라게 된 아동들을 조사한 연구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우리가 여기에서 주로 관심을 갖고 있는 내용과는 다른 요인에 대한 측정(즉 주로 관계 형성보다는 오히려 지적기능, 언어발달, 기능습득 등등)에 관련되어 있다. 그러나 그들은 초기의 심각한 손상이 거의 실패없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다시 말해서 이들 연구는 형성기에 겪은 모든 경험(특히 심한 손상을 입게 하는)은 환경이 바뀌더라도 이후의 발달에 지워질 수 없는 얼룩으로 남는다는 견해와 상반된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아동 초기(형성기) 역할이 지나치게 과대평가된 것과는 달리 아동들이 가진 회복력은 전적으로 과소평가되어왔다. 인생의 초기에 정상적인 사랑을 받지 못한 아동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감정적으로 중요한 유대를 결코 형성하지 못한다는 생각은 ‘아동의 초기 경험이 성격형성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요지의 인간발달관이 유행하였던 시대에만 수용되었었다. 그동안 수집한 관련된 증거들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견해는 더 이상 지지될 수 없다. 초기의 경험은 이후에 겪는 경험에 의하여 어떤 상황하에서 바뀌어질 수 있다. 이러한 결론은 지적 기능 뿐만

아니라 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도 적용된다고 해석될 수 있다.

한편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은 불행한 경험이 얼마나 오랫동안 계속되면 회복이 불가능해지는가에 대한 의문이다. 무한한 가능성을 반박하는 여러가지 증거들이 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아동의 성격은 변화에 저항하게 된다. Tizard의 표집에서 입양시 가장 나이가 많은 아동은 7살이었지만, 만약 10살 혹은 15살이 되도록 입양이 되지 않아서 가족생활을 경험할 기회가 지연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우리는 그 해답을 모른다. 어떤 사람이 아동기 내내 전적으로 비인격적인 방법으로 양육되었을 때 조차도 후기의 애착관계 형성능력에 이상이 없다고 믿기는 어렵다. 그런 사람은 실제로 애정이 없는 성격의 특징을 나타내게 될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연령의 한계에 대한 더 많은 연구가 분명히 필요한 것이다.

실제를 위한 시사점

이 과제에 대한 증거가 회박하다는 사실은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략 생후 2년이 지난 아동들을 입양하는 것을 주저(한 때는 완전히 거절하기까지 하였다)할 필요는 없다고 밝히고 있다. 최소한 7살까지의 아동들은, 비록 이전에 인간적인 관계를 전혀 형성해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가족으로 옮긴 후에는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빠를수록 좋다’는 정책은 의심의 여지없이 입양부모와 아동 양쪽을 위해 중요시되어야 한다. 그들이 공통의 역사를 더 많이 공유할수록 그들의 상호 적응이 더욱 용이해질 것이다. 부연하면, 아동의 무한한 변화가능성은 가정되지 않아야 한다. 대체적으로 인생의 초기에 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훌륭한 성공으로 이끌고, 가능한 한 빠른 시기에 입양한다는 목표는 계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그러나 어떤 아동이 어떤 이유 때문에 유아기에 입양될 수 없었다 해도, 이동하기엔 너무 늦었다고 결론 내릴 필요는 없다—아마도 그 아이를 보호기관에서 계속 양육하거나 혹은 일시적이고 유대가 약한 위탁양육가정에 맡길 것이기 때문에 위험하기까지 하다. 아동을 보호기관에 맡길 것인가 혹은 입양시킬 것인가 하는 선택의 문제에 있어, 대부분의 경우 후자의 과정이 확실하게 더욱 바람직하다.

또한 지적해야 할 것은 입양부모의 행위가 아동이 적응을 확실하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부모를 선택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신중한 검토 끝에 이루어진다—특히 입양 희망 부모가 입양될 아동의 수보다 훨씬 많을 때. 나이가 비교적 많은 아동의 경우엔 더욱 세심한 주의를 요한다. Tizard의 연구에서 보면, 성공적인 결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입양아의 나이보다 시간과 정신력을 헌신적으로 쏟아 주는 부모의 노력에 있었다. 이는 매우 의미심장한 말이다. 자신의 생모에게 되돌아간 아동들에 관하여 Tizard가 관찰한 바에 따르면(‘혈연관계’의 역할에 관해 논의하는 다른 과제에서 이 문제에 대해 상세히 언급할 것이다), 단순히 성인과 아동이 함께 있는 것만으로 애정있는 유대의 발달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부모가 언젠가 자신에게 되돌아오게 될 매우 긍정적인 감정을 먼저 아동에게 베풀어주는 상호의존적인 기반 위에서만이 이루어질 수 있다. 즉 매우 온화한 성품을 지닌 사람을 찾는 것이, 시기적으로 늦은 입양아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중요한 선결조건이다.

이것은 시기적으로 늦은 입양아들 중 대부분의 초기경험에서 얻은 마음의 상처로 인해 생긴 문제행동들을 갖고 있기 쉽기 때문에 특히 그러하다. 행동상의 문제점으로는 여유없음, 집중력의 부족, 발끈 성내는 기질, 신경질적인 습관과 같은 증후와 시설아의 전형

적인 특징인 낯선 사람에 대한 과잉친절(입양아들도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는 초기단계에서 이런 특징을 보인다)이 있다. 부모의 입장에서 그런 증후들을 인내하고 이해하는 것이 분명히 필요하며, 선택절차에서 고려해야 할 또 다른 요인임에 틀림없다. 잘 돌보아 주고 뒷받침해 줄 준비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입양부모들이 이런 행동의 발생에 대비하는 것도 필수적인 것은 아니지만 매우 바람직한 준비과정 중의 하나이다.

참고문헌

- Bowlby, J. 1965 : *Child Care and the Growth of Love*. Harmondsworth, Middlesex : Penguin.
- Clarke, A. M. and Clarke, A. D. B. 1976 : *Early Experience : myth and evidence*. London : Open Books.
- Clarke, A. M. and Clarke, A. D. B. 1979 : Early experience : its limited effect on later development. In D. Shaffer and J. Dunn(eds), *The First Year of Life*. Chichester : Wiley.
- Rutter, M. 1989 : Pathways from childhood to adult life.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30, 23-51.

모자관계는 언제 형성되는가

문제제기

넓은 의미로 볼 때 ‘모자관계’란 용어는 어머니가 자신의 아이들과 감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을 지칭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특히 출생직후, 길어야 몇 시간 혹은 며칠 동안에 어머니 내부에서 일어나는 급속하고 돌이킬 수 없는 변화들을 일컫는 말이다. 출생 직후 얼마 동안 모성감정이 적절하게 발휘되려면, 어머니와 유아 사이에 지속적인 접촉(살갓을 서로 부딪치는 성격의 접촉이 더욱 바람직하다)이 있어야 한다. 여러 주장에 따르면 이처럼 중요한 시기에 격리로 인해 접촉에 실패가 있을 경우, 모자관계의 형성에 나쁜 영향을 주어 몇 개월 혹은 몇 년 후까지 모자관계에 결함이 생기게 된다고 한다.

모자관계란 관계형성에 대하여 어머니의 입장에 서서 기술하는 것이다(아동의 입장에서 기술되는 애착관계와는 대조가 된다). 더욱 중요한 것은 ‘모자관계학설’(잘 알려진)에서, 모자관계는 개발되는 것이라는 특정한 논리로 기술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본래 많은 동물연구(주로 염소와 양을 대상으로)에서 비롯되었는데, 그 연구들은 출생직후 옆에 둔 경우와 격리시킨 경우에, 어미-새끼 간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보고하고 있다. 관찰에 따르면, 만약 새끼를 출생 직후 단지 몇 시간 동안만 어미와 떼어 놓는다면 어미는 자신의 새끼를 거부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결론적으로, 맨 처음의 접촉이 모성을 이끌어내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이었다. 중요한 시기에 격리되어 맨 처음의 접촉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어린 동물에 대한 어미의 모든 감정이 위축될 것이며, 이는 이후의 어떤 접촉도 돌이킬 수 없을 것이다.

두 명의 미국 소아과 의사 Klaus와 Kennell(참고문헌 참고)은 이러한 연구결과에 고무되어 인간을 대상으로 어머니와 유아 사이의 초기 접촉과 격리의 역할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그들의 연구대상은 두 집단의 어머니들이었다. 한 집단은 대부분의 서양 산부인과 병원에서 관례적으로 해오듯이 신생아와의 신체적 접촉을 제한받았던 경험이 있는 집단이고, 다른 한 집단은 출생직후 3일동안 16시간의 부가적인 접촉을 한 어머니들의 집단이다. 출생후 5년이 지난 다음 이 두 집단을 대상으로 관찰과 인터뷰를 실시한 결과, 더 많이 접촉했던 집단이 분명히 더욱 따뜻하고 더욱 잘 돌보면서 더욱 민감한 어머니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입장에서라도 접촉이 제한된 집단에서 볼 수 없는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근거로 하여, Klaus와 Kennell은 유아가 출생직후 어머니와의 접촉을 더 많이 하게 되면, 이후 몇 년 동안의 모자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후기의 발달을 순조롭게 돕기 위해서는 이 시기에 어머니와 신생아가 밀접한 접촉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서 ‘결정적 시기’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한 경험이 없다면 모자관계의 형성과정에 방해가 된다. 출생직후의 사건들은 어머니가 훌륭한 부모역할을 준비하는 과정에 실제 장기적으로 매우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부모역할의 실패의 원인을 광범위하게 고찰할 경우, 이 제안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특히 아동학대가 이런 측면에서 논의되어 왔다). 이러한 견해는 부모역할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여러가지 단순하지만 본질적이고 실용성있는 측정이 실시되어야 한다는 것을 제시하여 주고 있다. 무엇보다도 ‘모자관계’ 가설은 문제로 제기된 것만으로도 확실히 가치있는 것이다.

다음에 인용된 연구들은 모자관계의 형성 시기가 Klaus와

Kennell이 주장하는 것처럼 특정하게 제한된 기간에 한정된 것인지 혹은 특정히 제한된 기간이 존재하지 않는 것인지에 대하여 스스로 질문하고 있다.

연구결과

요약

연구1 : 어머니-유아 간의 결속관계 : 일반화의 실패*

방법론적으로 볼 때, 이 연구는 이 분야에서 가장 훌륭한 연구물들 중의 하나이다. Klaus와 Kennell의 연구에서 부족했던 점들을, 여러가지 방법, 즉 어머니들을 여러가지 다양한 접촉조건에 무선적으로 할당하는 방법, 이중 맹검(double-blind)에 의한 통제 사용, 모자관계의 표현의 정도를 측정하는 반응을 정확하게 정의하는 방법들을 통해 극복하고 있다.

중하류층의 어머니와 유아 30명을 유아의 출생직후 첫 36시간동안, 상례적인 접촉집단과 특별한 접촉집단에 무선적으로 할당하였다. 상례적인 접촉이란 출산직후 최대한 5분의 접촉을 갖고 그 이후에는 수유시간(약30분)에만 접촉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별한 접촉집단에 속한 어머니들은 출산직후 15분동안 피부접촉을 하고, 잠시 후 다시 45분 동안 더 접촉하였으며 수유시간 전후로 1시간 30분 동안 어머니와 유아가 함께 있었다. 이중 맹검(double-blind)에 의한 방법이란 어머니들이 연구과정에 참여하는 동안 자신이 어떤 특정한 조건에 할당되었는지에 대하여 모르는 상태이며, 동시에 관찰하고 있는 연구조교들도 어느 어머니가 어느 피험자 집단에 속

* Svejda, M. J., Campos, J. J. and Emde, R. N. 1980 : Mother-infant 'bonding' : failure to generalise. Child Development, 51, 775-9.

해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어머니들 간에 다른 접촉조건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서로 비교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 산부인과 입원실에서 일회의 실험에 한 어머니씩 참여토록 하였다.

출생후 36시간동안 어머니와 유아가 함께 있으면서 젖을 먹이고 상호작용하는 장면을 비디오테이프에 담았다. 각 실험장면마다 어머니들의 자애로움, 서로 가까이 있는 모습, 그리고 유아를 돌보는 행동유형에 대한 28개의 다양한 반응측정항목에 점수를 매겼다.

이 연구의 결과는 매우 뚜렷하다. 모든 반응측정항목에서 두 집단간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유아의 성, 어머니의 나이 등의 변인에 상관없이 적용되었다. 28개의 측정항목을 4개의 범주로 묶어 분류한 후 각 범주 단위로 비교분석해 본 결과, 두 집단의 어머니들 간에 아무런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저자는 이러한 연구결과들에서, 상례보다 더욱 빈번한 초기 접촉이 어머니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근거를 전혀 발견하지 못했다고 결론짓고 있다.

연구2 : 어머니와 아동 사이의 접촉량이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구3 : 어머니와 아동 사이의 다양한 접촉량이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 추후연구**

이 두 논문들은 동일한 연구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으며, 스웨덴 중류층의 세 집단의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두 집단(20, 22명의 어머니들) 모두 자신의 아이와 좀 더 긴 접촉을 가졌는데, 즉 어머니가 출산직후 1시간동안 침대에서 발가벗은 유아와 함께 있을 수 있었다. 그러나 그들이 경험했던 병실생활의 내용에는 많은 차이가 있었다. 즉 수유시간사이에 부가적인 접촉을 가졌는지, 간호사들이 어머니를 돌보아주면서 조언을 해주었는지, 그리고 어머니들이 모유를 먹이도록 권유를 받았는지 등의 차이이다. 제 3의 집단(20명의 어머니들로 구성되었다)은 초기의 접촉이 제한되었다. 유아는 출생직후 단지 5분 동안만 어머니 곁에 있었고, 그 이후에는 어머니의 침대에서 떨어져 있는 어린이용 침대에 있었다.

관찰은 2회에 걸쳐 실시되었다. 첫번째는 병원에서 첫 4일동안 모유를 먹이는 시간에 실시되었고, 두번째는 생후 6주 되었을 때 집에서 수유하는 시간에 실시되었다. 실시된 두 차례의 관찰에서는 동일한 관찰 절차와 측정범주가 사용되었다. 첫 4일동안의 어머니 행동은 출생직후의 접촉량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접촉시간이 길었

* Carlsson, S. G., Fagerberg, H., Horneman, G., Hwang, C. P., Larsson, K., Rodholm, M. and Schaller, J. 1978 : Effects of amount of contact between mother and child on the mother's nursing behavior. *Developmental Psychobiology*, 11, 143-50.

** Carlsson S. G., Fagerberg, H., Horneman, G., Hwang, C. P., Larsson, K., Rodholm, M. and Schaller, J. 1979 : Effects of various amounts of contact between mother and child on the mother's nursing behaviour : a follow-up study. *Infant Behavior and Development*, 2, 209-14.

던 어머니들이 제한된 접촉시간만을 가졌던 어머니들보다 어루만져주고, 안아주고, 비벼대고, 흔들어주는 양이 훨씬 더 많았다. 병실생활에 따른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6주일 이후에 다시 관찰하였을 때, 출생직후의 접촉량에 따른 차이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다. 반응측정항목에서도 집단간에 차이가 없었다. 이와 같이, 연구자들이 발견할 수 있었던 결과는 단기적이고 일시적인 영향뿐이었다. 이런 단기적인 영향들은 몇 주일 후에 곧 사라졌다.

연구4 : 출생시 격리되었던 유아들의 애착관계 유형*

출생시, 유아를 어머니와 격리시키는 가장 보편적인 이유 중의 하나는 미숙아이기 때문에 집중치료실에서 유아를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이다. ‘모자관계의 실패’ 가설이 맞는다면, 이런 유아는 어머니와의 관계가 불만스럽게 발달될 수 있는 높은 위험성을 틀림없이 갖고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이런 문제에 관하여 조사하고 있다.

24명의 유아들이 연구대상이었고, 그들은 태어나면서 즉시 어머니와 격리되어 평균 27일동안 신생아집중치료실에 들어가게 되었다. 유아가 자신의 어머니와 어떤 형태의 애착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 평가하기 위하여 생후 12개월, 19개월 때 다시 관찰하였다. 가설로서 이런 유아들의 초기 격리는 어머니의 모자관계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그 결과 유아들이 어머니와 만족스런 애착관계를 형성할 수 없다고 설정하였다.

유아의 애착관계 유형을 평가하기 위하여, 낯선 사람의 접근, 방에서 어머니가 나갈 때 등의 긴장감이 짙은 일련의 사건들로 구성

* Rode, S. S., Chang, P. N., Fisch, R. O. and Sroufe, L. A. 1981 : Attachment patterns of infants separated at birth. *Developmental Psychology*, 17, 188-91.

된 표준평가절차인 'Ain-Sworth의 낯선 상황'에서 유아들을 관찰하였다.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동안 유아가 어머니를 대하는 행동을 기록하고 분류하였다. 이 연구의 표집대상인 유아들과 이미 연구되어 있는 출생시 격리경험이 없었던 유아들을 서로 비교해 보았고, 유아가 집중치료실에 있는 동안 자주 접촉했던 부모들과 최소한의 방문만 했던 부모들을 서로 비교해 보았다.

그결과, 어떤 방법이든 초기의 격리가 어머니와 정상적인 애착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유아의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믿을 만한 근거가 발견되지 않았다. 아마도 이 논문의 저자는 '유아와 보호자의 애착관계 유형은 포괄적인 상호작용의 산물이다'라고 믿는 것 같다.

연구5 : 인간적인 어머니-유아의 사회적 결속관계 : 예민한 시기가 있는가?*

여기에 인용된 문헌은 8년 이상의 추후연구에서 수집된 결과들에 관하여 Leiderman과 그의 동료들이 이전에 출판한 바 있는 많은 보고서들에 관한 요약서이다. 이 연구의 대상은 조속아로 태어난 두 개의 유아집단이다. 한 집단은 어머니와 유아의 접촉이 눈으로 보는데 그치고 만져보지 못하도록 되어있는 집중치료실에서 상례적인 격리를 경험한 22명의 유아들로 구성되어 있고, 다른 한 집단은 어머니가 유아를 만지고 돌보아주고 모든 양육행동에 참여할 수 있는 등 접촉이 많았던 20명의 유아로 구성되었다. 어머니-유아 조는 무선적으로 두 가지 조건에 할당되었다. 이런 실험조건은

* Leiderman, P. 1981 : Human mother-infant social bonding : is there a sensitive phase? In K. Immelmann, G. W. Barlow, L. Petrinoich and M. Main(eds), Behavioural Development.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유아가 병원에 입원해 있던 3~12주 동안 계속되었다. 24명의 정상적인 유아들로 구성된 비교집단도 역시 포함되었다.

어머니들의 행동과 태도에 관한 추후연구과정에서 인터뷰, 질문지 및 관찰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많은 양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모든 측정은 어떤 어머니-유아 조가 어느 집단에 속하는지에 대하여 모르는 상황에서 이루어졌다. 처음 2년 동안은 몇 달에 한번씩 어머니들을 관찰하였고, 5~8년후 다시 관찰하였다.

병원에서 퇴원한 지 1주일 후에 관찰했을 때 격리된 집단과 접촉 집단들 사이에는 많은 차이가 나타났다. 1~2시간 동안 실시하는 관찰에서 격리집단의 어머니들은 유아와 신체적 접촉을 덜 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어머니로서의 역할에 관한 여러가지 다양한 행동측정에서는 두 집단 간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질문지 응답 분석결과에 의하면 접촉 집단에 속한 어머니들이 어머니로서의 역할에 스스로 더 큰 만족과 자기 신뢰감을 보여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개월 후에는 이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병원에서 퇴원한 지 1년 후에는 측정된 것 중 어느 한 가지에서도 두 집단 간에 차이가 없었다. 퇴원한 지 21개월 후에 한 가지 차이가 발견되었는데, 격리된 집단의 어머니들이 다른 집단의 어머니들보다 그들의 아이들에게 더욱 애정깊게 대했다는 것이다. 또한 두 집단의 유아들이 발달 검사에서 획득한 점수에서는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끝으로 5~8년 후에 실시한 추후 인터뷰 역시 측정내용의 어느 부분에서도 차이가 없다는 것이 다시 한번 밝혀졌다. 각 피험자에게서 나타난 차이는 사회적 지위나 평판같은 전통적인 가족변인에 의한 것이지, 어머니와 유아의 초기 경험에 의한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즉 조숙아 집단의 어머니들이 형성한 사회적 결속관계는 정상아 집단의 어머니들의 사회적 결속관계와 아무런 차이가 없었다.

연구6 : 유아기동안의 병원과 가정에서의 양육 : 어머니와의 애착 관계, 아동 학대와 무시 및 건강관리에 미치는 영향*

초기의 격리가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모자관계 실패’는 아동학대를 설명하는데 있어 하나의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보고서와 다음에 인용할 보고서는 바로 이 가능성에 대하여 살펴보고 있다. 연구대상은 모두 321명의 여성으로 저소득층 출신이고, 대부분 나이가 어리고, 흑인이고, 미혼이다. 출산시 그들은 무선적으로 접촉집단과 비교집단으로 할당되었다. 전자의 집단에 속하는 어머니들에게는 출생 후 첫 3시간이 지난 후에 부가적으로 45분 동안 유아와 함께 있도록 허락되었다. 또한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동안 하루에 5시간씩 부가적으로 유아들과 함께 있도록 하였다. 비교집단에 속한 어머니들에게는 출산직후 잠시 동안만 유아와 함께 있도록 하고, 그 이후 병원에서의 접촉시간은 수유시간과 다른 상례적인 일에만 제한시켰다.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출산하기 전 마지막 3개월 동안 인터뷰를 실시하고, 유아가 생후 4, 12개월이 되었을 때 집에서 인터뷰와 관찰을 실시하였다. 관찰자는 어떤 어머니가 어느 집단에 속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두 사람이 한 조를 이루어 목욕하기, 옷 입기, 밥먹기, 놀이하는 상호 작용 장면 등을 관찰하면서 어머니-유아 간의 애착행동에 관한 30개 항목에 대하여 기록하였다. 그들은 또한 각 방문이 끝나고 난 후, 어머니의 수용-거부와 참여-무관심을 측정하기 위하여 설계된 92개 항목의 목록을 완성하였다. 또한, 아동학대와 무시에 관한

* Siegel, E., Bauman, K. E., Schaefer, E. S., Saunders, M. M. and Ingram, D. 1980 : Hospital and home support during infancy : impact on maternal attachment, child abuse and neglect, and health care utilization. Pediatrics, 66, 183-90.

보고서는 아동들의 첫 일년에 관해 적은 공공기관의 기록에서 수집하였다.

두 집단에서 산출된 측정치들 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통계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아동에 대한 어머니의 수용, 어머니의 적극적인 상호작용량과 자극량, 우는 유아를 달래는 어머니의 능력 등에서 나타난 점수 차이는 교육정도, 종족, 배우자의 유무 등의 사회적 배경변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병원에서 어머니와 유아간의 접촉량은 비교적 의미가 적었다(그리고 놀랍게도, 어머니에게 도움을 주기 위하여 설계된 가정방문 프로그램을 동일하게 적용하였지만, 이것 역시 사회적 유대관계의 발달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의학적인 문제들 때문에 출생 직후 24시간 동안 유아를 눈으로만 돌볼 수 있었던 88명의 어머니들을 별도로 분석한 결과, 다른 어머니들의 행동과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끝으로, 학대와 무시가 발생하는 것은 신생아기의 접촉량과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자들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애착관계, 그리고 학대와 무시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단지 신생아기의 접촉량을 늘리는 것 이상의 다른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야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연구7 : 학대, 무시 및 학사의 원인이 되는 <결속관계 형성>의 실패*

전체 267명의 여성 표집 중에서 두 집단이 추출되었다. 한 집단은 그들의 유아들에게 수준 높은 보호를 제공하는 33명의 어머니들이고, 다른 한 집단은 그들의 유아들을 학대하거나 무시하는 32

* Egeland, B. and Vaughn, B. 1981 : Failure of ‘bond formation’ as a cause of abuse, neglect and maltreatment.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51, 78-84.

명의 어머니들이다. 어떤 수준의 보호를 하느냐에 대한 판단은 출생 후 3, 6 및 9개월에 가정에서 실시된 관찰에 근거하여 결정되었다. 관찰자들은 가정을 방문한 후 아동에게 가하는 신체적 폭행, 빈약한 보호 수준, 열악한 생활조건, 무시, 성장의 실패 등에 대한 여러가지 항목에 답하였다. 여성들은 모두 하류계급의 사회·경제적 배경을 갖고 있었고 거의가 어리고 미혼이었으며 손위의 아동은 없었다.

출생, 출산 그리고 신생아기에 관한 상세한 자료는 병원의 기록부에서 수집하였다. 이 자료에는 조숙의 정도 어머니와 격리된 신생아에게서 나타나는 출생시의 문제점들, 어머니가 퇴원한 후 신생아가 병원에서 혼자 머물렀던 시간들—즉 모자관계 실패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모든 증거—이 포함되어 있다. 두 집단간의 비교에 의하면 이러한 증거의 어떤 것에서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계획에 없던 임신, 노동시간, 혹은 신생아의 신체적 이상의 발생등에 대한 자료 중 어느 항목에서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조숙의 정도, 출생시의 문제, 출생직후의 제한된 접촉 등이 어머니에 의한 학대, 무시, 혹은 기타의 바람직하지 않은 양육 방식으로 나타난다는 생각을 뒷받침할만한 증거는 없다’.

해석

이 분야에서 실시된 연구의 역사는 후속연구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은 연구의 연구결과들을 수용하는 데에는 매우 신중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Klaus와 Kennell이 작성한 원래의 보고서는 그들이 전하고자 했던 내용이 단순하였기 때문에 강력한 호소력이 있었다: 효과적인 어머니의 역할은 출생직후 얼마 동안에 일어난 사건들에 의하여 좌우된다. 이 시기 동안 어머니와 유아

가 격리되어 있거나 그들 사이의 접촉이 제한되어 있다면 어머니의 역할은 오랜동안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되며 어쩌면 회복될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주장은 후속연구에 의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모자관계 가설에 대해 검토를 시도한 여러 연구들은 모자관계가 바람직하나 혹은 바람직하지 못하나를 ‘결정짓는 시기’ 즉 출생직후 매우 제한된 시기에 한정되는 ‘결정적인 시기’의 개념을 부정하는 입장에 거의 동의하고 있다. 출생직후에 충분한 접촉을 하지 못한 것이(최소한 어떤 연구들에 의하면) 어느 정도 직접적이고 단기적인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장기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은 이제 분명히 부정될 수 있다. 본래 이러한 주장을 내세웠던 동물에 관한 연구결과들조차도 후속연구들에 의하여 수정되어져야 했다.

Klaus와 Kennell의 연구에서 도출된 결론에 책임이 있는 것은 아마도 부적절한 연구일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 요약된 대부분의 후속연구들은 이중 맹점(double-blind)의 절차, 피험자를 다양한 조건에 무선적으로 할당하는 방법, 세련된 측정 기술들을 채택함으로써 이러한 방법론적 단점들을 극복하였다. 이것이 우리가 얻어낸 결론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중의 하나이다. 또 다른 하나는 매우 다양한 피험자집단을 채택한(중상류층 가정, 미국·영국·스웨덴·독일의 어머니들, 정상아와 조숙아 등등)연구들이 모두 비교 가능한 연구결과들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연구설계와 연구방법이 서로 상당히 다른데도 불구하고 일치되는 것이 있다. 즉 제공된 부가적인 접촉 시간의 양과 성격에 편차가 있었고, 결과를 측정하기 위해 선택된 어머니와 유아의 기능에 편차가 있었고, 얻어진 자료의 분석절차에도 편차가 있었다. 또한 출생후 예상되는 어머니의 감정의 고양, 즉 유아의 출현에 의해 나타나는 호르몬의 변화 상태를 설명하기 위해 때때로 사용되는 기제에 대하여서는 실증되지 않

있다는 사실 역시 주목할 만하다. 원래의 보고이후 8년이 지난 뒤에, Klaus와 Kennell이 자신들이 이전에 주장했던 견해를 수정할 필요성을 발견했다는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들은 두번째 연구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모자관계의 형성과정에 포함되는 많은 복잡한 요인들은 서로 분리되어 생각될 수는 없다. 것처럼 전생애에 걸쳐 지속되는 관계는 한 가지 단순한 과정에 의하여 좌우될 수는 없는 것 같다. 애착관계에 도달하는 데에는 안전한 혹은 잘못된 길이 많이 있다’.

실제를 위한 시사점

모자관계의 개념이 여러 영역에서 하나의 신성한 학설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모든 어머니들이 어느 특정 시기에 특정 방법으로 행동해야 한다고 제안하는 그리고 전문가들로부터 처방된 방법을 시행하지 않는다면 불가피한 불행이 닥치게 된다는 권고가 예상되는 하나의 ‘당위성’. 그 주장은 모자관계 과정을 전부나 전무나의 일회성 사건으로 보고 있다. 즉 그것은 출생직 후에 급속히 그리고 갑작스럽게 일어나야 하는 것이며, 어머니에게 모든 무제한의 의무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처럼 확고하게 고정된 견해는 Klaus와 Kennell과 같은 사람들에 의해 처음으로 주장된 제안이 왜곡된 것에 불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학회에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견해이다. 이로 인해 산부인과 간호사들은 그들의 감독하에 모자간의 접촉이 더욱 많이 이루어지게 하여 모자관계를 확실하게 형성시킬 책임을 지게된다. 사회복지가와 건강상담원이 ‘모자관계가 형성되었는가’라고 질문하면 ‘예’ ‘아니오’ 중 양자택일의 단순한 응답을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후에 모자관계에서 아동학대와 같은 병리현상이 발생하면, 특정한 사례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대하여 탐구 대신 너무도 쉽게 자

동적으로 ‘모자관계형성의 실패’로 원인을 돌려 버린다. 덧붙여서 말하자면 출생직후 유아에 대한 격렬한 사랑의 감정을 체험하지 못한 어머니들은 죄의식과 함께 자신이 어머니로서 부적합하다고 느끼게 만든다.

우리들의 사고에 확고하게 고정되어 있는 모자관계 학설은 전체적으로 지나치게 단순화된 것이다. 어머니와 유아의 관계 형성은 매우 복잡하고 점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항상 변화하는 과정이다. 어머니와 유아의 관계형성을 이런 과정으로 보지 않는다면 인간상호간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상세하고 엄밀한 분석을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이 학설은 학대나 무시와 같은 상황을 설명하는 하나의 견해일 뿐이다. 이 학설만 맹신하는 상황에서는 ‘모자관계의 실패’에 대한 진단이 무의미하고 부정확한 것이다. 모자관계 형성이 단지 매우 제한된 한기간 동안에만 일어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그 요구조건이 충족되지 못했을 때 비관적인 태도를 갖게 하기가 쉽다. 따라서 다음의 사례들에 대한 정당화가 불가능하다. 입양의 경우, 어머니가 너무 아프거나 쇠약하여 출산후 유아를 돌볼 수 없는 경우, 제왕절개에 의한 출산에 의해 어머니가 마취 후라서 처음에 의식이 없는 경우, 유아가 조숙아이거나 위험한 병에 걸려서 특별한 치료실에 격리되어 있어야 하는 경우, 이런 모든 경우에 실패는 운명지워졌다고 해야 할 것인가? 사실은 위와 같은 사례들에서도 모자관계는 정상적으로 형성되며, 관계의 강도와 수준은 모자관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증거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이 증거들 중 어떤 것도 출생과 어머니의 출산후 경험을 더욱 인간답게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계된 연구의 중요성을 부정하는 것은 없다. 모순되는 이야기이지만, 이 부분이 모자관계의 학설이 공헌한 결과 중의 하나이다. Klaus와 Kennell의 연구가 출판되

자 실제로 서양의 많은 산부인과 병원에서는 어머니와 유아를 좀 더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보호하기 위해 관례적으로 행하던 과정들을 수정하였다. 이러한 것들은 모자관계를 훌륭히 형성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오해 하에서 수행되었다. 우리가 이미 살펴 보았듯이, 이제 초기의 접촉이 모든 것을 쉽게 해결해주는 방법은 아닌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어머니에게 전적인 신뢰감을 부여한 연구들도 매우 가치있을 것이다. 이미 우리가 살펴 보았듯이, 몇몇의 연구들은 부가적인 접촉이 출생 초기의 관계를 증진시키는데 유익한 단기적 영향을 준다고 지적하고 있다.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초기 경험의 장기적 영향에 관한 것이다.

물론 이상적으로 생각하면 어머니가 유아를 돌보는 일은—강제적인 접촉이든 혹은 강제적인 격리이든 간에—자동적으로 일어나는 일상생활에 의해 지배되기 보다는 개인적인 요구에 의해 행해질 것이다. 어머니들이 자신의 신생아와 접촉하고 싶어하는 소망이나 자발적인 관심 정도에는 개인차가 상당히 많다. 여러 연구물들에서 볼 수 있듯이, 높은 비율의 어머니들이 처음에는 무관심한 감정을 보이며, 몇몇의 어머니들은 갓 태어난 유아와 함께 접촉하는 것을 거절하기까지 하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긍정적인 태도로 바뀌게 된다. 즉각적인 접촉을 하고 싶어 했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은 장기적인 진단의 의미가 없다.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모자관계 확설은 어머니들이 갓 태어난 유아들에게 깊은 사랑의 감정을 느끼게 된다는 가정에서부터 오류를 범하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 사랑의 감정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점 더 깊어가는 것이다. 어머니가 유아를 사랑하게 되는 속도를 가지고 그 이후의 모자관계의 성패를 예측할 수 있다고 제안하기에는 충분한 증거가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 아직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어머니에게 좀 더 많은 접촉을

강요하여 서둘러 모자관계 형성을 시도해야 하는 한정된 시기는 없다.

후기에 나타나는 학대나 무시와 같은 병리현상을 설명하는 방법으로서 출생직후에 일어났던 사건들에게만 책임을 전적으로 전가하는 것은 분명히 삼가되어야 한다. 심리적 발달을 이해하기 위하여(결정적인 사건이 시간상 거리가 먼 시점에서 일어났을 때) 단일 요인에 의한 설명을 시도하는 것은 옳지 못한 것이다. 학대와 무시의 사례들이 미숙아나 신생아시의 질병과 같은 이상조건 때문에 초기에 어머니와 격리시켰을 때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가정들의 특징이 대부분 열악한 주거환경, 빈약한 식사, 긴장감이 감도는 가족관계 등 그 밖의 많은 비정상적인 환경에 처해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인과관계에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돌이켜보면 실제로 이러한 요인들 중 어느 하나의 영향이라고 확신할 수는 없다. 더욱 분명한 해답을 찾기 위해 Egeland와 Vaughn(위에서 인용된)가 실시한 연구와 같은 발전적인 연구가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초기 격리가 필요한 많은 수의 신생아질병에 걸린 유아들이 학대받지 않고 어머니와 완전히 만족스런 관계를 확립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밝혀질 수 있을 것이다. 아동학대와 무시에 대한 설명으로서 단순히 출생직후의 몇 시간안에 일어난 사건들이 주원인이라고 제시하는 것은 충분한 원인설명이 되지 않는다. 즉, 관계형성을 방해하는 요인들은 단일요인에 의한 설명으로 해결되지 않는 훨씬 더 복잡한 사건들일 것이다.

참고문헌

- Kennell, J. H. and Klaus, M. H. 1984 : Mother--infant bonding : weighing the evidence. *Developmental Review*, 4, 275

—82.

Klaus, M. H. and Kennell, J. H. 1976 : *Parent—Infant Bonding*. St Louis : Mosby.

Schaffer, H. R. 1984 : *The Child's Entry into a Social World*. London : Academic Press.

Sluckin, W., Herbert, M. and Sluckin, A. 1983 : *Maternal Bonding*. Oxford : Blackwell.

친 부모가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가

문제제기

대부분의 아동들은 자신을 낳아준 부모의 보호 아래서 양육된다. 그러나 모든 부모들이 양육이라는 책임을 수행할 능력이 있거나, 기꺼이 수행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아동들은 버려지거나 포기되어 지거나 강제적으로 격리되어지므로 그런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체시설이 필요하게 된다. 그런 시설은 여러가지 형태를 띠게 된다. 영구적이고 인간적인 관계를 형성하고자 하는 아동의 욕구를 반영하자면, 위탁양육이나 입양을 통해 새로운 가정에 배치하는 것이 가장 널리 추천되는 방법이다. 그렇다면 ‘친’부모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 의해 양육된 어린이들이 어떤 식으로 장애를 받게 되는가? 생리학적으로 관련이 없는 사람들은 ‘열등한’ 부모가 되는가? 친부모와 양부모들 사이에 갈등하는 경우, 기타 고려해야 할 모든 사항들은 접어둔 채, 혈연에 의한 결속관계만을 고집하여 친부모가 그들 의지대로 아동을 계속 데리고 있거나 권리를 주장하도록 해야 하는가?

혈연에 의한 결속관계에 대하여 널리 퍼져 있는 신념은 친부모가 어떤 타인보다도 아동보호와 양육을 책임지는데 더욱 적합하도록 만드는 자연스런 친화력이 있다는 생각에 근거하고 있다. 이러한 적합성은 부모와 아동간에 공통적으로 갖는 유전적 요소들에 근거한다고 가정된다. 한 아동이 어떤 다른 성인과 공유하게 될 경험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들 사이에 형성될 사랑의 감정이 어떤 것이든 간에, 그런 것들은 혈연에 의한 결속관계에 밀리어 부차적인 것으로 인식된다. 결국 법정에서는 양부모가 실질적으로는 시간과 공을

더 들이고 깊은 애착관계를 형성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동을 양부모에게서 떼어 내어 단지 출생후 몇 시간 혹은 며칠 동안만 같이 있어준 사실 밖에 없는 생모에게 아동을 보내도록 판결을 내린다. 덧붙여서 부모로서 아동들을 보호하기에 부적합한 부모에게서 아동들을 격리시켜 새로운 가정에 입양시키기를 꺼려하는 것은 혈연에 의한 결속관계의 가치에 대한 신념에만 전적으로 매달리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나 그런 결속관계가 심리적으로 현실성이 있는 것인가?

연구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은 다음과 같다: 생리학적인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 부모역할을 하는 것이 언제나 차선책에 불과한 것일까? 이 문제에 답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부모들과 아동들을 대상으로 면밀히 조사해 보는 것이다. 전자는 더욱 직접적이다. 아동양육 실제에서 양부모가 친부모와 어떻게 다른지 알아볼 수 있고, 특히 혈연적인 관계가 없다는 것이 아동양육에서 어떤 식으로든 장애요인이 되는지 알아볼 수 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부분에 관한 유용한 증거가 거의 없다. 아래에 제시될 요약들 중 마지막 문헌이 약간의 관련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아동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또 다른 탐구방법은 훨씬 더 일반적인 방법이다. 이 방법은 혈연상의 관련이 없는 사람들(보통은 입양부모)에 의해 양육된 아동들의 심리적 기능이 다른 상황에서 양육되었을 때 기대되는 수준과 비교하여 열등하거나 발달적으로 지체되었는지 밝혀보기 위하여 그들에게 미치는 영향들을 알아보는 방법이다. 특히 지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들은 많은 주목을 받았으나, 아래의 요약들에서 볼 수 있듯이 연구자들은 사회적 적응, 행동 문제들 및 학문적 성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역시 관심을 갖고 있다. 이러한 측면들에서 입양아들이 바람직하지 않게 행동하고 있다면(그래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이지만)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사람은 입양

부모들이다.

연구결과

요약

연구1 : 성장하고 있는 입양아*

이 연구는 가정과 학교에서의 입양아의 행동과 적응을 다루고 있다. 이 연구는 연구대상이 국제적인 조사에 포함되었던 매우 대표적인 집단, 즉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에서 1958년 3월 첫째 주에 태어난 모든 아동들에서 추출되었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아동들에 관한 모든 자료들은 출생부터 성인 되기까지 정기적으로 수집되었고 자료의 출처는 의료기록, 시험성적, 학교에서의 평가, 부모를 대상으로 한 설문지 조사 등으로 매우 다양하였다. 또 한 가지 이 연구의 장점은 비교가능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입양아들을 비입양아로 구성된 통제 집단과 비교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연구의 대상인 145명의 입양아들을 7살 때 평가하였다. 그들의 기록에 의하면 이 아동들중 42%가 출생시 ‘손상되기 쉬운’ 상태, 즉 미숙아, 독혈증 등 출생전후의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안고 있었다. 나머지 출생집단에서 나타난 것보다 훨씬 더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아동들중 74%가 생후 3개월 이내에 입양 부모에 입양되었다. 단지 9%만이 생후 1년 뒤에 입양되었다.

아동이 7살 때, 교사가 ‘브리스톨 사회적 적응 안내’(Bristol Social Adjustment Guides : 행동에 관한 다량의 구체적인 기술이 교사에게 제시되고 교사는 질문의 대상인 아동에게 해당하는 내용에

* Seglow, J., Pringle, M. K. and Wedge, P. 1972 : Growing up Adopted. Slough : National Foundation for Educational Research.

줄을 긋는다. 응답된 내용에 대한 편차를 계산할 수 있다)에 답한 결과에 근거하여 아동의 적응이 측정되었다. 입양아들과 나머지 출생집단 간에 적응의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한편 사생아로 태어나 생모와 함께 생활한 아동들의 경우에는 (아마 가장 적절한 비교집단이 되겠지만) 부적응의 정도가 현격하게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입양소년들이 입양소녀들보다 일탈 행위를 더 많이 보여주고 있었다. 아동이 겪은 초기 경험이 그들의 적응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입양 이전에 몇 번 이동했는지에 의해 영향받지 않았으며, 생모로부터 입양가정으로 직접 옮겨졌는지 혹은 그렇지 않았는지에 의하여 영향받지 않았다.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이는 한 측면은 입양시의 나이였다. 생후 6개월 이후에 입양된 아동들은 그 이전에 입양된 아동들보다 다소 높은 부적응 점수를 보여주었다. 전체 적응점수들을 좀 더 세분화 된 행동유형을 나타내는 ‘증후’ 점수로 환산했을 때, 12가지 증후군 중 10가지에서 입양아와 비입양아들 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나머지 2가지 증후군(‘다른 아동들에 대한 적대감’과 ‘아동들에 의한 인정에 대한 불안감’)에서 입양아들이 다소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사들에게 아동의 교육적 능력과 성취도에 관한 정보를 제공 받고자 요청하였다. 일반적인 지식 수준에 대한 평가는 입양아들이 다른 집단의 아동들보다 더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비교결과는 아동들의 자기 표현력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러나 창의력, 독해력, 그리고 수리력 검사에서는 입양아와 비입양아들 사이에 차이가 없었다. 한편 이러한 각각의 비교에서 입양되지 않은 사생아들은 유의미하게 훨씬 뒤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같이 대부분의 입양아들이 출생시 손상되기 쉬운 상태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7살 때에는 초기의 장애를 거의 전부 극복하였

다. 이와 관련지어 가정방문 상담원이 입양가정의 90%가 행복하고 정상적인 가정이었다고 판단하는 것과 교사들이 다른 어머니들과 비교하여 양어머니들을 상당히 높은 비율로 ‘매우 관심이 높은’이라고 평가(60% 대 39%)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일 것이다.

연구2 : 입양아의 심리적 학문적 적응*

이 연구 역시 입양아의 사회적 교육적 적응을 연구하였다. 이 연구는 이전의 많은 연구들이 여러가지 방법론적 결함들로 인해 상반되는 결과를 얻었으므로 좀 더 세련되게 설계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신념에서 수행되었다.

연구대상 아동들은 모두 260명이었는데 이중 130명은 입양아이고, 130명은 비입양아였다. 나이, 성별, 인종, 사회계층, 가족 구조 및 형제수에 따라 주의깊게 구성되었다. 각 집단은 남아 여아 반반씩 포집되었다. 대부분의 입양아들은 매우 이른 나이에 입양되었고 모든 아동들은 그들의 양부모를 통해 자신의 신분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 두 가지 평가 방법이 사용되었다. 한 가지는 어머니가 평가하는 것으로서 사회적 능력 및 행동 문제항목으로 구성되었고, 다른 한 가지는 관찰가능한 학급 내에서의 행동과 학문적 성취에 대한 척도로서 교사에 의해 완성되었다. 평가지 아동들의 나이는 6살에서 11살 사이였다.

연구결과 어머니에 의한 평가에서 입양아들은 사회적 능력에서 더 낮게 평가되었고, 문제행동이 비입양들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에 의한 평가에서도 비슷한 경향이 나타났다. 즉 교사가 완성한 12개의 하위척도(부주의, 독창력, 실패에 대한 불안감

* Brodzinsky, D. M., Schechter, D. E., Braff, A. M. and Singer, L. M. 1984 : Psychological and academic adjustment in adopted childre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2, 582-90.

등의 측면을 다루고 있는)에서 입양아들이 더 나쁜 결과가 나왔다. 이러한 양상은 연구된 나이의 범주 내에서 비교적 고르게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여아, 남아 모두에게 해당된다. 이와같이 입양 집단은 일반적으로 감정적 행동적 교육적 측면에서 문제를 더 많이 지니고 있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저자들은 입양아들이 비입양아와 비교하여 적응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했지만 여전히 정상적인 행동 범주에 충분히 포함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환언하면 입양아들이 특별하게 심각한 병리현상을 나타내고 있지는 않고 다만 비입양아들 사이에서 발견되는 것보다 좀 더 극단적인 행동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연구3 : 입양가정에서의 어머니-유아의 애착관계*

이 연구보고서는 앞에서 인용한 보고서의 저자팀이 내놓은 결과이며 학령기에 나타나는 입양아들의 심각한 심리적 문제발생이 유아기에 형성된 입양부모와의 불안정한 관계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연구가 수행되었다. 입양가정의 어머니-유아 조로 구성된 집단을 대상으로 초기의 애착관계의 양상에 관하여 평가하였고 그 결과를 비입양집단에서 발견된 것과 비교하였다.

입양 집단은 44쌍으로 표집되었고, 이중 19명의 아동들은 동양계나 라틴계 출신이 백인가족(즉 다른 인종간의 양자 결연 집단)으로 입양된 경우이다. 모든 아동들은 출생후 3일 내지 10개월 사이에 입양되었으며, 최소한 4개월(평균 12개월)동안 입양부모와 함께 생활하였다. 비입양집단의 아동들은 나이별, 부모의 교육수준

* Singer, L. M., Brodzinsky, D. M., Ramsay, D., Steir, M. and Waters, E. 1985 : Mother-infant attachment in adoptive families. Child Development, 56, 1543-52.

별, 아버지의 나이별, 가족의 사회계층별로 입양집단과 배합되었다.

생후 13~18개월 사이에 모든 아동들을 대상으로 ‘낮선 상황’—부모와 격리되었다가 다시 곧 만나게 되는 일련의 가벼운 긴장 상황에 대한 반응을 관찰함으로써 부모와 아동 간의 애착관계의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널리 활용되고 있는 방법—에서 평가하였다. 정교한 채점을 거쳐 아동들을 3가지 등급으로 나누었다. 안정성, 기피성 및 양향성, 비디오테이프에 녹화하여 채점한 이 채점 방법은 아동이 입양여부에 대한 사실을 모르는 상황에서 사용되었다.

비입양아 통제집단을 동일한 인종 집단에 속하는 가정에 입양된 아동들과 비교해 본 결과 애착관계 등급에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비입양 집단을 다른 인종간에 입양된 아동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만이 차이가 분명하게 나타났는데 전자의 경우 26%가 불안정하게 애착된 것으로 분류된 것과는 대조적으로, 후자의 경우엔 58%가 그런 등급으로 분류되었다. 이와 같이 아동이 속한 인종과 동일한 인종배경을 가진 가정에 입양된 아동의 경우는 모자관계의 양상에 있어 비입양아 가족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다른 인종간의 입양이 모자간의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데 있어 때로는 어떤 긴장감을 부여하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므로 이러한 결과에 의하면, 후기에 나타나는 행동상의 문제점들이 근본적으로 어머니와의 불만족스러운 관계에서 비롯된다는 제안을 뒷받침할 증거는 없으며 소수의 예외적인 사례들이 있을 뿐이다.

연구4 : 학문적인 성취와 지능지수를 얼마만큼 향상시킬 수 있을까? 프랑스의 입양연구에서 밝힌 직접적인 해답*

* Schiff, M., Duyme, M., Dumaret, A. and Tomkiewicz, S. 1982 : How much could we boost scholastic achievement and IQ scores? A direct answer from a French adoption study. Cognition, 12, 165-96.

주로 아동의 지능이 친부모와 양부모사이에 어느 쪽을 더 닮았는지 밝혀 봄으로써 유전과 환경의 영향을 선별하기 위하여, 입양이 지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여러가지 다양한 연구들이 시도되어 왔다. 이 연구에서 프랑스 연구팀은 동일한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다소 다른 접근방법을 사용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아동이 태어난 가정보다 사회적으로 더욱 유리한 가정에서 양육되는 것이 아동의 지적발달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 밝혀내는 것이고, 연구방법으로는 입양아 동집단을 출생가족에 남아있는 입양아의 친형제와 비교하는 것이다. 연구대상인 32명의 입양아는 모두 출생시 생모에 의해 포기되어 생후 6개월 이전에 입양가족에 입양되었다. 출생가족의 사회계층은 최하위에 속했으며, 친부모가 모두 미숙련 노동자였다. 한편 입양부모는 상중계층의 범주에 속했으며, 입양 아버지의 경우 사회경제적 척도에서 상위 13%에 속하였다.

아동들은 6살부터 13살 때까지 평가되었다. 연구결과 입양아 집단의 평균 지능은 110.6이었던 반면, 그들의 친형제들의 평균은 94.2였다. 학업성적의 실패율(한 학년 이상의 유급으로 정의한다)에 있어서, 입양집단의 경우 13%의 비율을 보인 반면, 그들의 친형제의 경우 55%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이 비율을 전체 학생들의 전국적 표준과 비교해 볼 때, 입양아들이 분명히 앞서가고 있음을 알수 있다. 즉 미숙련 노동자 계층에 속하는 아동들에 비해 평균지능지수는 14점이 더 높고, 학업실패율이 4배나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실질적인 차이는 입양아들이 경험한 사회적 환경의 근본적인 변화에 의해서만이 설명될 수 있다고 저자들은 믿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차이는 입양부모들이 실제 양육하는 동안 제공하는 탁월한 지적 환경을 반영하는 것이다.

연구5 : 입양되기 위해 등록된 아동들에 관한 장기적, 종단적 연구*

이 연구는 스웨덴에서 수행된 예의 야심적인 연구로서, 입양된 아동들의 사회적 지적 발달에 관하여 아동기 전체에 걸쳐 조사하고 이를 수많은 통제집단들과 비교한 장기적 추후연구이다.

2년동안 스톡홀름 시에 입양되기 위해 등록된 모든 아동들이 표집에 포함되었다. 실제로는 이러한 아동들 중의 약 사분의 일만이 입양되었고, 삼분의 일 이상이 생모에게로 되돌아 갔으며, 나머지는 위탁가정에 들어갔다. 11살과 15살때, 160명의 입양아, 214명의 되돌아간 아동, 205명의 위탁가정에 들어간 아동들이 연구대상이었다. 모든 아동들의 친부모는 하위의 사회·경제적 배경을 지니고 있었으며, 거의 모든 부모가 일정한 직업이 없는 미숙련 노동자였다. 입양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비교적 매우 높은 편이었으며, 위탁 가정의 부모들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표준보다 다소 하위에 속해 있었다.

표집된 각 아동과 같은 성을 지닌 두 명의 급우가 무선적으로 추출되었다. 이들에 관한 정보는 주로 교사로부터 수집되었는데, 교사에게 공격성, 사회적 성숙도, 지적 능력, 집중력 등의 측면들에 관한 9단계 척도상에 아동들의 적응 및 행동을 평가해주도록 요청하였다. 교사들은 각 아동이 어느 집단에 소속되었는지 모르고 있었다. 또한 모든 아동들의 학교 성적이 수집되었다.

11살 되었을 때, 3개의 모든 실험집단들은 각 아동의 급우들로 구성된 통제집단과 비교하여 볼 때, 교육적 진전과 사회적 적응 면

* Bohman, M. and Sigvardsson, S. 1980 : A prospective, longitudinal study of children registered for adoption. Acta Psychiatrica Scandinavia, 61, 339-55.

에서 낮은 수행 능력을 보여 주었다. 이러한 아동들은 이 나이에, 입양 가정, 위탁가정, 혹은 생모의 가정중 어느 곳에서 성장하고 있든 간에 상관없이, 행동 장애와 부적응의 증후들을 나타낼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처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살이 되었을 때 입양아들의 경우엔 이러한 차이가 없어졌지만 되돌아간 아동들과 위탁양육된 아동들의 경우에는 차이가 없어지지 않았다. 이제, (예를 들면, ‘심각한’ 범주에 속한) 적응 문제점들이 그들의 급우들에서 보다 입양아들 사이에 더 많이 노출되지는 않았다. 친부모에게 되돌아간 아동집단과 위탁가정의 부모들에 의해 양육된 아동들 사이에서는 그러한 문제점들이 통제집단보다 2배 내지 3배 높게 노출되었다.

학교성적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입양아들의 경우 15살의 통제집단과 대략 동일한 수준의 학업 성취를 이룩하고 있는 반면, 다른 두 실험집단의 경우 이 분야에서도 매우 심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이 입양아들이 어린 나이에 보여주었던 심리적 문제점들은 그것이 어떤 유형의 문제이든 간에 청년기에서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결과가 바뀌어 나왔다.

처음에는 입양되기 위해 등록했다가 친부모에게 되돌아간 아동들과 비교해 볼 때 입양아들이 보다 우월한 위치에 서게 된 것은 아마도 보다 쾌적한 양육조건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입양의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되돌아간 아동들의 경우, 부적응과 학업 실패와 같은 심각한 위험성을 안고 있다. 오히려 이상한 점은 위탁가정의 아동들이 뜻밖에 뒤떨어져 있었다는 점이다. 한 가지 가능한 설명으로 이것은 아동과 위탁 가정의 부모들이 느끼는 신분에 대한 불확실함과 거기에서 파생되는 불안정성에 기인한다는 것이다.

연구6 : 입양-두번째 기회*

우리는 이미 이 연구에 대하여 언급한 적이 있지만, 본 과제에 적절한 것이며 특히 이 연구가 입양부모의 아동양육실제와 태도에 관한 몇 가지 상세한 자료를 제공해주는 매우 희귀한 보고서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여기서 인용하는 것이다. 덧붙여서 스웨덴 연구자들에 의해 제출된 위의 보고서와 같이 입양아를 생모와 아주 이른 나이에 격리되어 있다가 다시 되돌아간 즉 ‘되돌아간’집단과 비교하고 있다. 모든 경우 어머니가 가정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아동을 보호에 맡긴 것이며 일반적인 이유로는 사생아이거나 생모의 재정적·감정적 요인을 들 수 있다. 이처럼 입양아와 되돌아간 아동들 모두는 초기 몇 년 동안 매우 비인격적인 조건의 시설에서 지낸 경험이 있었다. 이 기간 동안 몇 명의 생모는 정기적으로 빈번하게 아동과 접촉을 갖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산발적으로 이따금씩 방문하였다.

2살 부터 7살 사이의 다양한 나이의 아동들이 시설에 남아 있다(적당한 곳이 있다면) 4살반~8살 사이에 입양가정에 입양되었다. 되돌아간 아동과 입양아와의 비교에서 전자가 지적 능력, 정서적 적응력 및 사회적 관계에서 좀 더 열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두 집단이 시설에 수용되어 있었던 생후 24개월 때 실시된 지적능력 검사에서 두 집단 모두 평균 정신 연령이 22개월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후 생모에게 되돌아간 아동이 생후 4년 6개월 때 실시한 측정에 의하면, 지적 능력에 있어 평균 지능 지수가 100으로 나타났다. 다른 한편 입양아의 경우 상당한 지적 발달이 이루어져 평균 지능 지수 115로 평균보다 높은 점수를 기록하

* Tizard B. 1977 : Adoption : a second chance. London : Oper Books.

고 있었다. 행동적인 측면에서 역시 되돌아간 아동들이 열등하였고, 자다가 이불에 오줌싸기, 신경질적인 화내기, 공포감 및 불안감 등의 행동상의 문제점이 상당히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들은 또한 입양아보다 남에게 의지하거나 요구하거나 하는 경향이 더욱 두드러지고, 집중력이 더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8살 때 실시된 평가에서도 이러한 차이중 대부분은 여전히 분명하게 나타났다. 입양아의 경우 지능지수와 독해력 점수에서 평균 이상의 점수를 얻은 반면, 되돌아간 아동들의 지능지수는 평균이었고 그들의 독해력은 평균이하였다.

또한 되돌아간 아동들은 계속해서 행동상의 문제점이 더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입양에 의해 심리적 기능은 거의 개선될 수 있다고 보고한 다른 연구결과들을 입증해 주고 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연구는 입양부모의 행동에 관한 기술내용과 관련 또한 되돌아간 아동들의 친부모의 행동을 비교하고 있다. 그 결과 입양부모들이 시간, 에너지, 열정의 측면에서 훨씬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양부모들은 훨씬 더 많은 자원을 지니고 있었다. 재정적인 것 뿐 아니라 친구와 친척으로부터 더 많은 지원을 받고 있었다. 그들은 훨씬 더 많이 축적된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고, 그리하여 아동들을 야외로 데리고 나간다든지 휴가를 즐긴다든지 하여 경험을 넓힐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아동들에게 제공할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입양부모들은 친부모보다 자신의 아동들과 함께 더 많은 여가시간을 즐길 수 있었다. 함께 대화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었고, 더 많은 독서와 놀이를 제공할 수 있었고, 집안내에서의 활동을 함께 할 수 있었고, 아동들의 학교 공부를 더 많이 도와줄 수 있었다. 중류층의 '자연스런' 가정의 표본과 비교해 보아도 입양부모들은 여러가지 유형의 협력활동을 통

해 아동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매우 빈번한 부모-아동 협력활동은 입양부모들이 특별하리만큼 부모 역할을 즐겁게 수행하는데 동기화가 되었으며, 또한 아동과 함께 하는 일을 대단히 만족스러워 한다는 사실에서 비롯된다고 연구자들은 보았다. 물론 이러한 점은 아동들의 심리적 발달에 관해서도 매우 유익한 영향을 주었다.

해석

우리가 이미 지적했듯이, 그동안 실시된 연구물들은 친부모와 입양부모의 태도 비교에 대한 질문에 일치되는 답을 제공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하고 직접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의 연구들은 부모 자체보다 오히려 친부모·입양부모에 의해 양육된 아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언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에 관한 연구는 이들이 입양부모처럼 아동과 혈연관계로 이어지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 양육되었을 때의 결과에 관하여 우리에게 몇 가지 증거를 제시해주고 있다.

입양가정에 입양되는 것은 출생한 가정보다 사회·경제적으로 수준이 더 높은 환경에 접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구문헌들은 사실상 그러한 방법이 아동들에게 상당한 유익을 줄 수 있다는 결론에 일치를 보고 있다. 그 효과는 지적 발달에 가장 분명히 반영된다. 위에서 인용한 Schiff와 그의 동료들에 의해 실시된 연구는 그와 유사한 많은 연구들 중에 전형적인 것으로서 모든 연구들에서, 아동들이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좀 더 높은 사회적 지위를 지닌 가정으로 이동했을 때, 아동들의 지능지수가 대략 15~20점 정도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이 지적 기능의 수준은 친부모보다 입양부모의 수준에 더욱 가깝게 닮아가고 있고, 특히 Schiff의 연구는 입양아의 지능지수와 입양아의 출생가정에 남

아 있는 친형제들의 지능지수를 비교한 것을 근거로 이 점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입양아가 불우한 환경에 그대로 남아있는 아동들보다 더 좋은 혜택을 받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다.

교육적 측면에서도 이와 유사한 결론을 내릴 수 있다. 학업성취, 동기 및 학업 실패율을 측정한 결과 입양아의 우월한 지능이 학업 성취에 전이되었으며, 학교 제도내에서 보여주는 그들의 진전은 입양 이전의 출생가정에 남아있었을 경우에 예측될 수 있는 수준보다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증거는 정서적 적응 측면에 적용해볼 때 그렇게 분명한 것은 아니다. 이 점에 관해서는 문헌들 간에 몇 가지 일치되지 않는 점(부분적으로는 방법론의 차이에서 유래하는 것이지만)이 있는데, 즉 어떤 연구에서는 입양아와 비입양아 사이에 행동문제상의 차이가 없다고 말하고 있는 반면, 어떤 연구에서는 입양아들이 감정적인 곤란을 더욱 많이 겪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후자의 입장을 수용한다 할지라도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면을 명심해야 한다. 한 가지는 Bohman(위에서 인용된)의 연구와 그 외에 다른 연구들에 의해 확증된 것으로서, 그러한 곤란은 일시적인 성격을 띠기 때문에 후기 아동기에 접어들면서 사라지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다른 한 가지는 그런 증후들이 입양부모와의 관계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한다거나, 그 증후들이 입양부모들의 부적합성을 반영한다고 해석할 수 있는 증거는 없다는 것이다. 만약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입양아들의 정서적 취약성은 다른 이유(아마도 자신의 정체감에 대한 아동의 혼돈이 가장 보편적이고 유력한 이유가 될 것이다)에 의한 것일 수도 있다.

물론, 입양과정의 유전적 요인을 완전히 끌어낸다거나 새로운 가정 환경이 모든 측면에서 유전에 의한 영향을 완전히 능가하리라고 결론지어서는 안된다. 예를 들어, (Rutter and Madge, 1976의 연구

문헌에서) 유전적 영향들은 청소년 범죄에는 대수롭지 않은 영향을 미치지만, 극렬하고 고착적인 성인 범죄에는 훨씬 더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사회적으로 확고한 위치를 지니고 있는 가정으로 입양되는 것이, 반사회적인 친부모에게서 태어난 아동이 범죄행위에 빠져드는 것을 훨씬 적게 줄일 수는 있다. 그러나 심각한 범죄성을 지닌 입양아들은 입양가정에서 예측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범죄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정신병 질환에서도, 역시 심각한 정신병의 경우엔 유전적 영향을 강하게 받지만, 미약한 행동상의 혼돈현상에서는 유전적 영향을 훨씬 덜 받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므로 입양은 전자보다 후자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

그러므로 연구결과들에 근거하여 입양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판단해 보면, 입양이 모든 측면에서는 아니지만 많은 부분에서 심리적 개선을 이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혈연 관계가 없는 사람들에 의해 양육되는 것이 어쨌든 하나의 장애요인이라는 증거는 없다. 입양부모들과 그들의 양육 실체에 관한 직접적인 조사는 매우 적지만, 여기에 요약된 Tizard의 연구는 다음과 같이 일정한 결론에 도달하고 있다. 입양부모들은 많은 측면에서 '탁월한 부모들'이고, 대부분의 입양부모들은 보통 가정의 부모들보다 훨씬 더 훌륭한 헌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Tizard의 표집은 소규모여서 일반화에는 제한점이 있다. 그러나 입양아와 되돌아간 아동을 비교함으로써 특별한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다. 즉 자신의 아이들을 보호에 맡기도록 강요받는 부모들은 (아마 재정상 혹은 건강상의 문제와 같은 환경의 외압에 의해), 많은 입양부모들이 하고 있는 것과 같은 수준의 헌신과 육아를 제공할 수 없을 지도 모른다. 혈연에 의한 결속관계 그 자체가 건전한 부모역할을 수행하리라는 보장이 될 수는 없다.

실제를 위한 시사점

사람들은 너무도 자연스럽게 친부모에 의해 양육되는 것이 아동들에게 가장 좋은 것이라는 일반론으로 시작하곤 한다.

부모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외부인이 임의로 한 가정을 방해하는 것은 모든 면에서 불쾌한 것이다. 아동들의 미래를 어느정도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아동들을 단순히 이리저리 이동시키는 일은 기껏해야 사회공학적 의미만이 돋보일뿐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비난의 대상이 될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첫번째 원리와 상충될 수 있는 또 다른 원리가 있다. 바로 아동들은 자신들의 만족스런 발달을 보장받을 수 있는 안정성있는 인간관계와 적당한 양육 수준을 필요로 한다는 원리이다. 이러한 필요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어떤 환경에서는 양육할 다른 방법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실제로 어느 시점이 그런 비상수단을 동원해야 할 시점인지를 판단하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결국 보호의 타당성은 이것이나, 저것이나를 구분하는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다양한 준거에 의해 정의되는 연속선상에서 거론해야 하는 것이다. 연속선상에 하나의 경계선을 긋는 것은 언제나 논의의 여지가 되는 가치판단에 근거한다.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논의에 고려되는 혈연관계의 개념은 별 의의가 없다는 것이다. 아동의 부모들은 그들이 친부모라는 이유만으로 어떠한 환경 하에서도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합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친부모들로부터 아동을 격리시키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분명히 부정되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아동의 삶을 위협하거나 신체적·심리적으로 심한 손상을 입힐 정도로 아동에게 잔인한 학대를 할 경우에는 친부모와 격리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며 현재 사회에서 이런 격리는 일반적으로 정당화되어 수용되고 있다. 아마도 이 분야의

전문가들은 친부모와 아동의 접촉을 가로막는 일에 죄책감을 느끼는 것이 보통일 것이다. 그러나 친부모라는 인연만으로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가졌다고 말할 수는 없다. 아무리 본질적인 조건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서 아동을 키울 수 있는가라는 문제를 논의할 때 단지 가정이란 단위만을 고려해서는 안된다. 안정성과 적절한 보호에 대한 보장성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이같은 생각은 한 아동을 그의 가정에서 격리시키는 문제와 다시 원래의 가정으로 돌려보내는 문제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그러므로 상당한 기간동안 양부모와 함께 생활하였고, 그들과 깊은 감정적 애착관계를 형성하였고, 친부모와의 접촉이 거의 없었던 아동이 자동적으로 친부모에게 '속하는' 것으로 생각될 수는 없다.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점은 아동과 보호자 간에는 단순히 함께 생활했다는 것 이상의 상호 밀착된 애착관계가 형성된다는 점이다. 애착관계의 형성은 단순히 혈연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 상호작용이 끊임없이 이루어졌을 때 일어난다는 것이며 이러한 관계를 끊는 행위는 가볍게 이루어져서는 안된다. 가공의 관계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심리적인 혈연관계에 근거해야 한다.

참고문헌

- Adcock, M. and White, R. (eds) 1980 : *Terminating Parental Contact*. London : British Agencies for Adoption and Fostering.
- Feigelman, W. and Silverman, A. R. 1983 : *Chosen Children : new patterns of adoptive relationships*. New York : Praeger.
- Goldstein, J., Freud, A. and Solnit, A. J. 1980 : *Beyond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London : Burnett Books.

Mech, E. V. 1973 : Adoption : a policy perspective. In B. M. Caldwell and H. N. Riciutti (eds), *Review of Child Development Research*, Vol. 3. Chicago : University of Chicago Press.

어머니의 역할은 오직 한 사람에게만 제한되어야 하는가

문제제기

어머니-자녀 관계가 기본적인 특유한 관계라는 신념은 일반 대중들과 전문가들의 사고안에 오래전부터 확립되어 깊게 뿌리 박혀 있다. 따라서 이 관계를 증진시키지 않는 어떤 방법의 아동양육도 수용되지 않으며, 특히 한 사람(어머니)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나누어 함으로써 어머니 역할을 희석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명한다. 여럿이 나누어서 보호하는 것은 해로운 것으로 간주하고,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여러사람이 함께 돌보는 시설 양육이 아동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들을 빈번히 인용하고 있다.

사실 그러한 연구들은 이 과제에 적절하지 않다. 왜냐하면 보호기관에서의 보호는 집중된 하나의 어머니 역할이 없다는 사실 자체보다 더 많은 요인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첫번째 요인으로서는 어느 한 아동을 돌보는 책임이 있는 사람의 수가 대부분의 경우 매우 많고, 두번째는 그들간의 관계가 거의 일시적이고 때로는 극단적으로 단순하고, 끝으로 보호자와 각 아동들 간의 감정적인 교류는 최소한으로만 이루어지기 때문이다(그런 상황 하에서는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여러가지 애착관계를 형성할 기회를 가지면서 가정에서 자라는 아동들에게 이것을 일반화시키는 것은 거의 정당화될 수 없는 일이다.

모자관계의 특유성에 대한 신념은 프로이드 이론에 의해 발전된 두 가지 가정에 기초하고 있다. 한 가지는 아동들은 본래 감정적으로 유의미한 한 번의 애착관계 외에는 더 이상 새로운 관계형성을

할 수 없다는 가정이다. 그 외의 모든 관계는 오직 그 다음 자리로 물러나며, 이 후의 관계형성의 원형으로 작용하는 맨 처음 어머니와의 관계에 비추어 항상 이차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 다른 가정은 삶의 초기 단계에 있는 한 아동에게 하나 이상의 보호자를 주려는 시도는 아동들이 너무 어려서 여러 성인들의 역할들을 구별할 수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혼란을 겪을 것이며, 그 영향으로 어머니와의 관계가 악화되고 불안정하게 된다는 것이다. 전통적인 서양 가정에서는 부모들이 남·녀에 따라 역할의 분배가 있었으므로, 특히 아동들의 특정한 감정적인 요구들을 충족시켜주는 일에는 한 사람 즉 어머니가 아동을 돌보는 일을 도맡게 되었다는 견해가 한층 강력히 주장되었다. 따라서 양육을 나누어서 하는 것은 거부되어 왔다. 어머니들은 자녀양육을 혼자서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오로지 어머니로서의 의무에 헌신하여야 한다. 이러한 논의에 따르면 분담양육은 보호를 희석시키는 것이 된다. 즉 어머니와의 유대를 약화시키고 감정적인 상처를 남기게 될 것이라고 간주된다.

이러한 가정들에는 더 많은 증거가 뒷받침되어야 할 문제점들이 많이 있다. 이중 몇 가지는 분담양육방법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들과 관련된다. 어머니가 직장에 나가기 때문에 하루 중 일부를 집 단탁아소나 개별적인 보모같은 다른 사람들에 의해 양육되는 아동들의 발달에 관한 연구가 이에 포함된다. 우리는 뒤에서 어머니의 취업과 집단탁아에 관한 과제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여기서의 우리의 관심은 또 다른 질문, 즉 아동들은 처음에 감정적으로 유의미한 한 번의 관계 외에는 더 이상 형성할 수 없다는 제안이 정말 옳은 것이냐는 데에 있다. 아동들이 처음에 한 사람(보통은 어머니)에게서만 전적으로 안정성을 보장받아야 하는 것이 선천적인 것인가, 아니면 유아기에도 이미 여러가지 관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

에 혼란이나 감정적인 상처없이 여러 사람들과 애착관계를 형성하게 되는지에 대하여 확실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아래에 요약된 연구들은 이러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같이 유아들은 생후 6~12개월쯤에 처음으로 애착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고 입증되었다. 이제 그들과 애착관계가 형성된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어 그들간의 관계의 성격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하겠다.

연구결과

요약

연구1 : 유아기의 사회적 애착관계의 발달*

이 보고서는 유아들이 첫번째 애착관계를 형성하는 시기에 대하여 논의하면서 이미 언급한 적이 있다. 애착관계를 형성하는 대상의 수요 대상의 성격에 관한 자료를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이 연구는 여기에서도 적절하게 인용될 수 있다.

60명의 유아들을 대상으로 출생후 1년 동안은 매 4주 간격으로 조사하였고 생후 18개월이 되었을 때 또 한번 추후연구하였다. 유아들의 삼분의 일 이하는 한 사람 이상과 초기의 애착관계를 맺도록 하였고, 몇 명의 유아들은 연구 목적을 위해 다섯 사람과 관계를 맺도록 하였다. 첫번째 집중적인 관계를 형성하기 시작한 지 3개월 후, 즉 유아가 생후 1년이 되었을 무렵 표집의 반 이상이 한 사람 이상과 애착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후 18개월이 되었을 때에는 단지 13%만이 오로지 한 사람에게만 애착

* Schaffer, H. R. and Emerson, P. E. 1964 : The development of social attachments in infancy.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29, no. 3(serial no. 94).

을 갖고 있었고, 전체 유아의 거의 삼분의 일이 다섯 사람 혹은 그 이상의 사람들과 애착관계를 형성하였다.

애착관계의 대상으로 선택된 사람들 중에는 어머니가 가장 많았다(이것은 놀랄만한 일이 아니다). 또한 이 유아들의 삶에서 아버지가 중요한 것은 매우 분명하였다. 처음에는 포집의 27%가 애착 대상으로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를 선택하였다. 생후 18개월이 되면 그 비율은 75%까지 올라갔다. 또한 몇 명의 유아들에게는 조부모와 손위 형제 등과 같은 다른 가족들이 애착의 대상이 되었다. 가장 강한 애착은 일반적으로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형성되었지만 이것은 필연적인 것은 아니었다. 때로는 아버지가 유아의 중요한 애착관계의 대상이 된 것으로 밝혀졌다. 유아와 함께 보낸 시간의 양은 애착의 대상으로 선택되는데 있어 단지 부차적인 역할을 했으며, 수유와 같은 일상적인 활동에의 참여는 어떤 역할도 하지 않았다. 하루 중 제한된 시간만 함께 지냈는데도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

이와같은 연구결과에 의하면 유아들은 처음에 단지 한 사람과의 관계형성에 제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주 어린 나이에 서조차 다양한 애착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보편적인 현상이었으며 유아가 다른 사람들과 즐겁게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회만큼 애착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하나 이 연구에서 밝혀진 것으로 주목해야 할 것은 한 사람(즉 어머니)과 특별히 밀접한 관계를 맺는 것이 또 다른 관계를 형성하는 일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예상외로 그것은 유아들을 더욱 촉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와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대부분의 유아들이 역시 그외의 애착관계를 가장 많이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2 : 애착의 대상으로서의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낯선 사람*

이 연구는 특별한 애착대상으로서의 아버지에 대하여 연구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나이별로 어머니와 아버지를 대하는 유아의 행동을 비교하고 있다. 이런 목적을 위하여 유아로 하여금 편안함과 위안을 얻으려고 애쓰도록 유도하는 약간의 긴장된 상황을 조성하였다. 연구 문제는 필요한 안정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아버지를 찾는 정도였다.

20명의 유아들이 3단계의 나이별, 즉 생후 10, 13, 그리고 16개월 때 연구되었다. 각 유아들은 3가지 조건 하에서 관찰되었다. 3가지 상황은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2명의 낯선 사람들이 방에 나타나는 것으로 하였다. 낯선 사람의 출현과 낯선 환경은 긴장을 불러 일으키는 원인이라고 생각되었고, 그 상황에서 유아가 부모 중 어느 쪽으로 다가가는지 그 반응을 측정하였다. 접근추구에 대한 다양한 측정치들을 애착관계의 지수로 활용하였다.

결과에 따르면, 가장 어린 나이 즉 생후 10개월에도 아버지는 이미 대부분의 유아들에게 애착의 대상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 매우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 낯선 사람이 나타났을 때 어머니가 없다면 아버지는 안정을 제공하는 사람이 되고, 아버지에 대한 반응은 낯선 사람에게 나타내는 것보다 압도적으로 더 큰 것이었다. 다른 한편, 부모 양쪽이 다 있었을 때에는 일반적으로 선호되는 사람은 어머니였다. 즉 대부분의 유아들이 어머니에게서 위안을 얻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조차도 몇 명의 유아들은 어머니보다 아버지에게 더욱 많이 의존하였다. 모든 나이에서 아버지에 대한 애착의 정

* Cohen, L. J. and Campos, J. J. 1974 : Father, mother and stranger as elicitors of attachment behaviors in infancy. *Developmental Psychology*, 10, 146-54.

도가 매우 높았던 반면 어머니에 대한 애착만을 배타적으로 고집하는 경우는 일정한 수준으로 낮았다(유아들의 약 10%에 한하여 나타나고 있다).

이 연구결과에 의하면 첫번째로 형성된 관계만이 유일한 관계라는 생각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없다. 앞에서 요약된 연구에서처럼 어떤 한 사람보다는 다른 한 사람을 분명히 선호한다는 점에서 애착 대상에 대한 애착의 정도는 다르지만 여러사람과 애착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이미 유아기의 한 법칙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연구3 : 생후 1년 이내의 아버지-유아 및 어머니-유아의 상호 작용*

이 보고서 역시 애착의 가능한 대상으로서의 아버지에 관심을 두고 있지만 가정이란 자연스런 장면에서의 폭 넓은 관찰에 근거하고 있고, 아버지와 유아, 어머니와 유아 각각의 상호작용에 관하여 더욱 상세한 분석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 20명의 유아들을 대상으로 생후 7~8개월 사이에 두차례에 걸쳐 관찰을 실시하고 대략 생후 12·13개월 경에 다시 두차례에 걸쳐 관찰을 실시하였다. 각 관찰시마다 어머니 아버지가 모두 함께 있는 집안에서 유아를 관찰하였고 부모들은 집안에서 그들의 일상적인 일과를 계속하도록 요구하였다. 이런 상태에서 관찰자는 부모의 행동에 대한 유아의 반응들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녹음기에 녹음하였다. 이어서 이 해설을 분석하여 각 부모에 대한 유아의 다양한 반응범위를 평가하였다. 다른 연구자는 한 명의 '낯선 방문객'으로 활동하면서 각 장면에 함께 있었다.

* Lamb, M. E. 1977 : Father-infant and mother-infant interaction in the first year of life. Child Development, 48, 167-81.

첫번째 애착 대상의 윤곽이 드러나는 생후 7개월에 이미 유아들은 양쪽 부모에게로 접근하려고 하고, 만지려고 하고, 안아주기를 원하고, 잡으려고 하는 등의 애착반응을 보여주었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볼 때 유아들은 부모와 낯선 방문객을 분명히 구별하였다. 두 단계의 나이 모두에서 부모 중 어느 한 쪽을 선호하는 경향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 연구에서 양쪽 부모는 애착의 대상으로 작용하였다. 한편 미소짓고, 소리내어 웃고, 쳐다보고, 소리내어 이야기 하는(통틀어 상호교감에 의한 행동이라 일컫는다)등의 반응은 아버지에게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어머니 보다 아버지가 다양한 종류의 경험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런 경향이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된다. 관찰된 상호작용을 분석해 보면 어머니들은 대부분 보호차원에서 안아주곤 하지만 아버지는 함께 놀아주기 위해 안아주는 것이었다.

여기서도 역시 어머니-유아의 관계가 배타적인 관계가 아니라 는 점, 가정생활이라는 정상적인 조건하에서는 아버지도 그들의 자녀에게 쉽게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관찰된 아버지들은 분명한 방식으로 유아들과 상호작용함으로써 유아들 주위의 사회적 세계의 성격에 대해 학습 할 기회를 확대시켜 주었기 때문에 단순히 어머니의 대행만은 아니었다.

연구4 : 기브츠 유아들의 어머니와 보육사에 대한 애착관계*

이스라엘의 기브츠제도는 분담양육의 영향들을 관찰할 수 있는 많은 유용한 기회를 제공한다. 왜냐하면 여기에서는 아동들이 전문적인 보육사(the metapelet)에 의해 공동적으로 양육되지만, 그들

* Fox, N. 1977 : Attachment of kibbutz infants to mother and metapelet. Child Development, 48, 1228-39.

의 부모와 일정한 접촉을 하고 있으며 하루에 여러 시간씩 부모와 함께 지낸다. 전문적인 보육사는 아동의 신체적 보호와 훈련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는 반면 부모의 역할은 애정과 우의에 더 초점을 둔다. 이런 상황 때문에 여러가지 애착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가능성과 아주 어린 아동들조차도 여러사람들의 각 역할을 선별할 수 있는 정도에 대하여 연구하기에 편리하다.

이 연구에서는 생후 8~24개월 사이에 있는 122명의 유아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다양한 사회적 상황에서 특히 어머니와 보육사 사이를 오가면 헤어지고 다시 만나는 때에 유아들이 나타내는 반응들을 관찰 기록하였다. 측정에는 우는 양, 놀이시간, 어머니나 보육사에게 접근하는 정도, 낯선 사람에 대한 반응 등의 지수가 포함되었고, 이 측정치들은 유아들과 보육사간의 관계의 성격 및 강도를 나타낸다.

대부분의 유아들의 경우 가장 나이 어린 유아들까지도 어머니와 보육사는 상호교환될 수 있는 애착의 대상이 되었고 이들 각각은 떨어져서 탐색하다가도 안심하기 위해 되돌아가는 ‘안전한 기반’의 역할을 하였다. 유아들은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방에서 나가면 불안해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한 사람이 나가고 다른 한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저항하지 않았다. 다만 잠시 떨어져 있는 후에 다시 만날 때 그들의 행동에서 다소 차이가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대부분의 유아들은 보육사보다는 자신의 어머니에게 더욱 밀접한 애착을 갖는 것으로 밝혀졌다.

놀랄만한 것은 어머니가 유일한 일차적인 보호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에 의해서 전혀 영향받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상당한 정도로까지 두 성인은 상호교환될 수 있었으며 동시에 유아들은 그들 사이를 잘 구별할 수 있었고 대부분은 어머니에게 더욱 애착되어 있었다.

연구5 : 탁아모—유아 관계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앞에서 인용한 연구물들은 모두 유아가 태어나면서 사람들과 애착관계를 형성하는 것에 관심이 있었다. 여기에 인용한 보고서는 유아가 이미 부모와 처음의 집중적인 관계를 형성한 후에, 잠재적인 애착의 대상으로서 새로운 사람이 소개되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인가에 대하여 조사하기 위한 시도에 관한 것이다. 이처럼 이 연구자들은 이미 완성된 결과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부가적인 관계형성을 관찰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연구대상은 생후 15개월 정도 된 72명의 유아들이다. 6명의 탁아모를 일시적인 보모로 활동하게 하기 위하여 고용하였다. 한 탁아모가 각각의 유아를 15번씩 가정방문하였고, 방문때마다 3시간 동안 머물러 있었으며, 일 주일에 한 번 혹은 세 번 방문하였다. 방문하는 동안 어머니는 단지 처음 30분 동안만 같이 있었다. 어머니가 밖으로 나가고 나면 탁아모는 일정한 일과를 차례대로 하고 이전에 훈련 받은대로 체계적인 관찰을 실시했다.

그결과 대부분의 유아들은 새로운 탁아모와 상당히 잘 지냈다. 약 절반 정도의 유아들이 어머니가 밖으로 나갈 때 울었지만 그들의 불안은 거의 간단한 것이었다. 보모와 남게 되었을 때 일반적인 분위기는 중립적이었고 혹은 다소 긍정적이었다. 실험이 계속됨에 따라 유아들은 점점 긴장이 완화되었고 점차적으로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여 갔다. 조사된 모든 애착관계의 준거에 비추어 보면, 어머니는 분명히 선호되는 대상이었으나 어머니가 없는 동안에는 대부

* Smith, P. K. and Noble, R. 1987 : Factors affecting the development of caregiver-infant relationships. In L. W. C. Tavecchio and M. H. van IJzendoorn (eds), Attachment in Social Networks. Amsterdam : Elsevier.

분의 유아들이 뚜렷하게 그리고 급속하게 탁아모에게서 안정을 찾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몇 명의 유아들은 그렇게 훌륭하게 적응하지 못하였다. 약 10%의 유아들은 탁아모가 도착하면 규칙적으로 울었고, 약 20%는 어머니가 없는 동안 좀 오랜 기간동안 불안해했다. 유아의 기질, 유아와 어머니 사이에 맺고 있는 관계의 성격, 그리고 이전에 다른 탁아모에게 보호받았던 보호기간 등 여러가지 요인들이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안정을 찾는데 실패하는 것과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몇 주동안에 걸친 탁아모와의 접촉이 빈번하지 않았고 오랫동안 계속될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와의 관계는 다른 새로운 관계 형성의 여지도 남기지 않는 전 소모적인 것이었다는 증거는 없었다.

연구6 : 초기 부모기에 아동보호역할을 분담하는 것에 대하여*

이제까지 요약된 연구는 주로 다음과 같은 질문과 관련되어 있었다. 아동들은 여러 애착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가? 이 과제의 마지막 보고서에서 우리는 부모들의 견해가 어떤지 알아보기 위하여 관심의 대상을 아동들에게서 부모들로 옮겨 보았다. 부모들은 아동양육의 문제를 어머니에게만 제한시키기를 고집하고 있는가? 분담양육은 어느 정도 널리 퍼져 있는가? 집단탁아소의 영향에 대해서는 매우 잘 알려져 있지만, 부모가 친척, 친구, 이웃, 그리고 보모에게 맡기는 비형식적인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여기에 요약된 연구는 후자 부분에 해당하는 관련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 Hill, M. 1987 : Sharing Child Care in Early Parenthood. London : Routledge and Kegan Paul.

생후 첫 3년 동안 아동들을 보육시설에 맡겨온 63가족 집단을 대상으로 연구가 수행되었다. 가족들은 Edinburgh의 두 구역에 살고 있었고, 한 집단은 노동계층, 다른 한 집단은 중류계층이었다. 자료는 상세한 인터뷰를 통하여 그리고 평균 2주일 동안 어머니들이 기록한 일기를 통하여 수집하였다. 분담양육의 정도는 표집에 포함된 가족들 간에 상당히 다르게 나타났다. 대부분의 아동들은 생후 2-3년 동안 일주일에 몇 번에서부터 한 달에 한 번 정도의 빈도로 부모가 아닌 다른 사람의 보호를 받는 적이 있었다. 보호자는 친척인 경우가 많았는데 특히 외할머니와 같은 어머니 친척이었고, 그들은 상당히 먼 곳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을 보호해 주도록 요청받았다. 친척은 아니면서 보호자의 역할을 한 사람은 주로 이웃에 사는 어린 자녀들을 기르고 있는 어머니들이었고, 또 한 아동이 잘 알고 지내면서 수시로 방문했던 가까운 이웃이었다. 그러나 보호자는 항상 동일한 사람은 아니었다. 일기자료에 의하면 아동들의 삼분의 일 이상이 지난 2주 동안 각각 한 사람 이상의 사람들에 의해 보살펴졌다.

생후 2년까지 반 이상의 아동들이 부모가 아닌 사람들에 의하여 제공된 여러가지 종류의 보호를 경험하였다. 6명중 1명이 부모가 일을 나간 사이 하루 중 몇 시간 동안 일주일에 5일 동안 돌보아졌고, 생후 3년이 되자 분담양육은 더욱 빈번해졌다. 아동을 돌보는 사람들 역시 더 많아지고 다양해졌다. 덧붙여서 3살 아동들중 사분의 삼 이상이 어떤 형태의 집단탁아소(대개는 그 지역에서 현재 저하게 높은 수준의 설비를 갖춘 보육원)에 다니고 있었다. 분담양육은 중류층 가정에서 더욱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아동의 나이에 비추어볼 때 노동계층 가정의 경우에서보다 오히려 더 늦은 나이에 이용되고 있었다.

어떤 부모를 막론하고 분담양육이 어떤 식으로든 그들의 아동들

에게 해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대조적으로 사회적 경험과 놀이기회와 관련되는 측면에서는 유익하다고 믿었다. 거의 어머니하고만 지냈던 대부분의 아동들이 부끄러워하고, 달라붙고, 불안해한다고 기술된 것은 놀라운 일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부모들이 둘째나 손아래 동생들과 함께 분담양육에 맡기는 것을 더욱 편안하게 느꼈다.

이 연구결과는 부모들이 어느정도 기꺼운 마음으로 그들의 자녀들을 다른 사람의 보호에 맡기는데 대하여 몇 가지 증거를 제시해주고 있다. 분담양육에 대한 정확한 통계적 수치는 지역의 주민에 따라 다양하다. 일반적으로 가까운 가족이외의 사람들의 보호에 맡기는 정도는 매우 어린 아동들조차도 일상적인 일로 경험한 만큼 높은 수준이다.

해석

앞에서 인용된 것과 같은 연구들은 최근에 심리학과 관련된 책에서 현저한 의견의 변화를 일으켰다. 즉 모자관계의 배타성에 대한 신념에서 벗어나 아동들은 유아기에도 여러가지 애착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의견을 현실화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었다. 이미 밝혀졌지만 전자는 경험적인 증거보다는 독단적인 견해에 근거하고 있었다. 그것은 어느 특정한 가족 구조 즉 아동양육이 독점적으로 어머니의 일로 간주되고 아버지는 자신의 자녀들과는 거리가 먼 역할만을 수행하였던 수 십년 전에 보편화되어 있었던 중류가정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그 시기에서조차도 단지 특정한 사회제도와 문화적 환경에서만 찾아볼 수 있었다. 이와 관련되는 것으로서 두 명의 인류학자 Weisner와 Gallimore의 연구결과는 인용할 만한 가치가 있다. 그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전체 인류 사회중에서 어머니들이 그들의 자녀들에 대하여 독점적인 보호자로서 기

능한 사회는 단지 3%였고 좀 더 우세한 위치에서 보호자의 역할을 한 사회는 60%였다고 지적했다. 그러한 비교문화적 자료는 어머니의 역할을 적절하게 전망해 보는데 도움이 된다.

어쨌든 서양사회 안에서는 최근 심한 변화를 겪고 있다. 즉 어머니는 직장에 나가고 탁아소 시설과 보모의 활용이 점점 증가하고 무엇보다도 자녀양육에 아버지의 참여가 훨씬 크게 늘어나고 있다. 과거부터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는 연구가 수행되어 왔으며 이제는 경험적인 연구에 의해 면밀히 검토되어 실질적인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다. 독점이란 개념은 지지될 수 없으며 오직 한 사람에게만 애착관계를 제한하는 생리학적 필연성은 없다. 또한 생후 1년이 끝날 무렵엔 보통의 가족생활 환경하에서는 실제로 이미 여러 가지 감정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더구나 그들의 부모들에 의해 그렇게 하도록 고무되고 있다. 한 사람(일정하지는 않지만 보통은 어머니)이 일반적으로 아동의 안정에 일차적인 원천으로 작용하지만 애착관계의 대상 중에서는 어느정도 상호교환가능성이 있는 것이 보편적이다. 애착관계의 가능한 대상으로서 아버지에게 대부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는 것은 아마 그리 놀랄 일이 아닐 것이며 최근 몇 년 동안 아버지에 대한 연구가 급격히 부상하였다. 이러한 몇가지의 연구들은 다음에 논의될 다른 과제들과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뒤에서 다루겠다. 최근에 들어서 형제들이 어린 아동들에게 지닐 수 있는 특별한 심리학적 의미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아동과 규칙적이고 애정적인 접촉을 하고 있는 사람이 애착관계의 중요한 대상이 된다는 것이 명백해졌다. 그러나 한 아동이 어떤 사람들보다도 다른 몇몇 사람들을 선택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혹은 안정의 일차적인 원천으로서 몇 사람이 왜 선호되는지에 대한 의문은 해결되지 않고 있다. 그것은 음식과 같은 아동의 신체적 요구를 충족시켜 주는데 근거하지 않고 또한 반

드시 아동과 함께 보낸 시간의 양이 문제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분명히 또 다른 사람과 친해지려면 최소한의 일정한 시간이 필요한 것이지만 한편 애착관계 형성의 대상 선택은 기본적으로 성인과 아동 사이에 발전되고 있는 관계의 여러가지 미묘한 측면들에 의해 좌우된다고 보인다. 성인의 온화함과 예민함, 아동의 기질과 기대 등등. 실험적으로 아동에게 새로운 사람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관계 형성 방식에 관하여 연구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조사해볼 수 있는 것이 Smith와 Noble이 실시한 연구와 같은 연구들의 장점이다. 또한 이스라엘의 기브츠제도와 같은 ‘특별한’ 아동보육시설의 장점은 보호기능이 여러 사람들에게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함께 보낸 시간이나 신체적 보호를 위한 참여의 부족과 같은 요인들이 애착관계의 발달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 수 있다는 점이다. 무엇보다도 이와같은 ‘본성에 관한 실험’은 어머니의 역할이 필연적으로 독점적인 것이라는 주장은 하나의 신화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실제를 위한 시사점

이 주제에 관한 심리학적 연구의 결과들은 매우 분명하게 의견의 일치를 이루고 있는 것 같으나 아직까지 모든 일반대중에게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다. 많은 어머니들은 자녀양육을 분담하는 것에 대하여 계속해서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 그들은 아동이 어린 몇 년 동안 집 밖에서 활동하는 것을 자제하고 있는데 이는 자신들에게 뿐 아니라 아동들에게까지 손해를 주고 있다. 독점적인 어머니 역할에 대한 신화는 아직까지 널리 보편화되어 있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 아동 보호역할이 한 사람만에게 제한되어야 하는 분명한 이유는 없다. 어린 아동이 일반적으로 그리고 자발적으로 여러 사람들과 애착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면 한 사람 이상의 보육사에게 그들을 맡

기는 것이 본성에 위배되는 행위는 아니다. 반대로 그런 시설에는 장점들이 있다. 한 사람과의 관계에 뭔가 잘못이 있는 경우 일종의 안전장치로 활용될 수 있다. 그런 때 아동은 또 다른 안정성을 제공하는 원천을 갖게 될 것이다. 즉 아동에게 다른 사람들의 보호와 기대를 받을 기회를 제공한다. 그리하여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사회적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그리고 아동양육이 때때로 어머니에게 부과할 수 있는 긴장감을 감소 시킴으로써 어머니와 아동의 관계를 더욱 부드럽게 촉진시켜준다. 분명히 하나의 관계가 또 다른 관계와 동시에 존재함으로써 어떤 식으로든 약화될 것이라는 두려움은 매우 옳지 못한 생각이다. 한 아동의 애착은 사람들 사이에 분배되어야 하는 어떤 한정된 양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자녀 양육의 역할을 분담하는 어머니들은 그들의 자녀들이 위험에 처해 있다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어떤 사람은 아동양육이 그들의 성격과 생활방식에 적합하기 때문에 독점적인 어머니 역할을 즐겨할 지도 모른다. 그러나 각 가정에서 그런 과정을 매우 편안한 것으로 채택해야 할 이유는 없으며 또한 분명한 것은, 어머니와의 다른 사람과의 관계 형성을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조치가 취해져야 할 이유는 없다는 사실이다. 중요한 것은 아동과의 상호작용의 성격이지 그것의 양은 아니다. 이는 매우 반복해서 입증된 바 있다.

단언하기 훨씬 더 어려운 문제는 분담양육이 해로운 영향을 끼치게 되는 한계점은 무엇인가 하는 문제와 어머니 역할자의 수가 몇 명이 되면 너무 많아서 아동이 혼란스러워 하고 불안해지게 되는지에 관한 문제이다. 친척이나 부모와 같은 어떤 한 사람과 분담하여 양육하는 것은 매우 어린 아동에게조차도 분명히 문제가 되지 않는다. 또 이런 것이 가장 보편적인 경우이다. 어머니 역할자의 수가 계속 증가할 수 있는 정도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많은 부분

이 아동의 나이와 기질, 맡겨진 보육시설의 명확한 성격과 같은 요인들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 특정한 상한선은 없는 것 같다. 우리가 확증할 수 있는 모든 것은 관계의 안정성과 성격이 만 족스럽다면 여러사람이 분담하는 보육시설에 의해 아동의 안녕이 위협에 처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더구나 그들에게 기대했던 것보 다 훨씬 더 이른 나이에 다른 사람들의 역할들을 선별할 수 있다는 것이 명백해졌다. 여러 사람들에 대한 각각 다른 반응에 의하면 (아버지와 대조되는 어머니, 보모와 비교되는 부모 등등) 어떤 목 적을 위해서는 이 사람들 간에 상호교환 가능성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분명히 구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유아들조차도 이미 그들 자신이 매우 복잡한 사회속의 한 부분임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 즉 많은 사람들에게 보호된다고 해서 사회 세계의 성격에 대하여 혼란을 일으키게 될 것이라고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참고문헌

- Scarr, S. and Dunn, J. 1987 : *Mother Care Other Care*.
Harmondsworth : Penguin.
- Schaffer, R. 1977 : *Mothering*. London : Fontana; Cambridge,
Mass. : Harvard University Press.

여성이 남성보다 부모역할을 더 훌륭하게 해 내는가

문제제기

전통적으로 자녀양육은 여성의 일로 간주되어 왔다. 여성이 출산을 담당하는 것은 생물학적 필연성이다. 여성들이 유아들에게 수유할 책임이 있었던 것은 생리적 필연성에서였다. 그렇게 해서 시작된 양성의 역할분리는 계속해서 이후의 아동의 삶에까지 이어졌다. 이리하여 여성은 ‘타고난’ 부모로 간주되었다. 아버지들은(언젠가 인류학자 마아가렛 미이드가 지적했듯이) 임신하는 데는 필요한 지 모르지만 그 이후에는 곧 성가신 존재이다. 전통적인 인식에 따르면, 남성의 일은 가족을 위한 경제적·정서적 도움을 주는 것인 반면 육아에 대한 참여행위는 주변적이고 간접적이며 대부분의 ‘남성적인’ 기능을 훈련시키고 가르치는 등의 몇몇 특별한 일에 제한되었다.

사실 지금과 같이 확고한 노동의 역할분리가(빅토리아 시대의 중류가정에서조차도) 소수의 가정뿐 아니라 더 많은 가정에서 실제로 널리 보편화되어 있었던 적이 있었는지 의심스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정적인 인식은 계속 유지되어 왔고 그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하려는 많은 시도가 이루어져왔다. 이와같이 이런 종류의 성역할의 분리는 인간사회에서 보편적인 것으로 논의되어 왔다—더욱 자세히 살펴보면 이러한 확신은 사실이 아님이 드러난다. 예를 들어 서양이 아닌 다른 어떤 사회에서는 전통적으로 남성들은 자녀양육에 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또한 동물들 사이에서도 새끼의 양육에 책임이 있는 것은 필연적으로 암컷이라고 논의되어왔다. 이런 확신은 확증될 수 없다. 왜냐하면 여러 종류의 수컷들이 암컷과

동일한 혹은(몇몇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끝으로 출산시 어머니의 몸에서 어떤 호르몬의 변화가 일어남으로써 양육에 참여할 준비를 갖추게 되고, 그리하여 출산과정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보다 더욱 효과적인 양육을 할 수 있다는 견해에 관심이 기울여지고 있다. ‘모성 본능’ 즉 남성과 공유할 수 없는 여성에게만 한정된 육아능력은 생리학적 근거를 갖게 된다. 그러나 그러한 견해에 대한 증거 역시 매우 희박하다. 출산에 따르는 호르몬의 변화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는 동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인간에게 적용했을 때 결과는 의심스럽다. 또한 ‘혈연에 의한 결속관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생리학적으로 관련이 없는 사람은 부모로서의 능력이 떨어지기 쉽다는 생각은 입증된 바 없다.

성에 의한 역할분리는 생리학적 요인들에 의해 충분히 설명되는 않는 것 같다. 오히려 현재 존재하는 모든 성차이는 대부분 사회적 인습에 의해 설명될 수 있는 것 같다. 현대사회에서 가족의 성격에 일고 있는 커다란 변화들은 분명히 그것을 입증하고 있다. 오늘날 아버지들은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이 육아에 참여하고 있다. 간접적인 훈련사로서의 역할은 거의 드물고 육아의 모든 측면에 완전히 참여하는 경향이 점점 더 보편화되어 가고 있다. 매우 어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어머니들은 점차로 가정 외의 직업을 추구하고 있고, 그 결과 아버지가 육아의 한 부분을 담당해야 할 압력이 역시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몇몇의 가족에서는 완전한 역할전환이 일어나고 있다. 그런 가정에서는 어머니는 밖에 나가 일을 하고(아마 그 가정에서는 어머니만이 취직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일 것이다) 반면에 아버지는 집에 남아 집안일을 하면서 아동들을 돌보고 있다. 그러한 사회적 변화를 받쳐주는 첫번째 요인은 경제적 압력이고 여권신장론이 두번째 요인이고, 세번째 요인은 어머니로 하여금 집안일에서 해방시켜주어 가

정에 관한 의무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는 노동 절약적 가사제품들을 널리 보급한 기술 공학의 발달이다. 이유야 어떻든 성에 따른 전통적인 성차이는 불변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고 있는 사회환경에 적응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 하나의 변화가 역시 관련되어 있는데, 즉 엄청나게 상승하고 있는 이혼율과 자녀들을 누가 보호할 것인가에 대해 논쟁하는 사례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여기에서 살펴보고 있는 과제의 중요핵심은 바로 후자이다. 아버지가 유아에 더 많이 참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타고난’ 부모이기 때문에 재판의 결정에서 우선권이 주어져야 한다는 신념이 깊이 뿌리 박혀 있다. 아래에 요약된 연구들 중의 한 연구(Fry와 Addington에 의한 연구)에서 그러한 신념의 예를 적절하게 들고 있는데, 이 연구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발견되는 어머니중심의 사고와 아버지에 대한 편견에 초점을 두고 있다. 분명히 최근까지도 아버지는 연구주체대상에서 완전히 무시되었었다. 최근 10년 혹은 20년사이에 부모로서의 남성의 능력을 조사해보고 이런 능력에 대해서 여성과 비교해보는 시도들이 이루어졌다. 다음의 요약들은 이러한 문제가 다루어지는 방법과 연구에서 얻어진 일련의 답을 지적해 주고 있다.

연구결과

요약

연구1 : 정상아와 미숙아의 얼굴과 울음을 대하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태도*

* Frodi, A. M., Lamb, M. E., Leavitt, L. A., Donovan, W. L., Neff, C. and Sherry, D. 1978 : Fathers' and mothers' responses to the faces and cries of normal and premature infants. *Developmental Psychology*, 14, 490-8.

‘아버지로서의 능력’과 같은 복잡한 것을 평가하는데 있어 문제가 되는 것 중의 하나가 적합한 측정도구를 찾기 힘들다는 것이다. 이 개념에는 많은 구성요소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 중 가장 기본적인 것은 성인이 아동에게 보여주는 민감성이다. 유아의 순진한 시선이 그에게/그녀에게 영향을 미치는가? 그는/그녀는 유아의 울음에 의해 자극을 받는가? 이 연구는 이런 측면에서 성차이가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관련된 반응들을 자세히 조사하고 있다. 또 하나의 목적은 조숙아로 태어난 유아와 정상적인 유아를 연구대상으로 하여 조숙아가 성인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연구하는 것이었다.

64명의 부모들을 대상으로 정상아와 조숙아가 울고 있는 비디오 테이프를 보여주었다. 부모가 테이프를 보고 있는 동안 환경에서 오는 자극을 받았을 때 사람이 경험하는 각성의 지수가 되는 여러 가지 생리학적 측정, 즉 심장박동률, 피부 전도율, 혈압등에 관한 측정이 이루어졌다. 그런다음 부모들로 하여금 테이프를 보고 있는 동안에 느꼈던 그들의 감정에 대해 기분을 나타내는 행동사 검목표에 기록하도록 하였다.

생리학적 측정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부모들은 유아의 울음에 대해 각성이 증가하는 반응을 보여주었고 특히 조숙아 특유의 울음에 대해 각성이 증가되는 반응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들이 검목표에 기록한 감정상태에서도 나타났다. 즉 부모들은 피로함과 조심스러움을 느꼈다고 응답하였다. 생리학적 측정 중 어느 것에도 아버지들과 어머니들 사이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생리학적 측면에서 전자는 후자와 동일한 반응을 하였다. 자기 보고에 의하면, 유아가 울기 시작했을 때 어머니가 좀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인다고 말한 것 외에는 양쪽 부모들은 동일한 종류의 감정들을 보고했다.

저자의 말을 빌려 이 연구의 결과들을 요약하자면 ‘차이가 없다고 결론짓기에는 분명히 위험의 소지가 있지만, 성인으로서의 남성은 그렇지 않은데 성인으로서의 여성은 유아의 증후에 자연스럽게 반응하도록 ‘생리학적으로 이미 기질이 정해져 있다’는 생각은 의심해볼 만한 이유가 있다고 믿는다’.

연구2 : 성인초기에서의 유아들에 관한 관심*

이 연구에서도 어린 유아들에 대한 반응이 평가되었다. 그러나 여기서는 남성과 여성의 행동반응을 관찰하기 위하여 실제로 현존하는 유아를 활용하였다. 더구나 반응에 있어서의 성차이는 부모 역할의 필요성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는 신념에서 성인 피험자는 가족을 형성하고 있는 다양한 단계에서 선발되었다.

다양한 단계를 대표하는 30명의 젊은 성인들로 구성된 4집단이 연구의 대상이었다. 동거하는 미혼 남녀집단, 결혼은 했지만 자녀가 없는 집단, 결혼하여 첫 아이를 고대하는 집단, 한 자녀의 부모인 집단. 집단마다 동일한 수의 남녀가 포함되었다. 특별히 준비된 휴게실 상황에서, 각 개인을 관찰하였는데 그 곳에는 유아와 유아의 어머니가 함께 있었다. 관찰자는 일방적 관찰이 가능한 특수 유리창(one-way mirror : 일방경)뒤에서 유아에 대한 어머니의 관심과 반응을 관찰하였다. 물건을 제공하거나 보여주거나 가까이 다가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쳐다보고, 미소짓고, 만지고, 유아에게 말을 하는 등의 반응에 대한 각각의 실례들을 낱말이 적었다. 그런 다음 각 성인들에게 여러가지 사물과 유아를 포함한 여러 사람들이 등장하는 한 편의 슬라이드를 보여 주었다. 그리고 그/그녀가 원하는

* Feldman, S. S. and Nash, S. C. 1978 : Interest in babies during young adulthood. Child Development, 49, 617-22.

만큼 각각의 슬라이드를 보도록 허락되었다. 유아들이 등장하는 슬라이드를 보는데 소비된 시간의 비율이 기록되었다. 그 다음 인쇄된 사진들을 성인들에게 주고 가장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라고 하였다.

여러가지 측정에 비추어볼 때 자녀가 없는 세 집단에서는 남성과 여성 사이에 어느 것에도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부모역할을 한 경험이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만 유아에 대한 반응에서 여성이 남성을 능가하였다(여기서조차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았다). 이와같이 성차이가 존재하더라도 그 차이는 인생의 어떤 특정한 시기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지 항상 있는 것은 아니다. 아마 그것은 여성이 양육 전달자로서 유아들에게 노출되는 시간이 많아지기 때문에 생기는 결과들일 것이다. 따라서 저자들은 ‘반응이란 호르몬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경험에 근거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연구3 : 1-2차적 보호자로서의 아버지의 상호작용행동*

아버지와 어머니가 어린 아동들과 상호작용하는 양상이 다르고 말하는 문헌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우리는 여기서 이러한 양상이 아버지가 어머니와는 대조적인 존재이기 때문이나, 혹은 보통 어머니는 1차적인 보호자이고 아버지는 2차적인 보호자이기 때문이나 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유아에 대한 일차적 책임을 지고 있는 아버지들을 대상으로 연구함으로써 이에 대한 답을 찾아보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세 집단의 부모들을 대상으로하여 그들이 생후 4개월된 자녀들과 정면으로 마주보고 상호작용하는 동안에 평가를 실시하였다. 한

* Field, T. 1978 : Interaction behaviors of primary versus secondary caretaker fathers. *Developmental Psychology*, 14, 183-4.

집단은 유아의 일차적인 보호자역할을 하는 어머니들로 구성되었고 또 다른 집단은 일차적인 보호자역할을 하는 아버지들로 구성되었고, 세번째 집단은 2차적인 보호자역할을 하는 아버지들로 구성되었다. 각 집단에는 12명의 부모가 포함되었다. 모든 사람들은 중류계급이고, 대학교육을 받았다. 각 실험을 비디오 테이프에 녹화한 다음 세 집단 사이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두 개의 아버지 집단과, 어머니 집단 사이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예를 들어 아버지는 유아들을 덜 안아주는 경향이 있으나, 유아와 함께 놀이에 참여하는 경우는 더 많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측면에서 발견된 차이들은 일차적인 보호자(아버지든 혹은 어머니든)와 2차적인 보호자 사이에서 나타났다. 즉 전자는 부모 쪽에서 유아스런 행동을 많이 하면서 상호작용하는 양상을 보였고(높이 올라간 음성, 얼굴표정 꾸미기, 미소 많이 짓기, 등등), 반면에 후자는 덜 비형식적인 방법으로 행동하였다. 이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일차적인 보호자일 경우 그들이 모두 유사한 상호작용 양상을 보였다는 것은 아버지-어머니의 차이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필연적으로 내재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보다는 오히려 일차적인 혹은 이차적인 보호자로서 자녀와 함께 겪은 경험의 양의 차이에 기인한 것일 것이다’ 이와 같이 이 보고서는 방법론적 접근방법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경험의 역할에 대하여 이전에 요약한 연구와 같은 결론에 도달하고 있다.

연구4 : 아버지가 자녀를 보호하는 것과 소년·소녀들의 사회적 발달에 관하여*

보호에 대한 문제에서는 성과 관련된 부모로서의 적합성에 대한 질문이 특히 중요하다. 이 보고서는 세 집단간의 비교를 통하여 몇 가지 적절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여기서 세 집단이란 이혼 후에 아버지가 보호하고 있는 가정, 어머니가 보호하고 있는 가정, 그리고 정상적인 가정을 말한다. 60개의 표집(세 집단 사이에 동일하게 분배된)은 대체로 중류계급이다. 부모는 모두 30대이고, 두 이혼집단에 속한 사람들은 거의 3년 동안 헤어져 있었다. 재혼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았다. 연구 기간 중 아동들의 나이는 6~11살 사이였다. 아동들의 적응상태, 부모-아동 간의 상호작용의 성격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상당히 많은 방법들이 사용되었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주로 첫째, 하나의 활동계획을 함께 세우는 시간 둘째, 가족에 관한 주요한 문제들에 관해 논의하는 시간에 부모와 아동을 관찰한 기록에 근거하고 있다. 각 실험을 비디오테이프에 녹화하여 다양한 행동척도에 따라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가장 놀라운 연구결과는 같은 성의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아동들(아버지 보호가정에 사는 소년들과 어머니 보호가정에 사는 소녀들)이 반대 성을 가진 부모와 함께 사는 아동들보다 더욱 훌륭하게 적응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버지 보호가정에 사는 소년들과 정상적인 가정의 소년들을 비교한 결과 전자는 후자보다 사회적으로 더욱 유능하고, 성숙하고, 독립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버지 보호가정에 사는 소녀들은 정상적인 가정에 사는 소녀들보다

* Santrock, J. W. and Warshak, R. A. 1979 : Father custody and social development in boys and girls. Journal of Social Issues, 35, 112-25.

잘 지내지 못했다. 어머니 보호가정에 사는 아동들과 정상적인 가정에 사는 아동들을 비교한 결과 차이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아버지 보호가정에서 사는 아동들과 어머니 보호가정에서 사는 아동들을 비교한 결과 아버지와 함께 사는 소년들이 아버지와 함께 사는 소녀들보다 더욱 뛰어난 사회적 발달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조적으로 어머니 보호가정에서 사는 소녀들은 어머니 보호가정에서 사는 소년들보다 능력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이혼 가정의 아동들의 적응은 동일한 성을 지닌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느냐 혹은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이 연구에 따르면 소년들에게는 아버지가 더욱 적합한 선택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5 : 편부가정의 소년에 대한 전문가들의 부정적인 기대 : 육아 전문가 훈련에 주는 시사점*

여기에 인용된 다른 보고서들과는 달리 이 보고서는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직접적인 비교에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 대신 또 다른 매우 적절한 질문, 즉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아동양육능력이란 측면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각각 어느 정도의 기대를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관심을 두고 있다.

연구 대상으로는 300명의 전문가(반은 교사이고 반은 사회복지가)와 300명의 비전문가가 포함되었다. 각 피험자는 4명의 10세 소년들이 가정과 학교에서 다른 아동들과 함께 놀면서 상호작용하고 있는 모습을 담은 비디오테이프를 보았다. 테이프를 본 후 성인

* Fry, P. S. and Addington, J. 1984 : Professionals' negative expectations of boys from father-headed single-parent families : implications for the training of child-care professionals. British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2, 337-46.

들에게 테이프에 등장한 각 아동들을 여러가지 인성측면에 따라 평가하고, 그들이 여러가지 일상적인 장면에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예측해 보도록 하는 등, 각 소년들에 대한 여러가지 판단을 하도록 요청하였다. 그러나 피험자는 테이프를 보기 전에 소년들의 환경에 대하여 각기 다른 정보를 가지고 있었다. 즉 한 집단은 소년들에 대하여 부모가 이혼한 후 아버지가 돌보고 있는 소년들이라고 말해주었고, 두번째 집단은 이혼한 어머니가 돌보고 있는 소년들이라고 말해주었으며, 세번째 집단은 정상적인 가정에서 사는 소년들이라고 말해주었다.

그 결과 동일한 소년들을 보면서 집단별로 각각 다른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상적인 가정에서 사는 소년들에 대해서는 대체로 적응을 잘하고, 행복하고, 책임감과 통솔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편부 가정에 사는 소년들에 대해서는 이런 측면에서 잘할 것 같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이와 같이 편부 가정에 있다고 생각되는 소년들은 행복, 타인과의 사교성, 성취욕구 및 정서적응에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고 비행에서는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이러한 소년들은 복종을 요구하는 상황, 긴장에 직면하는 능력, 성인이나 다른 아동들과 협동하는 능력에서 가장 형편없는 것으로 평가 받았다.

이와같이 동일한 소년들에 대한 판단이 제공되었던 정보의 종류에 따라 달라졌다는 사실은 선입관의 영향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말해준다. 이러한 선입관은 정상가정에 속한 소년들을 좋게 평가하고 편부가정에 속한 아동들을 나쁘게 평가하도록 만든다. 특히 편부가정에 사는 아동들에게 나쁘게 작용한다. 이러한 선입관이 일반 대중들 사이에서 뿐 아니라 전문가들, 사회복지가들, 교사들 사이에서도 명백히 나타났다는 것은 강조할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해석

‘부모로서의 능력’과 같이 복잡한 것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가? 이와같은 평가상의 어려움은 ‘여성이 남성보다 부모역할을 더욱 훌륭하게 수행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분명한 답을 하기 어렵게 만드는 주된 장애물이 된다. 대부분의 연구들은 부모가 어린 자녀에게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는 정도에서 성차이가 있는지, 즉 아동에 대한 민감성에 관심을 가져왔다. 이러한 연구들은 최소한 아동에 대한 남성과 여성의 타고난 지향성에 관해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다. 여러가지 연구들(위에서 인용한 연구들 뿐만 아니라)이 제시하는 증거는 합리적이고 명백하다. 여성만이 아동들에게 관심을 갖도록 타고났다는 대중적인 개념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이다. 남성 역시 여성과 같은 특별한 반응을 보이고 있으므로 남녀간에 발견된 몇 가지 차이는 타고난 경향성으로 인한 차이라기 보다는 사회적 관습으로 인한 차이인 것 같다.

남성도 유아들의 고통에 대하여 여성과 비슷한 생리적 반응을 보인다는 Frodi와 그의 동료들의 연구결과들(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반복된 결과)은 바로 이런 측면에서 적절한 것이다. 가장 기본적인 각성수준에서 성차이가 발견되지 않는다면, 다른 측면에서 나타나는 차이는 문화적으로 결정된다고 보는 것이 적절한 것이다. 이같은 사실은 어린 아동에 대한 반응이 가족의 생활 주기에 따라 다르다는 연구결과에 의해서도 실증된 바 있다. 예를 들어 각 나이별로 비교한 Feldman과 Nash(앞에서 기술된)연구는 5살 정도의 소년·소녀들 사이에서는 유아들에 대한 반응에 있어 차이가 없었으나, 청년들 사이에서는 사회적 압력을 암시하는 변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다른 연구들에 의해서도 확인된 바 있다.

물론 생리학적 기반에 근거한 성차이가 있다는 생각의 진위를 입

증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증거들은 이 생각이 적절한 설명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불행하게도 육아에 대한 여성의 적합성과는 달리 남성의 적합성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해줄 수 있는 유용한 자료는 훨씬 더 적은 편이다. 많은 연구들은 혼자된 아버지들중 대부분이 가사와 육아면에서 성공적이고 능력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처음에 그런 책임이 주어졌을 때 적응기간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아버지들이 기록한 자기 보고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타당도가 높지 않다. 위에서 요약된 Santrock과 Warshak의 연구가 몇 안되는 예 중의 하나이다. 그 연구에서는 관찰을 토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자신의 편향에 의한 영향은 없는 것 같다. 이 혼한 부모의 자녀들은 같은 성을 가진 부모의 보호 아래 있을 때 가장 잘 지낸다는 이 연구의 결론은 흥미있는 것인 동시에 매우 중요한 지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들을 무조건 수용하기 이전에 반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해야만 하겠다. 왜냐하면 사용된 표집의 수가 비교적 적고 연구대상이 모두 중류계급이었으며, 평가가 매우 제한된 관찰기간 동안에 단 한 차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제까지 우리가 수집할 수 있었던 연구들에만 의존하여 일반화시키기에는 실제로 여러가지 일반적인 문제가 있다. 어린 유아에게 일차적인 보호자 역할을 하는 아버지(Field의 연구에서와 같이), 혹은 자녀를 혼자 맡아 기르는 아버지는 아마 특별한 사례에 불과하며 일반적인 아버지들을 대표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남성의 부모로서의 능력에 대하여 확실하고 신속한 결론을 내리는 것에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연구 결과들은 우리에게 여성이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필연적으로 ‘더 훌륭한’ 부모가 된다는 생각은 다만 경솔한 일반론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실제를 위한 시사점

앞에 기술된 바에 의하면 지금까지 수집된 연구결과들을 실제에 응용한다는 것은 상당한 주의를 요하는 행위임에 틀림없다. 이 분야에서 전체 연구의 양은 많지 않으며 현재 있는 연구조차도 매우 복잡한 문제중에서 단지 제한된 측면 만을 다루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지금까지 수집된 연구결과들은 부모로서의 적합성에 관한 한, 남성이라고 해서 자격이 부족하다고 간주되어서는 안된다는 결론에 충분한 의견 일치를 보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성이라고 해서 무조건 그런 역할을 잘 수행하리라는 보장도 없다. 이같은 사실은 분명히 많은 사람들에게 해당된다. 그러나 부모 역할에 관한 실제적인 문제에 부딪혔을 때는 전체적으로 성차이가 당연히 존재한다는 흑백논리적 사고방식에 근거하여 결정을 내리곤 한다. 이런 것들이 불가피하다는 증거는 없다. 따라서 각각의 사례들은 오로지 개인의 성에만 근거하여 절대적으로 일반화 시킬 것이 아니라 각각의 장점에 근거하여 다루어져야 한다. 결론을 도출해내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점은 각 가정의 독특하고 전체적인 환경이다.

이것은 특히 보호논쟁과 같이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비교판단이 요구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과거에는 부모로서의 책임을 혼자 감당할 사람으로서 가장 적합한 사람이 어머니일 것이라는 가정이 판단을 지배하였다. 다른 방법으로 증명되지 않는 이상 아버지는 부적합한 사람으로 간주되었었다.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가족생활 유형의 변화는 이런 사고가 꼭 옳지만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아버지도 역시 적합한 보호자가 될 수 있다. 적합한 기질과 인성을 갖춘 아버지는 그의 전처와 같은 위치에서 혼자 부모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아동들이

이혼 후에 계속해서 어머니와 생활하려고 하는 것은 당연하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가정에서 어머니는 항상 자녀에게 책임이 있는 중요한 사람이었고, 많은 아동들이 그런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싶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모 모두가 아동을 맡아 기를 것을 원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은 부모의 성이 아니라 그들 개인의 주변 조건이다. 주변 조건들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아동이 형성하고 있는 애착관계와 선호의 성격이다. 만약 이것이 확립되었다 할지라도 아동이 부모 중 한 쪽을 선택하는 과정에 직접적으로 당면하지 않도록 세세한 배려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대부분의 아동들은 부모가 이혼한다는 것에 대하여 몹시 슬피하고 있으며,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 지내고 싶어한다. 아동에게 부모 중 하나를 선택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몇 년 동안 아동과 빈번하게 만나게 될 선택되지 않은 다른 한 쪽 부모에게 대한 상당한 죄책감을 불러 일으키기 쉽다.

몇 가지 연구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아동들은 동일한 성을 지닌 부모와 함께 지낼 때 더 잘 지낸다는 생각은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한다. 강조했다시피 이 연구결과는 여전히 더 많은 반복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응용을 뒷받침할 확고한 기반을 마련하려면 다른 표집을 대상으로 다른 자료 수집기술을 사용한 연구가 되풀이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다른 조건이 동등하다면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조건이 동등한 때는 언제인가?

남자가 부모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는 질문이 제기될 수 있는 또 다른 상황은 혼자 사는 남자가 아동들을 위탁양육하거나 입양하기를 원하는 매우 희귀한 경우이다. 여기에도 보호의 경우와 동일한 일반적인 원리가 적용된다. 개인의 성 때문에 고려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서는 안된다. 동기와 인성이 더 중요한 것이고, 혼자 사는 남성에게도 혼자 사는 여성에게 처럼 동일한 방식

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남성이 혼자 살면서 아동의 일차적인 보호 책임자로서 적당치 않다는 문화적 편견을 지워버리는 것은 쉽지 않다. 또한 그런 책임을 맡으려는 사람에게는 괴상한 면이 있을 것이라는 의심을 좀처럼 떨쳐 버리기 힘들 것이다. 애석한 일이다. 남성이 부모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필연적으로 덜 적합하다는 증거가 없다면 또 생리적 보다 사회적 인습이 육아의 역할 분리를 결정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아동들의 미래를 결정하는데 있어 그런 편견은 작용하지 않아야 한다.

위에서 요약된 연구들 중 마지막 연구에서 그런 편견이 얼마나 널리 보편화되어 있는지 알아보았다. 결국 그런 편견이 사라지려면 사회의 변화가 먼저 일어나야 한다. 가정생활의 안팎에서 여성과 남성의 역할이 지금보다 더욱 유사해질 때 그런 사고는 저절로 사라지게 될 것이다. 요컨대 최소한 이러한 편견에 대한 전문가들의 시선을 줄이도록 하여야 한다. 그들이 이러한 의식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맹목적으로 힘으로만 밀어 붙이려고 하게 되므로 특히 혼련 과정을 통하여 의식화 작업을 시도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 Berman, P. W. 1980 : Are women more responsive than men to the young? A review of developmental and situational variables. *Psychological Bulletin*, 88, 668-95.
- Bronstein, P. and Cowan, C. P. 1988 : *Fatherhood Today : men's changing role in the family*. Chichester : Wiley.
- Lamb, M. E. and Sagi, A.(eds) 1983 : *Fatherhood and Family Policy*. Hillsdale, New Jersey : Erlbaum.
- Parke, R. D. 1981 : *Fathering*. London : Fontana ; Cambridge, Mass. : Harvard University Press.

아동들은 어머니 아버지 모두를 필요로 하는가

문제제기

‘정상적인’ 가족이란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을 의미한다. 많은 심리학이론은 아동발달과 사회화과정을 설명하면서 이것은 단지 정상적이 아니라 필수적인 것이라고 가정한다. 각 부모는 해야 할 역할이 분명히 있다. 역할들은 서로 바뀔 수 없다. 그러므로 아동의 정상적인 발달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모두 필요하다.

특히 이런 생각은 아동들이 성역할을 습득하는 데에 적용된다. 오랜 세월동안 인식되어 왔듯이 소년들은 남성답게(주장이 강하고, 경쟁적이고, 행동지향적인) 성장하여야 하고, 소녀들은 여성답게(협동적이고, 순종적이고, 감성지향적인) 성장하여야 한다. 어떤 사람이 적당한 범주에서 이탈된다는 것은 틀림없이 사회적으로 비 정상적인 것이며 발달과정에서 무엇인가 방향이 잘못 되어가는 징조로 간주된다. 그러한 정상적인 환경에서는 자녀들이 같은 성의 부모를 동일시하려고 동기화되는 것이 정상이므로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 Freud는 이렇게 믿고 있고 금세기에 대부분의 사고를 지배해 왔던 다른 많은 측면들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이것도 이론화시키고 있다. Freud에 따르면 먼저 소년 소녀들은 어머니와 애착관계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소녀들은 이런 상태로 계속된다. 하지만 소년들은 아버지를 어머니의 사랑을 서로 차지하려는 경쟁자로서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감정이 돌키는 것이 두려워 아버지와 같이 되기를 원하는 것을 통해 아버지를 만족시킴으로써 그런 갈등을 처리하려 한다. 따라서 일찍부터 동일화의 대상이 아버지로 바

편다. 이와같이 소년, 소녀들은 사회가 각 성에 알맞다고 여기는 성격을 습득하기 위해 동일화하고 모방할 대상을 필요로 한다. 더구나 성에 적합한 행동은 부모나 다른 성인에게 칭찬을 받아 강화되고, 마찬가지로 부적합한 행동은 비난이나 벌에 의해 제거된다.

이런 생각이 옳다면 아동이 모방할 수 있는 한쪽 부모가 없다는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그런 환경에서 이상한 성역할 행동이 나타날 수 있듯이 성심리적 발달에 문제점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편부모 가정에서 양육하는 것은 심리적으로 위험한 일이 될 수 있다. 이는 많은 아동들이 그런 가정에서 최소한 아동기의 일부분을 보내고 있고, 그 수가 점증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다. 이런 아동들이 실제로 나쁜 영향을 받는가? 많은 편부모 가정에서 생기는 어려움이 그들의 지위에 의해 수반되는 사회·경제적 문제에서 발생한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그들은 형편없는 집에서 살고 있으며, 경제적 곤란을 겪고 있고, 불충분한 보육시설에서 부모와 함께 지내도록 강요되곤 한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당연히 아동의 정신건강과 관련된다. 다시 말해서 한 사람의 보호자의 보호 아래 있을 때 무슨 일이 생기면 아동은 더욱 나쁜 영향을 받기 쉽다. 양 부모(two-parent)가 있다는 것이 그런 불행을 막는 보호막이 된다. 성에 관한 정체감의 발달에 비추어 볼 때 한 가정에 모델의 역할을 하는 같은 성을 가진 사람이 없다면, 아동의 성격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그 중에서도 어머니가 보호하는 대부분의 경우 소년들을 아버지 역의 부재로 말미암아 여성화되기 때문에 소년들이 특히 영향을 받을 것 같다. 소녀들의 경우에도 아버지가 딸에게 여성적인 행동을 권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부재는 여성다움의 계발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무엇보다도 소녀로 하여금 남자와 상호작용하는 기능을

습득하는데 저해요인이 된다.

이 과제와 관련된 또 하나의 ‘비정상적인’ 가정으로 아동이 동일한 성을 가진 두 사람의 부모에 의해 양육되는 가정을 들 수 있다. 이런 사례는 극히 드문 경우이지만(동성애에 대해 점점 허용적인 태도로 변하게 되므로 그 수가 증가하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일반적으로 두 명의 여자로 구성된다. 이런 경우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 아동들에게 아동과 같은 성을 지닌 부모가 없다면 그들은 나쁜 영향을 받게 될 것인가?

많은 연구들이 이러한 환경 즉 편부모 가정이나 여자동성연애자 가정에서 양육되는 아동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가능한 영향의 범위 특히 아버지 없는 아동들의 범죄경향성과 학업성취에 특히 주의를 기울이면서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성역할 행동의 발달인데 이는 아래에 기술된 연구들에 의해 밝혀지고 있다.

연구결과

요약

연구1 : 아버지의 부재가 남아의 성 유형화된 행동에 미치는 영향 : 부재의 이유와 아버지의 헤어질 당시의 나이*

편부모의 영향에 관한 초기의 연구들은 다소 조잡한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당시 연구들은 환경적 요인이 경험의 결과에 당연히 중요하게 작용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동들이 아버지를 잃게된 환경이 각각 다르다는 사실을 외면한 채, 아버지 없는 모든 아동들을

* Santrock, J. W. 1977 : Effects of father absence on sex-typed behaviors in male children : reason for the absence and age of onset of the absence.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30, 3-10.

함께 모아놓고 이들을 아버지가 있는 아동들과 비교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두 가지 측면을 다루고 있다. 아버지 부재의 이유(사망 혹은 이혼), 그리고 그 당시 아동의 나이.

피험자는 10, 11살 된 30명의 소년들 이었고, 주로 노동계급 출신이었다. 절반은 아버지와 사별하였고, 절반은 이혼으로 인해 헤어졌다. 피험자들이 아버지와 헤어진 시기는 9살이 될 때까지 다양한 연령시기였다. 통제집단은 정상적인 가정 출신의 15명의 소년으로 구성되었으며 지능, 나이, 및 학교에 따라 결함표집하였다. 소년들의 세가지 성격(남성다움-여성다움, 공격성, 의존성)에 초점을 두었으며, 측정절차는 교사평가와 구조화된 인형극 인터뷰에 의해 평가되었다 (인형극 인터뷰는 측정하고자 하는 3가지 성격을 끌어 내도록 설계된 인형극 상황을 포함했다).

연구결과 가정에 아버지가 있다는 것이 아들로 하여금 남성적인 행동을 계발하도록 하는데 필요하다는 주장이 뒷받침 되지 못했다. 반대로 표집대상인 아버지없는 소년들은 좀 더 남성적이고 공격적이고 독립적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렇지만 이 연구결과는 놀이에 의한 측정보다는 오히려 교사의 평가를 일차적으로 반영한 것이었다. 저자는 아버지 없는 소년들이 보여주는 더 높은 공격성은 반사회적 행동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인정하였다. 이는 이 연구에 포함되지 않았던 부분이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아버지가 없는 가정에서 더욱 여성적인 성격이 발달한다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편 아버지와 이별하게 된 이유와 그 당시 아동의 나이의 영향은 분명치 않다. 나이에 관하여서는 아버지 부재가 빨리 일어날수록 아동은 더욱 순종적이지 못하였고, 늦게 일어날수록 더욱 공격적이었다고 밝히고 있다. 이유에 따른 구분에 의하면 이혼한 가정의 소년들은 사별한 가정의 소년보다 더욱 공격적인 것으로 밝

혀졌으나 다른 측면에서는 이 두 집단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2 : 아버지의 부재가 청년기 딸의 인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이 연구도 역시 앞의 연구에서와 같이 사망이나 이혼에 의해 아버지가 없는 경우에 대한 연구이며, 여기에서는 소녀들을 연구대상으로 삼고 있다. 소녀들의 나이는 13~17살이었으며, 각 집단에 24명의 피험자가 포함되어 모두 3집단(정상적인 가정집단, 이혼가정집단 및 편모가정집단)이 구성되었다. 여러가지 측정을 통해 자료가 수집되었다. 즉 레크레이션 센터에서 각 소녀들을 관찰한 자료, 어머니와 딸과의 인터뷰에서 얻은 평가자료, 소녀와의 인터뷰 동안 보여 준 비언어적 행동에 대한 평가자료 그리고 많은 점사문항목록에 의한 점수(여성다움을 측정하는 척도를 포함하여)가 포함되었다.

연구결과 아버지 없는 가정의 소녀들이 성 유형화된 행동이나 여성역할 선호도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받는다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들은 정상적인 가정집단에 속한 소녀들과 비교해 볼 때 여성으로서 적합한 행동과 다른 여성과의 상호작용면에 있어서 차이점이 발견되지 않았다(차이의 원인은 다른 요인에 의해 나타나는 것이겠지만). 그러나 남자들과의 관계에서는 차이가 발견되었다. 이혼한 부모와 함께 사는 소녀들은 일찍부터 이성간의 행동을 보여주었고, 남자의 시선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반면 아버지와 사별한 소녀들은 남자를 꺼려하였고 억제하였다. 덧붙여서 아버지와 헤어졌을 당시의 소녀의 나이가 어느 정도 영향을

* Hetherington, E. M. 1972 : Effects of father absence on personality development in adolescent daughters. *Developmental Psychology*, 7, 313-26.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나이가 어릴수록 대체로 더욱 뚜렷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저자는 더 어린 소녀들을 연구대상으로 한 다른 연구들은 아버지와 격리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고 지적한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얻어진 결론에 의해 판단컨대 아버지와 헤어졌던 경험들이 미치는 영향은 결과가 어떤 것이든간에 청년기가 되어서야 나타나는 것 같다. 그러나 청년기가 되어서도 성 유형화된 행동이나 여성들과의 상호작용에 있어서는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고, 단지 남성과 관계된 여성으로서의 기능에서만 차이가 발견되었다.

연구3 : 이혼한 편부모와 그들의 자녀들의 성역할에 대한 자아개념*

편부모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들은 부모의 손실 그 자체보다는 기타 다른 요인들에 의한 것일지도 모른다. 특히 혼자 남아 아동을 보호하는 부모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살펴 볼 필요가 있는데, 왜냐하면 그의/그녀의 반응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의 성격을 결정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성역할 인지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이혼한 부모의 성역할 인지에 대해서도 연구함으로써 이러한 가능성을 설명하려 한다. 자녀를 보호하고 있는 부모 74명(60명의 어머니와 14명의 아버지)이 선발되었고, 또한 그들의 자녀 92명(43명의 소년들과 49명의 소녀들)이 선발되었다. 자녀들의 나이는 10~19 살이었다. 이러한 모든 피험자를 대상으로 'Bem 성역할 인지에 대한 검사문항목록'(60개의 형용사 목록으로서 전형적인 남성, 여성, 혹은

* Kurder, L. A. and Siesky, A. E. 1980 : Sex role self-concepts of single divorced parents and their children. Journal of Divorce, 3, 249-61.

은 중성적 성격을 기술하고 있다)을 실시하였다. 부모들과 자녀들에게 각 형용사의 7단계로 된 척도상에서 자기 자신에게 해당된다고 생각하는 곳에 평정하도록 하였다. 이혼하지 않은 가정의 자녀들로 구성된 통제집단은 나이와 성에 따라 결합시켜 이 연구에 포함되었다.

부모들에 대하여 살펴 본 결과 이혼한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이혼한 어머니들은 남성다움과 여성다움 양쪽 모두에서, 공인된 기준에 비추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와같이 부모들은 주로 양성적, 즉 남성-여성 분리하여 어느 한 쪽에 치우치기 보다는 남성다운 성격과 여성다운 성격을 함께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자녀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소년 소녀들은 부모가 이혼하지 않은 가정의 아동들 보다 유의미한 수준에서 더 양성적이었다.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그들의 대부분이 편모슬하에 있는 이혼한 가정의 소년들이었다. 그들은 자아 개념에서 통제집단보다 덜 남성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 '비남성다움'이란 여성다움의 경향이 아니고 오히려 양성적인 경향과 동일하다고 밝혀졌다.

이처럼, 남성-여성이라는 성유형 중 이것이나 저것이나로 분리하는 견해는 아동들이나 그들의 부모들을 올바르게 평가하지 못한다. 두 종류의 성격이 한 사람의 동일한 인물에게서 발견될 수 있다. 특히 두 사람 몫의 부모 역할을 해야 하는 혼자 사는 부모에게서 이런 경향이 나타난다. 부모의 행동이 아동들에게 영향을 미치어 그들과 유사한 심리적 특성을 유발시키는 것 같다.

연구4 : 양부모와 편부모 가정 출신의 유치원 원아의 성역할 발달*

성역할이란 개념은 종종 개인의 남성다움, 여성다움으로 확대된 일반화를 적용시켜 그것이 마치 하나의 통합적인 의미를 갖는 것처럼 다루어져 왔다. 그러나 이것은 과잉 단순화시킨 것에 불과하다. 성역할 개념은 뚜렷이 구별되는 많은 구성요소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중 어떤 구성요소들은 다른 요소들이 영향을 받지 않는 반면 편부모가정의 가족구성원이기 때문에 영향을 주는 것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런 측면을 다루고 있으며 4살 된 41명의 아동들을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들 중 17명은 편모가정 출신이고, 24명은 양부모와 함께 사는 가정의 아동들이었다. 3가지 독립적인 측면이 조사되었다 : (1) 자신의 성에 관한 정체의식을 아동들이 이해하는 수준(표준화된 인터뷰에 의해 평가되었다), (2) 성에 따른 통상적인 인식에 대한 지식 수준, 즉 각 성에 따라 달라지는 행동과 기능에 대한 지식(이 또한 일련의 질문들에 의해 평가되었다), (3) 아동의 성역할 선택(놀이하는 동안 여성 혹은 남성적인 장난감을 선택하는 과정을 관찰을 통해 측정하였다).

연구결과 편부모 가정의 아동들은 정상 가정의 아동들과 비교하여 그들 자신의 성에 관한 정체의식의 이해에 있어 차이가 없었다. 즉 편부모 가정의 소년·소녀들의 발달 양상에는 혼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같은 현상은 두 집단 간에 유사하였다. 성에 따른 통상적인 인식에 대한 지식에 있어서는 편부모 가정의 아동들이 더 많은 지식을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대하지 않았던 결과로서 저자는 이에 대하여 성역할 개념 중 편부모 가정에서만 나

* Brenes, M. E., Eisenberg, N. and Helmstadter, G. C. 1985 : Sex role development of preschoolers from two-parent and one-parent families. Merrill-Palmer Quarterly, 31, 33-46.

타나는 특징이라고 논의하였다. 실제적으로 이러한 아동들이 선택하는 성역할에 있어서는 편부모 가정의 아동들의 장난감 선택과정에서 성 유형화된 행동을 덜 나타내는 경향이 있었다. 즉 양부모와 함께 사는 아동들 보다 반대 성에 적합한 혹은 중성적인 장난감을 더 많이 갖고 놀았다. 그러나 편모가정의 소년들은 소녀들의 경우보다 남성적인 장난감을 훨씬 더 많이 선택하는 것 같았고, 여성적인 장난감을 갖고 노는 것은 비교적 적게 나타났다. 즉 그들은 놀이를 하는데 있어 ‘여성답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본 연구는 성역할 개념은 복잡한 성격을 띠고 있으며 어떤 측면이 다른 측면보다 더욱 쉽게 영향받는다라는 견해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그러나 편부모 가정에서 자란 아동들이 성역할 개념 면에서 어떤 뚜렷한 혼란을 겪고 있다는 증거는 없다.

연구5 : 여자동성연애자 가정과 편부모가정에서 사는 아동들 : 성 심리 및 정신의학적 평가*

여자동성연애자 가정에 사는 아동들 역시 아버지는 없고 대신 두 명의 여성에 의해 양육된다. 본 연구는 이런 양육의 심리적 영향에 관한 많은 보고서들 가운데에서 아마 가장 적절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27개의 여자동성연애자 가정과 27개의 어머니와 아들 혹은 아버지와 딸이 함께 사는 편부모 가정을 비교하였다. 전자에는 5~17살 된 37명의 아동들이 있었고 편부모 집단에는 38명의 아동들이 있었다. 두 집단의 어머니들은 현재의 정신의학적 상태를 반영하는 모든 측정에서 유사하였고, 아동들에게 온화한 감정을 비슷한 정도

* Golombok, S., Spencer, A. and Rutter, M. 1983 : Children in lesbian and single-parent households ; psychosexual and psychiatric appraisal.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24, 551-72.

로 보여준다고 판단되었다. 여자동성연애자 가정의 어머니들은 아동들에게 자신의 성에 관한 입장을 감추려는 어떤 시도도 하지 않았고 어머니가 상대 여성과 함께 사는 경우, (27가정중 12가정) 2가정이외의 모든 어머니들이 서로에게 개방적인 감정을 보여 주었다. 대부분의 이런 가정에서는 부모로서의 역할과 주부로서의 역할이 두 여성 사이에 공유되었다.

아동들의 성심리발달에 관한 세 가지 측면이 연구되었다: (1) 성에 관한 정체의식(즉 자기 자신이 여성이나 혹은 남성이나에 대해 갖는 개인의 개념) (2) 성 유형화된 행동(성이 구별되는 행동을 선택하는 것) (3) 성적 대상 선택(즉 동성애 혹은 이성애에 대한 개인의 입장). 연구결과 두 개의 가정집단 사이에 어떠한 차이도 발견되지 않았다. 3가지 질문에서도 여자 동성연애자인 어머니들의 아동들이 그들의 생리적인 성에 걸맞지 않는 방향으로 발달한다는 어떤 증거도 없었다. 모든 측면에서 그들은 자신의 성에 대하여 만족스러워 하였으며, 자신의 성이 아닌 반대의 성으로 되는 것이 더 좋다고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성 유형화된 행동에 대하여서는, 어머니와 아동 따로 분리하여 2회에 걸쳐 실시한 인터뷰에 근거하여 평가하였다. 평가결과 습관적으로 하는 행동에서 소년·소녀들 사이에 분명한 차이가 있었다. 다시 말해서, 일반적으로 남성다움·여성다움으로 생각되는 행동유형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였다. 성적 대상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사춘기 이상의 청소년들이 동성애적 관심을 갖는다는 증거는 없었다. 덧붙여서, 아동들의 정서적 적응과 사회적 관계에 대한 여러가지 측정을 실시한 결과 여자동성연애자 가정의 아동들이 편부모가정의 아동들보다 심리적 문제점들을 더 적게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는 두 집단 사이에 차이가 없었다.

이 표집에서 볼 때, 여자 동성연애자 가정에서의 양육 그 자체가

이상적인 성심리발달로 이르게 하지는 않으며, 정신병학적 위험요인을 포함하고 있지도 않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해석

편부모가정에 관한 연구분야에서 실시된 거의 모든 연구들은 아버지 부재의 영향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 어머니부재는 훨씬 드물게 발생하는 사례이기 때문에 더 적은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의 결론은 주로 전자에 제한되어 있음에 틀림없다. 부연하면, 여러가지 가능한 결과들이 검토되고 있지만(사회적 적응, 교육적 진전 등등), 한쪽 부모가 없을 때는 특히 성격적 측면이 손상되기 쉬우리라 생각되기 때문에 아이들의 성역할발달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인용된 연구들에서 살펴보았듯이, 대체적으로 연구는 이런 기대를 지지하지 않고 있다. 특히, 아버지 없는 소년들이 여성화되기 쉽다는 생각은 지지되지 않는다. 편부모가정의 자녀들의 성심리발달에 대한 일반화는 단순하고 타당하지 못한 경우가 너무나 많다.

그러나 덧붙여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많이 있다. 첫째, 편부모 슬하의 아동들과 양부모슬하의 아동들을 비교하는 방법은 조잡하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편부모 슬하의 아동이 다른 남성역할자(할아버지, 삼촌, 이웃, 손위형 등)와 많은 접촉을 가질수 있는 반면 양부모 슬하의 아동 중 몇몇은 그들의 아버지를 거의 볼 수 없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무시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아버지역할자와 실제적인 접촉에 대한 평가가 연구에 더욱 좋은 기초를 제공할 것이다.

둘째, 아버지의 부재의 영향은 아버지의 부재 그 자체보다는 다른 많은 조건들에 의존해 있다. 여기에는 부재의 이유(예를 들어, 사별 혹은 이혼), 어머니 자신의 반응, 아동의 나이와 성, 가정에

미치는 재정적 및 기타 실제상의 영향들 등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다른 조건들에 의한 영향이 아버지의 부재 그 자체에 의한 영향보다 더 크다. 결론적으로, 그러한 경험에 일어나는 상황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항상 연구에 고려되는 것은 아니다.

고려되어야 할 또 하나의 과제는 아동의 성에 관한 정체의식을 측정하는데 따르는 어려움이다. 여기에는 여러가지 다양한 측면들이 포함된다: 아동의 행동, 아동의 지식, 아동의 자아 개념 등등.

그것들 각각은 다양한 방식으로 영향받는다—이 모든 것들을 측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항상 무시되고 있다. 또다른 문제점으로는 어떤 하나의 측면이 다른 여러가지 방법으로 측정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관찰, 인터뷰, 검사문항목록, 검사 등등. 측정도구 중 어떤 것이 다른 것과 비교하여 더 정교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이처럼 여러가지 측정도구가 사용되는 것은 연구마다 다른 결과가 나오게 하는 원인이 된다.—이는 인간 행동에 관한 현 단계의 과학적 연구들에서 불행히도 너무나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이야기이다!

연구문헌들을 평가하는데 이러한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나온 연구 결과들은 아동이 전통적인 가정환경에서 양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할 경우 불가피하게 심리적 발달상에 이상이 생긴다는 믿음에 대하여 호된 일격을 가하고 있다. 위에서 요약된 Golombok와 그의 동료들에 의한 보고서와 그 외의 많은 연구(덜 정선된 연구이지만)에 의해 입증되었듯이, 이러한 일격은 여자 동성연애자 가정에서 양육된 아동들에게까지도 적용된다. 거듭 말하건데, Golombok와 그의 동료들이 실시한 연구에 포함된 아동들이 남성의 영향에서 완전히 고립되어 양육된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은 짚고 넘어갈 만한 가치가 있다: 그들 중 거의 절반이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아버지를 만났다. 그렇다라도(한 때, 이론적 배경

으로 사용하였던), 동일한 성을 가진 부모에게로의 모방과 동일화 개념은 해석에 중요한 도움을 주지는 않는 것 같다. 예를 들어, 편 모술하에서 자란 소년은 단순히 어머니가 그를 하나의 남성으로 다루기 때문에 남성다움이 당연히 발달하게 된다고 본다. 아동에게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자질이 길러지는 것이다. 이에서 보는 바와 같이 더욱 최근의 사고방식에 따르면, 성에 대한 정체의식의 발달에는 여러가지 다양한 통로가 있다; 그렇다면, 아버지의 부재가 비정상적인 성심리발달을 초래한다고 생각할 만한 이론적 근거는 없는 것이다.

실제를 위한 시사점

아마, 아버지가 없는 가정에서 자란 아동들에 관한 최근의 연구들이 던져주는 가장 중요한 시사점은—단지 아버지 역할자가 없다는 이유만으로—그런 아동들이 심리적으로 ‘열등하게’될 것이라는 기대를 우리 스스로 제거해야 한다는 점이다. 아버지가 계속해서 함께 있는 것이 자녀들의 정신건강에 특히 소년들의 정신건강을 위해 필요하며, 더 나아가 그들의 성에 대한 정체의식의 발달을 위하여 ‘필수적’이라는 신념이 널리 보편화되어 있다. 이것을 입증하려는 연구가 실패를 거듭하고 있고, 다른 행동적 측면에 대한 연구에서도 역시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아버지가 없는 것과 청소년범죄 사이에 가정되는 연계성은 아직 더 많은 증거를 필요로 하는 널리 보편화된 편견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없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범죄의 다발성에 관한 연구가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거듭 말하건데 연구 수행의 과정 속에 방법론적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통제집단의 사회계급과 같은 요인 등을 고려하여 결합하는 방법과 같은), 영향의 원인을 편부모가정으로만 돌리지는 않을 것이다. 만약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이 아동들에게서 발

견된다면, 그것들이 한 쪽 부모의 부재의 결과로써 나타난 것인지 혹은 편부모가정에서 자주 겪게 되는 여러가지 경제적 및 기타 실제성의 불이익과 연결되는 것인지를 확실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집단의 아동들이 정상적인 심리발달을 나타내고 있다면, 위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행동을 취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과정이 될 것이다.

편부모슬하의 아동이 된다는 사실 자체가 바로 위험에 처해지게 되는 요인이 아니라면, 만족스런 환경을 제공하려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에 대하여 불필요한 비중을 둘 이유가 없다. 예를 들어, 편부모슬하의 아동들이 양부모슬하의 아동들 보다 더욱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은 잘못이다—최소한, 그들이 구별되는 한 가지 조건이 그들 부모의 수일때, 보호분쟁의 사례의 경우, 아동을 편부모에게 보다 재혼한 부모에게 맡도록 하는 것은 역시 잘못이다. 이런 경우 편부모나 혹은 재혼한 부모나는 차이는 환경의 성격을 좌우하는 기타 여러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들에 비해 거의 중요하지 않다. 다음과 같은 지적 역시 적절한 것이다. 연구결과들에 의하면 편부모가정의 아동들이, 양부모가 있지만 갈등에 시달리는 가정의 아동들보다 더욱 적절하게 발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가정에 있는 부모의 수 자체가 아동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절대적이고 최우선적인 조건은 아니다. 우리는 분명히 최근 몇 십년 동안에 전통적인 가족구조 내에서 일어난 커다란 변화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이제, 이미 구식이 되어버린 어떤 견해를 근거로 행동해서는 안된다. 되풀이하여 말하지만 이같은 필요성은 규준에서 훨씬 극단적으로 일탈된 경우들 중의 하나인, 즉 여자 동성연애자 가정에서 자라난 아동들의 사례에서 특히 잘 나타나고 있다. 이미 살펴 보았듯이, 그같은 환경이 이 아동들의 성역할발달(혹은 다른 심리기능적 측면)에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는 없다. 그들이

속해있는 가족구성유형이 비교적 희귀한 유형이기 때문에 그런 비인습적인 위치가 예를 들어, 다른 아동들의 놀림의 대상이 되거나 배척당하여 아동에게 간접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점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은 다시 말하면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요인은 그런 가족형태라기보다는 오히려 특별한 가족형태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라는 것을 의미한다. 어쨌든 여자 동성연애자가 아동의 심리적 건강을 위협할 것이라는 가정하에 그녀에게 보호를 맡기는 것을 공공연히 거절하는 조치는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다.

어떤 면에서, 남성·여성 각각에게 허용될 수 있는 행동이 무엇인가에 대한 사회적 통념에 뚜렷한 전환이 이루어져 왔다. 성역할은 이제 더 이상 과거처럼 첨예하게 분리될 수는 없다; 이제는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을 극단적으로 대립적인 것으로 보는 대신, 융통성있고 일치된 부분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부모가 육아과정을 통해 아동에게 강조하는 특성은 이같은 사회의 변화를 반영한다. 따라서 이제 양성적인 성격을 형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오늘날의 사회에서는 정상적인 적응을 하는데 이러한 것이 더욱 많이 요구된다. 편부모 가정의 아동들이 양성적인 성격으로 발전되는 경향이 있다는 증거가 있었으므로 편부모 가족을 순전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아서는 안된다는 또 다른 지적이 있다. 편부모 가족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측면들도 있다. 따라서 우리의 편견으로 인하여 이러한 측면들을 간과한다면 불행한 일일 것이다.

참고문헌

- Ferri, E. 1976 : *Growing up in a One-Parent Family : a long-term study of child development*. London : National Foundation of Educational Research.

- Herzog, E. and Sudia, C. E. 1973 : Children in fatherless families. In B. M. Caldwell and H. N. Ricciuti (eds), *Review of Child Development Research*, Vol. 3. Chicago :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Huston, A. C. 1983 : Sex-typing. In E. M. Hetherington (ed.), *Socialization, Personality and Social Development*, Vol. IV of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New York : Wiley.
- Ruble, D. 1984 : Sex-role development. In M. H. Bornstein and M. E. Lamb (eds), *Developmental Psychology : an advanced textbook*. Hillsdale, New Jersey : Erlbaum.

부모와 격리시키는 것이 아동에게 심리적인 상처를 주는가

문제제기

유아가 부모와 확립한 관계는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이런 유대 관계가 깨어지는 것은 그것이 아무리 일시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바람직하지 않으며 심지어는 잠재적인 위험까지도 안고 있다. 아동이 부모와 격리되는 상황은 매우 다양하다. 즉 아동의 입원, 부모의 입원 등 가족이 안고 있는 여러 문제로 인해 공공 보호시설에 맡겨지는 경우, 이혼, 부모의 죽음 등이 이에 속한다. 그러나 이 모든 경우에 있어서 우리는 다음의 2가지를 질문해 볼 수 있다. 첫째 아동의 심리 상태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가? 둘째 격리로 인한 영향은 모든 격리 상황에서 반드시 나타나는가(연구를 통해 배운 것을 근거로 해서)? 이 모든 문제에 대답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여기서는 아동의 즉각적인 반응에 대한 문제만을 다루고 장기적인 효과는 다음 장에서 다루어 보기로 하자.

위에서 제시한 질문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한 사람이 바로 Freud이다. Freud는 아동과 어머니간의 관계를 둘러 싸고 있는 매우 강한 ‘감정’에 대하여 관심을 가졌다. 아동이 어머니와 격리되었을 때 강렬히 저항하는 것도 바로 이같은 강렬한 감정때문이다. Freud와 Bowlby(후에, 모성 실조와 이로 인해 발생하는 신경증을 연결시켰던)는 아동기 동안 어머니와 형성된 긴밀하고 만족스러운 관계는 아동의 건전한 인성 발달을 위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모성 실조는 아동에게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애착 대상에게 더이상 다가가지 않는 것은 아동들이 극복할 준비가 아직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격리를 경험했기 때문에 생긴 충격

현상인 것 같다. 격리 경험은 그것이 아무리 일시적인 격리라 할지라도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아동에게 격리 불안을 갖게 한다. Freud에 따르면 이는 격리 경험후 여러 해 동안 다양한 신경질적인 문제를 일으킨다고 한다. 따라서 아동을 어머니와 격리시키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피해야 한다.

이 분야의 연구는 본래 임상적 기록에서 시작된 것이다. 임상적 기록은 애착 대상과 격리되었던 경험이 정신 병리학적 문제를 일으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이 밝혀낸 격리 경험과 정신 병리학적 문제와의 관계는 단지 추론된 것에 불과했으며 정보 또한 회고를 통해 얻어진 것이었다. 왜냐하면 격리 경험이 인생 초기에 일어난 것임에도 불구하고 성인이나 나이든 아동에게서 얻어낸 자료를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얼마나 불분명한 증거인가! 또한 이같은 접근은 상처받지 않았기 때문에 임상적 조치가 필요하지 않았던 아동에 대해서는 아무런 정보도 주지 못한다. 1940, 1950년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격리되어 있는 아동을 직접 관찰하기 시작했다. 격리 상황에 대한 아동의 반응을 자세히 기술하기 시작한 것도 바로 이때부터이다. 또한 종단적 연구 방법을 통하여 격리 경험이 얼마나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는가에 대해서도 고려하게 되었다.

대부분의 연구들은 병원이나 단기 보호시설에 맡겨진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 두 장소는 당시 격리를 위해 사용되는 가장 일반적인 장소였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장소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상당한 우려를 갖고 있었다. 이같은 우려는 여러 연구 결과를 통해 많이 경감되었다. 그러나 격리에 대해 여전히 대두되고 있는 주장은 아동이 강한 충격이나 불안을 느끼는 것은 피할 수 없으며, 모르긴 해도 어떤 환경도 이를 극복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견해이다. 격리를 둘러싼 조건이 어떻든간에 ‘어머니’라는 애착 대상

을 잃어버린다는 사실 자체가 아동의 정서 생활을 혼란시킬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이는 우리에게 분명한 시사점을 던져준다. ‘불안을 덜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즉 격리 상황에 처해있는 아동을 돕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은 없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에 등장하는 또 다른 연구 주류는 격리 불안을 완화시켜줄 수 있는 환경이 가능한가에 대하여 특히 주목하고 있다. 아동의 반응이 언제나 획일적일 것이라는 견해는 이제 더 이상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양호한’ 격리를 조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만이 제기되고 있다.

먼저 아동의 ‘전형적인’ 반응을 기술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던 여러 연구들을 제시하고, 다음으로 격리 경험을 둘러싼 특정 상황들이 과연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실시되었던 연구들을 제시할 것이다. 여기서는 입원이나 주거 시설에 대한 아동의 반응에 대해 살펴 보기로 하고 이혼으로 인한 격리는 또 다른 의문을 불러 일으킬 것이므로 이후에 논하기로 하자.

연구 결과

요약

연구1 : 어머니와 격리되는 것에 대한 유아의 반응*

이 보고서는 유아가 어머니와 격리되었을 때 보이는 행동 반응에 대하여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되었던 최근의 연구 보고서 중의 하나이다(당시에는 아버지는 고려조차 되지 않았음을 주목하라). 연구 대상은 1세에서 4세 사이의 아동 49명이며, 이중 25명은 주거 시

* Robertson, J. and Bowlby, J. 1952 : Responses of young children to separation from their mothers. Courrier Centre International l' Enfance, 2, 131-42.

설이나 병원에 위탁된 아동이었다.

초기 반응이 관찰된 45명의 아동 중에서 3명을 제외한 모든 아동이 초조해하는 반응을 보였다. 이 단계를 ‘항의 단계’라고 하는데 주로 계속해서 격렬하게 울거나 약간 억제된 찡얼거림을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말을 할 수 있는 아동은 다소 강도를 달리해가면서 어머니를 부른다. 이 단계는 몇 시간 동안만 지속되는 경우도 있고 7, 8일까지 지속되는 경우도 있다. 이 기간 동안 아동은 공포를 보이고, 단지 어머니만이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것들을 요구한다. 다음 단계는 ‘절망 단계’이다. 이 단계는 어머니에 대한 욕구는 계속 되지만 어머니가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체념이 점차 증가하는 시기이다. 이 단계의 아동은 단조롭고 간헐적인 울음을 보이면서 점차 위축되고 냉담해진다. 마침내 세번째 단계로 접어들게 되는데 바로 ‘거부 단계’이다(이후에 인용되는 보고서에서는 탈애착이라고 재명명되었다). 점차 울음이 줄면서 주변에 대한 흥미를 보이기 시작한다. 일반적으로 이같은 반응을 회복의 징조로 생각하여 환영하는 경향이 있으나, 이 보고서의 저자인 Robertson은 이같은 반응은 계속해서 참을 것을 강요받았던 고통에 대처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결국 고통은 어머니를 향한 모든 감정을 억제하도록 만들어 후에 어머니를 다시 만났을때 어머니에게 무관심한 태도로 행동하게 한다. 아동이 시설에서 나올 때가 되면(보통 2, 3주 후인 경우가 많다) 어머니에 대한 진실한 사랑은 없어지고 심한 의존심, 적개심, 화 등이 뒤섞이게 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격리 충격에 대한 반응은 항의, 절망, 탈애착의 3단계를 거친다고 예언할 수 있다. 각 단계는 아동이 격리 경험에서 받은 강한 스트레스에 어떻게 적응해 나가는지를 말해 준다. 그러나 각 단계는 만약 계속된다면 —평온을 보여서 많은 사람에게 오해를 사기도 하는 마지막 단계에서조차도— 영구적인 정

신 장애를 유발할지도 모르는 바람직하지 못한 형태를 띠고 있다.

연구2 : 단기적 격리*

이 보고서는 아마도 격리 상황에서 아동이 어떤 행동을 보이는지에 대해 가장 자세하게 기술한 보고서일 것이다. 피험자수는 적지만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 실시되었기 때문에 신뢰로운 자료를 제공해 준다.

연구 대상은 2, 3세 아동 10명으로 어머니가 입원해 있는 비교적 짧은 기간동안 주거 시설에 위탁된 아동으로 구분되었다. 또한 비교 집단으로는 이들과 나이, 성별이 동일한 비격리 집단이 구성되었다. 우선 가정 방문을 통해 부모와 면접을 실시하고 아동의 기초선을 관찰하였다. 시설에 들어간 후, 어머니와 격리된 아동들은 연구자 2명에 의해 일정한 간격으로 관찰되었다. 이들 연구자들은 양적 비교를 가능하게 해주는 부호화 체계에 따라 아동의 반응행동을 체계적으로 기록하였다. 이 보고서에는 두 가지가 더 첨부되어 있는데 하나는 좀 더 전반적인 기술적 설명이고, 다른 하나는 아동의 환상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정기적으로 실시한 인형 놀이 시간에 얻은 자료이다. 시설 관계자들로 부터 얻은 정보도 있다. 각 아동은 어머니와 재회한 후에도 20주 동안 주간적으로 관찰되었으며 이와 동일한 관찰은 비격리 집단에게도 실행되었다.

격리된 10명의 아동 중 9명은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심한 공포를 보였는데 이같은 반응은 격리되는 순간에 특히 심했다. 처음 3일 동안은 절망적으로 울면서 부모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후에 아버지가 방문하였을 때 슬픔은 더 격렬해졌다. 오히려 형제와 함

* Heinicke, C. M. and Westheimer, I. J. 1965 : Brief Separations. London : Longmans.

게 온 아동들이 혼란을 덜 보였다. 5일이 지난 후에는 강렬한 울음은 점차 줄고 대신에 울음 없는 불안감을 보였다. 격리 초기에 대부분의 아동은 음식 먹는 것을 거절하며, 수면 장애를 보이고, 배변을 참고, 손가락 빠는 행동을 보였다. 또한 실무자들과 관련된 모든 것을 거절하였는데 특히 접근하거나, 안아 일으키거나, 달래는 것 등을 거절했다. 접촉에 대한 이러한 저항은 점차 안정을 찾고자 하는 마음과 뒤섞여 점차 특정 보모에 대한 선호를 보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심지어 2주가 지난 후에도 보모가 요청하는 것 중 삼분의 일 정도는 여전히 거절하였다.

집으로 돌아온 후 대부분의 아동은 양 부모 중 한 사람만이라도 자기를 두고 떠나면 울음을 보였다. 동시에 어머니와 아동 관계에서 나타나는 두드러진 특징은 어머니에게 애정을 가지고 반응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런 현상은 여러 주가 지나면서 점차 감소하는데 격리기간이 길었던 아동인 경우에는 더 오래 걸렸다. 이같은 현상은 아버지와의 관계에서는 보이지 않았다. 이 기간 동안 먹고, 자고, 배설하는 것 모두에서 장애를 보이나 이 역시 차츰 나아진다.

일반적으로 연구 결과는--아동 간에 표현되는 방식이 매우 다양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긴 하지만--Robertson과 Bowlby가 제시한 항의, 절망, 탈애착이라는 세 단계 순서를 지지한다.

연구3 : 입원이 유아에게 미치는 영향*

이 연구는 '아동이 특정 개인에 대하여 애착을 보이는 시기가 언제인가'라는 첫번째 문제에서 이미 언급한 바 있다. 이 연구는 격

* Schaffer, H. R. and Callender, W. M. 1959 : Psychologic effects of hospitalization in infancy. Pediatrics, 24, 528-39.

리로 인해 야기되는 혼란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을 뿐 아니라 다른 어느 연구보다도 더 어린 아동—심지어는 1세 유아까지도—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번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

연구결과 부모와 격리되는 것이 심리적으로 의미있는 사건이 되는 것은 생후 7개월부터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여기서는 이 연령 이상의 유아 37명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겠다. 입원후 처음 3일동안 관찰을 실시하였다. 관찰된 대상은 ‘양호한’ 이유로 병원에 입원하였기 때문에 질병이나 고통으로 인하여 입원에 대한 반응이 오명 되지않은 아동이었다. 식사 시간과 면회 시간을 포함하여 하루에 2시간씩 체계적인 관찰이 실시되었다. 퇴원하기전 3일 동안 이같은 관찰이 반복되었으며 퇴원한 후에는 정기적으로 가정 방문을 실시하였다.

관찰 결과 무엇보다도 두드러지게 나타난 현상은 격리에 대해 유아가 보이는 격렬한 슬픔이었다. 7개월 이상된 유아는 일반적으로 어머니에게서 떼어 놓자마자 울기 시작해서 상당히 오랜 시간동안 울음을 그치지 않았다. 단지 한 명의 유아만이 외현적 슬픔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 유아 역시 억제되고, 움추린 반응을 보였으며 계속해서 엄지 손가락을 빨았다. 대부분의 유아들은 좌절하고, 보모들이 접근하는 것을 거부했다. 음식 거부는 일반적인 현상이었다. 면회시간 동안 아동은 어머니에게 거의 필사적으로 매달리며 어머니가 떠나는 것에 대해 극단적으로 당황해 했다. 퇴원할 무렵에도(2, 3주 정도 입원해 있는 것이 보통이다) 울음과 움추림은, 초기처럼 두드러지진 않았지만 그리고 가장 오래 입원한 아동에게서 가장 적게 보이긴 했지만 여전히 나타났다. 집에 돌아온 후 모든 아동은 어머니에 대해 상당히 불안감을 보였다. 즉 어머니가 곁에서 떠날때마다 울었으며, 어떤 때는 어머니에게 매달려 내려 놓지도 못하게 하였고 낯선 사람에게 심한 공포를 보였다. 이런 현상

은 몇일 동안만 지속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주일 지속되는 경우도 있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부모와 확실한 애착이 형성되자마자 부모와 격리되는 것은 2, 3세 아동이 격리되었을 때 느끼는 만큼이나 많은 고통을 느끼게 하는 충격적인 사건인 것 같다. 울음이 줄어 드는 것과 이에 잇따라 냉담함을 보이는 것은 앞에서 언급한 3단계와 동일하다.

연구4 : 단기간 격리된 유아*

이제까지 인용된 연구들은 격리에 대한 ‘규준적 반응’으로서 심한 혼란을 지적하고 있다. Robertson은 이러한 혼란이 환경과는 상관없이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인지 아니면 격리 상황을 조정하여 격리에서 오는 고통을 완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하였다.

따라서 그들은 1~4주 동안 병원에 입원한 한살 반에서 두살 반 사이의 유아 4명을 직접 위탁 양육(foster-care)하였다. 또한 친척들 집에서 양육된 유아 9명에게서도 부가적인 자료를 얻었다. 가능한 모든 ‘오염적’ 요인들, 다시 말해서 격리 그 자체에 첨가되어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는 여러 측면들—낯선 환경, 새로운 일과 생활, 낯선 보모 등을 제거하고자 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었다. 따라서 Robertson은 격리되기 한달 전부터 4명의 아동과 친숙하게 지냈으며 그들에게 자신의 집을 소개시켜 주었다. 동시에 부모로부터 아동의 성격, 배변습관, 식성, 잠자는 습관 등을 알아두었다. 시설로 올때 아동들은 자기 베개, 침대, 장난감, 어머니 사진 등을 가져

* Robertson, J. and Robertson, J. 1971 : Young children in brief separation. *Psychoanalytic Study of the Child*, 26, 264-315.

왔다. 격리동안 위탁 부모는 어머니 사진을 보여주고 어머니에 대한 얘기를 나눔으로써 어머니에 대한 이미지를 계속 간직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아버지는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방문할 수 있게 하였다. 위탁 부모는 아동의 행동에 대하여 계속해서 평가하고, 체크 리스트를 작성하고 필름으로도 기록해 두었다.

보고서에는 네 명의 아동에 대한 자세한 사례상(case history)이 담겨져 있었다. 물론 아동마다 반응양식이 다소 달랐지만 공통점은 네 아동 모두가 다른 보고서에서 지적한 것과 같은 심각한 절망이나 불안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격리로 인한 몇 가지 부정적인 반응 즉 슬픔, 좌절, 인내심의 저하, 공격성, 과잉 활동, 난폭한 행동 등을 보였으나, 다른 연구가들이 관찰했던 혼란, 공포, 절망과 같은 증세는 보이지 않았다. 위탁 부모와 맺어진 애정어린 관계는 이처럼 비교적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게 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특히 위탁모는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안정감의 근원이 되어 주었다. 그 결과, 어머니와 재결합하는데 거의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 즉 거의 대부분의 아동이 집으로 돌아온 후 약간의 문제 행동과 약간의 불안감을 보였을 뿐 즉시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다.

Robertson은 이같은 결과가 초기 격리에 대한 위험성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가장 좋은 위탁 시설조차도 위험을 상쇄할만큼 확실한 처방이 될 수는 없다. 이 연구가 의미하는 것은 격리 경험이 주는 충격을 크게 축소시킬 수 있는 격리 상황이 조성될 수 있다는 점이다.

해석

격리되었을 때 아동들이 보이는 반응을 알아보기 위하여 실행된 연구 중의 대부분이 몇 십년 전에 행해진 것들이다. 당시의 병원이

나 시설 조건은 지금과는 상당히 다르다. 이같은 변화는 ‘전통적’ 환경에서 격리되는 것이 유아에게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보여 주었던 연구들에 힘입어 일어난 변화이다. Bowlby와 Robertson이 제시한 3단계 순서(항의-절망-탈애착)는 비록 그들이 이 같은 단계를 끌어 내는데 기초가 되었던 관찰들이 이후 연구처럼 체계적이거나 양적이기 보다는 전반적인 기술에 그쳤지만, 격리에 처한 아동의 전형적인 행동방식으로 인정받아왔다. 물론 단계 순서가 실제로 그만큼 정확하고 보편적인가 하는 의문은 여전히 남아있다. 그러나 아동, 특히 6개월에서 4, 5세 아동이 부모와 격리되어 낯선 장소에서 낯선 사람에게 돌보아 지는 것에 대해 심한 불안감을 보인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다.

잇따른 연구 결과를 통해 격리란 하나의 요인-예를 들어, 어머니의 부재(不在)-만을 갖는 ‘순수한’ 경험이 아니라는 것이 명백해졌다. 이와는 반대로 격리란 필연적으로 다른 많은 환경을 동반하게 되며, 이는 아동이 그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반응하는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 다시 말해서 격리란 일정한 상황에서 일어나기 마련이며 이 상황이 어떠한가에 따라 아동의 행동이 더 좋게 혹은 더 나쁘게 변화될 수 있다. 따라서 격리 상황은 항상 고려되어야 한다.

이제, 이 분야의 연구는 상황을 무시하는 것에서 상황을 분석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격리 경험을 둘러싸고 있는 요인 중에는 그 충격을 더 악화시켜서 정신병을 일으키게 하는 요소들이 있다. 예를 들면 격리 이전에 있었던 가족간의 갈등, 죽음이나 유기 등으로 인해 부모를 영원히 잃는 것, 생활 일정의 변화, 낯선 환경으로 옮겨지는 것, 낯선 사람에 의한 보호, 질병 등이 이에 속한다. 한편 격리 충격을 완화시키는 요인들도 있는데 여기에는 어머니와의 다른 낯선 사람들과 계속 접촉하는 것, 가능한 한 아동이

원해 생활방식을 유지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또한 최근 들어 아주 어린 아동인 경우라도 어머니가 유일한 애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아버지, 형제, 조부모, 혹은 다른 애착 대상이, 어머니의 부재로 인해 발생하는 혼란을 상당히 완화시킬 수 있다고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아동의 나이나 기질 뿐 아니라 격리의 원인, 격리 이전의 가족관계, 격리가 일어나는 상황 등이 격리 경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처음에는 격리로 인한 해로운 영향을 다루면서 그 일반성에 중점을 두었으나 점차 반응의 다양성을 인식하게 됨에 따라 아동의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요인들을 고려하게 되었다.

실제를 위한 시사점

격리가 아동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든간에(다음 과제에서 논의될 것이다) 아동에게 나타나는 즉각적 반응을 보면, 아동과 가족간의 관계를 유지하고자 했던 그 어떤 시도도 거의 효과가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유아가 갑자기 가정으로부터 격리될 때 느끼게 되는 공포나 당황함의 정도는 말만으로는 설명하기 힘들다.— 아마 이런 이유때문에 James Robertson이 제작한 영화시리즈 같은 시각적인 수단이 격리 상황을 다루는 전통적 방식을 가장 효과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었던가 보다. 이 영화는 격리 상황에 처한 아동의 반응을 생생하게 그린 영화였다. 장기적 영향이 있건 없건간에 아동이 심한 격리 불안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아동이 입원한 병원을 방문하는데 제한을 없애는 일, 가능한 한 아동은 입원환자보다는 통원환자로 처리 하는 일, 너무 쉽게 격리를 결정하기 보다는 가족과 함께 하는 것을 강조하는 일—를 취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격리를 막는 일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아동이 가정으로부터 격리되거나 부모가 가정을 떠나야 하는 상황

이 있다. 관계가 깨어진다는 것은 언제나 슬픈 일이다. 요즘 대두되고 있는 문제는 격리가 일어나는 상황이 아동의 반응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준다는 점이다. Robertson의 연구결과는 이상적인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즉 아동을 미리 준비시키는 것, 한명의 특정 대리모에게 맡기는 것, 이전의 생활 일정이나 습관 등을 유지하는 것, 아동이 장난감이나 옷 등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것, 가능한 한 부모가 자주 방문하는 것, 그리고 어머니 사진을 보여주거나 어머니에 대해 얘기해 줌으로써 어머니에 대한 애정을 유지시키고자 노력하는 것 등이 중요하다. 이처럼 격리 불안은 격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낮선 환경, 낯선 생활 일정, 낯선 보모 등—에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크게 완화시킬 수 있다. 격리를 둘러싼 환경적 요인을 제거한다 하더라도 부모와 격리되는 상황 자체에서 받는 스트레스는 결코 하찮은 것이 아니다. 하지만 다른 요소들을 제거하는 것이 하지 않았을 때 보다 격리 경험을 덜 충격적으로 만들 것이다. 격리가 잠재적으로 충격적인 사건임에는 틀림없으나 반드시 충격적이라는 증거는 없다.

아동이 불안해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불유쾌한 경험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이를 막기 위해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어떤 사람들은 이를 위해 격리된 아동이 부모와 전혀 접촉하지 못하게 하기도 한다. 만났다 헤어졌다 하는 것이 아동에게 더 많은 불안감을 안겨 줄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이들은 격리가 지속되는 동안 만큼은 부모를 완전히 잊고 철저히 격리되는 것이 오히려 더 좋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최근 연구들은 이런 접근 방식에 대하여 ‘단지 어려움을 회피하고 격리 상황의 위험을 가중시키는 방법’이라고 말한다. 실제로 부모를 ‘완전히 잊었던’ 아동은 부모와 다시 결합하였을 때 모든 탈애착 징후—부모에 대한 믿음의 결핍, 부모를 안정된 대상으로 여기기를 꺼리는 것, 애정보다는

공격성을 보이는 등 가장 비정상적이고 바람직하지 못한 관계의 징후—를 보였다. 따라서 최근 연구들은 계속되는 혼란을 감수하는 한이 있어도 일시적인 격리 기간동안 부모와 접촉을 유지하는 것에 강조를 둔다. 만약 헤어진 부모에 대해 슬퍼하는 것과 부모와 완전히 탈애탁되는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두말할나위 없이 전자를 선택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관계된 사람들 모두에게 고통스러운 일임에는 틀림없다.

따라서 관계, 환경, 일상 생활은 가능한 한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 아주 어린 유아들은 전통적인 격리 경험에서 오는 충격을 받고 이에 적응하는데 매우 어려움을 겪는다. Heinicke와 Westheimer 연구에서 보여 주듯이 형제와 함께 주거 시설에 맡겨진 아동은 혼자 맡겨진 아동보다 덜 고통받으며 Robertson이 밝힌 것과 같이 아동에게 자신의 장난감, 옷 그리고 심지어는 침대와 담요까지 가져오게 하고, 아버지의 방문을 허락한다면 아동이 격리를 이겨나가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격리는 이런 방법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종종 일어난다. 그렇다 할지라도 주어진 조건하에서 가능한 한 계속성을 유지하는 것은 중요한 원리인 것 같다.

참고문헌

- Bowlby, J. 1979 : *The Making and Breaking of Affectional Bonds*. London : Tavistock.
- Rutter, M. 1981 : *Maternal Deprivation Reassessed*, 2nd edn. Harmondsworth : Penguin.
- Yarrow, L. J. 1964 : Separation from parents during early childhood. In M. L. Hoffman and L. W. Hoffman (eds), *Review of Child Development Research*, Vol. 1. New York : Russell Sage Foundation.

모성 실조가 아동에게 장기적인 손상을 주는가

문제제기

지금까지 부모와 격리되는 것은 그것이 어떤 상황에서 일어나든지 간에 아동에게 심한 충격을 안겨준다는 것에 대하여 알아 보았다. 아동은 매우 상처받기 쉬운 존재이므로 이 시기에 겪은 경험은 인성 발달에 돌이킬 수 없는 영향을 남길 것이라고 가정되어 왔다. 그러므로 격리가 장기적인 결과, 심지어는 영구적인 결과를 초래할 지도 모르는 사건이라고 여겨져 온 것도 그리 놀랄 일은 아니다.

이런 생각은 아동-부모간의 초기 사회적 관계가 모든 심리적 발달의 기초가 된다고 여겨져왔기 때문에 더욱 굳혀졌다. 이런 관계를 기본적 신뢰감(basic trust)이라고 하는데 이는 부모는 언제나 편안함과 안정감을 주며, 아동이 위협에 처해 있을 때, 언제든지 포용해 줄 준비가 되어 있는 안전한 피난처라는 믿음을 말한다. 어떤 학자는 후에 -심지어는 성인기까지도- 아동이 대인 관계를 얼마나 건전하게 맺는가는 인생 초기에 확립한 신뢰감에 달려 있다고 말한다. 부모와 초기에 형성된 유대관계가 깨어지는 것은 그 당시 아동의 신뢰감에 심각한 혼란을 줄 뿐 아니라 이후에 애정 관계를 형성하는 능력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비록 그것이 한 개인에 관한 것이었을지라도 일단 한번 실망을 경험하게 되면 더 이상 다른 사람과 정서적으로 완벽한 유대 관계를 형성할 수 없게 된다. Bowlby는 이제 소개될 연구 보고서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아동의 사회적 반응이 발달하는 결정적 시기에 어머니-자녀 관계가 깨어지는 것은 대인 관계를 맺는 능력에 다소 영구적인 손상을 초래할 것이다’-이 손상은 극단적인 경우에는 사랑에 빠지

거나, 결혼하거나, 부모가 되거나, 우정을 맺는 것과 같은 의미있고 영구적인 정서 관계를 맺지 못하는 ‘무정한 성격’을 형성하기도 한다.

물론 관계를 형성하는 능력이 손상된 사람이 있다는 것은 의심할 수 없는 사실이다. 지금까지 이런 사람들이, 주변 사람에게 불행을 안겨주는 사회적 폭동을 일으켰는지도 모른다. 따라서 이같은 행동의 원인을 밝혀내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모성 실조에 대한 연구 역시 초기 모성 실조와 이후의 인성 장애간에 인과적 관계가 있다는 생각으로 인해 크게 자극 받았다. 콜레라나 장티푸스가 그 병을 일으키는 세균을 밝혀냄으로써 제거될 수 있었던 것처럼 원인만 없앤다면 그같은 장애는 제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 연구는 위의 비유가 무의미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왜냐 하면 심리 분야에서는 콜레라나 장티푸스같이 한 가지 단순한 원인으로 인해 생기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격리로 인해 생기는 단기적인 영향을 논할 때 알 수 있었던 것처럼 격리란 다양한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각각의 요인은 나름대로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이는 장기적 영향에 대하여 더 위험한 일 반화를 내리게 한다. 즉 격리로 인해 일어나는 결과는 우선 격리를 일어나게 하는 모든 환경에 따라 달라지고, 다음으로는 격리 그 자체를 둘러싼 환경에 의존하며, 마지막으로—이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인데—격리로 인해 생기는 환경에 의존한다. 격리를 하나의 고립된 사건으로 생각해서는 안되며, 특히 장기적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할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격리가 장기적이면서도 충격적인 사건임에는 틀림없다. 우리는 격리를 많은 환경에 둘러싸여 있는 사건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물론 격리의 장기적인 영향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만약 아동들이 격리로 인해 것처럼 혼란을 겪는다면

장차 이것이 아동의 미래에까지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해 의심을 해보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실행된 연구들은 주로 두가지 종류의 여파(after-effect)에 대해 조사하여 왔다. 하나는 문제 행동이나 비행 등을 포함한 정서적 적응에 미치는 여파이며 다른 하나는 대인 관계를 형성하는 능력에 대한 여파이다. 이제 요약될 연구들은 이 두가지 여파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연구 결과

요약

연구1 : 어머니-자녀간의 격리로 인한 영향들 : 추후연구*

Bowlby는 대인 관계를 형성하는 능력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초기 모성 실조와 이후의 심리 사회적 문제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직접 알아보기 위하여 이 연구를 시작하였다.

연구 대상은 7세에서 14세 사이의 아동 60명이며, 이들은 모두 4세 경에 가정으로부터 오랫동안 격리된 경험이 있는 아동이었다. 격리는 아동의 결핵으로 인한 것이었으며 그들은 여러 달 혹은 2년 이상까지 결핵 요양소에서 생활하였다. 이 기간 동안 부모와의 접촉은 일주일에 한번 정도가 고작이었으며 이보다도 접촉이 적은 경우도 많았다. 양육은 집단적인 형태로 행해졌다. 비교를 위하여 나이와 성이 비슷한 학급 친구들로 구성된 통제 집단을 두었다.

자료는 주로 교사나 교육심리 학자들이 작성한 보고서를 통해 얻었다. 연구 결과, 전반적으로 볼 때 두 집단간의 차이는 사소한 것

* Bowlby, J., Ainsworth, M., Boston, M. and Rosenbluth, D. 1956 : The effects of mother-child separation : a follow-up study. British Journal of Medical Psychology, 29, 211-47.

이었으며, 문헌 조사를 근거로 연구자들이 기대했던 것만큼 크지 않았다. 차이가 있다면 덜 호의적인 시각으로 격리 집단을 보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었다. 교사들은 격리 집단이 좀 더 위축되고, 몽상을 많이 하고, 덜 집중한다고 여겼으며 심리학자들은 격리 집단이 통제 집단보다 검사 시간에 적절히 반응하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볼 때 두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거의 없었다. 특히 초기 아동기에 가정으로부터 오랫동안 격리되어 있었던 것이 비행이나 친구를 사귀지 못하는 것과 같은 문제를 일으킨다는 증거는 전혀 없었다. 전반적으로 볼 때 격리 아동의 대인관계는 만족스러웠다. 몇몇 아동이 부적응의 조짐을 보이긴 했으나 그리 심각한 것은 아니었으며 대부분의 아동들은 격리로 인한 영향이 전혀 없을 뿐 아니라 모든 면에서 정상적이었다. 게다가 격리 기간 뿐 아니라 격리 횟수 역시 부적응과 유의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연구자들은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인생 초기에 시설에 보내졌거나 혹은 심각한 상실이나 박탈로 인해 고통받았던 아동들이, 일반적으로 신경증이나 몰인정한 성격 등을 발달시킬것이라는 주장들은 모두 잘못된 오해인 것 같다... 결과는 매우 다양하며 손상 받았던 아동 중 극히 소수만이 격리 경험의 병원적(pathogenic) 성격에 주의를 기울이게 하는 심각한 인성 장애를 발달시켰다.

연구2 : 유아기에 병원에 입원시키는 것과 그에 따른 행동·학습 장애*

이 연구에서는 5세 경에 일어난 격리가 이후에 심리적 장애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추후연구기간을 사춘기까지로 잡았다. 연구대상은 자연 표집, 즉 1946년 특정한 한 주 (week)에 영국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 중에서 입원때문에 부모와 격리되었던 아동은 958명 이었다. 이들은 주로 단기간 동안 격리되어 있었으며 이중 20% 정도는 5세 이전에 한번 이상 다시 격리되었다. 유아에 대한 평가는 4가지 출처, 즉 행동에 대한 교사의 평가, 읽기 검사, 비행에 대한 경찰의 기록, 입사 기록을 근거로 하였다.

연구 결과, 신경 과민은 초기 격리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다른 측정치들, 즉 말썽 피우는 행동, 낮은 읽기 점수, 비행, 불안정한 직업 경력 등은 비격리 집단보다 격리 집단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또한 이같은 현상은 입원의 횟수나 기간이 증가될수록 더욱 심했다. 따라서 1주 혹은 더 짧은 기간동안 병원에 1회 입원하는 것은, 나중에 심리적 문제가 일어날 가능성을 높이지 못하지만, 장기간 혹은 반복적으로 입원하는 것은 깊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입원 아동이 어떤 특별한 종류의 가족(예를 들면 자녀가 많은 가족, 아버지가 단순 노동자인 가족, 부모가 아동의 학교 생활에 전혀 관심이 없는 가족) 성원일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은 입증되지 않았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초기 격리는 장기적인 영향을 준다고 말할

* Douglas, J. W. B. 1975 : Early hospital admissions and later disturbances of behaviour and learning. *Developmental Medicine and Child Neurology*, 17, 456-80.

수 있다—이같은 결론은 이 연구에서 관찰되었던 격리가 비교적 짧고 가벼운 것이었다는 점에서 볼 때 매우 놀라운 결과이다. 결과가 되풀이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복제연구가 행해졌다.

연구3 : Douglas 연구 결과에 대한 복제 연구*

이 연구의 저자는 두 가지 이유때문에 Douglas의 연구를 복제연구하였다. 첫째는 Douglas의 연구 결과가 한 세대 이전에 병원에 입원한 아동에게 적용된 것이기 때문이며, 둘째는 사춘기 불안과 가장 크게 관련되어 있는 변인인 가족 불화에 대하여 전혀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연구 대상은 1969년에 런던 중심부의 한 도시와 Wight의 Isle에 사는 10세 아동 중에서 표집되었다. 이들 중 451명만이 연구 목적에 적합한 아동이었다. 측정은 교사가 응답한 설문지와, 아동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실시한 상세한 개별 면담을 통해 수집되었다. 개별 면담을 통해서만 가족 상황에 대한 정보를 얻었다. 여러가지 심리적 적응—부적응에 대한 점수는 교사와 어머니가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계산되었다.

연구 결과 Douglas의 결과 중 몇 가지가 확인되었는데, 특히 1주 혹은 더 짧은 기간 동안 1회 병원에 입원하는 것은 이후에 나타나는 불안의 어떤 형태와도 관계가 없으나 반복되는 입원은 관련이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위험은 불우한 가정 출신의 아동인 경우에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 가지 혹은 다른 이유 때문에 이미 불안전하거나 문제가 있었던 아동이 격리로 인해 가장 상처받기 쉬운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같은 불안정의 원인은 가정

* Quinton, D. and Rutter, M. 1976 : Early hospital admissions and later disturbances of behaviour : an attempted replication of Douglas' findings. *Developmental Medicine and Child Neurology*, 18, 447-59.

불화와 깊은 관련이 있는 것 같았다. 그러나 연구 결과는 긍정적인 측면 또한 강조한다. 즉 반복되는 입원을 한 경험이 있는 아동 중 5분의 3이 아동 초기에 정서적 불안을 보이지 않았다. 종합해서 말하자면 초기 반복된 격리가 후기 아동기에 신경증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일반적인 원인이라는 증거는 없었다.

연구4 : 위탁 기관에 위탁된 경험이 있는 아동들의 행동에서 나타나는 다양성*

이 연구 역시 범 국가적 차원의 표집, 즉 1958년 어느 한 주일 동안에 영국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주된 관심 대상은 일정 기간동안(자신의 집이나 혹은 위탁 가정에서 집단 양육을 받음으로써) 가정 생활이 박탈되었던 적이 있는 아동이었다.

조사는 종단적 형태로 실시되었으므로 아동이 7세와 11세가 되었을 때 자료 수집이 이루어졌다. 각 시기에 교사들을 대상으로 표준화된 설문지(the Britol Social Adjustment Guides)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부모들로부터 격리와 관련된 여러 정보들을 수집하였다. 추후 검사에 참여한 16,000명의 아동 중에서 첫번째 조사때(7세) 위탁 기관에 있었던 아동은 모두 253명이었으며, 두번째 조사(11세)때 위탁 기관에 있었던 아동은 모두 414명이었다.

연구 결과, 교사들은 위탁 기관에 있었던 경험이 없는 아동보다 위탁 기관에 있었던 경험이 있는 아동을 더 나쁘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그들은 잘 적응하지 못한다고 평가되었는데, 성인이나 부모 등과 관계를 맺는 것에 특히 적응하지 못하였

* Lambert, L., Essen, J. and Head, J. 1977 : Variations in behaviour ratings of children who have been in care.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18, 335-46.

다. 그러나 7세가 지날 때까지도 위탁 시설에 위탁되지 않은 아동들은 7세 때 이미 교사들에 의해 ‘더욱 더 적응하지 못한다’고 평가받는 바 있다. 이는 이 아동들이 11세에 받은 나쁜 점수가 격리 경험때문이라기 보다는 가족 상황이나 배경때문인 것임을 말해준다. 가정에서의 아동 행동에 대한 평가는 위탁된 경험이 있는 아동을 위탁된 경험이 없는 아동보다 나쁘게 평가하고 있었다. 그러나 사회 계층, 위법, 가정내에서의 무질서, 가족수 등과 같은 요인들을 고려하여 다시 분석하였을 때 이러한 차이는 사라졌다.

가족으로부터 격리되어 기관에 위탁된 아동은 이미 그들의 가정 환경으로 인해 상처받기 쉬운 상태이며, 바로 이런 이유때문에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 같다. 그러나 아동의 문제가 위탁기관내에서의 경험으로 인해 가중되는 것 또한 사실이다.

연구5 : 아동부터 부모까지 : 초기 격리 경험과 부모 역할 수행능력간의 관계*

초기 모성 결핍으로 인해 생길수 있는 결과중의 하나는 과연, 그런 경험이 있는 아동이 나중에 부모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이같은 가설적 연관성을 시험해보기 위하여 아동기에 위탁 기관에 위탁되었던 적이 있는 여성 집단을 대상으로 실험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말하는 ‘초기 모성 결핍’이란 다음에 제시되는 가족 불화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5세 이전일 경우에는 적어도 1개월 동안, 5세에서 16세 사이일 경우에는 적어도 3개월 동안 한쪽 부모 혹은 양쪽 부모와 격리되는 것을 말한다. 가족 불화에는 부모의 이

* Wolkind, S. and Kruk, S. 1985 : From child to parent : early separation and the adaptation to motherhood. In A. R. Nicol(ed.), Longitudinal Studies in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Chichester : Wiley.

혼, 부모의 죽음, 부모가 오랫동안 병석에 있는 것, 그리고 사회적 이유 때문에 아동을 기술 학교에 위탁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연구 집단은 모두 세 집단으로 구성되었다. 즉 ‘비격리 집단’(73명의 여성), 격리를 경험했으나 곧 가족에게 돌아갔던 ‘혼란집단’(49명의 여성), 그리고 위탁 기관에 위탁되었던 ‘격리집단’(33명의 여성)으로 나뉘었다. 이들은 모두 임신 기간동안과 첫아기가 태어난지 4, 14, 27, 42개월 후에 각각 관찰되었다. 평가 방법에는 준구조화된 면담과 체계적인 관찰을 사용하였다.

세 집단 간에 다음과 같은 차이가 발견되었다. 비격리집단에서는 전체 여성의 10%가 미혼인 반면에 나머지 두 집단에서는 63%가 미혼이었다. 또한 비격리집단의 여성중 22%가 임신하였을 당시 나이가 10세였다. 이는 혼란집단의 51%, 격리집단의 70%와 비교되는 수치이다. 그러므로 비격리집단보다 나머지 두 집단에서, 원하지 않는 아이를 가진 경우가 더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혼란집단 중 32%가 임신 7개월까지도 아기를 가졌다는 사실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가졌다. 이는 격리집단의 61%보다 비격리집단의 26%에 훨씬 가까운 수치이다.

일반적으로 격리집단은 다른 두 집단과 비교해 볼 때 훨씬 좋지 않은 상황이었다. 예를 들면, 수유동안 아기를 안지 않는 것은 비격리집단에서는 아주 드물었고, 혼란집단에서는 조금 더 일반적인데 비해 격리집단의 경우에는 4분의 일이 이런 방법을 사용하였다. 생후 4개월 경에 어머니가 아기에게 신체적, 언어적 자극을 주는 정도를 알아본 결과 비격리집단이 가장 많았고 격리집단은 매우 적었다. 또한 격리집단이 아기의 욕구에 가장 둔감한 반면 혼란집단은 비격리집단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 집단의 아이들이 성장한 후 보이는 행동 문제나, 병원에 입원하는 빈도등에서도 이와 유사한 순위를 기록하였다. 다시 말해서 격리집단과 나머지 두 집

단사이에 현격한 차이가 발견되었으며, 모든면에서 격리집단이 불리한 상황인 것으로 밝혀졌다.

격리집단에게 있어서, 격리란 불안정한 아동기에 겪은 하나의 사건에 불과하다. 그들은 나이들어서 불행한 결혼을 하거나, 타인으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많다. 이런 전반적인 상황이 이들로 하여금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적절히 해내는 데 악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 격리가 부모역할 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같지는 않다. 왜냐하면, 격리는 혼란집단에게도 역시 일어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격리는 불안정한 아동기의 극단적인 한 사건에 불과한 것이며, 이같은 불안정한 아동기가 성인기에 더 불안정한 삶을 살도록 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연구6 : 시설에서 자란 여성들의 부모 수행능력*

이 보고서는 아동기에 부모와 격리되었던 여성들의 부모 역할 수행능력에 대하여 상세하게 증명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1964년에 위탁 기관에서 생활하였고 21세에서 27세 사이가 되었을 때 추적 가능했던 81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이들은 위탁 기관에서 생활한 경험이 없는 41명의 여성들과 비교되었다. 연구당시 전체 연구대상은 2세에서 3세 반 된 아이를 가지고 있었다. 이들의 부모역할 수행능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표준화된 면담방법과 가정에서 실시하는 여러 관찰기법(이는 각 집단을 하위 집단으로 나누기 위해서이다)을 사용하였다.

면담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위탁 경험이 있는 엄마들 중 많은 사람들이 비교 집단에 비해 4배 정도 ‘나쁜’ 역할 수행 점수를 얻은 것

* Dowdney, L., Skuse, D., Rutter, M., Quinton, D. and Mrazek, D. 1985 : The nature and quality of parenting provided by women raised in institutions.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26, 599-626.

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험이 있는 여성 중 거의 삼분의 일 정도가 ‘좋은’ 부모역할 수행 점수를 받았다는 것도 주목할 만한 결과였다. 부모역할의 더 세부적인 측면에 대해서도 분석이 이루어졌다. 여기에는 자녀에게 따뜻함을 표현하는 정도, 함께 놀아주는 양, 훈육 방식등이 포함된다. 분석 결과, 두 집단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어머니의 민감성, 특히 아동의 슬픔이나 아동간의 논쟁을 다루는 민감성을 측정한 점수에서는 상당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위탁기관 경험이 있는 어머니중 42%가 민감성 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는데 이는 통제 집단의 7%와 대조되는 수치이다. 이같은 현상은 관찰자료에 의해서도 확인되었다. 위탁 기관 경험이 있는 어머니들은 비교집단에 비해 어머니의 주의를 끌고자 하는 자녀의 시도를 2배 정도 무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연구 결과는 격리경험이 있는 여성에 대한 상반된 두가지 모습을 보여준다. 즉, 많은 여성들이 자녀와 애정적인 관계를 맺고, 자녀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으며, 부모 역할수행상에 커다란 결함이 있다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 반면에 많은 여성들이 자녀가 보내는 신호를 포착하는 기술, 어려운 상황을 맞서기 보다는 우회하는 방법으로 반응하는 기술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도 주목해야 할 것은 격리 경험이 있는 여성들의 이질성이다. 격리라는 단순한 사실은 그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부모 역할을 수행하는데 장애를 일으키는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니다. 즉, 다른 어떤 요인들이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해석

초기 아동기 경험이 심리적 기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연구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먼저 긴 시간 간격 때문에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다. 초기 경험이 일어났을

때 조사를 실시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관련된 아동을 다시 추후 검사하는 종단적 연구방법은 사건이 일어 났을 당시에 측정이 실시되기 때문에 분명 선호할 만한 방법이다. 그러나 이 방법은 몇 해에 걸쳐 표집을 유지시켜야 하므로 상당한 재원이 소모된다. 그러므로 초기 경험에 대한 자료와 이후의 영향이 동시에 평가되는, 이른바 회고적 접근이 대신 사용되는 것은 당연한 일 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방법은 기록자나 연구 대상자들의 기억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왜곡되기 쉽다는 결함이 있다. 초기 경험에 대한 대략적인 회상이 요구되는 경우(예를 들어, 아동이 격리되었으나, 아닌가?)에는 그리 큰 문제가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더 세부적인 회상이 요구되는 경우(예를 들어, 격리 경험에 대해 아동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당시 가족 성원들간의 관계 등)에는 그 정보를 신뢰하기가 어렵게 된다.

초기 경험에 대하여 연구할 때 생기는 또 다른 어려움은 초기 경험이 일어난 때와 그로 인한 영향이 평가되는 시기 사이에 많은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격리집단과 비격리 집단 사이에 나타난 차이는 격리라는 사건 그 자체보다 격리시기와 평가시기 사이에 일어나는 여러사건으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 특히 기관에 위탁되는 것과 같은 격리 경험은 불행한 사건들로 이루어진 체인에 단지 고리 하나를 연결하는 것과 같다. 다시 말해서, 위탁은 시설 양육, 집단적 양육, 여러 위탁부모와 겪는 이별 등과 같은 바람직하지 않은 경험을 수반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후에 나타나는 신경증이 격리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격리가 수반한 다양한 사건으로 인한 것인지를 결정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뿐만 아니라 그런 아동은 격리 이전에 이미 몇가지 점(예를 들어 아동이 속한 가족이 스트레스에 더 상처받기 쉽거나 대인관계에서 더 혼란받기 쉽거나, 혹은 아동 자신이 병에 걸리기 쉽

나, 대인 관계에 어려움을 겪기 쉽다는 점)에서 다른 아동과 다를지도 모른다. 어쨌든 이처럼 많은 요인 중 어느 것이 결과에 영향을 주었는지를 밝히기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비격리집단과 격리집단을 단순히 비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다른 여러 요인에 대하여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연구는 이전 연구에 비해 많이 진보되었다고 할 수 있다. 연구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부모와 격리되는 것이 유아에게 충격적인 사건이었을지 모르지만, 그리고 그 당시에는 난폭하게 반응했을지도 모르지만 격리 그 자체가 장기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즉, 이미 주어져 있는 가족상황이 격리를 가져오고, 격리 후에 다시 돌아가야 하는 가족 상황이 신경증을 일으키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 같다. 고립된 사건으로서의 격리는 그것이 아무리 ‘상처받기 쉬운’ 나이에 일어났다 할지라도, 그리고 아무리 기간이 길었다 할지라도(말하자면 Bowlby와 그의 동료들이 실시한 연구에서 입원 아동의 몇몇 경우에서 처럼) 인성 발달을 방해한다고 말할 수 없다. 단지 격리가 오랫동안 연속되어온 불행 중의 한 부분을 차지할 때 훨씬 더 불리한 영향을 받기 쉬워지는 것이다.

격리에 대한 연구는 ‘결정적 시기’—불행한 사건이 초기, 즉 상처받기 쉬운 때에 일어난다면 아동에게 영원한 흔적을 남길 것이라는 견해—에 대하여 무용론을 제기하는 한 예이다. 격리에 대한 연구 결과들은, 격리가 아무리 인생 초기에 일어난다 하더라도, 단일한 하나의 사건보다는 아동의 전체 경험에 의하여 결과가 좌우된다고 말하고 있다. 아동은 초기에 발생한 한가지 사건보다는 가족 관계에 의하여 더 많은 영향을 받게 되는데, 그 이유는 가족 관계란 특정 시기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체 아동기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실제를 위한 시사점

만약 격리에 대해 이해하고 이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격리를 단지 하나의 사건으로서가 아니라 전체 상황속에서 파악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이다. 격리는 다른 여러 요인들과 관계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무시한다면 격리를 막을 수 있는 많은 경로가 차단되고 만다. 격리를 원인이 아니라 징조, 즉 가족간에 안정적이고 조화로운 관계가 부족함으로써 아동의 심리 발달 과정에 장애를 주는 가족 상황의 한 징조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다. 격리가 원인이 아니라 징조라는 말은 만약 격리가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동에게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다. 이는 다음 과제에서 논의하게 될 ‘이론’에도 적용된다. 아동의 고통이나 불행의 주된 책임을 실제로 일어난 붕괴(break-up)보다는 가정 불화이다.

격리의 영향이 돌이킬 수 없다거나 적어도 오래 지속된다는 생각은 마땅히 버려야 한다. 차차 밝혀지겠지만 적어도 몇몇 아동의 경우에는 스트레스에 대한 회복력이 매우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격리 후의 경험이 격리로 인한 영향들을 상당히 완화시켜 줄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격리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실시된 연구는 아직 미흡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격리가 불행한 체인의 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견해를 받아들인다면 그 체인을 깨뜨릴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해야 할 것이다. 한가지 예로 긍정적인 학교 생활도 한 방법일 수 있다. 아마도 성취감이 아동의 자아 긍정에 영향을 주기 때문인 것 같다. 위탁기관에 있는 아동들에게 행해지고 있는 교육이 다른 아이들이 받는 교육에 비해 실질적인 측면이나 관심 정도에 있어서 매우 뒤떨어진다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특히 이 시기가 그와같은 도움을 더욱 절실히 필요로 하는

시기라는 것을 감안해 볼 때 더 더욱 그러하다.

또 다른 시사점은 위탁기관의 실무자나 위탁부모들과 관련된 것이다. 이들은 아동들이 일정기간 이후에 부모에게로 돌아갈 때 겪어야 하는 또 다른 격리, 즉 그들과의 격리로 인하여 상처받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때문에 아동들과 가까운 관계를 맺는 것을 꺼리게 된다. 이는 대리 부모와 생활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더욱 심해지게 된다. 이런 믿음으로 인해 아동들은 일시적이거나 애착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마저 잃게 되며, 이는 다시 '얼음'처럼 차가운 정서를 갖게 할 것이다. 이처럼 정서적으로 고독하게 만드느니 차라리 격리를 한번 더 겪게 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참고문헌

- Bowlby, J. 1951 : *Maternal Care and Mental Health*. Geneva : World Health Organization.
- Clarke, A. M. and Clarke, A. D. B. 1976 : *Early Experience : myth and evidence*. London : Open Books.
- Rutter, M. 1981 : *Maternal Deprivation Reassessed*. 2nd edn. Harmondsworth : Penguin.

어머니들은 직업을 가져야만 할 것인가

문제제기

모성 실조는 다양한 형태로 일어난다. 그동안 모성 실조에 관한 문헌들은 주로 극단적인 경우를 다루어왔다. 그러나 좀 더 넓게 생각해보면 어머니가 직장을 가지고 있을 때 겪게 되는 것과 같은 사소한 격리 경험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해 볼 수 있다. 과연 어머니는 24시간 동안 자녀 곁에 있어야 하는가? 만약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그렇다’고 내려진다면 어머니들은 당연히 직장 갖는 것을 포기해야 하며, 부모역할을 종일 직업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또한 어머니 역할은 덜어야 덜 수 없는 역할로서 인식 될 것이다.

실제로 모든 종류의 사회적 병폐(소년 비행, 중독, 무단 결석 등)들이 어머니가 일하러 나가고 없거나, 부모들이 자녀들을 제대로 감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다. 이같은 믿음은 아동의 정서적 안정이 무엇보다도 어머니와 계속적인 관계를 맺는 것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는 이론가들에 의해서 지 받는다.

지난 몇십년간에 가족생활에 일어난 변화중의 하나는 여성 취업이 급증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유아를 둔 어머니들 사이에서 가장 큰 비율로 나타났다. 이제 여성 취업은 경제적인 압박을 받는 사람들 사이에만 국한되는 드문 현상이 아니라 전세제에 걸쳐 급속히 보편화되고 있는 현상이다. 여성 취업이 증가하는데에는 여러 요인(예를 들면 여성의 교육기회 증가, 가사 노동을 절감하는 여러 설비들, 여권신장 등)이 작용한다. 그러나 그 원인이 어디 있

든간에 아동 위탁시설과 관련하여 실제적이고도 정책적인 성과가 있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당국에서는 어머니의 취업 증가에 대하여, 이것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단지 재정적, 경제적, 정책적 중요성만을 염두에 두었다. 국가에서 여성을 필요로 했던 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에 영국 정부는 어머니들에게 공장에서 유급 직업을 갖도록 권장하였으며 동시에 탁아소를 제공하면서 이들의 이중 역할을 고무적인 것으로 받아들이었다. 이와는 달리 1980년대에는 실업율이 증가함에 따라 많은 여성들을 가능한 한 비고용 인구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게 되었다. 즉 가정에 머물러 자녀에게 헌신하는 어머니의 역할이나 긴밀한 가족 생활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탁아소의 유용성이 떨어진 것도 바로 이때이다. 이제 90년도가 되었다. 90년에는 기술 부족이 예견되므로 마치 진자가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일하는 어머니에 대한 생각들이 다시 한번 부상될 것이다.

어머니가 일하러 나가는 것으로 인해 매일 매일 일어나는 격리가 유아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는 부모나 당국 모두가 상당한 혼란을 겪고 있다. 다행히 각자의 견해를 입증하는 많은 연구 결과가 속출하고 있기는 하지만, 문제 자체가 워낙 복잡한 것이어서 ‘좋다’ 혹은 ‘나쁘다’고 단정내리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직업을 갖기로 결정하는 것을 둘러싼 많은 상황적 요인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연구를 통해 이끌어낸 결론에 있어서는 연구자들 간에 상당한 의견일치가 있었다.

연구 결과

요약

연구1 : 직업모, 비직업모,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

아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어머니의 취업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 연구는 생후 1년 동안 어머니가 직업을 가졌던 아동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연구 대상은 자녀가 생후 3개월이 되었을 때부터 직업을 가진 어머니와 어머니가 일하러 나간 동안 가정에서 양육된 유아 42명이다. 비교를 위하여 비 취업모와 생후 1년동안 어머니가 일하러 나간 적이 없는 유아 55명을 비교 집단으로 설정하였다.

평가는 출생부터 시작하여 3, 8, 12개월에 실시되었다. 다양한 평가 방법이 사용되었다. 즉, 어머니를 대상으로 실시된 면담, 어머니의 양육행동 관찰, 수유행동에 초점을 맞추어 실시된 세밀한 관찰, 모성태도 측정, 낯선 상황(strange situation : 어머니에 대한 아동의 애착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고안된 방법), Baley척도(유아의 심리 운동적 발달을 측정하기 위해 고안된 표준화된 척도)등이 이에 속한다.

연구 결과, 직업모의 자녀는 어머니에 대한 애착면에서 비 취업모의 자녀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왜냐하면 두 집단 모두 어머니를 찾는 행동의 양이나 강도에서 유사했기 때문이다. 사회적 행동에서 발견된 유일한 차이는 직업모의 자녀가 낯선 사람에게 더 긍정적으로 반응한다는 점이다. 즉 낯선 사람과 단둘이 남겨졌을때

* Hock, E. 1980 : Working and nonworking mothers and their infants : A comparative study of maternal caregiving characteristics and infant social behavior. Merrill-Palmer Quarterly, 26, 79-101.

비 직업모의 자녀보다 직업모의 자녀들이 낯선 사람에게 더 허용적이었다. 발달 상황을 알아보기 위하여 Baley 검사중 ‘정신·운동적 항목’을 측정하였는데 그 결과 두 집단이 매우 비슷한 점수를 받았다. 또한 자녀를 돌보는 행동의 특성이나 질에 있어서도 직업모와 비 직업모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연구자가 결론내렸듯이 ‘연구의 결과는 직업을 갖는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어머니의 양육 태도와 행동, 자녀의 발달 수준, 또는 어머니-자녀 관계의 질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2 : 생후 1년에 어머니없이 양육되는 것이 어머니-자녀 사이의 애착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가 매일 가정을 비우는 것이 어머니-자녀 관계에 어느 정도 붕괴를 가져올 것인가에 대하여 조사한 연구들이 매우 많다. 본 연구에서는 하류층과 중류층 유아 149명을 대상으로 한살에서 두 살까지 추후연구를 실시하였다. 어머니의 취업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네 집단이 설정되었다. 즉 종일 직업 집단(주 35시간이상 근무), 장시간제 직업집단(주 20~35시간 근무), 단시간제 직업집단(주 10~20시간 근무), 비 직업집단이 설정되었다. 직업모들이 아이를 위탁하는 방법에도 여러가지가 있었다. 대부분의 경우 집안 혹은 집밖에서 아기 돌보는 사람(baby-sitter)에게 맡겼다. 어머니·아버지에 대한 애착의 질을 평가하기 위하여 12개월 경과 13개월 경에 낯선 상황을 실시하였다. 실시결과 나온 점수를 바탕으로 유아의 행동을 안정 대 불안정으로 분류하였다.

* Belsky, J. and Rovine, M. J. 1988 : Nonmaternal care in the first year of life and the security of infant-parent attachment. Child Development, 58, 157-67.

어머니-자녀간의 애착면에서는, 종일 직업집단의 자녀중 47%가 불안정으로 분류되었는데 이는 장시간제 직업집단의 35%, 단시간제 직업집단의 21%, 비직업집단의 25%와 비교되는 수치이다. 아버지-자녀간의 애착면에서는 성 차이가 나타났다. 즉 종일 직업집단의 아들이 50%로 가장 불안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나머지 유아들이 보인 29%와 비교되는 수치이다. 반대로 딸일 경우에는 직업모의 자녀중 14%가 아버지에 대한 애착이 불안정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비 직업집단이 예상외로 50%이라는 높은 수치를 보인것과 비교되는 수치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앞에서 요약한 연구와는 달리 어머니가 생후 1년 동안 하루중 대부분의 시간을 비우는 것이 불안정한 애착형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업모 자녀의 50%가 어머니와 안정된 관계를 형성했다는 사실과, 직업모의 아들 중 50%가 아버지와 나쁜 관계를 형성하지 않았다는 것도 중요한 사실이다. 그리고 어머니와 날마다 심한 격리를 경험한 아동중 3분의 2가 적어도 한 부모와는 안정된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 또한 덧붙이고 싶다. ‘불안정한’ 애착관계를 형성하기 쉬운 부류는 기질상 다루기가 어렵고, 결혼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는 어머니를 두었으며, 직업 지향적인 어머니를 가진 아동이었다. 또한 심한 불안정을 주당 20시간 이상 근무하는 어머니들의 자녀에게만 발견되었다는 것도 주목해 봐야 할 문제이다.

연구3 : 직업모의 아기들*

이 연구는 조금 나이 든 집단 즉 2세 만된 유아를 대상으로 하

* Schachter, F. F. 1981 : Toddlers with employed mothers. Child Development, 52, 958-64.

였다. 동일 직업모의 자녀 32명이 비직업모 자녀 38명과 비교되었다. 아동들은 중류층이며 대학에서 실시하는 놀이 집단에 참여하고 있었다.

각 아동을 대상으로 여러가지 측정이 실시되었다. 언어 발달은 자연적으로 발생한 언어 표집을 분석함으로써 평가되었다. 그 결과 두 집단 간에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정서적 적응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왜냐하면 언어 발달이 놀이 집단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에 의해 측정된 것이기 때문이다. 인지 발달은 표준화된 지능 검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그 결과 비 직업모의 자녀들이 직업모의 자녀보다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평균 115.106). 마지막으로 사회적 발달을 측정하기 위하여 교실 관찰과 교사 평가를 실시하였다. 여기서도 역시 차이가 발견되었다. 즉 직업모의 자녀들이 비 직업모의 자녀보다 어른들에게 도움이나 보호를 요구하는 회수가 적었으며 더욱 강한 자기 충족감을 보였다. 또한 다른 아동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보였으며 접근을 시도할 준비가 더 잘되어 있었다.

연구4 : 어머니가 직업을 갖는 것과 유아의 발달간의 관계*

몇몇 이론들은 어머니가 항상 자녀 옆에 있는 것이 자녀의 성역할 발달에 중요한 요인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가 직업을 갖는 것이 아동의 성역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알아보려고 한다.

먼저 아동의 성역할을 측정하기 위한 검사를 실시하였다. 이 검사는 아동들에게 여자와 남자에게 적합한 활동이 무엇이라고 생각

* Gold, D. and Andres, D. 1978 : Relations between maternal employment and development of nursery school children. Canadian Journal of Behavioral Science, 10, 116-29.

하는지에 대하여 질문하는 검사이다. 이외에도 지능이 측정되었으며 학교에서 아동이 얼마나 잘 적응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교사들에게 행동 평가지에 기록하게 하였다. 부모들 역시 설문에 답하게 하였는데 이는 부모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모역할 개념, 성역할 개념, 그리고 아동양육 태도를 평가하기 위한 것이었다.

연구 대상으로는 종일직업을 가진 어머니의 자녀 52명과 아동이 태어난 이래로 한번도 취업한 적이 없는 어머니의 자녀 50명이다. 연구 당시 아동의 나이는 4세에서 5세 사이였으며 중류 계층이고 양부모가 모두 있는 아동이었다. 또한 이들은 모두 유치원에 다니고 있었다. 평가 장소는 아동이 다니고 있는 유치원이었다.

연구결과, 두 집단간에 서로 엇갈린 결과가 나타났다. 취업모의 아들은 비 취업모의 아들보다 근육 활동에 대한 선호를 덜 보였다. 이는 성역할에 대한 고정 관념을 더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딸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취업모의 아들들은 통제 집단보다 지능이 낮았다. 이같은 차이는 딸사이에서는 역시 발견되지 않았다. 적응 점수의 경우 취업모의 자녀들이 11개 항목 중 9개 항목에서 더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차이는 남녀 모두에게서 나타났다. 부가적인 결과로 취업모들은 비 취업모에 비해 자신의 역할에 대해 만족해했다. 또 직업을 가진 아내의 남편들이 아내의 역할에 대하여 더 만족해 하였다. 따라서 자녀 양육이나 일 모두에서 부모의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연구5 : 어머니의 취업과 가정 환경 그리고 유아기에서 학령기까지에 이르는 아동의 발달*

‘어머니의 취업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과 같은 문제를 연구할 때 종단적 연구가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왜냐하면 이런 영향은 아동의 발달 단계에 따라 변화하는 성질이 있으므로 가능한 한 폭 넓은 연령범위를 포함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때문에 본 연구는 어머니의 취업이 아동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1세부터 7세까지 추후검사를 실시하였다.

매우 광범위한 연구가 실시되었다. 연구 대상은 130명의 아동이며 7살이 될 때까지 정기적으로(처음에는 6개월 간격으로 나중에는 1년 간격으로) 여러가지 검사들이 실시되었다. 이들은 모두 중류층 백인 아동이며 이중 78%의 아동이 연구 기간동안 부모의 이혼이나 격리등을 겪지 않았다. 어머니의 취업은 점진적인 증가를 보였다. 즉 처음부터 취업해 있던 어머니는 삼분의 일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삼분의 이는 추후검사 기간이 끝날 무렵에 취업하였다. 부모와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의 인지 기능, 기질, 사회적 능력, 행동적 적응, 학업 성취도, 가정 환경, 부모의 태도, 부모-자녀관계 등을 포함한 매우 폭넓은 조사가 실시되었다.

이처럼 복잡한 연구가 실시되었지만 연구 결과는 쉽게 요약될 수 있다. 취업모의 자녀와 비 취업모의 자녀간에 모든 연령에서, 그리고 모든 심리 영역에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연구 결과

* Gottfried, A. E., Gottfried, A. W. and Bathurst, K. 1988 : Maternal employment, family environment, and children's development infancy through the school years. In A. E. Gottfried and A. W. Gottfried (eds), Maternal Employment and Children's Development. New York : Plenum.

에 대하여 저자는 다음과 같이 한마디로 요약하고 있다. ‘아동은 어머니의 취업으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다’ 문제는 어머니의 취업 그 자체가 아니라 사회 경제적 수준을 포함한 가정환경의 질, 가족내의 자녀수 등이다. 연구결과 취업모들이 자녀에 대하여 더 높은 열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취업모의 자녀들이 비 취업모의 자녀들보다 궁극적으로 더 증가된 발달을 보일 수도 있다는 추론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이런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두 집단간에는 기본적으로 차이가 없었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는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린다. ‘어머니의 취업과는 상관없이 어떤 가족이라도 아동의 발달을 위한 좋은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고 믿는다’.

연구6 : 아동발달과 가족 변화 : 어머니의 취업이 유아나 걸음마 아기에 미치는 영향*

이 연구에서 제시된 자료는 113명의 중류층 아동을 대상으로 영아기부터 추후 조사를 실시했던 (‘뉴욕 종단적 연구’로 알려진) 종단적 연구에서 얻은 것이다. 여러가지 측정이 빈번한 간격으로 실시되었다. 측정 방법으로는 부모와의 면담, 교사와의 면담, IQ검사, 성취도 검사, 관찰 방법이 사용되었다. 이 연구는 삼분의 일 이상의 어머니들이 복직한 시기 즉 아동이 3세에서 5세사이가 되었을 때에 조사가 가능했던 100개 가족을 대상으로하여 실시되었다. 실시된 여러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취업모 자녀와 비 취업모 자녀를 비교한 결과 아무런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즉, 지능지수, 학문적

* Lerner, J. V. and Galambos, N. L. 1986 : Child development and family change : the influence of maternal employment on infants and toddlers. In L. P. Lipsitt and C. Rovee-Collier (eds), Advances in Infancy Research, vol. 4. Norwood, New Jersey : Ablex.

성취도, 가정과 학교에서의 적응력, 그리고 어머니-자녀 관계등 모든 측면에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해석상의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취업모의 자녀들이 기질적으로 ‘더 온순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전체적으로 볼때 어머니의 취업 그 자체보다 어머니와 자녀간에 확립된 관계의 유형이 아동 발달에 더욱 강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따뜻하고 수용적인 태도가 아동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이런 태도는 직업의 유무가 아니라 자신의 역할에 대해 얼마나 만족해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석

이 과제와 관련된 연구들은 지난 10~20년동안 많은 변화를 겪었다. 초기 연구가들이 고심했던 질문은 ‘어머니가 일하러 나갔을 때 어떤 형태로 실조가 일어나는가?’ 였다. 이들은 어머니가 직업을 갖는 것이 유아에게 나쁜 영향을 줄 것이라고 가정하였기 때문에 부정적인 영향만을 찾으려 하였다. 그러나 초기와는 달리 요즘은, 단정적인 태도를 버리고 중립적 태도로 접근하는 것이 보편적인 추세이다. 즉 어머니의 취업은 손실만이 아니라 소득도 있을 것이라는 가정을 하게 되었고, 그 결과 어머니의 취업이 필연적으로 모성 실조를 가져올 것이라는 미신을 버리게 되었다.

상당히 많은 연구들이, 한살 이상된 아동들은 일정한 조건만 주어진다면 어머니가 매일 직장에 나가는 것때문에 나쁜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조건이란 대리 위탁의 질이나 안정성을 말한다. 취업모의 자녀가 지적으로 약간 열등하다고 보고한 연구들이 있긴 하지만 아직 확증된 바는 없다. 더욱이 사회적 행동 특히 독립심은 취업모의 자녀가 오히려 더 발달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때 취업모와 비 취업모의 자녀들

간에는 지적, 사회적 차이가 거의 없었다.

단지 나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심각하게 부각되는 것은 한살 이하인 경우이다. 최근 몇몇 연구들은 취업모의 자녀들이 어머니와 매우 불안정한 애착을 발달시킨다고 말한다. 이는 애착관계가 형성되는 시기에 어머니가 규칙적으로 집을 비우는 것이 어머니-자녀 관계 형성에 해롭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쉽게 판단내기 전에 고려해야 할 것이 몇가지 있다. 첫째 연구자들이 조심스럽게 지적했듯이 모든 유아가 나쁜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다. 거의 50%정도는 안정된 관계를 형성하였다. 둘째 부정적인 결과는 어머니의 직업이 시간제인 유아보다 종일 직업인 유아에게서 주로 나타나며 소년이 소녀보다 영향받기 쉬운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업모와 비 직업모가 자녀와 형성한 애착 관계의 유형에 차이가 없다고 보고한 연구들도 많았다. 마지막으로 대부분의 연구들이 한가지 평가 방법 즉, '낮선 상황'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절차는 모든 연구에서 아무런 비판없이 사용되어 왔다.

이 분야의 연구에서 일어난 또 다른 중요한 변화가 있었다. 즉, 어머니의 취업이 원인이고 아동 발달이 결과라는 단순 인과모형에서 점차 벗어나기 시작한 것이다. 어머니가 직장을 갖는다는 사실은 여러가지 요인들이 작용하여 일어나는 것이다. 직업을 갖게 된 동기, 직업인과 어머니라는 이중적 책임을 수행하면서 겪게 되는 '역할 긴장'의 정도, 아버지의 태도, 아동 양육에 참여하고자 하는 아버지의 의지, 아동의 기질, 대리양육 방법 등이 이에 속한다. 이 모든 요인들이 함께 어울어져 '최종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므로 어머니의 취업에 대하여 단순히 결론을 내린대거나, '좋은 것' 혹은 '나쁜 것'으로 일반화시키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다. 또한 어머니와 자녀 관계만을 연구할 것이 아니라 가족 전체의 차원에서 조명해보아야 한다는 인식이 보편화되고 있다. 어머니의 취업은 가족 전체

에게 함축적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어머니의 취업에 대한 연구는 취업모와 그들의 자녀가 처한 전체적인 환경에 대하여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실제를 위한 시사점

어머니 역할이 반드시 24시간 행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또 어머니가 날마다 일하러 나가는 것이 아동에게 반드시 해를 끼치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아동과 나누는 상호 작용의 질이지 양이 아니므로 질을 향상시키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따라서 어머니가 하루 종일 집에 있는 것에 답답해 한다면 다른 돌파구를 찾음으로써 상호 관계의 질을 향상시킬 수도 있는 것이다. 일하러 나가고 싶은 것을 억지로 참을 필요가 없으며 만약 직장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에 대해 죄의식을 느낄 필요가 전혀 없다. 아동이 어머니와 계속적인 관계를 갖을 수 있다면 다른 사람에 의해 양육되는 것이 반드시 나쁜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풍부한 경험을 줄 수도 있다.

한살 경에 어머니가 종일 직업을 갖는 것이 유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이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서는 앞으로 더 많은 연구가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대중생각해보건데, 만약 어머니에게 선택권이 있다면 자녀가 한살이 지나기 전에는 종일 직업을 갖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한살 경에 발견되는 모든 영향이 반드시 지속되는 것은 아니라고 어머니들에게 말해주고 싶다. 왜냐하면 초기 경험의 가역성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많은 어머니들이 이 문제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특히 편부모일 경우에는 생활비를 벌기 위하여 하루 속히 복

직하여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하여 몹시 괴로워 할 것이다. 이들에게 훌륭하고 안정한 대리 양육이 제공되어야 하며 그들이 아동과 함께 있는 동안만은 만족스러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이런 점에서 볼때 직업모가 하루 종일 집에 있는 어머니보다 자녀들과 더 만족스럽고, 빈번하고, 긍정적인 상호 작용을 한다는 것은 매우 흥미있는 발견이다.

그러나 어머니들이 반드시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직장을 갖는 것은 아니다. 지적, 사회적, 자극이 여성의 행복을 위해 중요한 것일지도 모른다. 유아를 둔 어머니, 특히 하류층 어머니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극심한 절망은 집안 허드렛일에 시달리는 것이나 외적 자극을 받을 기회가 전혀 없다는 사실과 깊은 관련이 있다. 어머니가 직업을 갖는 문제에 대하여 논할 때, 어머니의 직업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에만 국한시켜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어머니 역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자신의 성향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집을 지키고 있는 것이, 집을 나가서 일을 갖는 것보다 아동에게 더 나쁜 영향을 줄지도 모른다. 어머니가 직업을 갖는 것에 대하여 현명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많은 요인들을 고려하여야 하며, 특히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어머니 자신을 위한 시사점 역시 무시할 수는 없다. 점차 많은 어머니들이 직업을 갖으려고 하는 현사회에서 여성을 지나치게 가정이나 자녀에게 묶어 두려고 하는 고정관념은 더 이상 적합하지 않다.

그 역할이 무엇이든지간에 여성이 자신의 역할에 대해 느끼는 만족감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로 인해 어머니들이 자녀들과 더욱 긍정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기 때문이다. 어머니와 직업인이라는 이중 역할을 하는것이 여성에게 무거운 짐이라는 것에 대하여 부인할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이다. 따라서 부모, 친척, 탁아시설들로 부터 협조를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바로 이런 협조

가 없을 때 어머니의 취업이 아동에게 나쁜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따라서 좋은 질의 탁아 시설이 특히 중요시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Hoffman, L. W. 1984 : Work, family and the socialization of the child. In R. D. Parke (ed.), *The Family : review of child development research*, Vol. 7. Chicago :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Hoffman, L. W. 1989 : Effects of maternal employment in the two-parent family. *American Psychologist*, 44, 283-92.
- Kamerman, S. and Hayes, C. (eds) 1982 : *Families that Work : children in a changing world*. Washington, DC : National Academy Press.
- Scarr, S. and Dunn, J. 1987 : *Mother Care/Other Care*. Harmondsworth : Penguin.

집단 탁아가 유아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인가

문제제기

어머니가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 3세 이하의 유아 중 대부분이 친척, 아버지, 유모, 혹은 아이를 돌봐줄 수 있는 몇몇 다른 사람들에 의해 보살펴진다.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유아(많은 나라에서 상당수가 이에 해당한다)들은 집단 탁아소에 위탁되어, 한 보모가 여러 유아를 돌보거나 여러 보모들이 동시에 여러 아이를 돌보는 양육 형태를 경험하게 된다. 집 밖에서 행해지는 탁아에 대하여 우려되는 것중에 대부분은 ‘집단 양육이 과연 유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하는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지금까지 탁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문점들이 제기되어 왔다. 아동의 성장에 전적으로 매달리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발달이 지체되는 것은 아닐까? 여러 성인이 양육 책임을 분담하고 또 그중 어떤 사람도 부모가 돌보는 것 만큼 아동의 요구에 민감하지 못함으로써 아동의 정서가 결핍되는 것은 아닐까? 일상적인 가족 생활과는 전혀 다른 상황하에서 부모와 떨어져 지내는 동안 불안정하고 불안하고 공격적으로 되거나 앓을까? 위에서 제기된 질문에서 알 수 있듯이 어떤 사람들은 집단 탁아를 일종의 집단 수용 정도로 여겨왔으며 그곳에 위탁된 아동들을 실조아로 취급하였다. 또한 아동의 초기 경험은 이후의 심리 발달을 위해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으며 그와같은 경험은 작은 가족 단위나 모자 관계를 바탕으로 할 때만 가능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정상에서 이탈된—탁아소 처럼—모든 형태의 경험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여 왔다.

그러나 이런 의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어머니들이 기꺼이

혹은 개인 사정때문에 어쩔수 없이 자녀를 탁아소에 맡기고 있다. 따라서 이런 아동이 정말로 심리적 위기를 겪는지에 대하여 시급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 많은 연구들이 이 문제에 몰두하여 왔으며 현재는 연구 결과들이 검토되고 있는 단계이다. 비록 결과들간에 차이가 있고 우리가 가진 지식이 부족하긴 하지만 연구들로 부터 이 끌어낸 결론 사이에는 상당한 일치점이 있다. 일반적으로 연구 결과는 탁아에 대한 염려 중 대부분을 해소시켜 준다. 뿐만 아니라 어떤 환경하에서는 탁아 경험이 오히려 더 이로울 수도 있다고 말한다. 이 말에는 여러 단서가 전제되어 있다. 어쨌든 이 주제에 대한 연구는 이 책에서 언급된 다른 몇가지 과제에 대한 연구 결과를 입증하고 있다. 생후 몇 년동안 반드시 집에서 어머니가 보살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 연구 결과가 바로 그 예이다.

탁아와 관련된 문헌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대표적인 연구를 찾기 어려웠다. 그러나 아래에서 요약될 연구들은 그동안 많은 연구들이 제기해 온 중요한 질문 몇가지와 이에 대한 전형적인 대답들을 보여주고 있다.

연구 결과

요약

연구1 : 탁아소에 다니는 걸음마 아기의 사회·정서적 발달*

이 논문은 Rubenstein과 Howes가 집단 탁아소에 위탁된 영아와 극단적으로 가정에서만 양육된 영아를 비교하기 위하여 실시했던 여러 연구들을 요약해 놓은 것이다. 연구 대상은 17개월에서 20개

* Rubenstein, J. L. and Howes, C. 1983 : Social-emotional development of toddlers in day care. *Advances in Early Education and Day Care*, 3, 13-45.

월 된 걸음마 아기 30명이며 이중 반(실험 집단)은 연구 시작 당시, 평균 5개월 이하 동안 탁아소에 위탁되었던 영아들이었다. 가정에서 양육된 비교 집단과 탁아소에서 양육된 실험 집단이 사회적, 개인적 변인에서 조심스럽게 매치되었다.

아동의 행동과, 아동과 상호 작용하는 부모의 행동이 총 5시간에 걸쳐 관찰되었다. 관찰결과, 전반적으로 볼 때 두 집단 간에는 차이점보다 유사점이 더 많았다. 먼저 두 환경(역주: 집, 탁아소) 안에서 아동이 경험한 언어적, 인지적 자극과 아동의 사회적 행동에 대한 성인의 반응이 대략적으로 비교되었다. 그 결과 어느 집단도 더 ‘자극적’이거나 더 ‘반응적인’ 환경에 있다고 말할 수 없었다. 다른 아이들과 노는 동안에 측정된 사회적 행동의 세련도 역시 두 집단이 서로 비슷했다. 그러나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동안에 측정된 놀이의 발달 수준에서는 탁아소 집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는 다른 아동이 있고 없고에 따라 달리 나타났다. 즉 가정에서 양육된 아동은 친구와 노는 동안에 관찰되었을 경우,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행동이 더 세련되고 성숙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들이 3세 반에서 4세가 되었을 때 다시 한번 관찰이 실시되었다. 측정 방법으로는 다양한 관찰 방법, 면접, 검사등이 사용되었으며 측정 장소는 각 아동의 집이었다. 탁아소 집단이 어머니에게 덜 온순한 것으로 나타나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사회적, 정서적 발달상에 손상이 발견되지는 않았다. 오히려 자발적 발성이나 언어 검사에서는 탁아소 집단이 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따라서 이 연구의 대상들처럼 중류층 가정 출신이고 ‘좋은’ 탁아 시설에 위탁된 경우에는 집단 탁아에 대하여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 같다.

연구2 : 유아기 : 인간 발달에서 차지하는 위치*

이 연구자들은 탁아소에 위탁되어 있는 아동들의 발달을 측정하였다. 검사 장소는 탁아소였다. 여기서도 역시 높은 수준의 탁아가 실시되고 있었다. 연구 대상은 하류층과 중류층 그리고 문화적 소수 집단(중국인)으로서, 생후 4개월부터 시설에 위탁되기 시작한 아동들이었다. 추후 조사는 2살 반까지 실시되었다. 이 시기동안 총 33명의 아동들이 정기적으로 측정되었다. 비교를 위하여 가정에서 양육된 67명의 아동에게도 동일한 측정이 실시되었다. 측정 방법으로는 광범위한 검사 도구와 관찰이 사용되었다. 측정 내용은 사려성, 흥분성, 타인에 대한 반응, 애착, 언어, 지각적 분석력, 그리고 기억력등이다. 게다가 지능과 발달에 대한 일반적인 검사들이 실시되었다.

결과는 매우 명확하게 나왔으므로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요약할 수 있다. 즉 탁아소 양육 집단과 가정 양육 집단 사이에는, 2년 동안 8회에 걸쳐 실시된 수많은 측정 중 어떤 것에서도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탁아소 경험이 어머니에 대한 애정적 유대 관계에 나쁜 영향을 준다는지, 지적 발달이 지체된다는지, 또는 특정한 인지 기능이 억제된다는지 하는 증거가 없었다. 이 연구에서도 역시 '좋은' 질의 탁아가 제공되었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나쁜 환경에서 양육된 집단에게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앞에서 요약된 연구들처럼 이 연구 역시 탁아소가 반드시 나쁜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 Kagan, J., Kearsley, J. B. and Zelazo, P. R. 1978 : Infancy : its place in human development. Cambridge, Mass. : Harvard University Press.

연구3 : 집단 탁아의 양육 형태와 가족 양육 형태간의 비교

—스웨덴을 중심으로—*

이 연구는 여러 가지 점에서 의의가 있다. 첫째 다른 연구와는 달리 미국이외의 다른 나라에서 실시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고, 둘째 다른 두 집단 즉 부모가 하루 종일 집에서 양육하는 아동 집단과 1, 2명 정도의 아동과 함께 부모의 집에서 양육되는 아동 집단을 집단 탁아 아동 집단과 비교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들 세 집단에 속하는 아동의 수는 60, 34, 26명이며 세 가지 연령 단계, 즉 12, 15, 18개월에 서로 매치되었다. 관찰적, 발달적 자료를 수집하였는데 여기에는 부모들의 행동이나, 부모들이 자신의 책임하에 있는 아동에게 제공하는 경험의 종류 등이 포함된다.

경험의 대부분은 세 집단 모두에게 공통적인 것이었다. 차이가 나타난 것은 탁아소 아동보다 자신의 가정이나 부모의 가정에서 양육된 아동이 주변을 더 많이 탐색하고 환경을 자극하는 어른과 더 자주 상호 작용한다는 점이다. 그리피스 정신 발달 척도(Griffitks Mental Development Scale)를 실시한 결과에서는 가정 양육 집단이 12개월 경에 몇가지 항목(듣기, 말하기)에서 우세함을 보였던 것을 제외하고는(이런 결과는 15, 18개월경에는 나타나지 않았다) 세 연령 단계에서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를 전혀 발견하지 못하였다. 각 아동의 가정에서 준 구조화된 격리 상황을 실시한 결과, 어머니-자녀 상호 작용 행동간에 아무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저자들이 지적했듯이 이 연구 결과들은 집단 간에 차이가 있다기 보다는 서로 유사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어떤 한 환경이 다른

* Cochran, M. M. 1977 : A comparison of group day and family child-rearing patterns in Sweden. Child Development, 48, 702-7.

환경에 비해 반드시 우세하다는 증거는 없는 것 같다.

연구4 : 집단 탁아와 사회적으로 불우한 가족들 : 아동과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탁아소는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중 하나는 엄마들이 일하러 나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아동의 사회적, 지적 발달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불우한 아동을 위해 보상 교육을 실시하는 탁아소인 경우에는 후자의 목적이 특히 강조된다. 이 연구는 이러한 탁아소 중의 하나를 대상으로 하여 그 효율성을 자세히 평가하고자 하였다.

연구 대상은 가난하고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불우한 가족의 자녀들로서 자신의 사회적 배경으로 인해 학교에서 실패할 위험률이 매우 높은 아동들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 인원은 54명이다. 이중 반은 탁아소에 무선적으로 할당되었으며 나머지 반은 탁아 집단과 비교하기 위하여 조사 기간 동안 하루 종일 집에서 생활하였다. 탁아소에서는 아동에게 잘 계획된 교과 과정을 제공하였을 뿐 아니라 가족을 위한 의학적, 사회적 복지혜택도 제공하였다.

두 집단의 발달 과정을 기록하기 위하여 다양한 검사, 실험 절차, 관찰 등이 정기적으로 실시되었다. 특히 지적 평가는 표준화된 발달 검사, 지능 검사등을 사용하여 12, 24, 36, 48, 60개월 경에 실시되었다. 그 결과 12개월 경에는 두 집단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었으나 24개월 부터는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이는 주로 비교 집단의 퇴보로 인해 나타난 결과였다. 우리는 이같은

* Ramey, C. T., Dorval, B. and Baker-Ward, L. 1983 : Group day care and socially disadvantaged families : effects on the child and the family. In S. Kilmer (ed.), *Advances in Early Education and Day Care*, Vol. 3. Greenwich, Connecticut : JAI Press.

결과를 통해, 탁아소의 프로그램이 위험률이 높은 환경으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발달 지체를 예방하는데 매우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초기에 프로그램이 개입되지 않는다면 점차 IQ가 감퇴되는 것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이런 결과는 탁아소에 위탁된 아동의 형제가 가정에서 양육된 경우, 나이들수록 IQ가 감퇴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함으로써 얻어진 결과이다). 후에 인지 기능을 측정한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심리적 발달 과정은 초기에 보상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개선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2개월에 측정된 결과를 보면 탁아 집단이 비교 집단에 비해, 운동 발달 검사를 제외한 모든 검사, 즉, 언어적, 지각적, 양적 그리고 기억 능력에서 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기 보상 교육은 불우한 아동들이 구조화된 과제에 더 잘 주목하고 추상적이고 복잡한 과제를 더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해준다.

사회성 발달에 대해서도 평가가 이루어졌다. 유아기에 탁아소에 위탁된 아동은 비교 집단보다 더 확신감있고 목표 지향적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들은 같은 또래의 중류층 아동들 못지 않게 또래에게 관심을 보였으며 친절하고 협동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연구 결과와는 달리 본 연구의 실험 집단(탁아 집단)은 교사의 애정을 여러 친구들과 나눠 가져야 한다는 사실로 인해 더 공격적이거나 이기주의적으로 되지 않았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볼때 본 연구 결과는 초기 개입의 효율성에 대하여 매우 긍정적인 시각을 갖게 한다. 즉 몇몇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처럼 탁아가 아동의 사회적 행동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지 않을 뿐아니라 학령전기 동안 언어, 인지 위주의 교과 과정을 학습함으로써 가정에서만 양육되었을 경우에 나타날지도 모르는 지적 퇴보를 막을 수 있었다.

연구5 : 탁아 시설간의 질적 차이가 아동 발달에 미치는 영향*

이 연구는 탁아의 질이 아동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추었다. 따라서 탁아 집단을 가정에서 양육된 집단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탁아의 질이 다른 여러 시설들을 비교함으로써 탁아 시설간의 차이가 아동의 발달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하여 알아보 고자 하였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연구가 예비적인 것에 불과하 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략적인 정보를 얻는데 그 의의를 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본 연구자들이 후에 발간한 책을 함께 읽는다면 이 보고서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연구는 Bermuda에서 실시되었다. 이 곳에서는 전체 아동의 90 %정도가 2살이 될 때까지 여러 가지 형태의 대체 보호 시설에 위탁된다. 10개 시설중 한 시설에 위탁된, 3살에서 5살 반 사이의 아 동 전체가 연구에 포함되었다. 실제 표집수는 156명이었다. 아동의 발달과 탁아 환경의 성격을 알아보기 위하여 여러 가지 평가가 실 시되었다. 먼저 아동 발달에 대해서는 주로 인지적, 언어적, 사회적 능력을 측정하였는데, 이를 위하여 부모의 평가, 부모의 평가, 표준화된 실험적 검사가 사용되었다. 탁아 환경에 대해서는 창의적 활 동이 제공되는 정도, 개별적 보호의 성격, 시설의 유형등을 측정하 였는데, 이를 위하여 여러 시간에 걸친 관찰, 스텝과 조사자들의 평가 등이 실시되었다. 또한 더 세부적인 측면, 즉 스텝-아동간의 비율, 놀이 시설의 양과 다양성, 스텝의 경험 유무와 훈련 정도 등 에 대한 정보도 수집되었다.

* McCartney, M., Scarr, S. Phillips, D., Grajek, S. and Schwarz, J. C. 1982 : Environmental differences among day care centres and their effects on children's development. In E. F. Zigler and E. W. Gordon (eds), Day Care : Scientific and Social Policy Issues. Boston : Auburn House.

오염 효과를 막기 위하여 아동이 처음 탁아소에 위탁된 나이, 위탁기간, 여러 가지 유전적·사회 경제적·문화적 차이와 같은 변인들이 자료 분석 과정에서 통제되었다. 이같은 분석 방법을 통해 탁아의 질에 대한 진정한 효과를 알 수 있었다. 연구 결과 시설의 차이는 여러 아동 특성, 즉 언어형 검사에 의하여 측정된 지적 기능, 언어 발달과 의사 소통 능력, 아동의 사회성, 타인에 대한 고려, 과제 지향성, 그리고 전반적인 사회적 능력등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모든 기능은 좋은 환경을 갖춘 시설에서 특히 발달되었다. 특별히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것은 스텝과 아동 사이에서 습관적으로 일어나는 언어적 상호 작용의 양이었다. 반면에 정서적 적응은 시설의 질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탁아 환경에 대한 더 많은 측면들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일반적으로 본 연구자들은 탁아의 질이 아동의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주므로 ‘좋은 질’이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하여 알아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결론내린다.

연구6 : 초기 아동기 탁아와 학교 교육간의 관계*

이 연구 역시 탁아 경험의 질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질의 차이에 따른 단기적인 영향에 대하여 질문하기 보다는 학교에 적응하는 것과 같은 장기적인 영향에 대하여 조사하였다는 점에서 앞의 연구와 차이가 있다.

87명의 아동이 참가하였다. 이들은 모두 네살 경에 입학한 대학부속 탁아소에서 표집되었으나 대부분의 아동이 이전에 집단 탁아

* Howes, C. 1988 : Relations between early child care and schooling. *Developmental Psychology*, 24, 53-7.

를 경험한 적이 있었다. 연구 대상은 인종, 부모 교육수준, 어머니의 취업여부, 가족의 형태(양부모 vs 편부모)등을 고려하여 표집되었다. 부모 면담을 통해 아동의 입학 연령, 과거에 위탁되었던 탁아소의 수, 종일제 vs 반일제 등과 같은 탁아소 경험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수집하였다. 동시에 탁아의 질에 대해서는 5가지 차원, 즉 교사 훈련, 집단 크기, 성인대 아동의 비율, 물리적 공간의 적합성, 교육 프로그램에 초점을 맞추어 평가하였다.

국민학교에 얼마나 잘 적응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3년후 또 한번의 측정이 실시되었다. 교사와의 면담을 통해서 아동의 학문적 발달 상황과 다양한 학교 기능(집단 참여, 독립성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였다. 또한 부모들에게는 아동의 문제 행동에 대한 설문지를 작성하게 하였다. 그 결과 나중에 아동이 학교에 적응하는데 문제가 되는 경험과 문제가 되지 않는 경험이 구별되었다. 전자에는 탁아소에서 제공하는 보호의 질과 안정성 등이 속하였다. 물론 남녀에 따라 혹은 학교 적응 중 어떤 측면이 측정되느냐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 매우 높은 질의 탁아소에 위탁된 아동들이나, 위탁 장소의 변화가 가장 적었던 아동들이 사회적, 정서적, 학문적으로 가장 잘 발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령전 경험이 종일제나 반일제냐는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으며, 편부모나 어머니의 취업과 같은 가족 특성 역시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았다.

따라서 학령전기에 탁아소에 입학하는 그 자체는 탁아소에서 제공하는 보호의 질이나 안정성 만큼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이 탁아소에 입학한 시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나중에 학교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처럼 집단 타아가 항상 똑같은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다. 만약 타아가 아동 발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이해하고자 한다면 각각의 구성요소가 어떤 영

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할 것이다.

해석

그동안 탁아가 유아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학자들 사이에 상당한 일치가 있어왔다. 그들은 탁아소 경험이 유아에게 미치는 해를 발견하지 못하였을 뿐아니라 오히려 탁아소에 위탁하는 것이 아동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 같은 결론에 도달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다양한 측면이 측정되었는데 즉 여러가지 지적 측면, 다른 아동과 사귀는 사회성, 어머니와의 관계, 정서적 안정성, 자신감, 언어 기능의 발달 등이 이에 속한다. 사용된 측정 방법이 다양하다는 사실은 연구들간의 일치된 결론을 더 신뢰롭게 해준다. 그러나 이말이 합치된 결론이 완벽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연구들은 한살 정도된 아이를 탁아소에 맡기는 것이 현명하지 못하다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견해는 다른 연구에 의해 증명되지 못하고 있다. 한 예로 탁아 경험이 공격성이나 집중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어왔다. 또 연구들은 탁아 경험이 언어 발달을 촉진시킨다고 말하기도 한다. 이런 낙관적인 연구 결과 역시 다른 연구에 의해 입증된 바 없다. 또 연구 방법상의 어려움 때문에 탁아의 장기적 영향에 대해서도 여전히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 더 많은 연구가 행해져서 그와 같은 문제를 명확히 하리라 믿는다.

이제는 더 이상 ‘옳고’ ‘그름’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탁아 경험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장점을 최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알아내고자 하는 방향으로 연구가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앞에서 제시된 연구 초록 중 마지막 두가지 연구들이 바로 이런 접근을 유도한 예이다. 이 연구들은 탁아소에 위탁된 아동과 그렇지 않은 아동을 비교하는 대신에 여러 종류의 탁아 시설을 비교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좋은 질’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탁아소의 여러 측면들을 알아내기 위함이었다. 과거에는 탁아에 대하여 일반화하는 것을 막으려는 경향이 있었다. 왜냐하면 한 시설에 적용된 것이 다른 시설에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초기 연구들의 대부분은 질이 높은 시설에서 실시되었기 때문에 대표성을 띠지 못하였다. 아동이 일상 생활에서 실제로 경험하는 것에 대하여 알아내기 위해서는 만족스럽지 못한 탁아소에 대하여 더욱 폭넓은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 연구들은 결과에 대한 관심에서 벗어나 과정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다시 말해서 좋으나, 나쁘나에 대한 질문에서 벗어나 탁아소가 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 어떤 것인지, 또 어떤 유형의 아동이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을 것인지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이다.

실제를 위한 시사점

최근들어 탁아소에 관한 문제는 아동 양육과 관련된 그 어떤 주제보다도 더욱 부각되고 있다. 물론 그 이유는 부분적으로는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때문이다. 그러나 이 문제가 여성의 역할이나 가족의 성격에 대한 의문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적어도 아동이 1세가 될 때 까지는 집에서 어머니가 보살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Selma Fraiherg가 1977년에 펴낸 ‘모든 아기는 생득권이 있다: 어머니의 보호에 대하여(Every Child’s Birthright: In Defence of Mothering)’에 쓴 것처럼 아기들이 이웃 사람이나 낯선 사람, 혹은 ‘보관소’에 마치 상품처럼 배달되는 것에 대하여 걱정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다.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탁아소에 대한 요구는 대단하며, 직업모에게는 특히 더 절실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요구들의 대부분이 친척들에 의해서 충족되고 있는 형편이다. 집단 탁

아에 위탁하는 것은 생활의 문제이며 몇몇 부모에게는 특히 절실한 것이다. 이런 부모들은 자신이 자녀를 위험한 곳에 맡긴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싶어한다.

몇가지 제한점이 있기는 하지만 그 점에 대해서는 이미 확인된 바 있다.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하루 종일 보살피는 것보다 다른 곳에 위탁되는 것이 반드시 불리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3세 이하의 아동일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오히려 필요한 조건만 만족된다면 위탁이 아동의 사회화를 위한 가장 유용한 방법이 될 수도 있다. 몇가지 이유 때문에 가정에서 아동의 모든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특히 유용하다.

만족되어야 할 조건이란 무엇인가? 무엇보다도 대체 위탁 시설의 일관성(consistency)과 질(quality)이다. 일관성이란 주로 조직상의 문제이다. 즉 탁아소 아동이 많은 보모중 아무에게나 무분별하게 맡겨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아동에게 책임감을 느낄 수 있는 특정 개인에게 맡겨지는 것을 말한다. 일상 생활, 물리적 환경, 아동이 속해 있는 집단의 구성의 일관성에 대해서는 나중에 논의하기로 하자. 위탁시설의 질에 대해서는 정의하기가 더 어렵다. 이제까지는 적절한 장난감의 보유 여부, 충분한 놀이 공간, 스텝들이 받은 훈련의 양, 그리고 아동 대 성인의 비율 등과 같은 항목을 가지고 평가하여 왔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동과 성인 사이에서 일어나는 상호 작용의 질이다. 언어적 상호 작용, 특히 일대일 대화의 양은 높은 질의 보호를 위한 필수적인 요인이다. 또다른 필수 요인으로서는 집단 지도가 아닌 개별 지도를 얼마나 많이 실시하느냐 하는 점이다. 집단 지도는 집단 탁아의 특성 중에서 가장 위험한 특성일 것이다. 불행하게도 집단 지도는 각 아동의 특성이나 요구에 개별적으로 대처하기 보다는 전체로서 대처하게 만든다. 특정 아동에 대하여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스텝의 능력과 이를 가능

하게 해주는 시설의 조직은 탁아소에 대한 평가를 내릴 때 사용되는 가장 중요한 준거중의 하나이다.

불행하게도 ‘탁아소는 아동의 발달을 촉진시킬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는 메시지가 아직도 정책 결정가나 운영가, 부모를 포함한 일반 대중에게 전달되지 않았다. 아마도 이것은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해야 한다든지 어머니 역할이 종일 수행해야 하는 역할이라든지 하는 선입견이 여전히 팽배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것이다. 그러나 부분적으로는 탁아소의 질이 지독하게 나쁜 경우가 있기 때문이며 이런 불행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탁아에 대하여 좋지 않은 선입견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예는 우리에게 탁아의 수준을 올리기 위해서는 더 많은 자원, 향상된 교사 훈련, 조직 구조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동안 탁아에 대한 관심의 대부분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것이었다. 그러나 탁아가 가족 전체에 대하여 갖는 의미 역시 중요하다. 아동 양육에 대한 역할을 다른 사람, 즉, 직업적으로 훈련된 사람과 공유해야 한다는 사실이 부모의 책임을 덜어 주는가? 아동이 가정으로부터 격리되어 상이한 기대, 가치관, 양육 방식에 노출되는 것이 부모에게 어려움을 주지는 않는가, 또 아동에게 혼란을 주지는 않는가? 한결같이 분명하지 않는 질문들 뿐이다. 물론 모든 가족에게 새로운 가치관을 부과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그러나 가족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반면 전문인(교사)들은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탁아를 선택해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가정과 탁아소 간의 연계성이 중요하게 인식되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다. 이 영역이야말로 더 많은 주의가 집중되어야 할 것이다.

과거에는 탁아를 거의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았고 어떤 사람들은 필요악으로 여기기도 했다. 이제는 탁아에 대하여 새로운 시각을

가질 때가 되었다. 즉, 타아는 아동 뿐아니라 가족 전체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향상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타아가 아동 양육의 기능을 공유하는 것이, 가족을 혼란에 빠뜨리기는 커녕, 아동의 발달을 위한 여러 혜택이나 다양한 경험을 제공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Belsky, J. 1988 : Infant day care and socio-emotional development :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29, 397-406.
- Belsky, J. 1984 : Two waves of day care research : developmental effects and conditions of quality. In R. Ainslie (ed.), *The Child and the Daycare Setting*. New York : Praeger.
- Clarke-Stewart, A. 1982 : *Daycare*. London : Fontana ; Cambridge, Mass. : Harvard University Press.
- Clarke-Stewart, A. 1989 : Infant day care : malignant or malignant? *American Psychologist*, 44, 266-73.
- Rutter, M. 1981 : Social-emotional consequences of day care for preschool children.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51, 4-28.

부모의 이혼이 아동에게 나쁜 영향을 주는가

문제제기

이혼은 많은 나라에서 중요한 현상이 되어왔으며 지난 수십년 동안 나타난 급격한 증가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이혼은 개인에게는 생활에 변화를 가져오는 중요한 사건이지만 이외에도 사회적, 심리적, 경제적 의미를 가진 사건이기도 하다. 특히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이유는 아동이 관련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1980년대에 미국에서 태어난 전체 아동중 40%가 부모의 이혼을 경험하였으며, 이 중에는 학령 전에 경험한 아동도 많았다. 아동에게 있어서 부모의 이혼은 단순히 어머니, 아버지 사이가 깨어지는 것을 목격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많은 경우, 부모 중 한 사람(아버지인 경우가 많다)과 아동 자신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이때 아버지는 단지 가정밖으로 거처를 옮기는 것만이 아니라 자녀와의 접촉도 함께 끊는 경우가 많다.

이혼은 항상 정서적 혼란을 수반하기 때문에 이혼이 아동의 심리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이처럼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는 것은 그리 놀랄만한 일이 아니다. 이혼은 아동이 임상적 문제를 일으키는 가장 분명한 원인 중의 하나이다. 또한 가족의 붕괴를 경험하는 것은 아동기 뿐아니라 성인기를 포함한 미래의 모든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영구적인 상처를 남기기 쉽다. 따라서 영구적인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이런 상황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시급히 요청됨은 물론이다. 또한 갈등에 시달리는 결혼 생활을 하는 부모들은 자녀를 위하여 그대로 살아야 할지, 아니면 그들 개인의 의사에 따라 별거해야 할지에 대하여 갈등하는

경우가 많다.

이 주제와 관련된 연구들은 매우 느린 속도로 진행되었으며 초기에 실시된 연구중에는 형편없는 연구들도 많았다. 즉 적절한 통제가 가해지지 않았으며 편파적인 표집에 기초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또 이들 연구에서 얻어진 결론은 기우에 속하거나 부당한 것이 많았다. 예를 들어 전체아동이 문제 행동을 보이는지에 대하여 확인하지도 않은 채 문제 행동의 발생에 대하여 언급하곤 하였다. 최근들어 더욱 주의깊은 연구가 행해짐에 따라 신뢰로운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었으며 논리적으로 일관된 결과를 보이기도 했다. 이로 인하여 부모의 이혼이 아동 발달에 미치는 장·단기적 영향에 대하여 알수 있게 되었으며 아동이 부모의 이혼에 대하여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들도 알 수 있게 되었다.

이혼이 아동과 관련하여 제기하는 질문은 상당히 많다. 부모와 격리되는 것에 대비한 아동의 준비 정도, 아동을 맡을 부모를 선택하는 문제, 따로 떨어져 사는 부모와 접촉하는 양과 질, 양부모 가족(two-parent family)에서 편부모 가족(single parent family)으로 전환하는 문제, 의붓부모 가족(step-family)의 형성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우리의 주된 관심은 부모의 이혼이 아동의 정서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과 이 영향이 아동의 나이, 성별, 시간의 경과, 가족 관계, 그리고 아래에서 요약된 연구에서 실험한 기타 다른 영향 요인들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가에 있다.

연구 결과

요약

연구1 : 이혼한 부부의 아이들 : 10년간에 걸친 연구*

Wallerstein과 그의 동료들은 ‘이혼은 하나의 제한된 사건이 아니라 가족 관계가 급속히 변화하는 다단계(multistage) 과정’이므로 그 영향에 대하여 알아보기 위해서는 종단적 연구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60개 가족에서 부모와 함께 131명의 아동이 선정되었다. 이들은 의도적으로 부모의 별거시기 즈음에 조사되었으며 18개월, 5년, 10년 후에 추후 조사되었다. 이들 중 거의 대부분이 잘 교육받은 중류층 백인 가족이었다. 부부는 결혼한지 평균 11년 되었으며, 이혼 당시 자녀의 나이는 학령전부터 청소년까지 다양했다. 추후 연구된 시기마다 각 가족의 구성원들과 집중적인 면담이 실시되었으며, 유아들은 놀이 시간 동안에 관찰되었다. 또한 각 아동에 대한 자료를 얻기 위하여 학교의 협조를 받았다.

부모의 별거에 대한 아동의 반응은 주로 나이에 따라 달라진다. 학령전기 아동들은 심각한 혼란, 퇴행의 징조, 그리고 심각한 격리 불안을 보였다. 18개월 경에 추후 연구가 실시되었을 때에는 성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즉 대부분의 남자아이들은 여전히 혼란을 겪고 있는 반면 여자아이들은 거의 회복된 것처럼 보였다. 5년 후에는 더 이상 유의한 성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대신에 아동이

* Wallerstein, J. S., Corbin, S. B. and Lewis, J. M. 1988 : Children of divorce : a 10-year study. In E. M. Hetherington and J. D. Arasteh (eds), Impact of Divorce, Single Parenting, and Stepparenting on Children. Hillsdale, New Jersey : Erlbaum.

심리적으로 얼마나 잘 적응하는가와 이혼 후 재구성된 가족이 얼마나 훌륭한 생활을 하는가 사이에 강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혼 후 10년이 지난후에는(비록 절반 정도가 화해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긴 했지만) 대부분 원래 가족에 대한 기억이나 부부간의 불화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아동들이 학교에서 잘 생활하고 있었으며, 더 나이들었을 때 부모의 이혼을 경험한 아동보다 괴로움을 덜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 나이든 아동들은 초기에 매우 두드러진 반응을 보였다. 무력감, 한 부모 혹은 두 부모 모두에게 대한 강한 분노, 심각한 절망감, 사회적 위축, 학교 과제수행에서의 심각한 뒤처짐 등이 주로 나타난 반응이었다. 이런 징후는 남·녀 모두에게서 똑같이 나타났다. 그러나 18개월이 지났을 때에는 대부분의 남자아이들이 여전히 혼란을 겪는데 비해 대부분의 여자아이들은 회복의 길을 잘 찾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령전기 아동의 경우에서 처럼 5년후 추후 연구에서 조사된 심리적인 적응은 주로 이혼후 재구성된 가족이 얼마나 훌륭한 생활을 이끌어 가는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그러나 10년 후에 실시된 세밀한 임상 검사에서는 어렸을때 이혼을 경험한 아이들과는 달리 이혼의 사후 효과가 나타났다. 즉 이혼을 둘러싼 긴장된 사건에 대한 생생한 기억에 시달리는 유아도 있었고, 성인이 되었을 때에는 부모들의 불행한 결혼을 되풀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볼 때 어떤 연령이든간에 초기 반응은 매우 심각하게 나타나지만 2년 이내에 감소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후유증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연구자들은 이혼에 대한 초기 반응 역시 이혼 그 자체 때문이라기 보다는 부부 불화로 인한 생활의 격하, 부모 역할의 혼란 등으로 인한 것이라고 말한다.

연구2 : 이혼이 아동의 놀이와 사회적 상호 작용에 미치는 영향*

이 연구는 이 분야에서 가장 잘 알려진 연구일 뿐 아니라 가장 정교하게 고안된 연구중의 하나이다. 연구자들은 종단적 연구 과정을 통하여 앞에서 요약된 연구 결과들과 일치된 결과 즉, 불안이나 부모-자녀의 혼란은 이혼이 일어난 해에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지만 2년이 지나면 극적으로 회복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가족 밖에서의 행동 특히 학교에서의 교우 관계나 놀이 행동에 주안점을 두었다.

연구 대상은 이혼하자마자 엄마가 데리고 사는 중류층 가족의 소년, 소녀 48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사는 부모가 이혼한 후 2개월, 1년, 2년이 되었을 때 실시되었다. 비교 집단은 이혼을 하지 않은 가족의 아동이었다. 연구 시작 당시 이들의 평균 나이는 4세 이하였다. 자료 수집을 위하여 다양한 방법이 사용되었다. 사용된 방법으로는 유치원에서 일어나는 자유 놀이나 사회적 상호 작용에 대한 관찰, 아동의 행동에 대한 교사의 평가, 학교에서 다른 아동으로부터 얻은 여러 측정치등이 있다.

연구 결과는 가족 내에서 나타나는 행동에 대한 연구 결과와 거의 일치하였다. 즉 이혼이 일어난 해에 이혼한 가족의 자녀들은 지적, 사회적으로 미숙한 놀이 행동을 보였다. 소년은 이같은 미숙한 놀이 행동 유형 중 몇가지를 2년 후까지 계속 보였으나 소녀는 그렇지 않았다. 처음에는 이혼 집단의 아동이 비교 집단의 아동보다 더 불안하고, 더 죄의식을 느끼고, 더 냉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런 차이는 소년의 경우에는 다소 줄어들긴 했으나 사라지지

* Hetherington, E. M., Cox, M. and Cox, R. 1979 : Play and social interaction in children following divorce. Journal of Social Issues. 35, 26-49.

않았고 소녀의 경우에는 사라졌다. 사회적 행동에서도 마찬가지로 현상이 나타났다. 이혼 집단의 아동은 다른 아동과 상호 작용하는데 비행, 주의끌기, 공격성과 같은 미숙하고 비효율적인 반응들을 많이 보였다. 소녀의 경우, 이런 영향은 곧 사라져 이혼후 2년이 지나면 이혼 집단과 비교 집단 사이에 차이가 없었다. 소년의 경우 이런 영향이 감소하기는 하나 몇몇 차이는 2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남아 있었다. 따라서 2년 후에도 여전히 친구들에게 인기가 없으며 놀이 집단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소녀나, 자기보다 나이 어린 아동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이혼은 가족 뿐 아니라 아동의 학교 행동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이런 영향은 초기에는 매우 두드러지지만 점차 적응하게 되며 소년보다 소녀가 특히 쉽게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3 : 이혼과 재혼이 아동의 적응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

앞에서 제시된 연구에 참가했던 아동들이(비 이혼 집단을 포함하여 본 연구에 참가한 인원이 124명으로 증가하긴 하였으나) 이혼한지 6년이 지난 후 또 다시 관찰되었다. 여러 가지 측정이 또 다시 실시되었다. 가정 관찰, 부모와 교사, 아동 자신과 또래가 작성하는 평가 척도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평균 연령은 10세 정도였다.

아동의 적응에 대하여 이미 주목된 바 있는 성차이는 6년후까지도 지속되었다. 어머니가 재혼하지 않았을 경우 소녀들도 일반적인 적응면에서 비 이혼 가족의 소녀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소년들은 비교 집단에 비해 다소 더 공격적이고 사회적 능력이

* Hetherington, E. M., Cox, M. and Cox, R. 1985 : Long-term effects of divorce and remarriage on the adjustment of children.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Psychiatry, 24, 518-30.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이를 맡아 기르는 부모가 재혼했을 경우에는 사정이 달랐다. 아동이 2세 이하 일때 재혼하였을 경우는 소년, 소녀 모두 비 이혼 집단보다 더 많은 문제 행동을 보였다. 2세 이상일 때 재혼하였을 경우는 소년들은 비교 집단에 비해 아무런 차이가 없었으나 소녀는 잘 적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장기적 영향은 아동의 성과 어머니의 재혼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다. 즉, 편부모일 경우 소년은 소녀보다 좋지 않은 반응을 더 오랫동안 보였다. 그러나 어머니가 재혼해서, 의붓 아버지가 가족에 포함되었을 때에는 소녀는 문제 행동이 증가되었으나 소년은 감소되었다. 그러나 점차 소녀들도 새 가족 구조에 적응하는 것 같았다. 왜냐하면 2세경에 어머니가 재혼한 아동은 초기 단계에 재혼한 아동보다 대체적으로 더 좋은 심리 조전에 있다고 여겨져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Hetherington이 1987, 1988년에 발표한 연구 보고서에서 언급한 것처럼, 아동에게 미치는 장기적 효과는 여러 다른 요인에 따라 달라진다. 어머니 자신의 적응 정도, 새 의붓 가족(stepfamily)에서의 부부관계, 아동에 대한 의붓 아버지의 태도, 가정밖에서 제공되는 지원 등이 여기에 속한다. 그동안은 이혼이나 재혼의 효과, 그 자체에만 관심이 있었으나 이제는 이혼이나 재혼이 폭넓은 파급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한 예로서 형제 관계가 부모-자녀 관계를 그대로 반영한다는 점을 보면 알수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볼 때 비 이혼 가족보다는 이혼 가족에서 문제가 더 많이 발견되고 있는 건 사실이다.

연구4 : 가정 환경 요인이 이혼 후 아동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

이 연구는 다른 정보 수집 방법을 채택하였다. 즉 비교적 적은 수의 가족을 대상으로 집중 조사를 실시하는 것 대신에 국가적 규모의 표집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연구가 두 차례에 걸쳐 실시되었다. 가족은 학교 심리학자를 통해 미국의 38개 주에서 선정하였으며 각 심리학자들은 1, 3, 5학년에서 2명씩 무선적으로 선정하였다. 실제 사용된 전체 대상수는 699명이며 이중 341명은 이혼 가족에서 표집되었다. 2년후 123명의 아동이 다시 조사되었으며 이중 46명은 이혼 집단 출신 아동이었다. 자료는 심리학자들이나 교사가 내린 평가, 부모와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한 면담, 그리고 여러 가지 표준화된 검사를 통하여 수집되었다.

일반적으로 이혼 가족의 아동은 사회적, 학문적 적응면에서 다른 아동보다 나쁜 점수를 얻었다. 이런 경향은 소녀보다 소년에게서 더 일반적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혼 가족 집단에 속하는 아동 모두가 나쁜 적응상태를 보이는 것은 아니었으므로, 저자는 건강한 발달에 영향을 주는 가정내의 여러 요인들을 밝히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그들이 채택한 요소는 아동의 '관계의 질'이다. 아동을 데리고 사는 부모 뿐 아니라 데리고 살지 않는 부모와의 관계도 두 차례에 걸쳐 실시된 조사에서 아동의 적응과 깊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년일 경우 아버지(주로 아동을 데리고 살지 않는 경우가 많다)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학교 과제수행을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소년의 경우 특히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이혼이 일어난 후에 부모와의 갈등이 줄어들었다는 것이

* Guidubaldi, J., Clemminshaw, H. K., Perry, J. D., Nastasi, B. K. and Lightel, J. 1986. The role of selected family environment factors in children's post-divorce adjustment. Family Relations, 35, 141-51.

다. 아동의 적응과 관련된 또 다른 요인은 아동을 데리고 사는 부모가 어떤 양육 방식을 택했는가 하는 것이다. 또한 TV시청, 잠자는 시간과 같은 일상 생활을 유지시키는 부모의 능력이 아동의 심리적 안녕에 영향을 주었다.

이 보고서는 단지 이혼 집단을 비 이혼 집단과 비교할 뿐아니라 이혼 집단 내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변인들을 시험해야 하는 이유를 잘 설명하고 있다. 만약 부모가 이혼한 후에도 아동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요인을 찾아낼 수 있다면 이 요인을 강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가족에게 도움이나 조언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5 : 아동기에 경험한 부모의 이혼이 성인기의 적응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

대부분의 연구들은 부모의 이혼이 아동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이 연구는 아동기에 부모의 이혼을 경험한 적이 있는 성인이 어떤 심리적 기능이나 일반적 적응을 보이는지를 조사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미국에서 1957, 1976년 두차례에 걸쳐 실시된 비교 지역 조사 자료가 사용되었으며 각각의 자료들은 2000명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 수집을 위하여 90분간에 걸쳐 구조화된 면담이 실시되었다. 이 시간 동안 피험자의 본래 가족에 대한 정보가 수집되었고, 심리적 적응, 지각등에 대한 다양한 측정이 실시되었으며 부부와 부모의 역할에 대한 평가가 실시되었다.

두차례에 걸쳐 조사한 결과, 심리적 적응과 관련된 모든 측정치에서, 이혼으로 인한 가정의 붕괴 때문에 생기는 장기적 영향은 매

* Kulka, R. A. and Weingarten, H. 1979 : The long term effects of parental divorce in childhood on adult adjustment. Journal of Social Issues, 35, 50-78.

우 제한적이며 적어도 잠정적으로 수정가능한 것임이 밝혀졌다. 심한 불안감이나 좋지 못한 신체적 건강 상태와 같은 증상은 이혼을 경험한 아동들에게서 더 자주 나타났다. 이런 차이는 두번째 실시한 조사에서는 젊은 성인에게서만 나타났다. 이는 시간이 갈수록 그 효과가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부부 만족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본 결과 이혼을 경험한 아동들은 이혼을 경험하지 않은 아동에 비해 성장한 후에 부부 문제에 부딪치게 될 가능성이 높긴 했지만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는 않았다. 또한 아동기에 부모의 이혼을 경험한 성인들은 경험하지 않은 성인에 비해 자신의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별거할 가능성이 다소 높았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유의할 차이는 처음 조사에 한하여 여성들에게서만 나타났다. 또한 아동기에 이혼을 경험한 남자들은 경험하지 않은 남자들보다 결혼에 더 가치를 두는 반면 여성들의 경우에는 이혼을 경험한 집단이 결혼에 대해 가치를 덜 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들은 아내로써보다, 어머니나 직업인으로써의 역할에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 역할에 대해서는 두 집단간에 아무런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볼때 부모로써의 적합함이나 자녀를 키우면서 겪는 문제에 대해서는 두집단 모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가 지나치게 자기 보고에 의존하고 있긴 하나, 연구자들은 아동기 경험이 성인기 적응에 적어도 약간의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느꼈다. 가족 배경에 따른 차이는 통계상으로 볼때 결코 크지 않았으며 그나마 존재했던 차이도 20년에 걸쳐 악화되었다.

연구6 : 이혼 이전의 인성 : 회고적 연구*

이제까지 언급한 연구들은 모두 부모의 이혼이 미치는 영향의 종류나 정도에 관한 것이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같은 영향이 나타나기까지의 과정에 대하여 조명해 보고자 하는데 있다. 이 연구는 이혼이 일어난 후 뿐아니라 일어나기 훨씬 전부터 아동을 조사하였다는 점에서 독특하다.

연구 대상은 3세부터 사춘기까지 실시된 종단적 연구에 계속해서 참여한 128명의 아동으로 구성되었다. 14살이 되었을 때 101명의 아동이 여전히 연구에 참여하고 있었고 이중 41명은 14살이 되기 전에 부모의 이혼이나 별거를 경험한 아동이었다. 이들은 여러 측정치, 특히 교사가 작성한 인성 척도(넓은 범주의 사회적, 지적 특성과 관련된 100개 항목으로 구성됨)를 기준으로 나머지 60명과 비교되었다.

가장 놀라운 결과는 이혼 집단의 아동이 부모가 이혼하기 훨씬 전부터 여러 측면에서 다른 집단과 달랐다는 점이다. 3세에 이혼을 경험한 소년은 그 이전에 이미 침착하지 못하고, 고집이 세고, 정서적으로 불안정하다고 평가 받은 바 있었다. 7세에 평가되었을 때 이들은 공격적이고, 충동적이고, 비 협동적이고, 스트레스로 인해 자포자기하기 쉬운 아동이라고 평가받은 바 있으며, 이런 형태는 청년기에도 역시 발견되었다. 놀라운 사실은 그런 행동이 부모가 이혼하기 훨씬 전부터 나타났다는 것이다. 소녀의 경우, 두 집단간의 차이는 분명치 않았다. 3세경에는 집단간에 차이가 전혀 없었고 이혼이 일어난 4세경에는 이혼을 경험한 소녀들이 훨씬 더 부정적

* Block, J. H., Block, J. and Gierde, P. F. 1986. The personality of children prior to divorce : a prospective study. Child Development, 57, 827-40.

인 용어, 즉 기쁜 것도 없고,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지도 않고 정서적으로도 불안정하다고 평가되었다. 이런 차이는 나이 들어도 계속 나타나지만 이혼하지 않은 부모의 자녀와 긍정적인 특징을 많이 공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부모의 이혼이 미치는 영향은 실제 이혼이 일어나기 훨씬 전부터 이미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중요한 요인은 결혼의 과정으로 인한 관계의 깨어짐이라기 보다는 부모와 함께 있을 때 존재했던 갈등적 분위기이다. 이는 ‘이혼한 부모는 이혼하기 훨씬 전(심지어는 11년전)부터 다른 부모보다 양육 방법에 대하여 부부간에 불일치가 있다’는 Block의 연구에 의해서 뒷받침 받는다. 그들은 또한 자녀 중심적 측면이나 지지적 측면에서 유의하게 낮은 점수를 보였고 부부와 부모-자녀 관계 모두에서 여러가지 긴장의 징조를 보였다. 더우기 이혼한 가족의 어머니가 자신에 대하여 ‘낮은 자아 긍지를 가졌다’고 말하였다는 것은(아마도 부부 문제 때문인 것 같다) 이것이 아동에게 존재하는 긴장의 또다른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혼하지 않은 집단의 아동들과 다른 분위기에서 지냈다는 것을 암시해준다.

해석

그동안 많은 연구들이 실시됨에 따라 몇가지 사항들이 분명해졌다. 일반적으로 합의된 사항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이혼은 특정한 한 시점에 단번에 일어나는 단일 사건이 아니다. 법률상의 이혼은 가정내에서 논쟁과 불화가 찾아지는 때부터 시작해서 배우자와 헤어지거나 실제로 결혼이 깨어지고 난 후 몇년이 지날때 까지도 계속되는 오랜 과정의 일부에 불과하다. 따라서 만약 이혼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자 한다면 종단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가족 붕괴가

일어나는 단계와는 상관없이 단지 이혼 가족의 아동 전체를 일괄적으로 다루는 식의 연구 방법은 Hetherington과 기타 여러 사람들이 보여준 것처럼, 연구가 전체 과정 중에서 어떤 시점에 실시되었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론을 이끌어 내기도 한다.

- 종단적 방법을 채택한 결과, 이혼이 미치는 영향은 그 성격이나 심각성면에서 단계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대부분의 증거들이 초기, 특히 이혼이 일어난 후 1년 동안에 국한된 것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점차 재적응이 이루어짐에 따라 본래부터 존재했던 모든 문제 행동들이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부모의 이혼이 아동기 이후에도 계속해서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견해는 회의론에 부딪치게 된다. 여기서 다시 한번 지적하고 넘어가야 할 것은 좋은 환경만 주어진다면 아동은 회복할 힘이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장기적 효과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확실한 점이 많다. 아동기에 부모의 이혼을 경험했던 성인들의 적응과 관련하여 앞에서 인용한 바 있는 Kulk와 Weingarten의 비교적 낙관적인 결론은 다른 몇몇 연구에 의해 지지받지 못하였다(예를 들어 Glenn과 Kramer의 1985년 연구). 이혼의 경험이 미치는 영향이 성인기에 다시 부각될 수 있다는 것은 또 한번 생각해 볼만한 일이다. 이러한 의문점을 분명히 해결해 줄 수 있는 연구가 실시될때까지 그 가능성에 대하여 명심하고 수용적인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이다.
- 여러 가지 전반적인 요인들이 적응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즉 아동의 나이, 성별, 예전의 부모-자녀 관계, 아동 양육을 위해 선택된 위탁 방법, 편부모 가족에서의 생활, 부모의 재혼 등이 이에 속한다. 따라서 한 표본내에서 여러 가지 다양

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길 필요가 없다.

- 특별히 주목해야 할 한가지 요인이 있다면 바로 아동의 성별이다. 스트레스에 대한 아동의 반응을 조사한 여러 연구에서 알 수 있듯이 소년들은 소녀들보다 이혼 경험으로 인해 더 상처받기 쉬운 것으로 밝혀졌다. 이혼 당시에 소년이 더 큰 영향을 받았을 뿐 아니라 재적응도 소녀보다 소년이 느린 것이 보통이다. 엄마의 재혼에 대한 반응에서는 반대 결과가 나왔다. 즉, 소녀는 엄마의 재혼으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 본 연구의 결과중 가장 중요한 것은 이혼전의 가족 관계가 매우 강력한 영향 요인이라는 점이다. 이혼과 관련된 전체 경험 중 어떠한 요인이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즉, 갈등의 분위기, 부모 중 한사람과 격리되는 것, 생활양식의 변화, 아동을 데리고 사는 부모에게 미치는 영향과 그에 따른 능력의 변화, 등등이 여기에 속한다. 그러나 앞에서 요약한 여러 연구들은 아동의 적응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써 가정내에 존재하는 갈등을 지적하고 있다—예를 들어, 몇몇 연구들은 이후의 심리적 건강은 부모의 이혼보다 가정내에 존재하는 갈등과 훨씬 더 깊은 관련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다른 요인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 Block과 그의 동료들은 연구를 통하여 이혼과 관련된 영향중 대부분이 이혼을 경험하기 훨씬 이전부터 이미 나타났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다. 즉, 이혼에 대한 연구는 앞에서 논의한 바 있는 ‘격리’에 대한 연구결과와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다. 모든 사건은 아동의 전체 가족 생활의 범위안에서 관찰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아동이 어떠한 가족 생활을 하느냐에 따라 이혼이 미치는 영향이 희

박해지거나 심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를 위한 시사점

격리 그 자체보다 부모의 갈등이 아동에게 더 파괴적이고 깊숙한 영향을 준다는 사실은 특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필요가 있다. 부모들은 간혹 자녀를 위해서 그냥 그대로 살아야 하는지 이혼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묻곤한다. 이 질문은 일괄적으로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이다. 왜냐하면 각각의 독특한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질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그대로 함께 산다는 것이, 아이가 계속해서 갈등과 긴장속에서 자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면 격리가 더 좋은 대안책이 될 수도 있다. 물론 격리가 모든 연령의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며, 어떤 때는 아주 깊은 상처를 줄수도 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으나 장기적 관점으로 볼때는 다음과 같은 아주 사소한 해를 미친다고 말할수 있다. 이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한 연구 결과는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갈등에서 벗어난 편 부모 가족의 자녀가, 가족 구조는 유지되나 불행한 가족의 자녀보다 문제 행동을 덜 보였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한 가족 상황에서 다음 가족 상황으로 변화될 때까지 많은 다양성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보면 일괄적으로 일반화하는 것을 조심해야 하긴 하지만 이론이 긍정적인 해결책이 될수도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혼한 부모의 자녀에게서 발견되는 모든 심리적 혼란들은 이혼이라는 법률상의 붕괴보다는 가족이 여전히 함께 살므로써 생기는 경우가 많으며 부모 중 한사람과 긴밀한 접촉을 끊음으로써 생기는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은 단기적으로 볼때 상당한 혼란이나 당황을 줄 수 있는 사건이다. 무엇보다도 부모는 가정내에 존재하는 갈등과 아동의 문제 행동 사이에 매우 깊은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아동이 갈등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부모가, 아동은 이같은 상황에서 심리적 지지를 돕기 필요하다는 것을 명심하는 것은 그리 쉽지 않은 일이며, 안다 할지라도 그런 상황에서 지지를 보낸다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부모가 예전처럼 아동에게 헌신할 수 있는 심리적인 여유가 생길때까지 친척과 친구들이 이 역할을 대신 해 줘야만 한다. 이미 설명한 것처럼 가장 스트레스 많이 받는 아동은 아동 양육 문제를 가지고 부모들 사이에서 법적 투쟁의 대상이 되는 아동이다. 이럴때에는 가능한 한 아동이 갈등을 경험하는 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하여 전문가에게 중재를 요청해야 할 것이다.

아동의 안녕을 위하여 가장 좋은 상황은 부모들간의 외형적 갈등이 최소화되고 아동 양육 방법에 대한 의견 일치가 최대화되는 상황, 그리고 양부모 모두가 계속해서 아동의 생활에 쉽게 접근하거나 참여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혼 후 몇몇 아버지들이 다시 나타나지 않는 것은 부모로서의 무책임함을 반영한다기 보다는 참을수 없을 만큼 고통스럽고 좌절스러운 상황에 대한 반응이라고 보는 것이 좋다. 제한된 시간동안 인위적 조건하에서만 만나는 것은 아동과 편안한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게 만든다. 특히 소년의 경우에는 아버지와 자주 접촉하는 것이 긍정적인 적응과 깊은 관계가 있다. 헤어진 부모를 그리워하는 것은 이혼 가족 출신의 아동에게 부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양부모(two-parent)와 접촉을 유지해나가는 것은 아동들의 삶을 보살펴줘야 하는 책임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이다. 일관성이 유지되면 유지될수록 전환하는데 어려움을 덜 겪게 된다—이는 이혼에 따르는 다른 상황들, 즉, 이사, 전학, 생활비의 감소 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문제이다. 가능한한 일관성이 깨어지는 것은 최소한으로 줄여야 하며 적어도 심사숙고해야 할 일이다.

아동이 적응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아동이 한번에 적응할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Emery, R. E. 1982. Interparental conflict and the children of discord and divorce. *Psychological Bulletin*, 92, 310-30.
- Emery, R. E., Hetherington, E. M. and Dilalla, L. F. 1984. Divorce, children and social policy. In H. W. Stevenson and A. E. Siegel (eds), *Child Development Research and Social Policy*. Chicago :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Hetherington, E. M., Stanley-Hagan, M. and Anderson E. R. 1989. Marital transitions : a child's perspective. *American Psychologist*, 44, 303-12.
- Kitson, G. C. and Raschke, H. J. 1981. Divorce research : what we know, what we need to know. *Journal of Divorce*, 4, 1-37.

아동들은 새 부모와 애정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가

문제제기

아동은 태어나면서부터 특정한 한 가족의 구성원이 되며 그들이 처음 애정관계를 형성하는 것도 바로 이 집단내에서이다. 그러나 끝이어서 많은 아동들이 이혼이나 사망 혹은 부모의 학대나 거부로 인하여 가족이 붕괴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이런 경우, 무엇보다도 아동들은 이미 확립된 애정 관계를 끊는데서 오는 정신적 충격을 극복해야만 한다. 이에 덧붙여 대부분의 아동들이 직면해야 할 또다른 문제가 있다. 다름 아니라 새 가족의 구성원이 되어야 하는 문제 새로운 사람들 즉 의붓 부모(step-parent), 위탁 부모(foster parent), 양 부모(adoptive parent), 대리 부모(parent substitutes)와 관계를 형성해야 하는 문제가 바로 그것이다. 아동들은 과연 이들과 ‘적절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까? 이처럼 뒤늦게 형성된 관계가 초기에 형성된 관계만큼 애정과 안정감을 제공할 수 있을까? 혹은 이들이 나쁜 대리인 정도에 지나지 않는 것일까? 새 부모에 의해 양육된 아동들이 이후에 심리적 기능면에서 다른 아동보다 뒤떨어지는 것은 아닐까?

이같은 의문은 어머니나 혹은 그외 다른 1차적 애착 대상과 아동이 맺은 초기 애착 관계에 대한 보편적인 믿음 때문에 생겨나는 것 같다. 만약 (종종 제시되어 왔던 것처럼)이것이 이후의 모든 관계를 결정짓는다면 대리 부모들은 사실상 매우 어려운 과제를 짊어지고 있는 셈이 된다. 다시 말해서, 아동이 자신을 ‘진짜’어머니라고 여겨주기를 기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되는 셈이다. 그러나 현재 많은 아동들이 이런 적응을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이혼한 부모 중 많은 사람들이 재혼을 하게 되는데 이때 아동들은 새어머니나 혹은 새아버지와 함께 새로 구성된 가족의 구성원이 되어야 한다. 이같은 적응이 아동에게 주는 어려움에 대하여 염려—(많은 동화에서 표현되었던 것처럼) 의붓 부모에 대한 고약한 편견 즉, 아동을 새배우자의 애정에 대한 경쟁자로서 생각하고 애정을 주지 않는 사람이라는 생각하는데서 오는 염려—한 나머지, 실제로 아동 양육을 맡은 부모들 중 몇몇은 재혼을 꺼리기도 한다. 초기에 실행된 초기 연구들은 모든 새 부모—자녀 관계는 심각한 어려움을 겪으며 이러한 여러가지 문제들은 지속될 것이라는 가정에 기초하고 있다. 따라서 초기 연구자들은 그들의 기대를 뒷받침해주는 부정적인 결과만을 보고했을 것이다.

최근 연구는 그같은 편견을 버리고 중립적인 자세를 취하였다. 불행하게도 이 주제와 관련된 연구는 양적인 면에서 여전히 제한되어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결론적인 대답을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많은 의문점을 남긴다—이들의 의문점은 어느 연령의 아동이 새 부모에게 적응할 수 있는가, 적응을 촉진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친 부모(예를 들어 이혼한 후 자녀와 헤어져 사는 부모나 양육 기관에 아동을 맡긴 친부모)와 접촉을 유지시키는 것이 바람직한가, 새 가족은 어떤 기능을 하는가, 다양한 형태의 재구성된 가족이 아동에게 미치는 장기적 영향은 무엇인가 등등이다. 그러나 이 과제에 대하여 중립적인 연구가 실시된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이런 질문에 대하여 몇 가지 가안만을 제공할 수 있을 뿐이다. 이 문제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정보들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 볼 만하다. 그동안 대리 관계에 대하여 실시된 연구 중 대부분이 의붓 부모에 관한 연구였으므로 여기서도 이와 관련된 연구들을 중심으로 살펴 보고자 한다.

연구 결과

요약

연구1 : 외붓 자식 : 범 국민적 연구*

이 보고서는 대규모의 조사 즉 1958년의 1주 동안에 영국에서 태어난 1700명 정도의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한 추후 연구에 기초하고 있다. 전체 아동기 동안 정기적으로 조사한 결과 이중 5.1%가 이혼이나 부모의 죽음으로 인해 본래 가족(original family)이 붕괴되었으며 16살경에는 외붓 가족의 일원이 되어 있었다. 외붓 아버지와 살고 있는 아동이 외붓 어머니와 살고 있는 아동보다 3배정도 많았다.

아동의 생활 전반에 대한 자료가 모두 수집되었다. 무엇보다도 물질적인 면에 있어서는 외붓 어머니나 친부모와 사는 아동보다 외붓 아버지와 사는 아동이 조금 더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아마 이런 결과는 외붓 아버지 가족의 자녀수가 더 많기 때문인 것 같다. 종단적으로 분석한 결과 이전에 독신 어머니와 살았던 아동들에게는 외붓 아버지란 물질적 향상을 의미했다. 16세 아동에게 자신이 부모(친부모와 외붓 부모)와 얼마나 사이가 좋은지에 대하여 평가해보라고 했을 때 외붓 가족에서 생활하는 아동들의 대부분이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그러나 불만스러운 평가 역시 본래 가족에서 부모와 함께 사는 아동보다는 외붓 부모와 사는 아동에게서 더 자주 나타났다. 이같은 현상은 특히 소녀와 외붓 어머니 사이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비록 극소수이긴 하나 소년과 외붓 어머니사이

* Ferri, E. 1984. Step Children : a national study. Windsor : NFER-Nelson.

에서도 발견 되었다. 비록 의붓 가족에서 사는 아동이 정상가족에서 사는 아동보다 덜 만족스러운 관계를 형성한 것으로 나타나긴 했으나 전반적으로 볼때 소녀, 소년 모두 의붓 아버지와 만족스러운 관계를 형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래 가족이 부모의 죽음으로 인해 깨어졌을 때보다 이혼으로 인해 깨어졌을 때 나쁜 관계가 형성되기 쉽다는 점도 주목해 볼만한 문제이다. 사회 계층 역시 몇 가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상 가족과 의붓 가족간의 차이는 노동 계층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그러나 의붓 가족에서 사는 아동이 함께 살고 있는 친 부모와 관계가 나쁘다는 증거는 없었다. 반대로 친아버지와 함께 사는 아동은 아버지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일반적으로 의붓 아동들은 대부분의 경우 다른 아동들과 거의 차이가 없었다. 교사들은 그들이 친구들과 사이가 좋으며 학업 성취도 검사 역시 다른 16세 아동들과 차이가 없다고 말하였다. 이와는 달리, 정상 가족의 부모보다 의붓 가족의 부모들이 자신의 자녀에게 문제행동이 있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것은 부모 자신의 태도나 인식을 반영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왜냐하면 교사의 보고에서는 이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경향은 사별한 부모보다는 이혼한 부모인 경우에 더 자주 나타났다. 이처럼 조사된 모든 영역에서 의붓 아동과 다른 아동 사이에 다양한 차이점들이 발견되었다. 이런 차이는 매우 중요한 것이지만 이로 인해 발달적 차이를 보이는 아이는 거의 없었다.

연구2 : 새로 형성된 가족 : 재혼 후 부모와 자녀의 경험*

여기서도 역시 대규모의 조사가 실시되었다. 즉 1976년에 미국에서 처음 실시된 전국적 범위의 조사에서 정보를 수집하였다. 연구 대상은 7세에서 11세사이의 아동 2,279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5년후 이혼가족의 자녀와 정상가족의 자녀 모두가 다시 조사되었다. 자료수집을 위하여 아동과 부모를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하였으며 교사에게는 우편 설문지를 발송하였다.

두번째 조사에서 의붓 가족의 자녀들에게 가족 생활의 다양한 측면(친밀성, 긴장, 나눠주기 등)에 대하여 평가해보라고 했을 때 많은 아동들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그러나 핵가족의 아동들이 내린 평가보다는 좋지 않았다. 그러나 이런 차이는 주로 의붓 어머니 가족의 자녀들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즉 의붓 어머니를 둔 아동이 더 나쁜 평가를 내린 반면, 의붓 아버지를 둔 아동들은 두 친부모와 함께 사는 아동들이 내린 평가와 거의 비슷한 평가를 내렸다. 이는 부모들이 내린 평가에 의해서도 입증되었다. 다시 말해서 정상 가족의 부모가 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그러나 그 차이는 매우 적었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의붓 부모 중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가족 생활에 대하여 비교적 낙관적으로 평가하였다. 덧붙여 가족의 일상 생활이나 실제 생활(게임이나 운동, 장보기, 영화 보러가기 등을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는 양과 같은 것)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의붓 가족은 정상 가족에 비해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면담에서 대부분의 부모들은 의붓-부모 역할을 하는데 몇 가지

* Furstenberg, F. F. 1987. The new extended family : the experience of parents and children after remarriage. In K. Pasley and M. Ihinger-Tallman (eds), Remarriage and Stepparenting. New York : Guildford.

어려움이 있었다고 고백하였다. 특히 자녀에게 사랑과 애정을 주고 훈육하는 것이 어렵다고 고백하였다. 아동 역시 면담에서 이같은 언급을 한 바 있는데 즉, 외붓 부모가 친 부모보다 덜 가깝다고 말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붓 가족의 부모 자녀 중 다수가 매우 긍정적인 관계를 맺었으며 대부분의 아동들이 온화하고 상냥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동과 외붓 어머니 사이의 관계가 아동과 외붓 아버지와의 관계보다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사실이다. 아동이 친아버지와 정기적으로 계속 만날 때는 외붓 아버지와 애착이 형성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와는 달리 두 어머니와 동시에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으로 밝혀졌다.

저자들은 조사를 통해 얻어진 복합적인 사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론짓고 있다: 아동은 외붓 부모와 관계를 형성할 때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치곤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충분한 시간만 주어진다면 비교적 긴밀한 유대관계를 확립할 수 있으며 특히 외붓 아버지와는 더 쉽게 관계를 맺는다. 그러나 사춘기에는 대부분의 아동들이 외붓 부모와의 관계에서 여러가지 문제를 경험하곤 한다.

연구3: 외붓 가족에서의 부모-자녀 관계*

이 조사는 훨씬 더 제안된 수의 외붓 부모 가족을 대상으로 하여, 외붓 부모 가족이 대인 관계에 어떤 기능을 하는지에 대해 더욱 자세히 살펴 보고자 하였다. 이해하기 쉬운 청사진을 제공하기 위하여 각 가족의 모든 구성원으로 부터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다양한 측정 기법을 사용하였다.

참여한 가족의 수는 모두 69개 가족이다. 26개 가족은 외붓 아

* Santrock, J. W., Sitterle, K. A, and Warshak, R. A. 1988 : Parent-child relationships in stepfather families. In P. Bronstein and C. P. Cowan (eds), Contemporary Fathers. New York : Wiley.

버지 가족이고(이 보고서는 주로 이 가족에게 관심이 있다) 18개 가족은 의붓 어머니 가족이며 25개 가족은 이혼하지 않은 비교적 단 가족이다. 이들 모두는 텍사스에서 사는 백인 중류층 가족이며 아동의 나이는 7세에서 11세 사이였다. 의붓 가족은 적어도 1년 이상, 평균 3년을 함께 생활한 가족이었다. 의붓 부모 뿐 아니라 친 부모 모두를 대상으로 면담과 질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아동에게는 면담과 함께 여러 가지 필답 검사를 실시하였다. 뿐만 아니라 아동과 각 부모간의 상호 작용 아동과 의붓 부모와의 상호 작용 아동과 친구들과의 상호 작용 등에 관한 관찰 자료도 수집하였다.

수집된 상당량의 자료 중에서 다음과 같은 결과들이 특히 흥미로웠다. 의붓 아버지들 중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하여 의붓 자녀의 양육이나 보호에 참여하고 있다고 평가하였으며, 대부분의 의붓 자녀들은 자신의 의붓 아버지에 대하여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생활에 대하여 의붓 가족과 정상 가족의 구성원이 내린 평가에는 거의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많은 의붓 아버지들이 부모 역할을 하는데 한두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고백하였다. 특히 현재의 문제를 다루는 면에서 어려움을 느낀다고 말하였다. 전반적으로 볼때 함께 사는 친 부모와 자녀가 어떤 관계를 형성하는가 하는 문제는 정상 가족과 재혼 가족간에 전혀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와는 달리 아동이 그들의 친 아버지와 의붓 아버지에 대하여 느끼는 감정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었다. 즉 아동들은 의붓 아버지가 친 아버지보다 덜 가깝다고 평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붓 가족의 아동 중 대부분이 정상적으로 발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신체적, 인지적, 사회적 기능에 대하여 측정해본 결과 의붓 가족의 자녀들은 친 부모와 사는 아동과 비슷한 결과를 얻었다. 또한 교사들은 의붓 가족의 아이들이 정상 가족의 아이들처럼 과제 수행을 잘하고 친구에게 인정받는다고 하였다.

이것은 놀이 집단에서 아동의 행동을 직접 관찰해 봄으로써 분명해졌다. 즉 행동 문제상 아무런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반면에 의붓 자녀들이 정상 가족의 자녀보다 자신에 대해 더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이 의붓 자녀라는 자신의 위치 혹은 이혼 가족에서 이전에 겪은 경험 등과 관련된 것인지는 알수 없다.

이 연구에서 얻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어머니들은 자신의 재혼이 아동과 자신간의 관계에 긍정적이고 안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생각한다는 점이다. 이는 아마도 아동을 맡아 기르는 부모로써 아동과의 관계에서 생기는 파충한 문제들을 짊어져야 했던 편부모 시기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의붓 아버지들이 어머니의 정신 상태를 안정시킴으로써 아동의 적응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다.

연구4 : 의붓 어머니 가족에서의 부모-자녀 관계*

이 보고서는 앞에서 요약한 연구에서 실시된 조사를 바탕으로 하여 쓰여진 것이다. 앞 연구에서는 의붓 아버지를 주로 다룬 반면 여기서는 주로 의붓 어머니를 다룰 것이다.—이혼한 후 아버지가 아동의 보호를 맡는 경우는 아주 희박하므로 이는 전자보다 훨씬 드문 형태이다— 18개의 의붓 어머니 가족이 Santrock과 그의 동료들에 의해 조사되었다. 사용된 방법은 앞에서 기술한 것과 같다. 그 결과 의붓 어머니가 의붓 자녀와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아동들은 새 어머니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으며 새 어머니를 덜 애정적이고 덜 지지적이라고 보는 경향이 있었다. 따라서 의붓 어머니들이

* Santrock, J. W. and Sitterle, K. A. 1987 : Parent-child relationships in stepmother families. In K. Pasley and M. Ihinger-Tallman (eds), Remarriage and Stepparenting. New York : Guilford.

자신과 의붓 자녀와의 관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한 것은 그리 놀랄만한 일이 아니다 : 그들은 자신들이 친 어머니보다 아이들과 덜 가깝다고 생각하였다. 전체적으로 볼때 의붓 어머니들은 의붓 아들보다는 의붓 딸에게 부모 역할을 하는데 더 자신있어 보였는데 이는 소년보다 소녀의 도덕 훈련에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였다는 것에서 알 수 있었다. 아동에게 안정감을 주는 주요 근원은 의심할 필요도 없이 ‘아버지’이다. 아버지는 의붓 어머니보다 더 가까운 대상이다.—이는 의붓 아버지 가족일 때 아동이 어머니와 더 가까웠던 것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헤어져 사는 친 부모(어머니이건 아버지이건 간에)와 계속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아동이 이혼과 재혼을 경험할 때 많은 도움을 주었다.

여러가지 다른 요인들이 적응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아동들은 친 아버지가 아동을 데리고 재혼한 의붓 어머니 가족에서 가장 잘 적응하였다 : 만약 아동이 새 의붓 형제와 적응해야 한다면 적응하는데 훨씬 더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재혼한 아버지와 의붓 어머니 사이에서 새 아기가 태어났을 때 역시 적응에 방해를 받곤했다. 이때 생기는 질투심은 이전에 경험한 스트레스나 불균형에 의해 형성된 불안정감으로 인하여 더욱 커진다. 이는 의붓 어머니와 의붓 자녀간에 관계가 발전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일반적으로 부부 중 누구의 자녀인가와는 상관없이 함께 사는 자녀의 수는 아동의 적응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의 하나이다. 즉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재혼으로 인한 갈등이 증가될 가능성이 높다.

연구5 : 이혼이 부모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연구6 : 부모, 아동 그리고 형제들 : 이혼후 6년**

이 두 보고서는 같은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쓴 것이므로 여기서는 두 보고서를 함께 다루기로 하겠다. 이 연구는 이론에 관해 논의할 때 이미 언급한 바 있다. 종단적 방법으로 실시된 이 연구는 이혼 그 자체의 결과에 대하여 조명해 보았을 뿐 아니라 재혼이 성인이나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알아 보았다. 이혼한지 6년이 지난 후 여성의 70% 남성의 80%가 재혼을 하였다. 이 두 보고서는 이같은 가족 구조상의 변화가 부모나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요약해 놓고 있다.

Santrock의 연구에서 처럼 부모들은 재혼이 그들 자신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말하였다.—이 영향은 그들 자신뿐아니라 그들의 자녀에게 까지도 간접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하였다. 외로움, 불안감, 경제적 문제 등이 모두 감소하였으며 행복감이 증가하였다. 물론 이러한 영향은 그들이 새 배우자와 어떠한 관계를 확립하였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 특히 아들을 둔 어머니가 재혼하였을 경우에는 어머니와 의붓 아버지가 따뜻하고 지지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또한 이혼후 (심지어는 6년후까지도)에도 아동이 친 아버지와 계속 관계를 유지하는 것 역시 아동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
- * Hetherington, E. M., Cox, M. and Cox, R. 1982 : Effects of divorce on parents and children. In M. E. Lamb (ed.), *Nontraditional Families*. Hillsdale, New Jersey : Erlbaum.
 - ** Hetherington, E. M. 1988 : Parents, children and siblings : six years after divorce. In R. A. Hinde and J. Stevenson-Hinde (eds), *Relationships Within Families : mutual influences*. Oxford : Clarendon Press.
-

면담과 관찰이 실시된 결과 의붓 아버지와 의붓 자녀 사이의 관계는 친 부모와 친 자녀사이의 관계에 비해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의붓 아버지 중 많은 사람들이 두 가지 극단적인 부류중의 하나에 속하는 경향이 있었다: 즉, 의붓 자녀와 매우 친하게 지내는 (더 제한된 방식이긴 하지만) 부류가 있고 정서적으로 '유리되어 있는' 부류가 있다. 후자는 애정이 없고 거리감이 있거나 자녀를 양육하는데 어머니를 전혀 도와주지 않는 사람들을 말한다. 이같은 현상은 아동의 태도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재혼 초기에 많은 아동들이 의붓 아버지를 경쟁자나 침입자로 보기 때문이다. 특히 소녀는 의붓 아버지의 노력과는 상관없이 그를 거부하고 적대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년의 경우 이런 상황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느 정도 향상을 보였다. 어린 소년 중에는 의붓 아버지와 강한 애착관계나 따뜻하고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소년도 있었다. 아동이 9-10세가 된 후에 재혼한 경우에는 수용관계나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기가 더 힘들었다. 이와는 달리 재혼한지 오래된 가족일 경우에는 의붓 아버지와 매우 가까운 관계를 맺은 소년들이 많았다. 이들은 아버지와 사귀는 것을 좋아하고 아버지의 조언이나 지지를 받고 싶어했다. 그러나 소녀의 경우에는 관계가 아주 나빴다. 의붓 딸은 의붓 아버지를 무섭고 체벌을 많이 가하고 비이성적인 사람이라고 보았다. 반대로 의붓 아버지는 점점 딸의 문제 행동을 참을 수 없게 되어 친 아버지가 딸을 보는 것보다 훨씬 부정적인 시각으로 의붓 딸을 보게된다.

이 연구에서도 역시 의붓 가족의 구성이 아동의 적응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의붓 아버지가 아동을 이전 가족에서 새 가족으로 데리고 왔을 때 더 많은 문제가 발생했다. 또한 새로 구성된 가족이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더 큰 어려움을 겪었다. 따라

서 가족 구성이 여러 관계로 얽혀 있고 새로 적응해야 할 부분이 많은 가족에서는 아동 양육 문제에 대한 부부간의 갈등이나 불일치가 일어나기 쉬웠다.

해석

전반적으로 볼 때 새로운 관계에 대하여 실시된 연구들은 여전히 한계가 많다. 특히 가정이 아닌 위탁 가정이나 위탁 시설에서 오랜 기간 동안 새부모의 보호를 받은 아동에 대한 연구들은 더욱 한계가 많다. 이같은 장소 특히 위탁 가정과 관련된 요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려져 있다. 그러나 새 부모와 관계가 형성되고 유지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다. 의붓 부모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더 많은 연구가 실시되어왔다. 왜냐하면 재혼율이 증가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의문점들이 훨씬 더 시급히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체계적으로 실시된 연구의 수는 여전히 제한된 상태이므로 그와 같은 어설픈 연구를 기초로 하여 일반화를 도출해내는 것은 삼가해야 할 것이다.

이는 이 분야에서 실시된 초기 연구 중 대부분이(여기서 논의된 대부분의 연구들처럼) 매우 부적절한 방법을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볼때 특히 중요한 문제라 하겠다. 따라서 의붓 부모 관계에 대한 주의를 이끌어내는 데는 유용할 지 모르지만 소수의 비정상적인 사례에 의존함으로써 매우 잘못된 생각을 갖게할 수도 있다. 최근에 실시된 연구들은 훨씬 정교한 방법을 쓰고 있다. 예를 들면, 최근에 실시된 연구들은 비교 집단으로 비이혼 가족을 포함시켰다. 이로 인하여 ‘사춘기 소년 중에 의붓 아버지와 어려움을 겪은 아이가 많다’는 주장은 만약 전체 아동 중에서도 사춘기 소년들이 비슷한 정도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게된다. 연구 방법 중에 또 다른 중요한 사항이 있다면 단지 자기 보고에만 의존해서

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 방법이 유용할 때도 있으나, 어떤 한 가지 방법이 완벽한 정보를 제공할 수는 없으므로 면담이나 설문에 덧붙여 관찰, 검사, 교사의 평가와 같은 여러가지 객관적 방법을 사용하여 평가하는 것이 좋다. 또한 최근 연구들은 각 피험자들의 가족 구성원들을 조사하였다. 단지 한 사람만을 조사해서 얻어낸 결과는 기껏해야 부분적인 정보를 제공할 뿐이다. 따라서 모든 가족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반드시 고려해야 할 또 다른 특징은 종단적 접근의 채택이다. 이혼의 영향에 대하여 논의하였을 때 알 수 있었던 것처럼 단지 한 시점에서 가족을 조사하는 것은 그들이 다른 시점에서 보이는 반응에 대해서는 전혀 말해주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의붓 관계는 계속 발전해 나가는 것이며 자리잡기까지 많은 단계를 거쳐야 하는 관계이다.

이상과 같이 최근 연구에 나타난 방법론상의 진보는 연구 결과에 대하여 더욱 신뢰하게 한다. 하지만 한 가지 특정한 결과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이 매우 많다는 점에서 볼 때 일반화는 여전히 위험한 것이다. 연구 결과는 의붓 자녀의 성별, 의붓 부모의 성별, 새 가족 구조의 복잡성과 전체 구성원수, 헤어진 친부모와의 접촉 여부, 가족이 함께 생활한 시간의 양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느 특정한 표집에서 나온 결과를 일반화하는 것 역시 위험한 일이다. 예를 들어 Santrock과 그의 동료들은 텍사스에 살고 있는 미국의 백인 중류층 가족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였는데, 여기에는 이혼과 재혼 그리고 가족의 기능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문화적 요인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를 다른 전집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한다.

그러한 한 가지 의미있는 것은 여러 조사에서 나온 결과들이 거의 일치된 결과를 보였다는 점이다. 이들은 방금 언급한 여러 변인

들의 영향을 지적하고 있을 뿐 아니라 아동들이 더 적응하기 쉬운 조건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또한 이 연구들은 의붓 관계에 대한 부정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긍정적인 특징에 주목하도록 하였다. 이점에 대하여 설명하기 위하여 우리가 반드시 비교해 보아야 할 것은 우선 이혼한 편부모 가족과 비교해 보아야 하며, 그 다음으로 는 이혼하지 않았으나 갈등에 휩싸인 가족과 비교해 보아야 한다. 현재 이러한 두 가지 대안적인 상황에서의 생활보다 의붓 가족에서의 생활이 대부분의 아동에게 더 좋다는 증거들이 많이 있다.

실제를 위한 시사점

아동이 후기 아동기에 부모와 애착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입양에 대한 논의에서 이미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이전에 정서적 유대 관계를 형성할 기회가 전혀 없었던 아동에게서 나온 것이었다 : 여기서 우리가 관심있는 것은 부모와 본래 맺었던 유대 관계가 끊어진 후 (적어도 느슨해졌거나) 대리 부모에 의해 양육된 아동들이다. 이들은 본래 가족의 붕괴, 그리고 편부모 가정에서의 생활과 관련된 모든 문제들을 경험하였다. 따라서 이들은 새 관계로 인해 상처받지 않을 수 없으며 이런 경험으로 인해 새 관계를 형성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분명한 것은 아동이 적절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적당한 조건만 주어진다면 이들은 친밀하고 만족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물론 이런 생각이 맞지 않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요인을 찾아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는 것이다.

의붓 어머니 노릇을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도움과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 친부모와는 달리 이들은 아동과 함께 생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해 학습할 기회가 전혀 없었다. 아동은 이미 반정도는 형성된 상태이기 때문에 부모 기술이 특히 더

요구된다. 또한 모든 의붓 부모들은 역할 갈등을 해결해야만 한다. 다시 말해서 새로 온 사람과 ‘진짜’ 부모가 되는 것 사이의 갈등을 해결해야만 한다: 얼마나 가깝게 지내야 할 것인가? 얼마나 많은 애정을 보일 것인가? 자녀의 양육에 어느 정도 관여할 것인가? 이 모든 질문은 친부모에게는 전혀 문제되지 않으나 의붓 부모에게는 해결하기 힘들고 결정내리기 어려운 문제들이다. 이런 경우에는 상담이나 가족 치료를 받는 것이 무척 도움이 된다. 어려움은 의붓 자녀에게도 역시 있다. 특히 함께 사는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 하던 편부모 가족에서 살다가 갑자기 의붓 가족의 구성원이 된 경우에는 더욱 심하다. 다른 사람들과 부모의 애정을 나눠 가져야 한다는 사실은 상당한 재적응을 요구하는 일이다.

일반적으로 볼 때 의붓 가족과 관련된 연구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낙관론을 주장한다. 의붓 가족의 아동이 정상 가족의 아동보다 대인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긴하지만 이것은 과거나 현재의 환경에 의해 상처받은 소수의 아동에게만 적용될 뿐이다. 일반적으로 볼 때 의붓 관계와 관련된 징후는 그리 나쁘지 않은 것이 분명하다: 대부분의 의붓 부모들은 의붓 자녀의 사랑이나 애정을 얻으려고 노력하며 그러는 동안 의붓 자녀들은 새 부모와 진실한 애착을 발달시키게 된다. 이것은 다시 재혼한 부모의 심리 상태를 향상시켜 아동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아동에게 미칠 영향을 염려한 나머지 재혼하는 것을 고려조차 하지 않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는 일이다.

많은 아동들이 적응하는데 성공하는 반면 몇몇 아동은 그렇지 못하다. 그동안 실시된 연구들은 아동이 적응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몇 가지 정보를 제공해 줌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이에 대하여 조심하게 해준다. 또한 어떤 요인들이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주며 가장 상처받기 쉬운 아동은 누구인지에 대한 정보를 준다—예를 들

어 본래 가족이 이혼으로 인하여 붕괴된 후 헤어져 사는 부모와 더 이상 접촉하지 않는 의붓 가족의 10대들(특히 소녀)이 이에 속한다. 일반적으로 소녀들은 소년들보다 새 가족에 적응하는데 더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유사하게 의붓 어머니와의 관계는 의붓 아버지와의 관계보다 더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많은 부분이 아동과 친 부모간의 관계를 유지시켜 주고자 하는 의붓 부모의 의지에 달려있다. 아동들이 친부모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안정감을 얻는 주요한 근원이므로 이런 감정을 지지해 주는 새 부모의 의지가 매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 같다. 또한 의붓 부모는 많은 인내를 감수해야 한다. 왜냐하면 새 가정을 이룬 초기에는 의심, 비행, 양심들이 생기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이다. 새로운 애정 관계는 즉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천천히 그리고 매우 주저하면서 형성되어 가는 것이 보통이다. 너무 빨리 이루어지길 기대해서는 안된다. 새 의붓 부모들이 이 말을 빨리 깨달으면 빨리 깨달을수록 좋다.

아동이 헤어져 사는 친부모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의붓 가족과 더 잘 적응하게 한다는 연구 결과는 놀라운 것일지도 모르겠다. 아동이 부모에게 갖는 공경심을 양쪽 부모가 나누어 가져야 한다는 사실에 대한 염려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며 그동안 이런 염려 때문에 아동이 친부모와 접촉하지 못하게 해왔다. 그러나 친부모와 관계를 계속 갖음으로써 아동은 자신의 삶에서 양쪽 부모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구별할 수 있게 되는 것 같다. 두 어머니와 동시에 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아직 분명치 않다. 이는 확실히 상대방에 대한 호감에 달려 있으며 그들이 상대방에 대한 아동의 믿음을 해치지 않고 협동할 준비가 얼마나 되어 있는가에 달려있다. 그러나 이혼의 경우 성인들이 느끼는 질투심은 불행하게도 이해하고 적응하려는 아동의 노력을 방해하곤 한다. 이

에 대한 연구가 더 많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헤어진 친 부모와 깨끗이 헤어지는 것이 외붓 부모와 좋은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라는 증거는 전혀 없다. 또한 새로운 관계가 옛 관계를 필연적으로 파괴할 것이라는 증거도 역시 없다. 이와는 달리 헤어져 사는 친부모가 심지어는 새 배우자와 재혼한 후에도 아동과 정기적인 접촉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 데는 많은 이유가 있다. 부모가 세 명이라는 것이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하게 느껴질지 모르나 아동이 그같은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환경이 있는 것 같다.

몇 가지 점에서 외붓 부모에 대한 연구는 위탁부모와 같은 대리 부모에 대한 연구와 관련이 있는 것 같다. 다시 말해서 더 나이든 아이들과 소녀들은 새 양육자에게 신뢰감을 느끼기 어렵다는 점, 아이들이 부모를 신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 이전의 위협적인 경험이 영향을 미친다는 점, 대리인과 정서적 유대 관계를 발달시켰을 때조차도 헤어져 사는 부모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차이점 또한 무한히 많다. 즉 외붓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영구적인 반면 위탁 부모와 아동의 관계는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며 대부분의 경우 자기 가족으로 돌아가게 된다. 따라서 위탁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하여 같은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들의 관계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Ganong, L. H. and Coleman, M. 1984 : The effects of remarriage on children : a review of the empirical literature. *Family Relations*, 33, 389-406.

- Pasley, K. and Ihinger-Tallman, M. (eds) 1984 : Remarriage and step-parenting. *Special issue of Family Relations*, 33, no. 3.
- Spanier, G. B. and Furstenberg, F. F. 1987 : Remarriage and reconstituted families. In M. B. Sussman and S.K. Steinmetz (eds), *Handbook of Marriage and the Family*. New York : Plenum.

전통적인 핵가족이 아동의 정신적 건강을 위하여 필수적인가

문제제기

전통적 핵가족이 정신적으로 건강한 아동을 키우기 위하여 필수적이라는 생각은 아주 보편화된 믿음이다. 무엇보다도 ‘가족’이라는 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휘 중 가장 정서적인 단어 중의 하나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족’이라는 단어를 ‘좋은 것’ 즉 사랑, 애정, 따뜻함, 신뢰감, 안정, 안식처 등의 단어와 연결지어 생각한다. 또한 가족을 사회의 기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행, 폭력, 중독과 같은 병폐는 가족이 전통적인 가치체계나 행동 유형을 고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가족을 강화하는 것은 많은 사회복지 정책의 궁극적 목적이며 사회를 어지럽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인식해 왔다.

전통적 가족이란, 두 명의 부모로 이루어져 있을 뿐 아니라 부모들간에 역할이 명확히 분리되어 아버지는 가족 부양을 책임지고 어머니는 가사와 자녀 양육을 책임지는 가족을 말한다. 아동의 사회화에 대하여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의 대부분은 바로 이러한 전통적 가족에 기초한 것이다. 그러나 여러 나라에서 실시된 국가적 규모의 설문 결과를 보면 비전통적인 가족 구조에서 자라는 아동의 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비전통적인 가족 구조란 편부모 가족, 이혼 후 재혼하여 재구성된 가족, 어머니가 가정밖에서 직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아동 양육을 분담해야 하는 가족, 아동 양육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이 아버지에게 있는 가족, 가족들끼리 살지 않고 공동집단 생활을 하는 가족 등이 여기에 속한다. 정상에서 이탈된 가족은 매우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지만 적어도 이들 중 몇 가지는 최근 들어 훨씬 보편화 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런 가족 형태들은 여전히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처럼 관습에서 이탈되는 것이 아동에게 해를 끼칠거라고 염려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아버지의 부재(편부모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는 아동의 성역할 발달, 특히 소년의 성역할 발달에 혼란을 준다고 알려져 왔다. 역설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이같은 현상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이 서로 뒤바뀌어 아버지가 1차 양육 책임자 역할을 해야하는 가족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다시 말해서, 이런 가족 형태 역시 여성다움이나 남성다움에 대한 아동의 생각에 혼란을 줄 것이라고 염려하는 경향이 있다. 뿐만 아니라, 앞에서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직업모가 매일 집을 비우는 것이 아동의 안정성이나 적응에 영향을 줄지도 모른다는 의문도 제시되어 왔다. 어머니 역할을 여러 명이 함께 하는 형태는 이것이 아동의 초기 사회 관계에 좋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여겨져 왔기 때문에 오랫동안 인정받지 못했다.

지금까지, 정상에서 이탈된 여러 형태에 대하여 살펴보았으며 그것이 아동의 발달에 갖는 의미에 대해서도 고려해 보았다. 또 앞에서 제시된 여러 가지 염려되는 사항을 정당화 하는 것에 대하여 확신을 가질수 있을 만큼 충분히 알아보았다. 여기서는 다양한 형태의 비전통적 가족에서 자라난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던 연구중 몇 가지를 살펴보고 이들이 전통적인 핵가족에서 자라난 아동과 어떻게 비교될 수 있는지를 알아 보는데 초점을 맞출 것이다.

연구 결과

요약

연구1 : 전통적 가족과 그외 기타 가족들사이에서 일어나는 사회화 과정의 비교*

이 연구는 네 가지 다른 배경을 가진 200명의 아동을 조사하였다 : (1) 홀어머니 가족 출신의 자녀 50명, 여기에는 결혼하지 않고 임신한 미혼모 집단이 포함된다. (2) '사회적인 계약'을 맺은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 50명, 여기에는 함께 살고는 있으나 한 두가지 이유 때문에 결혼하지 않은 채 살기로 결정한 부모의 자녀들이 포함된다. (3) 비슷한 의식구조를 가진 사람들끼리 생활을 공유하기 위하여 함께 모여사는 공동 생활 집단에 속하는 가족의 자녀 50명 (4) 전통적인 양부모(two-parent) 핵가족의 자녀 50명, 연구 대상은 모두 California에서 사는 중류층 백인 아동들이었으며 어머니가 임신했을 때부터 시작하여 계속 추후 조사되었다.

자료는 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한 면담과 설문, 가정 관찰, 표준화된 검사, 실험 상황 등 다양한 기법에 의해 수집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아동의 발달과 사회화가 가족 생활 유형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분석되었다. 그리고 가족 유형에 따라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다. 본 연구 보고서는 가족 유형이 아동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아동이 3세가 될때까지 실시하였다.

* Eiduson, B. T., Kornfein, M., Zimmerman, I. L. and Weisner, T. S. 1982 : Comparative socialization practices in traditional and alternative families. In M. Lamb (ed.), Non-Traditional Families : Parenting and Child Development. Hillsdale, New Jersey : Erlbaum.

출생시 생물학적, 산부인과적 측면에서 네 집단간에 차이가 없었으므로 출발점은 비슷했다고 할 수 있다. 생후 6개월경에 실시한 애정적 행동과 사회적 행동 유형 역시 차이가 없었다. 8개월과 12개월에 Baley 지능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든 집단 아동이 정상 범주에 속하였다. 아동이 엄마와 맺은 애착 관계에 초점을 맞추기 위하여 고안된 ‘낯선 상황(Strange Situation)’을 1세경에 실시한 결과 아주 사소한 차이를 제외하고는 모든 집단의 아동이 ‘안정된’ 것으로 분류되었다. 아동의 발달 과정에 대하여 12개월과 2년경에 부모가 작성한 기록에서도 네 집단간에 차이가 없었다. 이런 결과는 3세경에 실시한 지능 검사와 어휘 검사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아동의 창의성 사회적 성숙도에 대한 측정치에서도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대체 가족 유형 중 몇 가지에 대한 반 권위주의자들의 자세 때문에 아동의 공격성, 협동이나 좌절에 대한 인내심의 결여 등에 대하여 특별히 자세히 조사해 보았다. 여기서도 역시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3년에 걸쳐 실시된 모든 검사에서 나타난 사회적, 지적, 정서적 능력 점수를 요약해 보았을 때에도 역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연구는 계속되고 있으며 더 나이는 아동에 대한 보고도 곧 나올 것이다. 그러나 3세에 한해서 볼때 가족에서 채택한 생활유형이 이들 가족의 자녀의 능력이나 행동 유형에 체계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다.

연구2 : 1차 양육의 책임자인 동시에 자녀양육 역할을 분담하는 아버지*

비전통적인 가족 유형중 하나는 남편과 아내의 역할이 서로 뒤바뀐 형태 즉, 남편은 집에 남아서 집안 일이나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을 지고 아내는 일하러 나가서 생활비를 벌어 오는 가족이다. 그런 환경하에서 아동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특히 전통적으로 여성 역할이라고 규정되어 온 일을 아버지가 하는 것이 아동의 성 역할 발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 연구는 이런 질문에 대한 해답을 구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그리고 이런 가족 생활 형태를 취하게 하는 여성과 남성의 인성적 특성과 사회화 경험에 대해서도 알아볼 것이다. 연구 대상은 3세에서 6세 사이의 아동을 둔 59개의 미국 중류층 가족으로 구성되었다. 이들은 특정한 자녀 양육 활동에 대한 어머니와 아버지의 책임에 대하여 묻는 상세한 질문에 대한 부모의 대답에 근거하여 세 집단으로 나뉘었다 : 한 집단은 아버지가 양육 책임자인 집단이고 다른 한 집단은 어머니가 양육 책임자인 집단이며 나머지 하나는 중간 집단이다. 아버지가 자녀의 양육을 도맡은 시간의 비율은 각각 58%, 22%, 40%였다. 아버지의 참여 정도는 아동에게 실시된 검사에서 얻은 여러 측정치들을 바탕으로 하여 분석되었다.

주요한 결과는 아동의 성 지향성 발달에 대한 것이었다. 특히 남성성, 여성성에 대한 아동의 인식은 아버지가 자녀의 양육에 참여하는 정도에 전혀 영향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는 아버지의 성역할 지향성을 측정하였을 때 자녀 양육에 매우 많이

* Radin, N. 1982 : Primary caregiving and role-sharing fathers. In M. Lamb (ed.), Non-Traditional Families : Parenting and Child Development. Hillsdale, New Jersey : Erlbaum.

참여한 집단의 아버지가 다른 집단의 아버지만큼 남성적인 것으로 밝혀졌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그리 놀랄만한 일은 아니다. 아동이 자신의 아버지가 하는 것을 본적이 있는 활동(예를 들어 요리, 설 것이, 빨래 등)은 아버지의 인성적 특성(자기 주장성, 격렬함 등)보다 훨씬 덜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도 자녀 양육에 많이 참여한 집단의 자녀들이 자신의 아버지를 다른 집단보다 훨씬 남성적이라고 평가하였다—이는 아마도 항상 곁에 있는 아버지가 집에 거의 있지 않은 아버지보다 아이들에게 ‘남성스럽다’는 인상을 심어 줄 기회가 많기 때문인 것 같다. 또 다른 중요한 발견은 많이 참여하는 집단의 자녀들이 언어형 지능 검사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점인데 이는 아마도 이 집단의 아버지가 다른 집단의 아버지보다 자녀의 인지 성장을 자극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때문인 것 같다. 이런 현상은 몇 가지 이유 때문에 특히 딸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따라서 아버지의 뒤바뀐 역할은 자녀의 성 정체감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지적발달면에서는 몇 가지 좋은 영향을 주기까지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저자의 조심스러운 결론을 인용해 보겠다. ‘전반적으로 볼 때 다른 유형의 가족이 이같은 대체 가족 유형을 고려해 보는 것을 막을 만한 증거는 전혀 없었다’.

연구3 : 아버지가 아동 양육에 참여하는 정도에 따른 효과*

이 연구는 앞에서 요약된 연구와 동일한 문제, 즉 아동 보호에 1차적 책임을 수행하고 있는 아버지들의 자녀들에 대한 문제를 다룬

* Sagi, A. 1982 :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of various degrees of paternal involvement in child rearing : the Israeli project. In M. Lamb (ed.), Non-Traditional Families : Parenting and Child Development. Hillsdale, New Jersey : Erlbaum.

다. 그러나 이 연구는 다른 종류의 표집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어느 정도 다른 측정 기술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인용할만한 가치가 있다. 연구 대상은 이스라엘의 도시 중산층에 속하는 60개 가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버지가 1차 양육 책임자인 가족들이다. Radin이 미국인 가족을 대상으로 아버지가 가족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알아내기 위해 고안한 설문지와 동일한 설문지를 사용하여 20가족씩 세 집단으로 나누었다. 세 집단이란 참여율이 높은 집단, 중간 집단, 참여율이 낮은 집단을 말한다. 각 가족에 속하는 3세부터 6세 사이의 아동을 대상으로 심리 영역에 대한 다양한 측정이 실시되었다.

Radin의 연구 결과 즉, 전통적으로 어머니 역할이라고 인식되어 온 일들을 아버지가 하는 것이 아동의 성역할 지향성 발달에 나쁜 영향을 준다는 근거를 찾지 못하였다. 참여율이 높은 집단일 경우 아동의 성역할 발달은 다른 두 집단에서처럼 정상적으로 발달되어 갔다. 이는, 소년은 남성 지향적 행동을 두드러지게 보이고 소녀는 여성 지향적인 행동을 두드러지게 보이는 것에서 알수 있었다. 그러나 아버지가 1차 양육 책임을 지는 집단의 딸들은 다른 집단의 딸들보다 남성적 특징을 보이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아 아버지의 참여율에 의해 영향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참여율이 높은 아버지는 딸의 여성성을 자극하지 못하고 대신에 그들의 성역할에 남성성을 더해주기 때문이라고 해석된다. 물론 항상 아버지가 곁에 있는 아들은 그를 모방하기 더 쉬우며 자기 아버지에게 대하여 다른 관점을 가지기 쉽다. 즉 그들은 아버지와 자주 접촉하지 못하는 아동에 비해 아버지를 더 우세하고 강력하고 따뜻하다고 평가하였다. 참여율이 높은 아버지는 그들 자녀에게 더 많은 압력을 가한다는 결과도 있었다. 즉, 참여율이 높은 아버지는 자녀들이 더 독립적이고 더 성취 지향적이기를 기대하며 다른 아버지보다 더 많은 지적

자극을 제공하고자 한다.

저자는 연구 결과를 통해 비전통적인 역할을 채택할 준비가 되어 있는 아버지는 자녀의 발달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좋은 입지에 있다고 말하였다.

연구4 : 초기 아동기의 적응과 능력 : 공동으로 양육된 키부츠 아동과 도시 가정에서 양육된 아동간의 비교*

이스라엘의 키부츠 제도는 또 하나의 비 전통적인 가족 형태를 관찰할 수 있게 해준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아동들이 보통 가족에서 경험하는 일상 경험을 사회화 기관에서 하거나 혹은 대치되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키부츠의 아동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두 가지 병행되는 체계를 경험하게 된다. 그 중 하나는 적은 시간만을 보내는 가족이며 또 다른 하나는 직업적인 보모(metapelet)에 의해 다른 아동과 함께 양육되는 아동의 집이다. 따라서 그들 사회화의 중요한 부분은 부모보다는 다른 누군가에게 책임이 위임되며 공동모(multiple mothering)는 아동기 전반에 걸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연구에서는 44명의 키부츠 아동 집단을 42명의 가정에서 자란 아동 집단과 비교하였다. 이들의 나이는 3세 정도였다. 두 집단의 부모는 연령, 교육 수준, 인종등 에서 비슷한 사람들이었다. 가정에서 양육된 아동들은 모두 유치원에 다니고 있었다. 조사된 내용은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대한 아동의 애착 정도 일상 생활을 수행하는데 얼마나 독립적인가 낯선 상황에 적응하는 능력 낯선 사람에 대한 반응과 이들과 협동할수 있는 능력 문제 해결 동안 보이는 행동 발달적 장애의 정도 등이다.

* Levy-Shiff, R. 1983 : Adaptation and competence in early childhood : communally raised kibbutz children versus family raised children in the city. Child Development, 54, 1606-14.

그 결과 키부츠 아동—어머니간의 상호 작용이 적은 것이 아동의 발달에 해를 줄 것이라는 기대는 입증되지 못하였다. 또한 이런 종류의 양육 형태가 아동들을 더 능력있게 만든다는 증거도 없었다. 몇 가지 측면에서는 두 집단간에 차이가 있었으나 대부분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모(metapelet)의 두드러진 역할에도 불구하고 키부츠 아동들은 전통적인 가족의 아동처럼 그들의 부모와 강하게 애착되어 있었다. 또한 일반적인 발달 상태나 행동 적응면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유치원에서 보이는 능력면에서도 전혀 차이가 없었다. 키부츠 아동들은 독립심이나 자기 신뢰에서 어느 정도 앞선 것으로 나타났으나 구조화된 문제 해결에서는 뒤떨어졌으며 낯선 성인에게도 덜 반응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어떤 능력면에서는 전통적 가족 체제가 유리하고 어떤 능력면에서는 키부츠 체제가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두 가지 아동 양육 체계 중 어느 것이 더 좋다고 말할 수는 없다. 어쨌거나 아동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는 차이점보다 유사한 점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연구5 : 동 아프리카 스코틀랜드 북부의 중와 유아 보호에 의한 애정적, 인지적 영향*

한 문화에서는 관습적인 것이 다른 문화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가족이 한 두가지 면에서 다른 기능을 하는 사회에서 사는 아동들을 서부 표준과 비교하여 보는 것도 매우 의미있는 작업이다. 그러나 이들을 서부 가족과 직접 비교하는 것은 오류를 가

* Leiderman, P. H. and Leiderman, G. F. 1974 : Affective and cognitive consequences of polymatric infant care in the East African Highlands. In A. D. Pick (ed.), Minnesota Symposia on Child Psychology, Vol. 8. Minneapolis :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저울 위험이 있다. 왜냐하면 너무도 많은 차이점들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같은 문화권내에서 여러 가족들을 비교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히 유용하다 하겠다. 연구의 주된 목적은 이스라엘 키부츠 체제를 다룰 때와 마찬가지로 어머니가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을 혼자 떠맡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때 일어나는 결과들을 알아보는데 있다.

조사는 Kenya의 Kikuyu 마을에서 실시되었다. 이 사회에서는 몇몇 아기들은 주로 어머니에 의해 양육되는 반면, 다른 아기들은 두 명의 일차적 보호자(주로 어머니와 더 나이든 소녀 즉, 언니)에 의해 양육되고 있다. 후자의 경우 어머니들은 일을 하기 위하여 아동 양육에 대한 책임을 점차 축소시켜 나가므로 생후 5개월경이 되면 하루의 절반 정도를 대리 보호자가 보살피게 된다. 신체와 관련된 일상 생활의 대부분은 어머니의 책임인 반면 사회적 자극은 주로 더 나이든 소녀가 주게 된다.

이 연구에 참가한 67개 가족을 대상으로 상세하고도 폭넓은 인류학적 관찰이 실시되었다. 특히 어머니역할을 어머니가 혼자하는 가족과 여러 명이 함께 하는 가족의 자녀 양육 실제에 초점을 맞추어 실시하였다. 또한 생후 6개월에서 1년 사이에는 아동의 사회적, 인지적 발달에 대한 측정이 실시되었다. 측정된 내용은 어머니나 다른 보호자(여러 명이 어머니 역할을 함께 하는 경우)가 사라지는 것에 대한 유아의 반응과 낯선 사람에게 보이는 반응, Baley 척도에서 얻은 점수 등이었다. 어머니에 대한 긍정적 행동과 어머니와 격리되었을 때 보이는 반응에서 알수 있듯이 비록 여러 보호자를 둔 아동이 어머니의 부재에 대해 더 강하게 반응을 보이긴 했으나 두 집단 모두 자신의 어머니와 분명히 애착이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생후 1년이 끝날 무렵이 되면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대리 보호자와도 애착을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

나 여러 명이 어머니 역할을 함께 하는 것은 아동의 인지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소득층 가족의 아동 일 경우 어머니가 어머니 역할을 혼자하는 가족의 자녀보다 여러 명이 함께 하는 가족의 자녀가 더 진보된 발달 수준을 보였다. 이처럼 대안적 보호자가 있다는 것이 아동의 검사수행을 향상시키는 것 같다. 이는 아마도 이들이 제공한 사회적 자극이 아동의 행동 목록을 넓히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인 것 같다.

해석

여러가지 비전통적 가족이 있으며 이중 몇 가지는 다른 주제와 관련하여 이미 언급한 바 있다. 비전통적 가족에는 편부모 가족, 외붓 가족, 동성 연애자 가족, 그리고 직업모의 가족 등이 있으며 이에 대하여 실시된 연구는 여기서 요약된 연구와 관련하여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들 모두를 일괄적으로 다루거나 이들이 아동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일반화해버리는 것에는 몇 가지 위험이 있다. 다행히도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연구들은 거의 비슷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즉, 전통적 가족 형태에서 이탈되는 것이 아동에게 반드시 해를 주는 것은 아니며 전통적 가족 형태가 심리적으로 건강한 인성을 발달시키는 데 필수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여러 종류의 비전통적 가족 형태와 관련된 문제 중 몇 가지는 어려움에 부딪치기도 한다. 편부모 가족에서 가난이 일어날 확률이 높다든지 직업모의 자녀들이 형편없는 대체 양육 시설에 위탁되기도 한다든지 하는 문제 등이 바로 여기에 속한다. 그러나 이것은 2차적인 영향이며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성격은 아니다.

그러나 마음에 간직해 두어야 할 몇 가지 경고 사항이 있다. 하나는 특정 표집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는 점과 여기서 나온 결과를 부당하게 일반화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사실이다. 스웨덴이나 이스

라엘과 같은 나라 혹은 캘리포니아와 같은 미국의 어떤 지역에서는 전통적인 가족 형태에서 벗어나 다양한 대체 양육을 취할 준비가 더 잘 되어 있다. 이들 사회에서는 전통적인 생활 형태가 여전히 압도적이어서 비전통적 가족에서 생긴 부산물은 배격하는 보수적인 사회보다는 대체 양육 형태에 대하여 훨씬 포용적인 것 같다. 따라서 특정 사회에서 얻어진 결과를 일반화시키는 것에 대하여 경고할 필요가 있다.

또 다른 경고 사항은 평가 방법에 대한 것이다.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아동의 성역할 발달에 대해서는 부모 역할이 뒤바뀐 것에 대한 연구에서 이미 언급한 바 있다. 성역할 획득, 다시 말해서 한 가지 성과 다른 성의 행동 유형이나 심리적 특성을 비교하기 위해 실시된 연구 문헌은 상당히 많다. 그러나 이는 매우 복잡한 발달 과정이라고 여겨져 왔을 뿐 아니라 성역할 개념 그 자체는 여러면에서 결코 쉽지 않은 오묘한 것이다. 몇몇 연구(예를 들어, 앞에서 요약된 Radin이나 Sagi의 연구)에서는 단지 한 가지 특정 검사만을 실시하였다—이들은 아동들에게 인형이나 총같은 성유형화된 장난감 중에서 선택하게 하는 IT검사를 실시하였다. 이는 아동의 여성상이나 남성상에 대한 측정 방법으로는 너무도 미흡한 것이므로 이를 통해 얻어진 결과를 믿을 수 없게 만든다.

그러나 이것 이상으로 의문을 가져 볼 만한 중요한 의문점이 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닌 전형적인 남성적인 성격의 발달 혹은 전형적인 여성적인 성격의 발달에 대한 가치관의 문제이다. 아주 최근 까지도 이들은 엄격히 양분된 것이라고 여겨져왔다. 따라서 여성스러운 남자, 남성스러운 여자와 같이 모든 이탈된 형태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라고 여겨져 왔으며 심지어는 일종의 심리적인 질병이라고 여겨지기까지 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양분적인 사고 방식은 이제 당치도 않은 것이 되었다. 남성과 여성의 다른 역할에

대한 사회적 관습이 극적으로 변화함에 따라 오늘날에는 혼합적(양성적) 성격이 선호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심리적 건강이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재정의의 의미를 의미한다. 그것은 결코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며 단지 그 당시 사회에서 널리 받아들여지는 가치에 따라 달라지는 상대적인 개념인 것이다. 다행히도 아동 발달의 다른 측면들은 이같은 어려움이 존재하지 않으며 측정 방법도 어느 정도 더 정교한 측정 방법이 사용되었다. 따라서 여기서 얻어진 결과는 결론에 대한 더 탄탄한 근거를 제공해 준다. 특히 Eiduson과 그의 동료들이 실시한 연구에서와 같이 다양한 가족 유형을 시험했다거나 심리적 기능 전반에 대하여 연구되었다거나 몇 년동안에 걸쳐 피험자를 추후 연구했을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비전통적 가족 상황이 아동 발달에 나쁜 영향을 준다고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확신을 갖게 해주는 것도 바로 이같은 연구이다.

실제를 위한 시사점

가장 중요한 시사점은 다양한 가족 유형에 대한 수용적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난 수십년 동안 가족의 성격이 많이 변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핵가족이 아동이 성장하기 위한 유일한 환경이며 이로부터 이탈되는 것은 아동에게 불리한 영향을 줄 것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생계비를 버는 아버지, 가사일을 맡는 어머니, 자녀'로 이루어지고 '영구적인 단위'로 존재하는 이상적인 가족 형태는 점차 감소되고 있으며 다른 형태의 가족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연구가 시급히 요청되고 있는 바이다. 물론 이혼이나 재혼 등 생활 유형에서 일어난 극적인 변화가 아동에게 나쁜 영향을 준다는 것은 의심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 말은 이혼후 편부모 가족에서 사는 아동이나 재혼후 재

구성된 가족에서 사는 아동이 반드시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혼을 막아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이와 관련된 여러 연구에서 얻을 수 있는 메시지는 완전한 부모-자녀 관계는 전통적 핵가족과는 매우 다른 사회 상황에서도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 아동의 심리 발달 과정에 영향을 주는 핵심 요인은 가족 구조보다는 아동의 대인 관계의 질이다.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비록 전통적이고 정상적인 가족일지라도 현실적으로 가족내에 갈등이 너무 많으면 아동의 행복은 깨어질 수 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는 차라리 부모가 이혼하는 것이 아동에게 더 좋을 수도 있다. 또 어머니가 집에 머무르는 것이 어머니에게 과도한 스트레스와 좌절을 안겨주어 아동과 어머니와의 관계가 나빠질 수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일을 갖는다든가, 아동을 좋은 대체 보호 기관에 맡기는 것이 어머니와 아동의 생활을 동시에 향상시키는 유일한 방법 일수도 있다. 가정에서 고립된 생활을 하는 부모는 그 가정의 분위기에 나쁜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자신의 처지에 대해 외롭고 덧에 걸린것 같다고 생각한다. 이런 경우에는 가사일이나 아동 양육을 나눌 수 있는 공동 사회에 참가하는 것이 부모의 성취감이나 정신 상태에 두드러진 향상을 안겨 줄 수도 있다. 여러 가지 종류의 가족 상황하에서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대인 관계의 질이다. 아동의 심리적 건강을 유지 향상 예방하는 것과 관련된 조치는 우선 아동과 보호인간의 관계를 향상시키는 데 목적을 두어야 하며 가족 형태는 단지 이차적인 고려 사항으로 설명되어야 한다.

물론 전통적 가족 형태만이 아동에게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고 방식은 쉽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럼, 여성이 남성보다 부모 역할을 더 잘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로 되돌아가 보자. 앞에서 요약된 연구 중의 하나는 교사나 사회 사업가 기타 여러 사람들이 정상적인 양부모(two-parent) 가족의 아동보다 편부모 가족(특히

아버지에 의해 운영되는)의 아동들을 얼마나 좋지않게 평가하는지에 대하여 얘기하고 있다. 비전통적 가족 구성원에게 있어서 최대의 결함이 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편견이나 부정적인 기대인 것 같다. 따라서 가장 시급하고, 또 아동에게 최고의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편견을 극복하는 것이다. 가족은 외부 세계에 둔감하거나 폐쇄적인 정적 체제가 아니다. 오히려 가족은 수 세기에 걸쳐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종류의 사회 경제 정치 기술적 변화를 수용해왔다. 아동에 대한 부모의 책임을 정의하는 방법은 이와 같은 수용의 좋은 예이다. 사회가 급속히 변화하는 오늘날 가족의 유형이 어떤 특정한 한 유형에 고정되는 것은 반드시 피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Birns, B. and Hay, D. F. (eds) 1988 : *The Different Faces of Motherhood*. New York : Plenum.
- Humphrey, M. and Humphrey, H. 1988 : *Families with a Difference : varieties of surrogate parenthood*. London : Routledge.
- Parke, R. K. (ed.) 1984 : *The Family : review of child development research, Vol. 7*. Chicago : University of Chicago Press.

초년기 문제들이 후기 생활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문제제기

초년기에 문제 행동을 보이는 것은 결코 드문 일이 아니다. 출생 전부터 생겨난 여러 가지 형태의 문제점들이 출생직후부터 나타나기 시작한다. 유년기에는 수유 장애나 수면 장애 혹은 지나친 울음과 같은 형태를 띠면서 나타나기도 하고, 학령전기에는 공격성 공포심 지나치게 화를 잘내거나 지나치게 수줍어 하는 것과 같은 여러 가지 정서적 사회적 기능에 영향을 주면서 나타나기도 한다. 또한 과잉 활동성이나 집중력 장애와 같은 행위 장애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부모의 관심을 끌러일으키며 이 문제점들을 그들만의 문제로 생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고심하게 만든다.

이런 관심에는 초년기 문제들이 장애와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포함되어 있다. 초년기 문제가 이후의 단계에서 심리적 문제점을 일으키는 기본적인 ‘약점’이 되는 것은 아년지에 대하여 우려하는 사람도 있다. 아동의 초기상태를 통해 이후의 상태를 예언할 수 있는가? 아동기 혼란은 성인의 부적응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일단 걱정거리가 되면 끝까지 걱정거리로 남아 있는가? 초기 발달 단계에 일어나는 문제 행동은 단지 일시적인 현상에 지나지 않는 것인가?

이에 대한 정보는 그리 많지 않다. 방법상의 어려움을 감안해 볼 때 이같은 상황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다. 신뢰할만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종단적 연구가 요구되는데 이러한 연구는 많은 시간과 연구비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리 흔치 않다. 게다가 인간 발달의

연속성 또는 불연속성과 관련된 것 중의 대부분은 너무 복잡해서 해석하기가 무척 힘들다. 문제 행동은 필연적으로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형태로 새로이 나타난다. 즉 현재의 문제는 이전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게다가 한 가지 종류의 심리 장애에 적용된 것은 다른 심리 장애에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 서로 다른 증상은 다른 예언적 중요성을 지니므로 별개로 연구되어야 한다. 아동이 양육된 환경의 성격이나 안정성, 그리고 이를 포함한 모든 변인들이 결과에 영향을 미치므로 이에 대하여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의 지식이, 원하는 것처럼 완벽하지 못하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다.

만약 초기 문제점들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예언적인 중요성이 있다면 이에 대해 신중한 연구가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조기에 조치를 취하는 것이 후속적인 문제점을 예방하는데 효과적일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속될 가능성이 많은 문제들의 유형은 무엇이며 이 문제들이 지속되도록 만드는 환경의 종류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알아보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다. 그러나 이 주제와 관련된 보다 기본적인 수준의 질문은 아동의 적응력과 가변성에 대한 것이다. 이에 대한 해답은 우리에게 인성 발달의 기본적인 본질에 대한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연구 결과

요약

연구1 : 유치원기에서 학령기에 이르기까지*

이 연구에서는 3세에서 8세까지 문제 행동의 계속성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3세의 연구 대상은 런던 지방에서 포집한 705개 가족이었다. 면접과 표준화된 행동조사설문을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혼란에 대한 특정 기준에 따라 분석한 결과 3세 아동 중 약 7%가 중간 또는 심하게 혼란되어 있었고 더 나이먹은 아동 중 15% 정도는 약간 혼란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 사회적 계층, 그리고 어머니의 취업 상태는 이러한 수치와 전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후 연구는 주로 94개의 문제 집단과 91개의 비문제 집단(통제 집단)을 대상으로 하였다. 어머니를 대상으로 면담과, 검색(screening)을 위하여 사용했던 표준화된 설문지를 또 한차례 실시하였다. 문제성 있는 3세 아동 중 61%가 5세 이후에도 여전히 중요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 집단과 비문제(통제)집단을 비교한 결과 문제 집단은 8세까지 높은 수준의 혼란이 계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속성은 몇 가지 특정한 형태의 징후에서 주로 나타났다. 특히 정서 불안과 과잉 활동성은 나쁜 결과의 전조였으며 성장후의 반사회적 행동을 유발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초기 공포심은 후의 신경증적 문제와 관련이 있었다. 일반적으로 소년의 문제는 소녀의 문제보다 지속율이 높았고, 중간 또는 심한 문제를

* Richman, N., Stevenson, J. and Graham, P. J. 1982: Preschool to School : a behavioural study. London : Academic press.

가진 아동은 약간의 문제점을 가진 아동보다 지속률이 높았다. 문제 집단이 비문제 집단보다 추후 검사 기간 동안에 보다 많은 외적 스트레스에 부딪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문제 아동의 어머니는 5년동안 높은 심리적 혼란을 보였으며 부모들은 보다 많은 부부 문제와 신체적인 병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자는 학령전에서 저학년에 이르기까지 문제 행동의 계속성 정도는 상당히 높다고 결론지었다. ‘일단 아동의 행동이 부적응적인 형태로 형성되면 쉽게 변하지 않는다... 비록 유아 시절의 미미한 혼란이라도 어느 정도는 후의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있다’ 동시에, 저자는 높은 정도의 계속성에도 불구하고 학령전 검색(screening)검사는 8살에 혼란된 모든 아동에게서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계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연구2 : 학령전 표본에 대한 추후 연구*

Richman이 내린 결론 가운데 한 가지는 계속성(continuity)이 혼란 행동의 형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는 ‘내면화’(internalizing)와 ‘외면화’(externalizing)라고 불리는 두 가지 형태의 심리적 부적응에 초점을 맞추어 실시된 본 연구 결과에서 강조되었다. 내면화는 ‘금지, 위축 그리고 자기 내부에 존재하는 문제’로 특징지을 수 있는 행동을 말하며, 외면화는 ‘공격, 적대심, 환경과 사회에 반항하는 행동’이라고 특징지을 수 있는 행동을 말한다. 다른 연구에서는 이 두 차원의 행동을 ‘신경적 경향, 반사회적 경향’이라고 명명하고 있으며 이 두 가지를 구별하는 것이 매우 유용하다는 증거들도 많이 있다.

* Fischer, M., Rolf, J. E., Hasazi, J. E. and Cummings, L. 1984 : Follow-up of a preschool epidemiological sample. Child Development, 55, 137-50.

연구 대상은 2세에서 6세 사이의 아동 541명이며 이들은 7년 후에 한 차례 더 조사되었다. 약 100개의 항목으로 구성된 행동 체크리스트(check-list)를 부모들에게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 체크리스트는 특정 행동의 발생 빈도, 문제의 존재 여부와 그 심각성을 알아본 후 내면화와 외면화 범주로 분류하기 위하여 특별히 고안된 것이다.

연구 결과 두 차원 중에서 외면화 차원이 더 안정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관계없이 학령전에 나타난 외면화 징후가 7년 후에 나타난 외면화 징후와 거의 유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안정성은 내면화 차원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두 차원 중 어느 한 차원에서 비정상적일 정도로 높은 점수를 보인 ‘병적인 혼란 집단’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다. 학령전에 심각한 내면화 징후를 보였던 아동이 7년후에는 다른 아동보다 심한 수줍음이나 위축된 행동을 보이지 않았다. 반면에 초기에 심한 외면화 문제 행동을 보인 아동들은 7년후에도 계속해서 동일한 문제 행동을 보였다.

이처럼 계속성은 징후의 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따라서 혼란 행동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일반화하는 것은 절대 삼가해야 할 것이다. 비록 통계적으로는 유의하더라도 또 심지어는 외면화 행동일 경우에도 일반화하는 것은 반드시 신중을 기해야 한다. 초기 중재 프로그램은, 처음에는 정상이어서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가 후에 혼란을 보이고 이 혼란이 계속해서 확대되었던 아동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저자들은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린다. ‘발달은 가변성과 조형성이 있다. 이는 계속성이라기 보다는 비계속성이라 할 수 있는 것으로 정상 아동에게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발달 특성이다.’

연구3 : 학령전 아동에게서 나타나는 문제 행동의 계속성*

이 연구에서는 유년기 문제 행동의 계속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출생부터 5세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추후 검사를 실시하였다. 자료 수집 시기는 생후 6개월, 1년, 18개월, 2년, 3년, 4년 6개월이었다. 연구 대상은 북 런던의 특정 지역에서 거주하고 해당 연령에 속하는 361명의 아동이었다. 자료는 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한 표준화된 설문지를 근거로 수집되었다.

그 결과 문제 행동이 나타난 빈도율은 6개월에는 3%, 3세에는 15%, 4세 6개월에는 13%로 나이에 따라 증가하였다. 계속성은 매우 복잡한 과제로 판명되었는데 그 이유는 계속성의 정도가 조사된 문제의 유형, 조사된 시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식욕 부진이 계속될 확률은 18개월부터 2세 사이에는 23%였고, 2세에서 3세 사이에는 65%였다. 편식에 대해서도 동일한 연령층 사이에서 각각 25%, 31%인 것으로 나타났다. 밤에 깨어나는 문제는 6개월에서 1세 사이에는 44%, 1세에서 18개월 사이에는 41%, 18개월에서 2세 사이에는 54%, 2세에서 3세 사이에는 25%, 3세에서 4세 6개월 사이에는 18%로 나타났다. 2세중에 지나치게 화를 잘내는 아동으로 분류되었던 아동 중 거의 절반(45%)이 3세에도 여전히 화를 잘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3세와 4세 6개월 사이의 지속율은 34%이었다.

어떤 연구들은 이러한 수치들이 특정한 징후의 단기적인 지속성에서도 역시 나타난다고 말한다. 전체적으로 볼 때 본 연구는 유아의 문제행동 중 어떤 것은 일시적인 반면에 어떤 문제점들은 학령

* Jenkins, S., Owen, C., Bax, M. and Hart, H. 1984 : Continuities of common behaviour problems in preschool children.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25, 75-89.

전 기간동안 상당히 오래 지속된다고 결론 내리고 있다.

연구4 : 행동 장애의 발생과 전개 : 유아기부터 초기 성인기까지*

Thomas와 Chess가 실시한 뉴욕 종단적 연구(The New York Longitudinal Study)는 초기 유아기부터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아동의 행동 발달을 추적하고자 하였던 연구로써 널리 알려져왔다. 이 연구는 본 과제와 관련이 있는 여러 문제에 대한 지식을 제공해 준다.

133명의 아동에 대한 자료는 아동기 전반에 걸쳐 주기적으로 수집되었다. 가정과 학교 그리고 표준 심리측정 실험상황에서 보이는 아동의 행동을 기술하기 위하여 매우 다양한 측정 도구가 사용되었고, 이와 동시에 부모의 태도와 자녀 양육 실제에 관한 정보도 수집되었다. 두 명의 책임 연구자가 소아 정신과 의사였다는 사실은 행동 장애를 보이는 아동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임상적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감안해 볼 때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다.

45명의 아동 집단이 임상적인 문제점을 보이는 것으로 분류되었다. 이들(41명)중 대부분 즉 26명은 약간, 10명은 중간 정도, 5명은 심하게 적응 장애(adjustment disorder)를 보인 것으로 진단되었다. 이들 중 대부분은 3~5세경에 처음으로 문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다. 사춘기에 이르러서는 거의 대부분(25명)이 회복되었고 2명은 개선되었다. 그러나 3명은 전혀 변화가 없었으며 11명은 악화되었다. 성인 초기에 이르러서는 회복된 인원이 29명으로 증가하였으며 다른 5명은 사춘기부터 개선되기 시작하였다. 회복 또는

* Thomas, A. and Chess, S. 1984 : Genesis and evolution of behavioral disorders : from infancy to early adult life.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41, 1-9.

개선되지 않은 아동의 경우에는, 장애의 정도가 유지되기 보다는 악화되는 경향이 있었다. 더우기 이들은 13세에서 16세가 되었을 때, 이전에 보이지 않던 12가지의 새로운 임상적 증세를 보였다.

이처럼 유아기에 발생한 행동장애 중 대부분이 양호한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수가 개선되지 않았으며 심지어는 악화되기도 하였다.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초기에 발견된 임상적 장애의 발달 과정을 예측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인 것 같다.

연구5 : 아동기 정신 건강 문제와 학습 장애로 인해 나타나는 결과에 대한 발생적 관점*

본 주제와 관련된 연구 결과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중요한 종단적 연구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하와이, 카우아이섬에서 1955년에 출생한 660명의 다민족 아동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연구가 실시되었다. 추후 자료는 어머니 임신기간 동안부터 시작해서 아동기 전반에 걸쳐 수집되었다. 특히 2세, 10세, 18세에 조사가 실시되었다. 피험자 탈락률은 상당히 낮았다. 즉 피험자중 88%가 18세에도 본 연구에 참가하고 있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평가 방법을 사용하여 가정이나 기타 특별한 상황하에서 이들이 겪은 경험과 신체적·의학적·지적·사회적 기능에 대한 많은 자료가 수집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임신, 진통, 분만, 신생아 기간동안에 여러 가지 복잡한 사건들 때문에 생기는 출생기 스트레스로 인하여 생의 초기부터 나타나는 행동적·신경적 문제점들에 특별한 관심을 두었다.

* Werner, E. E. and Smith, R. S. 1979 : An epidemiologic perspective on some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of childhood mental health problems and learning disabilitie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Psychiatry, 18, 292-306.

총 표본 중 31%는 약간, 10%는 중간 정도, 3%는 심한 스트레스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류는 이후의 정신 건강문제(예를 들어, 정신분열, 편집증, 강박적 행동)의 발달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생기에 중간 정도의 스트레스를 나타낸 아동 중 9%, 심한 스트레스를 나타낸 아동 중 14.5%가 이와같은 문제 행동을 보였다. 이는 18세경의 3%와 대조되는 수치이다. 이러한 초기 문제점이 후에 심리적 문제점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아동이 성장하는 가정의 성격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볼 때 가족 변인은 출생시 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그 어떤 변인보다 강력한 영향을 준다. 예를 들어, 출생시에 여러 가지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진단된 아동의 경우 10세에 심각한 정신 건강적 문제로 발전할 가능성은 어머니가 정서적인 도움을 적게 주는 경우에는 7배로 증가하고 어머니의 부적절한 교육적 자극이 있는 경우에는 9배로 증가한다.

10세에 적어도 6개월 이상 정신 건강 요법 치료를 받아야 할만큼 심각한 문제 행동을 보인 아동을 대상으로 한 또 다른 분석이 실시되었다. 이 집단 중 20%가 중간 정도에서 심한 정도까지의 출생시 스트레스를 보였다. 이는 통제 집단의 8%와 대조되는 수치이다. 이 아동들은 2세가 되었을 때 ‘금지된’ ‘좌절된’ 그리고 ‘심각한’것으로 특징지어졌다. 또 어머니들은 자신의 걸음마 아이들과의 관계에서 ‘상극의’ ‘적개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18세가 되었을 때 세명의 아동 중 오직 한명만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예측은 10세에 약간의 정신 건강 요법이 필요한 아동들에게 특히 더 적용된다. 출생시의 복잡함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는 이들과 통제 집단간에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또한 이들의 불안과 신경질적 습관의 징후는 환경적 스트레스에 대한 일시적인 반응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므로 아동 말기를 관찰해보면 지속되는 행동 장애는 출생시

의 생물학적 요소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기의 생물학적 스트레스와 가정의 불안정이 함께 합쳐지면 심각하고 지속적인 심리적 문제를 발달시킬 위험이 매우 높다.

해석

지금까지 이 주제와 관련하여 실시된 연구들의 결론은 결코 분명하지 않다. 계속성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연구가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Richman과 그의 동료들이 실시한 연구는 나름대로 분명한 결론을 보여준다. 즉 문제 행동을 보인 3세 아동 중 61%가 5년 후에도 여전히 문제 행동을 보였다. 이는 매우 높은 계속성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그러나 이 연구자들조차도 한 나이에 나타난 행동을 가지고 다른 나이에 나타날 행동을 예측하는 것이 어려운 일임을 조심스럽게 지적하고 있으며, 다른 연구들은 이에 대하여 특히 강조하고 있다. 연구 결과들은 아동의 행동에 얼마나 많은 요인들이 작용하는지를 보여줌으로써 한 나이에서 다른 나이를 예측하는 것이 너무도 복잡한 일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요인들 중 하나는 계속성을 조사하는 연령범위이다. 예를 들어 3세에서 8세 범위에 적용되었던 것은 8세에서 13세 범위에는 적용할 수 없다. 그동안 실행된 연구들이 각기 다른 연령 범위를 사용하였을 뿐 아니라 연령간 간격이 서로 달랐다는 것을 감안해 볼 때 각 연구의 결과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리 놀랄 만한 일이 아니다. 고려해야 할 또 다른 측면은 징후와 임상적 조건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다양성이다. 선불리 일반화해서는 안되는 또 다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몇몇 문제 행동의 발달 과정은 다른 문제 행동의 발달 과정과 다르다. ‘문제 행동’의 개념도 많은 학자들에 의해 각기 다른 방법으로 정의되었다. 사용된 측정 방법이 다를 뿐 아니라(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한 면접, 표준화된 설문

지, 직접적인 관찰 등) 연구 대상의 사회적 문화적 구성이 다르기 때문에 계속성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일반화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이다.

분명한 것은 종단적 연구를 사용해야지만이 이 질문에 해답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위에서 인용한 다양한 연구는 이러한 형태를 취하고 있으므로 연구 결과의 신뢰도는 높다. 계속성의 내용을 조사할 뿐만 아니라 계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인과 아동 자신의 요인에 대해서는 이러한 형태의 연구가 필수적이다.

실제를 위한 시사점

아무리 복잡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계속성이 존재한다고 제안한 만큼의 증거는 충분히 있다. 인생 초기에 문제 행동을 보인 아동은 (이런 증상을 계속적으로 보이거나 혹은 새로운 종류의 증상을 보이면서) 나중에 문제점들이 보다 분명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러한 아동은 ‘위험한’ 집단이다. 초기 치료적 개입은 단지 일시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사후 문제점을 미리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그와같은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한 개입 프로그램은 남의 도움없이도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줄 아는 아동(처음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나중에는 혼란행동을 보인 어린이 포함)에게는 노력을 낭비하는 것이 된다. 그러므로 ‘위험한’ 집단(at-risk group)을 정확하게 정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Thomas와 Chess가 했던 것과 같이) 초기 진단후에 장애의 발달적 경로를 예측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모든 아동에게 ‘개입’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초기 단계에 취해진 치료는 혼란 상태를 유지시키는 요인(방치해두면 모든 발달 수준에 지속되거나 악영향을 미치는 가정불화와 같은 요인)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해준다. 각 아동의 환경적 조건을 개선함으로써 혼란된

아동이 혼란된 청소년이나 성인이 되는 악순환을 탈피할 수 있다.

그러나 효과적으로 개입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후의 병리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심리적 혼란을 지속시키는 요인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 불행하게도 이러한 점에 대하여 알려진 것이 별로 없다. 확실한 것은 지속적이고 환경적 요인 중에서 제한된 영향을 미치는 정신적 핸디캡이나 정신병과 같은 내적 장애를 제외하고는 아동 자신과 관련된 요인에 대한 설명이 거의 없다. 문제 행동이 모든 연령에서 계속 문제 행동을 보이게 만드는 ‘기본적인 약점’ 때문에 생긴 것이라는 증거는 없다. 오히려 해답은 아동의 기질과 같은 내적 요인과 가족 상황과 같은 외적 요인의 결합에 있는 것 같다. Thomas와 Chess가 말한 ‘적합성(goodness of fit)’도 바로 이런 결합을 의미하는 말이다. 적합성이란 아동의 성격과 환경이 요구하는 것 사이에 조화가 이루어진 상태를 말한다. 이러한 조화가 이루어졌을 때 최적의 발달이 가능해진다. 부조화나 부적합성이 나타난다면 왜곡된 발달과 환경에 대한 부적응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므로 바람직하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찾고자 한다면 특정 양육 환경과 특정 아동의 결합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초기에 문제가 있었던 아동을 ‘위험한’ 집단이라고 생각하긴 하지만 지금까지 행해진 다양한 종단적 연구에서 발견된 계속성의 강도는 결코 대단치 않았으므로 아동 개개인에 대하여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현 시점에서는 초기에 여러 형태의 문제 행동을 보인 어린이가 이후에도 반드시 임상적인 고통을 겪는다는 보장은 없다. 그와 같은 많은 문제들은 장기적으로 볼 때 중요하지 않으며 단지 일시적인 발달상의 혼란이거나 특정 스트레스에 대한 단기적인 반응이라고 판명되었다. 그러므로 부모들을 놀라게 할 필요는 없다. 또한 한 가지 징후가 만족스러운 가족 상황에서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에 대하여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이와 마찬가지로 후에

혼란된 아동 모두가 초기에도 그랬던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계속성의 개념은 인간 발달 과정을 이해하려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되었던 개념이다. 그러나 발달 과정이란 너무도 복잡한 것이어서 계속성에 대하여 단순히 기술할 수 없다는 것이 요즘의 보편적인 생각이다. 발달 과정에서 한 연령과 다른 연령간에 일종의 ‘고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비계속성은 존재한다. 어떤 때는 아동의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는 데서 기인하고 어떤 때는 외적 힘에 의해 기인한다. 그리고 이런 비계속성은 초기 단계에서 후기 단계를 예측할 수 없게 만든다. 임상가들은 초기 일탈을 치료하는 것이 후에 나타날지도 모르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궁금해한다. 현 지식 수준에서는 반드시 그렇다는 보장은 없다고 판단된다. 단언할 수 있는 것은 초기에 문제를 보인 아동이 이후에 문제를 보일 가능성이 더 많다는 것이며 따라서 ‘위험한’ 집단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참고문헌

- Brim, O. F. and Kagan, J. (eds) 1980 : *Constancy and Change in Human Development*. Cambridge, Mass. : Harvard University Press.
- Chess, S. and Thomas, A. 1984 : *Origins and Evolution of Behavior Disorders*. New York : Brunner/Mazel.
- Clarke, A. D. B. and Clarke, A. M. 1984 : Consistency and change in the growth of human characteristics.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25, 191-210.
- Rutter, M. 1987 : Continuities and discontinuities from infancy. In J. D. Osofsky (ed.), *Handbook of Infant Development*, 2nd edn. New York : Wiley.

어떤 아동이 손상되기 쉬운 아동인가

문제제기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반응에 있어서는 사람마다 큰 차이가 있다. 분명히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스트레스 상황에 부딪혔을 때, 어떤 사람들은 완전히 굴복하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비교적 상처를 받지 않는다. 이 같은 사실은 성인에게 적용되는 만큼이나 여러 면에서 아동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기해 볼 수 있다. 손상당하도록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최근까지는 ‘손상당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추어 왔었다. 우리의 관심이 일방적으로 희생자(박탈, 학대, 방임, 그 밖의 여러가지 스트레스에 의해 희생된 아동)에게만 맞추어진 때도 있었다. 이러한 경향은, 아동들에게는 분명히 즉각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볼 때 크게 놀랄 일은 아니다.

당시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은 어떤 경험은 아동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칠것이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예방적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는 데에 관심을 모으는 것이었다. 예를 들면 당시에는, 모성박탈은 아동의 성격발달에 심각하고 항구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예방과 개선을 목적으로 한 적절한 조치가 모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이같은 생각은, 모성박탈은 이를 경험한 모든 아동에게 같은 영향을 줄 것이라는 가정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어떤 아동들은 상당한 충격을 받기는 했으나 특별한 해가 없이 극복해 나갔다는 것이 밝혀졌다. 다시 말해서 모성박탈을 경험한 아동들 모두가 애정결핍성격이 되는 것은 아니다. 단지, 그런 아동에게 심리학적인 병리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가정

에서 양육된 아동보다 크다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어떤 병리적 인자가 존재하는 상황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 담배를 많이 피우는 사람이 반드시 폐암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다. 단지, 흡연과 질병사이의 연관관계 때문에 비흡연가보다 암발생율이 높다는 것 뿐이다. 이런 통계적 관계는 이 사회가 담배소비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당성을 부여한다. 그러나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사람이 단순히 그 사람의 흡연습관 때문에 폐암을 일으킬 것이라고 자신있게 예언할 수는 없다. 다른 요인들도 영향을 줄 것이며 이런 요인들은 누가 사망하고 누가 생존하는가에 대한 예견적 공식을 추가하게 되는 것이다.

또 다양한 종류의 스트레스에 대한 아동의 반응에 관심을 갖는 것도 바로 이같은 다른 요인들에 대한 관심의 일환이다. 우리가 이 책에서 다룰 것도 이 요인들의 효과에 관한 것이다. 이들 요인에는 쉽게 손상을 주는 스트레스요인이 있는가 하면 예방기능을 하는 완충 요인도 있다. 또한, 내적요인(기질, 성, 출생조건 등)도 있고 외적요인(가난, 무주택, 가정불화)도 있다. 그 성격이 어떻든간에 그러한 영향을 분리시킬 수 있다는 것은 ‘박탈은 해로운 것이다’라는 일반화로부터 점차 벗어나 박탈이 특정결과를 유발하는 상황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수의 반응과 집단의 평균에 의해 무조건 전횡하기 보다는 예외(모든 결손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탈없이 성장하는 사람, 큰 댓가를 치루지 않고도 역경을 극복해내는 사람 등)에 관심을 돌릴 수 있게된다. 스트레스 상태에서의 개개인의 반응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예방에 대한 우리의 노력에도 역시 도움이 될 것이다.

연구결과

요약

연구1 : 손상당하기 쉬우나 공략하기 어려운: 반향적인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종단적 연구*

우리는 이미 초기 행동의 지속성에 관하여 언급할 때, 카우아이, 하와이 섬에서 실시된 Werner와 Smith의 중요한 연구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다시 살펴보자면 연구대상은 출생에서부터 초기 성인의 아동 600명이며, 자료는 주로 2세, 10세, 18세에서 수집되었다. 아동발달의 여러측면과 가정이나 그밖의 다른 중요한 환경적 요인에 관한 정보가 수집되었다. 연구대상 중 상당수가 빈곤, 산전후 위험, 가정의 불안정, 부모의 정신질환 등과 같은 심각한 역경 아래에서 양육되었다. 따라서 대부분의 아동에게서 한두 가지의 행동문제들이 발견 되었다는 것은 그리 놀랄만한 일이 아니다. 여기서 관심있는 것은 그러한 역경에 똑같이 노출되었으면서도 손상당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후속결과이다. 각 아동과 관련된 상당량의 정보를 수집한 후 저자는 그런 반향성을 설명해 주는 요인을 추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주위를 기울여 보아야 할 한 가지 요인은 아동의 성(sex)이다. 다양한 생리적 심리사회적 스트레스에 직면했을 때 소녀보다는 소년들이 더 반향적인 경향이 있었다. 따라서 Werner와 Smith의 연구대상아동 가운데 소녀보다 소년이 산전후 위험을 심하게 겪었으며 심각한 합병증으로 인해 많은 수의 소년이 유아기에 사망하였

* Werner, E. E. and Smith, R. S. 1982 : Vulnerable but Invincible : a longitudinal study of resilient children and youth. New York : McGraw Hill.

다. 손상당하기 쉬운 점에 있어 이런 성의 차이는 출생후 10년간 현저한 다양성을 나타낸다. 즉 소녀보다는 소년(교정조치나 특수학급 생활 등이 요구되는) 학습 및 행동문제를 보였다. 또한 소녀보다는 소년이 정신건강서비스와 비행예방서비스, 장기적인 교정교육이 요구되는 문제들이 발달 하였으며, 가정에서의 교육적 자극의 결핍, 가정의 불안정, 빈곤의 영향에 대해 역기능으로 반응하였다. 그러나 20년째에는 이런 유형은 변화한다. 18세가 되었을 때에는 소년이 소녀보다 훨씬 개선이 되었으며, 소년보다 소녀들에게서 새로운 문제가 더 많이 나타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기 전 과정을 통틀어서 볼 때 소녀가 소년보다 산전후 위험, 만성적 빈곤, 가정불화 등에 잘 대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후 처음 2년동안, 손상당하기 쉬운 아동과 문제에 잘 대처하는 아동간의 차이점이 많이 발견된다. 특히 기질적 특성에서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반항적인 아동은 보호자로부터 매우 활동적이고 사회적으로 민감하다고 평가받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끌거나, 받게 된다. 이런 특성은 아동이 긍정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에 참여하는 기술을 습득하고, 상당한 정도의 독립심을 보이고 정보처리를 요구하는 과제에 신속하고 용이해지는 2세까지 지속된다. 그리하여 아동은 부모와 지지적이며 자극적인 상호작용—필요할 때 지지를 요구하는 능력과 그들 나름대로의 생각을 전개할 수 있는 능력을 잘 조화시킨 대처양식—에 더욱 더 참여하게 된다.

이와 같은 반향성의 초기 특징은 그 후의 반향성도 예견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트레스에 대한 아동의 반응과 관련된 요인에 있어서 몇 가지 변화가 있다. 유아기에는 이런 요인들이 주로 건강과 기질을 포함하는 반면에, 아동기에는 그 요인들이 주로 가족구조나 기능에 기인한다(예를 들면, 부모와의 관계의 질, 교육의 일관성, 정서적 지지의 양). 마지막으로 사춘기에는 점차

내적 인성형태를 띠게 되는데 특히 개개인의 자아평가에 관심을 갖게된다. 그러나 이 때에도 역시 사회적 환경이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데 이는 사춘기의 반항성이, 가족내에서 스트레스를 덜 경험하고자 하는 청년들에게서 발견되었다는 것에서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손상당하기 쉬운 아동인지 아닌지 가장 잘 구별하는 것은 생물학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들의 결합이다. 예를 들어, 출생시의 합병증은 성장기의 빈약한 환경조건과 결합되었을 때만이 신체적, 심리적 발달에 손상을 주는 것 같다. 그러나 저자는 지속적으로 압박을 받는 최악의 환경만 아니라면, 정상적인 발달을 해보려는 아동의 자기 회복적 경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였다.

연구2 : 3세 아동의 문제 행동에 있어 기질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과의 관계*

이 연구는 메사추세츠의 마타스 빈야드에 살고있는 3세 아동 전체를 조사한 것이다. 접촉한 110가정 중에서 100가정이 연구에 응용했다. 어떤 자료는 아동에게서 직접 얻어졌지만 대부분의 자료는 부모와의 면접에서 수집되었다. 아동과의 면접을 통하여, 그들이 경험한 이사 회수나 부부간의 불화와 같은 가정내의 스트레스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또한 부모의 정신적 상태를 평가하기 위한 자료도 수집되었다. 또한 부모들에게는 아동의 최근 행동과 정서적 적응을 평가하는 도구인 행동조사설문지(B, S, Q)를 작성하게 하였고, 아동의 기질을 측정하기 위해 고안된 표준화된 설문지도 작성하도록 하였다. 면접이 끝난 후 얻어진 모든 정보에 기초하여 부

* Barron, A. P. and Earls, F. 1984 : The relation of temperament and social factors to behaviour problems in three-year-old children.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25, 23-33.

모와 아동간의 상호작용에 대하여 등급을 매겼다.

저자가 답을 얻고자 했던 기본적인 질문은 “어떤 종류의 아동이 문제 행동을 일으키기 쉬운가?”이다. 연구결과 문제의 발생과 관련된 몇 가지 요인이 발견되었다. 첫째, 행동조사설문지(B, S, Q)에서 가장 불리한 점수를 얻은 아동은 특별한 기질적 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환경변화에 대처하는 융통성이 부족하며, 에너지 수준이 높으며, 타인의 요구에 대한 적응력이 낮은 경향이 있었다. 더구나 문제 행동은 부모와의 관계가 나쁜 아동들이나 비교적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아동에게서 가장 잘 나타났다. 무엇보다도 문제 행동에 대한 가장 훌륭한 예측은 요인들의 결합, 특히 융통성이 없는 기질, 빈약한 부모-자녀 관계, 가정내의 높은 스트레스들의 결합에 의해 가능해진다.

연구3 : 유아의 기질, 어머니의 정신상태 그리고 아동의 행동문제*

이 연구 역시 다음 질문에 관심을 갖는다. “어떤 아동이 행동적 어려움에 쉽게 굴복하고, 어떤 아동이 이를 극복하는가?” 이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 기질적 특성을 검사하였다. 덧붙여 설명하자면 어떤 아동들은 그들의 기질적인 탓으로 그들 스스로 압박적인 환경을 만듦으로써 아동을 돌보고 있는 사람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연구대상은 임신중인 106명의 어머니들이며 출산후부터 시작하여 4, 14, 27, 42개월에 면접을 실시하였다. 각 면접시기마다 어머니의 아동양육방법과 태도에 관한 질문이 주어졌고 어머니들의 정신 상태에 대한 정신평가가 이루어졌다. 또한

* Wolkind, S. N. and De Salis, W. 1982 : Infant temperament, maternal mental state and child behaviour problems. In R. Porter and G. Collins (eds). Temperamental Differences in Infants and Young Children. Ciba Foundation Symposium 89. London : Pitman.

아동의 기질적인 특성은 기존의 기질측정 척도를 사용하여 4개월 경에 측정되었다. 42개월경에는 아동의 본성과 심리학적 적응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행동조사설문지(B, S, Q)를 면접에 포함시켰다.

연구결과, 4개월에 나타난 아동의 기질유형과 42개월에 나타난 문제 행동사이에 중요한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이들면서 가장 큰 문제를 보인 아동은, 유아기에 부정적 감정(많이 운다)과, 취침과 수유시간을 규칙적으로 정하고자 하는 어머니의 노력을 거부하는 경향 때문에 ‘어려운’ 아이라고 평가된 바 있었다. 그러나 가장 심한 영향을 받는 유아는 ‘어려운’ 기질을 가진 유아뿐 아니라 정신병적 징후(불안과 관련된 우울증)를 보이는 어머니들의 자녀들이었다.

이같은 두 가지 요인의 결합(예를 들어, 손상당하기 쉬운 기질과 환경적인 스트레스)은 문제 행동을 가장 잘 일으키는 것 같다. 이는 ‘쉬운’ 기질을 가진 아동은 어머니의 우울증으로 인해 큰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에 의해서도 설명될 수 있다. 그러나 어머니의 우울증은 어느 정도는 아동에게 영향을 주었다. 즉, 14개월경에 면접을 실시한 결과, ‘어려운’ 아동을 둔 어머니들은 육체적으로 피로하다고 말하였다. 이런 어머니들은 계속해서 정신병적 징후를 나타내는 것 같았다. 따라서 저자는 ‘어려운’ 아동은 환경적 스트레스에 나름대로 한 몫을 한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어머니로 하여금 ‘어려운’ 아동을 돌보면서 자신감을 상실하도록 해서, 아동에게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신병적 상태를 나타내게끔 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연구4 : 아동양육방법에 있어서 부부간의 일치와 불일치 그리고 성과 관련된 인성*

부부간의 불화는 아동에게 특별히 스트레스를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연구는 소녀와 소년이 그런 압박에 서로 다르게 반응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연구대상으로는 소녀와 소년이 약 반반씩 되는 100개 가정을 표집하였다. 아이들 각자의 성격과 적응성은 아이가 3세, 4세, 7세가 되었을 때 학교와 탁아소의 선생님에 의해 평가되었다. 여기서 부모와의 불화에 대해서는 자녀양육방식에 따른 부부간의 불일치정도를 측정하였다. 즉, 자녀양육에 따른 방법과 가치를 부모들이 개별적으로 작성하도록 하였다.

연구결과를 아동의 성에 따라 분류해 보았더니 소년이 소녀보다 부모의 불일치에 강하게 반응을 나타냈다. 따라서 3세가 되었을 때 부모들간에 뚜렷한 불일치를 보였던 소년은 그렇지않은 부모의 소년보다 미숙한 사회관계 빈약한 충동통제, 독립성의 부족 등과 같은 특징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비슷하게 4세가 되었을 때는 부모의 불화에 의해 심리학적 기능(언어구사, 조작능력, 공개적이며 직접적인 대인관계 등)이 영향을 받았다. 반대로 소녀는 그런 유형을 보이지 않는다. 즉, 부모의 불일치가 그들의 적응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러한 성의 차이는 좀 더 나이든 아동을 대상으로 다른 측정방법을 사용한 연구에서도 되풀이 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14, 15세된 아동의 부모에게 자녀양육 가치관에 대해 독립적으로 설문지를 작성토록 하였다. 그결과 소년의 경우 부모의 불일치와 아동의 지능

* Block, J. H., Block, J. and Morrison, A. 1981 : Parental agreement-disagreement on child-rearing orientation and gender-related personality correlates in children. Child Development, 52, 965-74.

지수간에는 관련성이 있었으나 소녀에게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자에 따르면, 이 연구는 부모와의 상호작용의 질은 소녀보다 소년의 심리학적 기능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고 제시하였다. 즉 소년은 내재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에 견고하고 예측가능한 환경이 필요하며 그렇지 않을 때는 상당한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한다.

연구5 : 보호조치를 경험한 아동-유행병학적 연구*

이 연구 또한 성의 차이에 관한 것이다. 자료는 10, 11세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된 두 가지 유행병학적 연구에서 나온 것인데 한가지는 와이트섬에서, 또 하나는 런던의 한 구역에서 실시되었다. 두 지역의 아동비율 중 한쪽 아동은 일생 중 어떤 시기에(최소 일주일간) 시설보호를 겪었던 아동이며 이 아동들은 무작위 선택된 통제집단의 다른 아동과 비교되었다.

모든 아동의 적응성은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된 설문에 의해 평가되었고 정신병적 진단은 부모와의 면접을 통해 수집된 정보에서 추출하였다. 이런 방식으로 일탈집단(즉, 특정한 격리기간과 관련하여 나쁜 기능을 보이는 아동)을 구별해 냈다. 통제집단아동에 비해 보호경험이 있는 아동이 일탈비율이 실제 높게 나타났다(와이트섬 13%대 2%, 런던 10%대 1%). 더구나 보호경험이 있는 일탈아동의 대다수는 소년이었다(소년 85%대 소녀 15%). 일반적으로 일탈은 반사회적 행동의 형태를 띠게 된다.

따라서 보호경험이 있는 소년 중 대다수가 후에 문제 행동을 나타내는데 비해 소녀는 소수만이 문제 행동을 보였다. 그러나 이같은 결과는 주로 단기간 보호에서 나타난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 Wolkind, S. and Rutter, M. 1973 : Children who have been 'in care'-an epidemiological study.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14, 97-106.

싶다. 왜냐하면 또 다른 결과는, 장기간 보호는 소년, 소년 모두에게 똑같이 영향을 준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덧붙여 이 연구에서 발견된 불리한 영향은 보호경험 그 자체에서 기인한다기 보다는 대부분 보호시설에 들어가기 전에 경험했던 가정불화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으며, 일시적으로 아동이 가정을 떠나 있는데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해석

지금까지 실시된 ‘손상당하기 쉬움’에 대한 조사연구의 주요성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이나, 문제 행동을 유발하는 경향에 있어 아동사이에 상당한 차이점이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으며, 둘째, 이런 차이점을 설명할 수 있는 몇몇 요인에 대해 지적하고 있으며, 셋째, 이런 요인 중 어느 하나도 개별적으로 작용하기는 힘드므로 대신에 특징들의 조합이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에 있어 다양한 차이가 있다는 견해는 현재 문헌조사연구에서 점점 확산되고 있다. 상당한 충격에 직면했을 때조차도 희생자뿐 아니라 생존자가 있으며, 양자에 대한 조사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다. 그러나 ‘손상당하기 쉬움’은 반드시 유일한 특징은 아니다. 아동에게 노출된 스트레스의 종류에 따라 그에 대한 반응이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이는 더욱 연구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영역이다.

‘손상당하기 쉬움’을 설명할 수 있는 요인에 대해 관심이 있는 한 더욱 더 연구해야 할 부분이 있다. 아동에게서 조사된 내적 요인 가운데 성과 기질이 지금까지 수집한 것 중 가장 주요한 요인이다. 특히 성은 여러종류의 스트레스에 대해 광범위하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져 왔다. 예를 들어 부모의 이혼에 대해서는 소년이

더욱 손상되기 쉬운 것으로 나타났고 신체적 측면에서는 소년이 유아 사망율, 산전후 합병증, 그리고 감염에 대한 민감성 측면에서 더욱 약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것에 대한 만족할 만한 설명은 없다. 여하튼 두가지 성의 중복이 다른 차이점보다 현저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구분이 분명해지기 전에 다양한 샘플을 조사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는 것이 중요하다.

손상성에 대해 기질적 특성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개념은 완전한 상식으로 받아들여지기 쉽다. 그러나 아직 특정한 기질적 특성에 대하여 정의를 내리거나 구분하기가 쉽지 않으며 그것들을 측정하거나 연령에 따른 안정성을 구축하지도 못하였다. 그러한 개념적, 평가적 난점은 기질이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에 대하여 연구자들간에 의견 일치를 보기 어렵게 만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아는 ‘쉬운’과 ‘어려운’으로 분류할 수 있다(이 용어는 세밀한 행동묘사와 연결되어 있다). 이런 특성은 어떤 형태로든 아동기 후반에까지 지속된다고 제외되어왔다. 이같은 제외는 폭넓게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최소한 어느 정도는 어떤 아동이 굴복하기 쉬운 아동이고 어떤 아동이 극복해 내는 아동인지에 대한 예측을 가능하게 해준다.

아동의 손상성을 설명할 수 있는 외적 영향 요인에 관심을 돌려 그 중 한 가지를 꼽는다면 그것은 다름아닌 사회계층이다. 사회계층은 단지 교육, 재정, 주택, 건강, 직업과 관련된 매우 다양한 특징들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에 불과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사회계층은 그동안 아동의 복지와 발달과정에 대한 유용한 예측적 도로써 종종 사용되어 왔다. 물론 오늘날엔 사회신분 유동성이 이전보다 훨씬 빠르며 따라서 사회계층의 개념은 훨씬 유동적이 되었다. 그렇긴 하지만 많은 연구들이, 사회적으로 불우한 가정에서 양육된 아동이 사회경제 척도가 높은 아동보다 발달하는데 불리한 영

향을 받는다는 것에 동의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아동의 사회계층은 아동이 나쁜 상황에 대해 취약한지 아니면 방어적인지에 대한 몇 가지 예시를 해 준다.

그러나 내·외적 영향만으로는 개인적 변수를 설명하기에 충분하지 않다(약간 예외는 있음). 지진이 발생하는 조건을 가지고 비유를 들어보자. 즉, 지진은 지각내의 불안정한 지진대와 외부 변형이 진동을 만들어낸다. 이와 마찬가지로 지진과 같은 정신적 기능의 손상이 일어나기 전에 몇 가지 요인들이 결합되는 것이 선행된다.

위에서 요약된 Wolkind와 De Salis의 연구에서 알수 있듯이 어머니의 신경증적 불안(외부변형)은 아동의 특정한 기질(불안정한 지진대)과 맞물려 문제행동을 유발한다. 유사하게 Werner와 Smith의 연구는, 출생시의 합병증은 아동이 스트레스가 많은 가정 환경에서 양육되었을 경우에만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또한 조화로운 가정은 초기의 불리함을 완화하고 나쁜 영향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적 요인을 알아내기 위해 현재 많은 노력이 시도되고 있다. 한 가지 예로써, 모성박탈의 장기적 손상에 대해 논할 때 이미 언급한 바 있는 Dowdney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아동기 동안에 보호시설을 경험한 여성일지라도 학창시절에 훌륭한 교육을 충분히 받을수만 있다면 후에 훌륭한 결혼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지지적인 가정환경이 광범위한 아동기 스트레스에 대해 최상의 보호를 제공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이는 다른 연구에 의해서도 지속적으로 입증되고 있는 사실이다.

실제를 위한 시사점

아동에게 불행과 장애를 안겨주는 환경에 대해 주의깊게 살펴보

고 그것에 대처하기 위한 예방적이며 개량적인 단계를 취해보는 것은 분명히 합당하고 적절한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손상이 발생하는 정도나 그 손상의 불가변성을 과대평가해서는 안될 것이다. 어떤 아동은(그들 자신이 만들었기 때문인지 혹은 그들이 지지적인 환경에서 살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놀라운 정도의 회복력을 보여준다. 이같은 현상은 자아존중성향에 나쁜 영향을 받은 아동에게서도 역시 나타난다. 따라서 스트레스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다룰 때에는 균형감각이 필요하다. 즉 한편으로는 가능한한 지지와 도움을 제공해야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꽤 심각한 상처까지도 회복해내는 아동의 능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될 것이다. 조치가 필요한 때는 엉뚱한 방향으로 이탈하거나 위험한 경로가 존재할 때 이다. 도움이 없으면 방향을 이탈하거나 자원을 낭비해 버릴 수가 있다. 이들을 안내하기 위한 일정한 공식은 없다. 그러나 최소한 스트레스를 많이 주는 환경에 직면하는데 있어서 개인간에 나타나는 차이의 범위와 그런 차이를 결정하는 요인들을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다.

개념 정의에 도달하기 위해 요인들의 결합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된다. 예를 들어 소년이 소녀보다 훨씬 취약하다는 통계적 수치에도 불구하고 모든 소년이 위험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출생시 합병증에 노출되었다 해서 모든 아동이 위험하다고 하는 것 역시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매우 높은 비율의 아동이 정상적으로 성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사회계층에만 근거하여 낮은 사회경제계층 가정의 아동이 모두 취약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무 쓸모없는 생각이다. 왜냐하면 그들 중 대다수는 상당히 능력이 있는 개인으로 성장하기 때문이다.

출산전후의 합병증, 성, 사회계층을 모두 고려하였을 때에 취약성이 큰 집단을 식별할 수 있으며 여하한 조치가 수반될 수가 있을

것이다. 심지어는 이 집단에서도 일탈에 대한 징후가 없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이는 전체 집단에 대하여 단정적인 개념 정의를 내리기 전에 훨씬 더 많은 손상성 요인들이 첨가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유보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다. 손상성은 상대적인 용어이다. 실제로 어떤 이는 반향성이라는 용어를 선호하는데 그 이유는 스트레스에 저항하는 것은 정도의 문제라는 개념이 쉽게 표현되기 때문이다. 두 개념 사이에 미묘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동을 손상당하기 쉽거나 어렵다고 정확히 양분하기는 힘들다. 최소한, 손상당하기 쉬움과 그렇지 않음은 단일적 특성이 아니라 아동의 연령과 아동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환경의 성격에 따라 달라진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 여러가지 경험들이 다양성이 존재한다고 말해주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 점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일련의 조건하에서 압박에 저항하는 아동이 반드시 아동기의 다른 모든 조건에서도 저항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마찬가지로 손상당하기 쉬운 아동이 어떤 상황에서는 놀라운 힘을 나타내기도 한다. 어떤 규격없이 손상당하기 쉽다거나 그렇지 않다고 딱지를 붙이는 것은 위험하다. 본성은 언어적 표현과 같이 쉽게 양분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극복한 사람이 완전히 무사하리라는 보장도 없다는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즉, 어떤 영향은 잠재되며 결혼한 후나 부모가 된 후에 나타나기도 한다. 피해야 하는 또다른 일반화가 있다. 즉 아동들이 유아기에 반드시 가장 취약하지만은 않으며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덜 취약해지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어떤 조건들은 모든 시기를 뒤흔들어 놓는다.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변하는 것은 이러한 조건의 성질이지 아동의 손상성은 아니다.

참고문헌

- Compas, B. E. 1987 : Coping with stress during childhood and adolescence. *Psychological Bulletin*, 101, 393-403.
- Garmezy, N. and Rutter, M. (eds) 1988 : *Stress, Coping and Development in Children*. Baltimore :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Murphy, L. B. and Moriarty, A. E. 1976 : *Vulnerability, Coping and Growth*. New Haven : Yale University Press.
- Rutter, M. 1985 : Resilience in the face of adversity : protective factors and resistance to psychiatric disorder.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47, 598-611.

제 3 부

아동기에 대한 고찰

아동 발달 연구는 우리들에게 구체적인 실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게 하고, 여러가지 대안들 사이에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정보를 제공 해준다.

이러한 종류의 정보들은 여러가지 실천상의 문제점과 관련하여 2부에서 검토되었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아동들의 일반적 특성과 그들의 발달 그리고 그러한 발달이 이루어질 수 있는 조건들에 대한 의견들도 역시 제공한다. 이같은 연구과정을 거치면서 점차 아동기에 대한 독특한 견해가 나오게 되며, 이러한 하나의 견해는 때때로 새로운 발견으로 인해 변화되기도 한다. 이 견해는 어떤 특수한 하나의 연구에 의존하거나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아동기 발달에 대한 일반적인 믿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즉 여기에는 특수한 발견의 차원을 넘어 아동의 본질과 그들 관리자들의 직무특성의 일반화가 존재하는 것이다.

암시적이건 명시적이건 간에 우리는 모두 아동에 대한 어떤 선입관을 가지고 있다. 그들을 어른과 다르게 만드는 점에 대해, 그들을 성숙시키는 힘에 대해, 그리고 아동의 삶 안에서의 양친의 역할 등에 대해. 실제로 이러한 선입관을 갖는 것을 피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때 우리자신 모두가 아동이었고 그 당시 일어났던 것들이 어쩔수 없이 아동기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아동 양육 이론을 채색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 영향은 너무나 미흡해서 어찌면 의식되지 못할 정도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귀결된 이론들이 필연적으로 변할 수 없다거나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는 것은 아니다. 자신의 아이를 양육하면서 얻은 개인적 경험이 아동과 부모 그리고 가족관계에 대해 이미 세워진 가설들을 변형시킬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아동 발달 연구를 통해 얻어낸 지식은 아동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아동의 요구와 능력에 대한 정의를 변화시키는데 도움을 줄수도 있다. 확실히 전문성을 갖고 아동 교육에 종사하면

할수록 정확한 가설을 세우는 것이 더 더욱 중요한 일로 여겨진다. 의사결정에 있어서의 가설의 영향은 매우 지대하다. 그러므로 이것은 이용하기 쉽고, 쉽게 전달될 수 있어야만 한다. 만일 다른 실시자들이 동일하거나 적어도 비슷하기만 하면 가설의 설립을 도울 수 있다. 이런 과정을 통해 하나의 공통된 골격 내에서 개인적인 사례들을 고려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

몇 가지 일반론

일반적으로 연구를 통해 얻은 제안들은 명확하고, 의사전달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 제안들은 검토되고 토론되고 공유될 수 있다. 다음에 소개된 것들이 최근 작업에서 얻어진 결과이다. 이 결과들은 우리가 이미 언급했던 연구들을 포함한 광범위한 연구들에서 지적된 이론들이다. 이들은 결코 한정된 목록을 구성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동이나 그들의 가족과 관련된 기본 이론들이다.

○ 아동들의 대인관계 경험은 그들의 심리적 적응에 결정적인 요인이다

대인관계의 중요성은 아동 발달에 대한 문헌에서는 어디서나 계속 제기되는 논제이다. 대인관계의 발달과정에 대해 설명하는 과정에서 가능한 모든 종류의 영향 요인들이 검토되어 왔다. 사회계급, 가족구조, 출생순서, 민족, 가정과의 단절, 교육, TV, 신체적 보살핌(우유인가, 모유인가, 대소변가리는 시기) 등등.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풀이해서 우리가 계속 주의를 기울여야 할 주요 요소는 아동들이 실제로 대인관계 과정에서 무엇을 느끼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사회계층: 대부분의 연구는 사회계층이 아동 발달 특성에 다양한

방법으로 관련되는 요인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계층은 하나의 추상적 관념이다. 아동의 행동은 사회계층 그 자체만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계층과 연관된 경험, 기대, 태도 등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다. 빈곤, 무식, 나쁜 건강과 같은 악조건 속에서 자신의 아이를 양육하는 어머니는 이같은 생계 부담을 지지 않아도 되는 어머니와는 아주 다른 개인환경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차이가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 할지라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어머니의 태도와 어머니와 자녀와의 관계 유형이다.

가족구조: 편부모 가정연구나, 전통적인 가정과 비전통적인 가정의 차이를 논할 때 본 것처럼 아동이 속해있는 가정의 유형은 아동의 적응과 큰 관계가 없다. 아동이 관습적인 양친부모 가정과는 다른 가족유형의 일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심리적 비정상성이 반드시 야기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편부모 가정의 아동이 파괴되지는 않았지만 갈등에 시달리는 가정의 아동들보다 더 잘 생활하고 있다. 동성연애자 가족의 아동 역시 비정상적인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부재가 필연적으로 성역할 정체감 발달에 왜곡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아버지가 아동의 주된 보호자로 행동하는 곳에서의 뒤바뀐 부모역할이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반드시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모든 경우 고려해야 할 주된 요인은 가정에서 행해진 인간관계의 질이다. 대인관계의 좋고 나쁨은 한 가족형태의 독점물이 아니다. 즉 가족형태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어머니나 아버지가 생부 생모인가, 어머니가 일하러 나가는가 아닌가, 아버지가 어머니 역할을 하는가, 부모가 결혼을 했는가 등등에 의해 좌우된다. 심리학적으로 아동의 일상생활의 핵심을 이루는 인간관계가 만족할 만한 성격을 띠고 있는한 건강한 성품은 아주 다양한 사회집단 상황에서도 형성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같은 일반원칙은 인성발달의 다른 가능한 결정요인에도 적용된다. 이 결정요인들은 아동과 다른 사람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그 영향이 전파된다. 예를들어 출생순서는 많은 주의를 끌어왔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일반적으로 출생순서에 따른 부모의 차별대우로 인한 영향이라고 인정되고 있다. 아동의 사회화 매체인 TV조차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 따라 그 영향이 좌우되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시청량이나 프로그램 선호 모두가 부모자녀간 갈등, 부모의 무관심 그리고 부모자녀 관계에서의 따사로움의 결핍 등에 의해 영향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와의 관계가 나쁘면 나뉠수록 아이들은 TV보는 시간이 길어지고 폭력물 프로그램을 더욱 더 좋아하게 된다. 가정으로부터 격리되는 것과 같은 스트레스의 영향에 관한한, 이로인해 발생한 피해의 정도는 부모와의 관계가 스트레스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는가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 이러한 관계가 격리 경험의 사전과 사후에 이루어지는 곳에서는 완충기를 설치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을 것이며, 덜 만족스러운 배경을 지닌 아동들에게서 같은 경험후에 나타날 수 있는 병리학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대인관계의 질이 중요하다—대인관계의 질이 상당한 어려움들을 제시해 준다는 것을 명시하는 것—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쉬운 일일 것이다. 필요한 요인을 정확히 지적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이 기울여지고 있다. 자신있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질은 양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훌륭한 부모노릇은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에 의해 결정지워지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아이들과 같이 지낼 때의 상호작용의 종류에 의해 결정된다.

○ 자녀 양육은 부모가 참여하는 만큼이나 자녀들의 참여를 요구하는 공동작업이다

대인관계에서 중시해야 할 점은 부모가 아동에게 무엇을 해주는가가 아니라 그들이 아동들과 함께 무엇을 하는가이다. 어른과 아동 사이에서 발생하는 것이 단순히 어른의 바램과 의지에만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아동들의 인성도 역시 참작되어야 한다. 앞서 문제점들이 논의되는 동안 개인차의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되었다. 동일한 상황아래서 아동들은 각각 다르게 대응하고 있다. 아동들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 외적인 것만큼이나 내면을 관찰해야 한다. 아동에게서 일어나는 것은 타인들이 그들을 어떻게 취급하는가와 같은 외적인 사건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아동들 자신의 성격에 의해서도 결정된다.

불행하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동의 심리적 발달이 부모의 양육이란 용어로 완전히 설명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즉 자녀 양육을 일종의 চাল흙주조로 보고 있다. 따라서 아동이 일종의 চাল흙덩이 형태로 이 세상 안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리고 부모나 다른 어른들이 이 চাল흙을 그들이 옳다고 그리고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어떤 형상으로 주조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동의 성격이 전적으로 부모에 의해 형성되면서 결국 그 형태가 결정지워진다고 생각한다. 아동 발달에 있어서 어떤 불행한 사건은 어른들의 행동에서 기인됨에 틀림없으므로 책임있는 요인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어른들에게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한 자녀 이상을 가진 부모가 증명할 수 있듯이 아동을 개인적인 특성이 없고 돌보는 사람들에 의해 완전히 조정되는 존재로 취급하는 것은 터무니 없는 것이다. 한 아동을 위해 행한 일들이 반드시 다른 아동들에게 필요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아동들은

처음부터 그들의 발달을 이루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그들 고유의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아동을 양육한다는 것은 어른과 아이 모두의 참여를 요구하는 공동작업이라 할 수 있다. 부모가 수동적인 존재에 일방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다. 아동들을 적절하게 다루기 위해서는 아동들의 개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부모의 특성 뿐만 아니라 아동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가지 극단적인 예는 아동 학대 연구에서 나타난다. 선천적인 질병, 출생시의 적은 몸무게, 조기에 발생하는 건강문제 등으로 인해 양육하기가 매우 힘들다는 이유에서 어떤 부류의 아이들은 학대의 희생자가 되기도 한다. 이런 아이들이 여러 형제자매로 구성된 가족 내에서 맡아놓고 학대를 받는 유일한 존재가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즉 어린이는 부지중에 자신의 운명의 한 원인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같은 사례를 만드는 주위환경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부모를 연구하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아동의 개성도 역시 포함되어야만 한다. 우리가 앞서 참고했던 New York Longitudinal Study의 저자들은 아동의 문제행동이 필연적으로 부모의 불건강한 영향때문이라는 일반화된 가정이 어떻게 잘못되었는가를 강조하였다. 이같은 가정은 “Johnny의 엄마를 만나는 것이 그의 문제를 이해하는 것이다”라는 표어에 반영되어 있다. 어머니의 병리적 영향이라는 잘못된 편견에서 나온 이러한 견해는 실제로 부모의 영향은 아동의 잘못된 발달에 대한 한 가지 요인에 불과하다는 견해를 가진 복합적인 요인 연구로 대체된다.

부모자녀간 상호작용은 두 개의 경로를 갖는 사건이다. 부모가 영향을 준 만큼 역으로 아동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Thomas와 Chess(1984)가 적합도(goodness of fit)의 개념을 제시한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였다. 그들은 아동의 문제행동 발달은 부모나

아동 자신, 어느 한 쪽에 대한 지식으로 예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양자의 특성의 적합성 여부에 따라 가능한 것이라는 것을 발견하였다. 한 예를 들면 어떤 아동들은 포옹하는 것을 싫어하여 신체적인 접촉을 시도하려는 어머니를 울거나 떼를 쓰며 거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대단히 활동적인 아동으로 취급되어졌으며 그들의 거부가 그러한 접촉으로부터라기 보다는 간혀있고 가만히 있는 것에 대한 저항이라고 생각하곤 했다. 대부분의 어머니는 즉시 이것을 알아차리고 다른 종류의 접촉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반응에 맞춘다. 반대로 만일 한 어머니가 그렇게 하는데 실패한다면 그리고 어린이의 특성을 무시하면서 계속해서 그와 같은 부적합한 자극을 제공한다면 그 때문에 부적합 현상이 일어나고 발달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처럼 이러한 문제에 대한 설명은 어느 한 쪽만의 특성에 관련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와 아이의 상호작용에 달려 있다.

따라서 아동의 개성은 그들을 보살필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 의해 존중되어야 하며 그들의 발달과정을 이해하려는 사람들에 의해 고려되어야 한다. 어떤 주어진 경험에 어린이들이 다양하게 반응하는 것이 증명하듯 (타고난 기질에 대한 연구가 아직 진행되고 있긴 하지만) 결국 출생 초기부터 아동들의 개성 간에 차이가 있다는 것은 의심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지식없이도 일반적인 요지는 받아들여져야 한다. 아동 발달은 환경만으로는 설명될 수 없다. 그리고 다른사람들이 그들에게 해 주는 것만으로도 설명될 수 없다. 대신 우리는 그러한 경험들이 어떻게 영향을 주며 독특한 개성에 어떻게 흡수되는 가를 고려하여야만 한다. 평가는 부모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아동에 대한 지식도 요구한다.

○ 아동의 개성에 대한 민감함은 유능한 부모가 되는 필수 불가결한 요인이다

아동을 양육하는 것이 아동과 부모의 공동작업으로 취급되고 성공적인 발달이 두 특성의 적합성에 달려있다면 부모는 자신의 자녀의 개성에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가 포용을 싫어하는 아이의 예에서 본 것처럼 부모는 부드러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각각의 아동의 요구와 습관에 대해 민감해야 한다.

부모 역할에 대해 분석하려는 시도가 여러 차례 있어왔다(친숙하지만 아직은 잘 알 수 없는 이 기능에 단지 무엇이 수반되어야 하는지 알기 위해). 일반적으로 이 시도들은 아직까지 완전한 성공을 이루지 못했다. 우리는 부모를 단순히 좋다, 나쁘다라는 용어로 평가한다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며 좀 더 세밀하고 덜 비판적인 용어를 사용할 것을 요구한다. 지금까지 우리는 부모역할의 다양한 요인을 모두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몇 가지 관련된 요인들이 발견되었으며, 이 중 민감함은 여러 연구에서 아동 발달을 위해 고려해 볼만한 중요한 것으로 선택되었다.

일상어에서는 이분법으로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사람을 간단하게 민감한 사람과 민감하지 않은 사람으로 나누어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민감함은 하나의 연속체이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단순히 민감하거나 둔감한 양극에 위치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양극의 중간정도에 위치한다. 따라서 개인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황과 상황(대변훈련인가, 상호교류활동인가), 시기와 시기(예: 자신의 첫아기에게 익숙하지 못하고 불안했던 어머니도 아이의 성장과 더불어 유능해진다) 등의 다양함이 배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한정된 정보를 기초로하여 개인에게 꼬리표를 붙인다는 것은 크게 잘못되는 수가 있다.

다른 사람의 관점으로 사물을 볼 수 있는 능력은 민감한 마음에 달려있다. 따라서 민감한 부모는 아이들의 신호와 의사에 맞추며 즉시 적절하게 대응할 것이다. 반대로 둔감한 부모는 아동 자신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부모자신의 바램에 비추어 모든 의사전달을 해석할 것이다. 후자의 경우 아동에게서 병적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둔감한 어머니는 자녀에게 정서적 불안을 가져다 주며 이는 특히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나타난다. 늦은 언어발달 역시 어머니가 둔감하게 아이를 다루는 데서 오는 결과 중의 하나이다.

만일 부모의 민감함이 이렇게 중요하다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밝혀내는 것이 필연적인 일이 된다. 왜 사람마다 이 문제에 대한 의견이 다른가? 왜 이러한 능력은 특히 몇몇 부모들에게 결여되어 있는가? 여기에는 소홀히 취급되기 쉬운 몇 가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부모의 성별이 이중 하나이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남자가 여자보다 선천적으로 아동에게 덜 민감한 기질을 타고난다는 증거는 없다. 반면 부모자신의 어린시절 경험과 교육이 결정요인이 될 수 있다. 혜택받지 못한 아동이 혜택을 주지 못하는 부모가 된다고 생각되어 왔다. 이것은 지나친 단순화 일 수 있다. Quinton과 Rutter가 보여준 바와 같이 이러한 일대 일의 대응은 필연적인 것이 아니다. 올바른 조건만 주어진다면 사람들은 악순환을 깨뜨릴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서장애를 보이는 부모 밑에서 자란 경험은 정서장애의 요인으로서 간주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이 자신의 아이들을 다루는데 더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도 부모로만 설명하려 하는 것은 오류가 될 수 있다. 부모역할의 효율성이 아동에 따라 달라지기도 한다. 아동 발달이 부모에 달린 만큼이나 어린이들 자신에 달려 있다는 앞선 우리의 주장에 대한 보충설명이다. 계속 반복되어 온 바와 같이(Schaffer와 Collis의 1986년 연구를 참고할 것) 몇몇

아이들은 다른 아이들보다 양육이 더 어렵다. 신경학상으로 손상된 아이들, 조숙아, 정신장애아나 신체장애아 그리고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의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는 아이들, 이러한 경우 부모들은 무거운 짐을 추가로 지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자녀를 둔 부모들은 더 이상 이 아이들에게 정상적인 기준과 기대를 적용할 수 없게 되며 이로 인해 이 아이들의 표현과 의사를 잘 이해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부당한 조치를 취할 기회가 더욱 더 증가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부모의 민감함은 단지 개인의 인격적 기질의 불변하는 특성이 아니라 오히려 특정 아동과 한 특정 부모의 관계를 묘사하는 하나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 아동들은 일관성 있는 보살핌을 원한다

우리 모두는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환경을 필요로 한다. 특히 어린아이들은 더욱 그러하다. 어린시기에는 극심한 변화에 대처할 능력이 한정되어 있다.

이 점에 대해서 여러 차례 다루어 왔으니 함께 다른 이론을 제기해 보자. 예를 들어 가정으로부터 격리되는 것이 가져오는 영향을 논의할 때 거부 반응의 정도는 어른들이 아동을 위해 연속성을 유지하는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 밝혀졌다. 기존의 관계가 잘 유지되면 유지될수록—부모의 방문을 통해 또는 같이 남아있는 형제자매들과—가정의 일상적인 사소한 일들이 잘 유지된다. 새로운 환경이 옛날 환경과 공통점이 많으면 많을수록 아동들은 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많은 연구에 의해 나타났듯이 입원으로 인해 생기는 정신적 쇼크의 특성은 아동의 거의 모든 생활양식이 아주 급격히 변화한 데에 있었다. 비슷한 현상이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 대한 연구에서도 나타난다. 왜냐하면 이 경험 역시 모든 것에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즉 어느 한 쪽 부모와 접촉할

기회를 상실하는 것, 새로운 이웃에로의 이동, 전학, 새로운 친구들과의 사귀, 감축된 경제생활에서 오는 생활양식의 변화 등. 한 예를 더 들어보자. 탁아에 있어서의 일관성은 아동들의 집 밖에서의 적응을 위해 매우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이 탁아시설에서 동일한 한 어른에 의해 보살펴지거나 아동이 속한 또래 그룹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그리고 일상생활과 환경이 일관성있게 유지된다면 아동들은 손상받기는 커녕 오히려 혜택을 받을 것이다.

물론 동일성과 변화 사이에는 최적의 균형(새로운 경험에 적응하는 능력의 발달이나 연령에 따른 다양한 균형)이 있다. 양극단 즉 극단적으로 동일하거나 극단적으로 변화가 심한 것은 똑같이 해롭다. 전자는 아동들이 다양한 사람들과 환경을 다루는 기술을 익히는 것을 가로막기 때문이고 후자는 새로운 정보를 취할 수 있는 아동의 능력을 초과하여 아이들에게 혼란과 당혹스러움을 가져다주기 때문이다. Wolkind와 kruk(1985)가 실시한 연구에서 볼 수 있듯이 가족이 붕괴되거나 탁아시설에 위탁되는 것으로 인해 불안정한 어린시절을 보내는 것은 성인기에 나타나는 불안정한 생활양식의 전조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아동을 돌보는 일에 있어서의 일관성은 주로 아동을 돌보는 사람에게 달려있다. 마찬가지로 일관성의 결핍은 이러한 돌보는 개인의 다양함에 기인한다. Tizard(1977)는 공공시설에 수용된 아동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연구에서 이 집단의 아동들은 네살반이 될때까지 50명 정도의 돌보는 사람들에 의해 한 번 또는 그 이상 돌보아져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공공시설에 맡겨진 아동들이 당면한 위험이다. 아동들은 한 시설 또는 위탁 가정으로부터 다른 곳으로 이동할 때 물리적 환경의 변화를 경험할 뿐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각기 다른 양육방식을 가진 다수의 대리부모들의 손에 놓이게 된다. 확실히 이것은 불안정된 어린시절을 만드는데 큰 몫

을 하게 된다. 더욱이 아동은 집을 떠나지 않아도 모순(불일치)을 경험할 수 있다. Block와 그의 동료들(1981)은 자녀양육 실재나 가치관에 대한 부모들간의 의견 불일치는 어린이의 부적응을 가져오는 잠재적인 힘이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아버지 어머니가 각각 아동에게 일관성 없는 요구를 함으로써 무엇이 받아들여지고 무엇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인지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행동의 일관성은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또 다른 하나의 부모의 특성이라고 결론지을 수 있다.

확실히 어린이를 기를 때 경험의 일관성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이혼 후 아동의 거취 문제를 결정할 때에는 관계의 일관성이 최우선적인 기준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Goldstein과 그의 동료들의 주장은 맞는 말이었다(비록 현재 양육중인 부모가 그렇지 않은 부모와 아이가 친족관계를 계속하는 것을 막을 권리가 있다는 그들의 주장은 확실히 잘못된 것이지만). 그러나 불행하게도 부모가 사망했거나 과거와의 단절이 요구되는 어린이 학대의 몇몇 경우와 같이 연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권하지 못할만한 상황도 있다. 그렇지만 아동들은 무시할 수 없는 회복력을 가지고 있고 새로운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한 차례의 파괴는 어린이에게 상처를 남길지도 모른다. 그 자체로는 그렇게 오래가는 병을 만들지는 않는다. 한편 Wolkind와 Kruk, Tizard에 의해 조사된 것과 같이 계속되는 파괴는 훨씬 더 심각한 위협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미래가 더 더욱 심각하게 되는 것은 이렇게 어린시절의 많은 부분이 불안정하게 될 때이다.

○ 아동에게 가장 해로운 영향을 주는 것은 가정 불화이다

몇 가지 측면에서 볼 때 가정내에서의 갈등경험은 원만한 대인관계를 이루는 데 역행하는 매우 불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갈등은

남편과 아내 사이에 존재하고 아동은 방관자로서 그리고 간접적으로 개입할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이 목격하는 것은 그가 강한 애정을 가지고 있는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파괴되는 것이다. 아동 자신의 말에 의해 충분히 설명되었듯이(Mitchell, 1985) 이것은 부모의 불화에서 오는 고통을 배가시킨다.

아동의 정신건강에 관한 한 부모의 갈등이 가장 유해한 경험이라는 것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있다(Emerg, 1982). Block과 그의 동료들(1986, 1988)이 실시한 연구에서 확실히 들어난 것처럼, 그리고 이론의 영향에 대한 논의에서 요약되었듯이 아동에게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부모의 결별 그 자체가 아니라 결별이 가져오는 긴장과 적개심이다. 만일 부모가 이혼하기 이전에 아동이 이미 정서장애를 일으키고 있다면 아동이 장애를 일으키는 데 영향을 준 요인은 부모결별의 파탄 그 자체라기 보다는 같이 생활했을 당시의 가정 분위기라고 결론지을 수 있다. 이것은 사망으로 부모를 잃은 아동과 이혼으로 부모를 잃은 아동 간의 비교에서, 그리고 이혼이 긴 갈등의 일부로 되어버린 아이와 부모가 그들의 이혼을 합리적으로 애정을 갖고 처리한 아이들과의 비교에서도 확인되었다. 또한 깨어지긴 했지만 갈등으로부터 해방된 가정의 아이와 깨어지진 않았지만 갈등을 갖고 있는 가정의 어린이간의 비교에 의해서도 확인되었다(Emerg, 1982). 우리는 이 모든 경우에서 부적응과 불행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갈등의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동이 집에서 이탈되는 것으로 인해 생기는 부모 자녀간의 격리를 다루고 있는 연구(Rutter, 1981)에서도 비슷한 결론이 나타난다. 이러한 격리의 영향은 어린이들이 집을 떠나게 되는 원인에 따라 몹시 다르게 나타난다. 즉 휴가나 병 때문에 격리되었을 때가 가정분열이나 비정상적인 가정생활 때문에 격리되었을 때보다 훨씬 더 전망이 밝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불화와 아동 문제 사이에 관련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면 다음과 같은 다양한 질문들이 제기된다. 이러한 가정안에서 아동에게 나쁜 영향을 주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보는 것도 그 중 하나이다. 행복하지 않은 부모는 그들의 자녀에게 정서적으로 덜 유용한가? 또한 부모의 긴장이 자녀와의 갈등으로 파급되는가? 자녀와의 관계에서 지나친 감정표현을 함으로써 부부간의 애정결핍을 보상하려 하지 않는가? 물론 또 다른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다. 만일 누군가가 이러한 가정을 도우려 한다면 이에 대하여 연구해야 할 것이다.

모든 병리학의 형태를 한 번에 설명할 수 있는 것은 깨어진 가정이었다. 만일 우리가 아직도 깨어진 가정을 양친이 함께하지 않는 가정이라고 알고 있다면 우리는 가정의 기능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결론지어야만 한다. 이미 앞서 강조되었듯이 아동 문제에 영향을 주는 것은 가족 구조가 아니라 아동의 대인관계이다. 따라서 사회적 조치를 취할 때는 우선권은 가족구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유지하는 데에 주어지는 것보다 대인관계를 어렵게 하는 것에 주어져야 한다. 이러한 조치는 어린시절 가정 불화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개인이 성인이 되어 비정상적인 부모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한 특히 중요한 것이다(Rutter의 1979년 연구를 참조할 것). 따라서 불행하고 파괴된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은 사생아를 갖기 쉽고 미혼모가 되기 쉽고, 불행하고 짧은 결혼생활을 하기 쉽고, 그들 자신의 아이들을 무감각하고 혹독하고 소홀하게 취급하기 쉽다. 필연적인 것은 아니지만 세대간의 순환은 어린시절 동안 가정불화를 경험하는 것을 매우 중대한 위험요소로서 여기기에 충분할 만큼 아주 자주 나타난다.

○ 특정 스트레스보다 지속적인 불행이 정신병리학의 원인 이 된다

가정불화가 강한 잠재적 효력을 갖는 이유는 지속적인 경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모든 가정은 나름대로의 갈등의 순간들을 갖고 있다. 그러나 어떤 가족들은 긴장과 불화의 상태가 다소 지속되며, 이들 아이에게 불변의 한 부분으로 자리잡아 가게되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이러한 영향들은 일상생활에서 아이들이 겪게되는 경험의 일부를 형성하고 이러한 경험은 성격형성시 강한 잠재력으로 작용하게 된다.

그러나 아동기 비행문제에 책임이 있는 것은 사건들이 아니라 지속적 불행이라는 것은 분명해졌다. 이것은 단지 그러한 경험이 인생에서 독특하다는 이유만으로 일반적으로 잘 기억된다는 것때문에 강렬한 스트레스를 주는 특별한 경험이 원인이라는 일반적 통념과 상반된다. 예를들면, 가정으로부터 격리된 아이는 당시에는 커다란 고통을 받았더라도 격리기간이 일정한 시간으로 한정되거나 안정된 가정생활 중에 일어난 경우에는 지속적인 정신병리증상은 보이지 않았다. 이는 다른 격렬하고 갑작스러운 변화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부모가 집을 떠나보라. 이혼에 대한 보고서에서 밝혀졌듯이 대부분의 아동들은 그것이 가족생활에 어떤 지속적인 위기를 가져오지 않는다면 그러한 사건에 순응해서 결국에는 진정이 된다. 부모의 죽음도 마찬가지다. 어린시절에 경험은 그 자체가 이후에 나타나는 비행과 필연적인 관련이 있다는 증거는 없다(Rutter, 1981). 이것은 부모의 자살과 같이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Shepherd 와 Barraclough(1976)의 연구에 의하면, 수 년후에 아동들을 살펴보았더니 필연적으로 정서장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끊임없이 가정의 불안정을 이겨내야 하는 처지에 있는 것도

아니었다. 지속적인 스트레스가 장기적 결과를 가져오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에 다시 한번 주목하자. 이같은 결론은 또다른 연구들 즉, 자연재해(지진, 홍수, 태풍, 산불 등)를 경험한 어린이에 대한 영향을 연구한 다른 연구들에 의해서도 재확인된다. 연구들은(예를들면, Burke et al., 1982;McFarlane et al., 1987)첫째로 몇몇 아동에게만 몇 달 혹은 몇 년 후에 정신병리증상이 나타나고, 둘째로 장기적 영향은 가족이 살림살이나 집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은 지속적인 일련의 재난을 극복하여야 하는 경우에만 발생하기 쉽다고 말한다.

고립된 각각의 위기가 후에 장애를 일으키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진다. 특정한 스트레스는 그것이 연속된 재난의 첫고리가 되는 경우에만 장기적 중요성을 갖는다. 즉, 가정으로부터 격리된 아동은 형편없이 나쁜 기관들이나 위탁가정에 맡겨질지 모르며 이것은 아동의 불안정, 자아상실 등을 강화하고 결국에는 왜곡된 성격을 초래하는 데 일익을 담당하게 된다. 그러나 그 때에 과거를 회상해 보더라도 최종 결과에 중요한 원인이 되는 어느 특정한 계기를 추출해 내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것이다. 최종결과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은 특정한 시점에서 발생한 특정한 사건보다는 현재까지 계속하여 어린이에게 영향을 미친 경험의 총체다.

이것이 각각의 고립된 스트레스를 경솔하게 취급하라는 것은 아니다. 우선 그것들은 그 당시 고통을 주고 행위를 정당화하는 많은 것들이 홀로 있는 것을 최소화한다. 또한 이 시점에서의 개입은(그렇지않다면 명백히 잔인한 결과를 가져올 지도 모르는)일련의 바람직하지 못한 일들이 나타나는 것을 막아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문제의 진전을 이해하고자 한다면 개인의 인생 전체를 살펴보아야 하며, 그 기억이 아무리 생생하더라도 몇 가지 고립된 정신적 고통에 모든 책임을 돌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 유년기에 겪은 불행한 경험의 영향은 불변적인 것은 아니다

또 다른 통념은 아동들의 초기 경험이 영속적 효과를 갖기 쉽다는 것이다. 성격발달에 관한 유아기 경험이 후에 겪는 경험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은 아동은 좋고 나쁜 것에 상관없이 그들이 경험한 것을 영원히 기억하는 아주 민감한 존재라는 생각에 근거한 것이다. 어린아이일수록 감수성이 더욱 민감하기 때문에 만약 이 시기의 경험이 불행한 것이었다면 그 때는 아이를 돕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믿음은 틀린 것이다. 적당한 조건하에서는 초기 경험의 영향을 변경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들이 많이 있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아동들은 어린시절부터 부모없이 자랐다는 이유만으로 타인을 사랑하는 능력을 영원히 상실하지는 않는다. 마찬가지로 부모와 격리시킴으로써 이미 확립한 부모-자녀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이 아동에게 반드시 지속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결핍, 무시, 또는 남용 등의 일들이 어린시절의 초기에 일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영구적인 장애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이 점을 잘 보여주는 몇 가지 뛰어난 예들이 발표되었다. 하나는 초기 박탈이 미치는 영향에 관한 Dennis(1973)의 보고이다. 이 보고서에서 보면 태어나자마자 곧 매우 억압적인 기관에 맡겨진 후 그곳에서 최소한의 보호를 받은 아동들은 자신의 나이의 반정도되는 수준으로 행동할 만큼 정신적 발달이 지체되었다. 그러나 그 후에 훨씬 많은 자극을 주는 기관으로 옮겨졌거나 정상적인 가정으로 입양된 일부 아동들은 초기 경험에서의 영향에서 회복되어 훌륭하게 발달하였으며 결국에는 정상적으로 잘 행동할 수 있었다. 이와 유사한 또 다른 연구는 Koluchova(1976)의 연구이다. 이 연구는 한

쌍둥이에 관한 것으로 그들은 6살이 될때까지 대부분의 시간을 거의 완전히 고립된 조그만 방에서 계모에 의해 양육되었다. 그들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대부분의 지적, 사회적 기능은 거의 상실되어버린 상태였고 정서적으로도 매우 불안한 상태였다. 그러나 그 후 입양되어 극진한 사랑과 관심을 받았을 때 그들의 발달은 눈에 띄게 빨라지기 시작하여 결국 완전히 회복한 것 같아 보였다.

이러한 연구보고들은 과거의 영향력을 과대평가하는 것의 위험성을 잘 보여 주고 있다. 아무리 초기의 경험이 끔찍하였다 하더라도 필연적으로 그것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최종 결과는 단지 무엇이 처음에 일어났는 가에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일어난 사건에도 달려 있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외관상으로는 동일한 경험을 한 개개인들이 다양한 결과를 보여주는 중요한 원인이 된다. 어린시절을 결정적 시기(즉, 너무 손상받기 쉬운 시기라서 이 시기에 아동에게 무엇이 일어났느냐에 따라 영원히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시기)로 보는 것은 두 가지 이유로 위험스럽다: 첫째, 어린시절에 불행을 당한 아동은 아무리 도움을 주어도 소용이 없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기 때문이고 둘째는 아동은 나이가 들수록 영향을 별로 받지않는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이러한 주장은 어느 것도 진실이 아니다: 후속적인 경험이 초기 불행의 영향을 상쇄할 수도 있고 모든 나이의 아동들은 이런 저런 방식으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그동안 역경을 극복하는 아동의 능력이 과소평가 되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연구 결과들에 힘입어, 이제는 어린시절에 다소간 결함이 있다해도 모든 것을 다 상실하지는 않으며, 어린이는 놀라운 결집력을 갖고 있다는 생각이 반이들여지고 중재가 늦었다고 분명히 단정할만큼 특별한 단절점(2세 후 또는 5세 후 등)은 없다. 나이가 들에 따라 나쁜 영향을 제거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며,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도 무한하지만은 않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의 지식수준으로는 가변성이 가능한 한계나이를 설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어쨌든 많은 다른 조건에 따라 변화할 것이다. 그러므로 아마도 ‘결코 늦지 않았다’는 가정을 유지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일 것이다.

유아기의 불행에서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에 대해 아직 완전히 이해된 것은 아니다. 불우한 아동에 관한 보고서들은 주요한 환경변화를 통해서 이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아동들이 부적절한 곳을 떠나서 보다 편안한 다른 환경에 입양되거나 옮겨진다면 유아기의 불행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대부분은 아동이든지 어른이든지 간에 개인이 도달하는 전이점에 달려 있는 것이다. Quinton 과 Rutter(1988)의 연구가 보여주듯이 근심속에서 자란 여자는 성공적인 결혼을 함으로써 최악의 영향을 극복할 수 있었다. 집을 떠나는 일, 취업, 결혼, 임신 등등의 여러 가지 전환점이 있다. 이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얼마나 성공적인 길을 선택하느냐가 최종결과에 놀라울 만큼의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 (Rutter, 1989). 예를 들면, 고된 직업이나 불행한 결혼 등을 선택하는 것은 단지 초기의 불행을 강화할 뿐이고, 만족스런 직업이나 든든한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 등은 그 불행의 연쇄성을 깨고 탈출할 수 있게 해준다.

○ 심리적인 문제에는 일원적인 설명보다는 다변인 분석이 원칙이다

지금까지, 아동에게 있어서 특정 경험의 영향력은 경험 자체만이 아니라 그것이 발생한 경위에도 의존한다는 것에 대하여 여러 차례 살펴 보았다. 아버지의 부재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는가? 이것은, 예를 들면 결혼의 이유(죽음 또는 이혼 등)라든가 어머니의 반

응, 가족에게 미치는 재정적인 또는 다른 실제적인 결과나 친척이나 친구들의 도움 등에 따라 달라진다. 집을 나오는 것이 아동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다시 말하지만 그것은 수 많은 다른 사항들 즉 집을 나오는 이유, 이전의 가족관계, 대리보호자의 친밀성여부, 형제들과의 계속적인 접촉, 일상적인 일들의 외해, 돌아갈 집의 분위기 등에 따라 달라진다. 어머니가 직장에 나가는 일이 미치는 영향 또한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일은 일을 하는 이유, 어머니가 일에서 얻는 만족감, 아버지의 지지, 어머니가 일하는 동안 아동을 맡기는 장소 등의 요소에 달려 있다.

다른 곳에 대한 설명도 이와 유사하다. 부모의 무능력과 아동 학대도 어머니가 신생아와 충분한 접촉을 갖지 못한 것(유대결핍)에 기인한다고 간단히 설명할 수는 없다. 어린이가 초기에 겪은 불행의 영향은 그 경험이 얼마나 일찍, 그리고 얼마나 불행했는지에 의해 단순히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아동이 부모의 이혼을 어떻게 이겨내는 가는 이론 그 자체보다 훨씬 더 복잡하게 결정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심리사회적 상황과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간단하고 분명한 대답을 원하는 것은 이해할만하다. 어머니가 직장을 갖는 것이 옳으나, 그르나, 탁아소는 유익한가, 해로운가? 결손가정에서 자라는 것이 불행한가? 이런 질문에 대하여 사회과학자가 솔직하게 예-아니오, 유익함-해로움, 항상-결코라는 대답을 해주지 못할 때에는 실망스럽고 화가나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연구를 통해 그러한 쉽고 간단한 대답은 실생활의 복잡성을 간과한 무지한 대답들이라는 것이 충분히 밝혀져 있다. 여러 가지 요인을 결합하는 일에는 언제나 깊은 생각이 필요하다. 단순 인과모형은 인간행동을 설명하는 데 소용이 없다. 사건들은 각각의 경위가 있는 것이고 이러한 경위를 규정하는 조건들이 최종결과를 결정하는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부모의 알콜중독과 어린이의 정서장애증상의 발생은 일대일 관계일 수 없다(West andPrinz, 1987). 알콜중독의 부모가 있는 가정에서 정서장애 아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대부분 또는 전부가 심리적 부적응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쉽게 영향 받게 하는 부가적인 요소들이 작용하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포괄적 일반화나 전반적인 해결책을 구하는 것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사정여하에 달렸다’라는 말은 귀찮은 문구일지도 모르고 좋은 문구가 될 수 없는지는 몰라도 정확하게 사실을 반영한 문구다.

사회과학자들이 항상 이점을 인정해 온 것은 아니다. 사실 우리가 열거한 예들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상황을 무시하는 일원적 모형에 대한 믿음으로 부터 상황이 중요하고 이러한 분석은 필수적이므로 인간행동을 이해하고자 할 때는 좀 더 복잡한 모형이 채택되어야 한다는 인식으로 발전하여 온 것을 알 수 있다. 다양한 계획이 이러한 목적에 따라 진행되어 왔다. (Bronfenbrenner, 1979; Minushin, 1985) 이들의 공통점은 아동은 고립된 존재가 아니라 그 아동이 처해있는 인적관계, 인간관계를 최초로 경험한 가족, 그 가족이 속해 있는 사회적 관계(친구, 친척, 이웃 등), 그러한 모든 사람들이 속해 있는 문화 등이 복합된 광범위한 체계의 한 통합된 부분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격리 경험에 대한 완전한 설명은 이러한 모든 면을 고려하여야 가능하다. 즉 자녀와 관계를 형성하는 능력이 부족한 어머니는 격리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고, 역으로 그러한 어머니의 상태는 전체적인 가족의 분위기와 결합에 의해서 영향받을 수도 있다. 또한 친척같은 가족외의 타인으로부터 받는 지지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얼마나 넓은 의미의 가족으로부터 후원의 행동이 나올 수 있는 지는 그 당시의 문화적 가치에 달려있다. 사실상 절대적으로

모든 것을 고려한다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만 어떤 수준에서 배제가 가능한 지를 결정하는 임의의 요소가 있다는 점은 인정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러므로 독자적으로 작용하여 모든 아동에게 획일적 영향을 미치는 ‘순수’경험은 없다. 아동들은 자신의 나이, 성별, 기질 등등에 따라 각기 다를 뿐만 아니라, 결과를 설명할 수 있는 배경요소들에 따라서 각 경험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머니가 직업을 갖는 것에 대한 아버지의 태도는 아동의 반응에 대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을 수 있다. 이 점이 어머니가 매일 집에 없다는 사실 자체보다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더 잘 설명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러한 경우에 어머니와 자식간에 무엇이 오고갔는 지만을 살피는 일은 중요한 요소를 놓지게 되는 것이라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다. 즉 보다 넓은 시각이 필요한 것이다.

○ 인간 본성은 가변적인 것이므로 다양한 조건들의 광범위한 범주하에서 만족스럽게 개발될 수 있다

이제 알아야 할 또 다른 교훈은 동시에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진전하고 잘 적응된 발달에 제약을 가하는 것은 없다는 사실이다. 이전에는 사건이란 특정한 나이에 특정한 조건아래 일어나야만 발달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고 생각했다. 다시 말해서 어느 아동이 적절한 때에 적절한 일을 겪지 못하거나, 적합하지 못한 가정에서 양육되었다면 불행해질 것이라고 생각해 왔다. 그러나 이제는 건강한 심리적 발달을 위해서는 이전에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많은 필요조건이 요구된다는 생각이 보편화되고 있다.

아동이 특정한 경험을 해야하는 결정적인 시기가 있다는 생각을 취해보자. 만일 그 당시에 그 경험을 하지 못하면 후에 다시는 이것을 만회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가 조사해 본 예는 아동의 최

초의 애정형성에 관한 것으로서, 이는 정상적으로 생후6개월에서 1년 정도 사이에 일어나는 발달과정이며 당시의 부모 역할자가 얼마나 유용한 사람이었는가에 의하여 생기는 것이다. 그러나 늦게 입양된 아동에 대한 연구에서 밝혀진 바와같이 이 시기에 부모의 보살핌을 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결정적 시기가 지나서도 감정적으로 '냉담한 상태'에 있는 아동인 경우에도 대인관계를 의미있게 형성할 수 있는 잠재능력에 반드시 영구적인 손상을 입었다고 할 수는 없다. 수 년이 지난 후에도 이 능력은 쇠퇴하지 않아서 적절한 조건만 주어지면 작용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에 아동이 겪은 상실의 경험은 다른 행동측면서 댓가를 치루어야 할 것이라는 말은 사실이다. 또한 그 한계는 무한히 확대될 수 없으며 어떤 단계에서(현재의 지식 수준으로는 정의할 수 없지만)는 회복이 불가능한 손상이 일어날 수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하나의 결정적 시기가 있고 그 때를 놓친 아동은 나중에 보충이 될 수 없다는 관념은 명백히 잘못 된 것이다.

같은 말이 아동 발달에 관한 다른 많은 측면에도 적용된다. 언어, 다양한 기계조작술, 교육적 능력의 시작이 보통 특정한 나이대에서 시작되지만, 장기적인 손실이 없어도 상당한 기간 지체되어 시정될 수도 있다. 또한 부모의 기능에 비추어 볼 때 모든 것이 특정한 시기에 일어나야 한다는 생각은 옳지 않다. 어머니와의 유대관계 문제에서 보았듯이 비록 신생아와 어머니사이의 최초의 몇 일간이라 하더라도 그 몇 일간에 한정되어 일어난 사건들에 의하여 결정적으로 어머니의 능력이 정해진다는 생각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생각이다. 반면에 인간 본성은 보다 신축성있게 문제를 조정하며, 부모-자식관계가 특정시점에 특별한 사건(또는 무사건)에 의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영향을 받지는 않으며 훨씬 많은 융통성이 인간 본성에 남아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가 많이 있다.

이러한 융통성은 다른 측면에서도 역시 볼 수 있다. 대부분의 아동이 친부모에 의해 키워지지만 그렇지 않은 아동이라도 그것 때문에 필연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있는 것은 아니다. 혈연적 유대가 성공적인 양육을 위한 필수 조건은 아니다. 또한 어머니보다 아버지가 기른 아동이 중요한 초기 경험의 요소를 놓치는 것도 아니다. 자녀 양육을 여성에게 한정시키려는 문화적 압력에도 불구하고 남자는 이 일을 아주 유능하게 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믿을만한 이유가 없다. 일반적으로 가족구성의 본질은 아동의 정신건강을 해치지 않는 여러 다양한 형태를 띌 수 있다. 여러 증거에 비추어 볼 때 잘못된 생각이다. 다양한 비-전통적가족 형태도 어린이가 필요로 하는 사랑과 안전을 완벽하게 충족시켜줄 수 있다. 따라서 만약 이러한 환경에서 자란 아동이 정서장애에 보다 쉽게 빠진다면 그 이유는 대개는 결손가정이 종종 겪는 재정적 곤란이나, 부부간의 역할 변경에 대한 사회적 불인정 등과 같은 외부적 요인에 있다. 특정한 가족구성의 성격은 이에 대해 거의 아무런 설명도 해 줄수 없다.

결정적 시기나 엄격한 부모의 역할 분담 등과 같은 개념은 본래 새끼를 기르는 시기가 아주 엄격하게 정해져 있는 동물들을 연구한 결과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나 상당한 정도 그러한 생물학적 ‘필요’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이 사람의 특성이다. 물론 아동의 건전한 심리적 발달을 보장하기 위하여 선행되어야 하는 필요조건도 있다. 그러나 그것들은 조화, 일관성, 애정, 강건함, 온후함과 민감성 등과 같은 특성과 관련된 대인관계 면에서 주로 나타난다. 이러한 필요조건을 충족시키는 환경은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를 띌 수 있고 또 현재의 사회적 관습에 맞지않는 형태도 포함하고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발달이 일어나는 시기와 조건에 관련한 상당한 정도의 융통성이 있다는 점이 어린시절의 기본적인 특성이라고 보여진다.

낙관적 결론

지금까지 살펴본 연구경향의 일반적인 흐름은 아동에 대해 보다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관점을 갖게 한다. 이것은 금세기 초 몇 십년간에 걸쳐 팽배해 있던 견해와 뚜렷한 대조를 보인다. 그 때는 박탈이나 정신적 충격의 희생자에 대해 주목해야 한다는 주장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다. 발달, 스트레스 그리고 스트레스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듯한 병리적 결과때문에 무언가 잘못될 것이라는 선입견이 있었다. 또한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할 결정적 시기가 있고 그 모든 것은 초기에 일어난 사건들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인간발달의 본성에 대한 고정관념적인 생각이 널리 퍼져 있었다. 즉 바람직한 자녀 양육은 몹시 협소한 가족환경의 범위내에서 그리고 어린이 보호의 ‘적당한’방법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주장이 있었다.

이제 희생자 뿐만 아니라 생존자도 있으며 통상적 시기에 특별한 경험을하지 못한 아동도 그 후에 보충이 가능하며, 광범위하고 다양한 가족환경 하에서도 건전한 발달이 가능하며, 자녀를 양육하는데는 ‘적당한’방법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스트레스를 주는 경험으로 인한 영향도 적당한 조치로 최소화할 수 있고 정신적 충격을 주는 각각의 사건도 해로운 결과를 낳지 않을 수도 있으며, 개인의 성격도 과거의 경험에 좌우되어 영원히 지배되지 않는다는 것도 알았다. 아울러 특정한 조건하에서의 스트레스는 오히려 유익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도 알았다.

결과적으로 아동 발달에 대해 덜 왜곡된 상이 부상되었다. 물론 상실, 무시, 학대에 관한 문제는 아동들이 어떤 생활환경에 의해서 극심하게 상처를 입을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러나 왜 같은 불행을 겪은 아동들 중에서도 어떤 어린이는

그것에 의해 상처를 입지 않았는지, 또 후에 어떻게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지에 관하여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한 것은 단지 최근의 일이다. 그리하여 아동의 회복력이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동시에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면 아동이 매우 심각한 불행의 결과를 극복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인식이 높아졌다. 또한 아동을 생활환경에 의하여 운명지워졌다고 여겨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퍼져가고 있다. 아동의 적응에도 한계가 있으며 이러한 사실은 인정받아야 한다. 그러나 적응할 수 있다는 사실은 남아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 Block, J., Block, J. H. and Gjerde, P. F. 1988 : Parental functioning and the home environment in families of divorce : prospective concurrent analyse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27, 207-13.
- Block, J. H., Block, J. and Morrison, A. 1981 : Parental agreement-disagreement on child rearing orientation and gender-related personality correlates in children. *Child Development*, 52, 965-74.
- Bowlby, J. 1951 : *Maternal Care and Mental Health*. Geneva : World Health Organization.
- Bronfenbrenner, U. 1979 : *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Cambridge, Mass. : Harvard University Press.
- Burke, J. D., Borus, J. F., Burns, B. J., Millsten, K. H. and Beasley, M. C. 1982 : Changes in children's behaviour after a natural disaster.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39, 1010-14.
- Chess, S., Thomas, A. and Birch, H. G. 1967 : Behaviour problems revisited : findings of an anterospective study.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Psychiatry*, 6, 321-31.
- de Mause, L. (ed.) 1974 : *The History of Childhood*. New York : Psychohistory Press.
- Dennis, W. 1973 : *Children of the Creche*. New York : Appleton-Century-Crofts.
- Dunn, J. and Kendrick, C. 1982 : *Siblings : love, envy and understanding*. Cambridge, Mass. : Harvard University Press.

- Emery, R. E. 1982 : Interpersonal conflict and the children of discord and divorce. *Psychological Bulletin*, 92, 310-30.
- Ernst, C. and Angst, J. 1983 : *Birth Order : its effects on personality*. New York : Springer.
- Fraiberg, S. 1977 : *Every Child's Birthright : in defence of mothering*. New York : Basic Books.
- Freeman, M. 1988 : Time to stop hitting our children. *Childright*, 51, 5-8.
- Glenn, N. D. and Kramer, K. B. 1985 : The psychological well-being of adult children of divorc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7, 905-12.
- Goldberg, S. and Marcovitch, S. 1986 : Nurturing under stress : the care of preterm infants and developmentally delayed preschoolers. In A. Fogel and F. G. Melson (eds), *Origins of Nurturance*. Hillsdale, New Jersey : Erlbaum.
- Goldstein, J., Freud, A. and Solnit, A. J. 1973 : *Beyond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New York : Free Press.
- Grosof, M. S. and Sardy, H. 1985 : *A Research Primer for the Social and Behavioral Sciences*. Orlando : Academic Press.
- Hardyment, C. 1983 : *Dream Babies : child care from Locke to Spock*. London : Jonathan Cape.
- Harvey, P. G. 1984 : Lead and children's health : recent research and future questions.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25, 517-22.
- Hess, R. D. 1970 : Social class and ethnic influences on socialization. In P. H. Mussen (ed.), *Carmichael's Manual of Child Psychology*, Vol. II, 3rd ed. New York : Wiley.
-

- Hetherington, E. M. 1987 : Family relations six years after divorce. In K. Pasley and M. Ihinger-Tollman (eds), *Remarriage and Stepparenting Today : current research and theory*. New York : Guilford.
- Hetherington, E. M. 1988 : Parents, children and siblings : six years after divorce. In R. A. Hinde and J. Stevenson-Hinde (eds), *Relationships within families : mutual influences*. Oxford : Clarendon Press.
- Hodges, J. and Tizard, B. 1989 : IQ and behavioural adjustment of exinstitutional adolescents.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30, 53-76.
- Kerlinger, F. N. 1986 : *Foundations of Behavioral Research*, 3rd edn. New York : Holt, Rinehart and Winston.
- Kessen, W. 1965 : *The Child*. New York : Wiley.
- Koluchova, J. 1976 : Severe deprivation in twins : a case study. In A. M. Clarke, and A. D. B. Clarke (eds), *Early Experience : myth and evidence* : London : Open Books.
- Lamb, M. E. (ed.) 1982 : *Non-Traditional Families : parenting and child development*. Hillsdale, New Jersey : Erlbaum.
- McCartney, K. 1984 : Effect of quality of daycare environment on children's language development. *Developmental Psychology*, 20, 244-60.
- McFarlane, A. C., Policansky, S. K. and Irwin, C. 1987 : A longitudinal study of the psychological morbidity in children due to a natural disaster. *Psychological Medicine*, 17, 727-38.
- Minushin, P. 1985 : Families and individual development : provocations from the field of family therapy. *Child Development*, 56,

289-302.

Mitchell, A. 1985 : *Children in the Middle*. London : Tavistock.

Phillips, D. McCartney, K. and Scarr, S. 1987 : Child care quality and children's social development. *Developmental Psychology*, 23, 537-43.

Quinton, D. and Rutter, M. 1988 : *Parental Breakdown : the making and breaking of intergenerational links*. Aldershot : Gower.

Rothbart, M. K. and Goldsmith, H. H. 1985 : Three approaches to the study of infant temperament. *Developmental Review*, 5, 237-60.

Rutter, M. L. 1979 : Maternal deprivation, 1972-1978 : new findings, new concepts, new approaches. *Child Development*, 50, 283-305.

Rutter, M. L. 1981 : *Maternal Deprivation Reassessed*, 2nd edn. Harmondsworth : Penguin.

Rutter, M. L. 1989 : Pathways from childhood to adult life.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30, 23-52.

Rutter, M. L. and Madge, N. 1976 : *Cycles of Disadvantage : a review of research*. London : Heinemann.

Sameroff, A. J. and Chandler, M. J. 1975 : Reproductive risk and the continuum of caretaking casualty. In F. D. Horowitz, M. Hetherington, S. Scarr-Salapatek, and G. Siegel (eds), *Review of Child Development Research*, Vol. 4. Chicago : University of Chicago Press.

Schaffer, H. R. 1977 : *Mothering*. London : Fontana ; Cambridge, Mass. : Harvard University Press.

Schaffer, H. R. 1984 : *The Child's Entry into a Social World*. Lon-

- don : Academic Press.
- Schaffer, H. R. and Collis, G. M. 1986 : Parental responsiveness and child behaviour. In W. Sluckin and M. Herbert (eds), *Parental Behaviour in Animals and Humans*. Oxford : Blackwell.
- Schaffer, H. R. and Emerson, P. E. 1964 : Patterns of response to physical contact in early human development.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5, 1-13.
- Shepherd, D. M. and Barraclough, B. M. 1976 : The aftermath of parental suicide for children.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29, 267-76.
- Starr, R. H. Jr. 1988 : Pre- and perinatal risk and physical abuse. *Journal of Reproductive and Infant Psychology*, 6, 125-38.
- Tangney, J. P. 1988 : Aspects of the family and children's television viewing content preferences. *Child Development*, 59, 1070-79.
- Thomas, A. and Chess, S. 1984 : Genesis and evolution of behavioural disorders : from infancy to early adult life.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41, 1-9.
- Tizard, B. 1977 : *Adoption : a second chance*. London : Open Books.
- Wald, M. 1976 : Legal policies affecting children : a lawyer's request for aid. *Child Development*, 47, 1-5.
- Weisner, T. S. and Gallimore, R. 1977 : My brother's keeper : child and sibling caretaking. *Current Anthropology*, 18, 169-90.
- West, M. O. and Prinz, R. J. 1987 : Parental alcoholism and childhood psychopathology. *Psychological Bulletin*, 102, 204-18.

